

I 2016년 문화관광축제 총평 1

II 2016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평가 9

- 1. 축제 현황 11
- 2. 축제 평가 16

III 지자체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종합 21

- 1. 개요 23
 - (1) 조사개요 • 23
 - (2) 축제 설문 • 24
- 2. 분석대상 및 평가항목 25
 - (1) 종합분석 대상축제 • 25
 - (2) 대상축제 유형 구분 • 26
 - (3) 평가항목 • 28
 - (4) 분석방법 • 29
- 3. 방문객 만족도 결과 종합 30
 - (1) 연도별 만족도 변화 • 30
 - (2) 항목별 만족도 • 31
 - (3) 축제 등급별 만족도 • 33
 - (4) 축제 유형별 만족도 • 38
 - (5) 축제별 만족도 비교 • 42
- 4. 방문객 소비지출 결과 종합 47
 - (1) 전제 • 47
 - (2) 연도별 소비지출 변화 • 47
 - (3) 항목별 소비지출 • 48
 - (4)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 49
 - (5)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 52
 - (6) 축제별 소비지출 비교 • 55
- 5. 외지관광객 비율 59
- 6.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60

서울특별시

1. 한성백제문화제 63

부산광역시

2. 부산 동래읍성역사축제 64
3. 부산 광안리어방축제 65

대구광역시

4.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66

인천광역시

5.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67

광주광역시

6. 추억의 7080 충장축제 68

대전광역시

7.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69

울산광역시

8. 울산 웅기축제 70

경기도

9.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71
10. 이천 쌀문화축제 72

11. 여주 오곡나루축제	73
12.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74

강 원 도

13. 화천 산천어축제	75
14. 평창 효석문화제	76
15. 춘천 국제마임축제	77
16.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78

충 청 북 도

17. 괴산 고추축제	79
-------------------	----

충 청 남 도

18. 강경 젓갈축제	80
19. 부여 서동연꽃축제	81
20. 한산 모시문화제	82
21.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83

전 라 북 도

22. 김제 지평선축제	84
23. 무주 반딧불축제	85
24. 순창 장류축제	86
25.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87
26. 고창 모양성제	88

전 라 남 도

27. 강진 청자축제	89
28.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90
29. 담양 대나무축제	91
30. 장흥 정남진장흥물축제	92

31. 보성 다향제, 녹차대축제	93
32. 목포 항구축제	94
33. 영암 왕인문화축제	95

경 상 북 도

34.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96
35.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97
36. 봉화 은어축제	98
37. 포항 국제불빛축제	99
38. 영덕 대게축제	100

경 상 남 도

39. 산청 한방약초축제	101
40. 통영 한산대첩축제	102
41.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103
42. 함양 산삼축제	104

제 주 도

43. 제주 들불축제	105
-------------------	-----

V

전문가 현장평가 축제별 결과

107

서울특별시

1. 한성백제문화제	110
------------------	-----

부산광역시

2. 부산 동래읍성역사축제	116
----------------------	-----

3. 부산 광안리어방축제	121
---------------------	-----

대구광역시

4.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127
------------------------	-----

인천광역시

5.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133
----------------------	-----

광주광역시

6. 추억의 7080 충장축제	141
------------------------	-----

대전광역시

7.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146
---------------------	-----

울산광역시

8. 울산 용기축제	150
------------------	-----

경기도

9.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155
10. 이천 쌀문화축제	160
11. 여주 오곡나루축제	167
12.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172

강원도

13. 화천 산천어축제	179
14. 평창 효석문화제	183
15. 춘천 국제마임축제	186
16.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191

충 청 북 도

17. 괴산 고추축제	197
-------------------	-----

충 청 남 도

18. 강경 젓갈축제	202
19. 부여 서동연꽃축제	208
20. 한산 모시문화제	213
21.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216

전 라 북 도

22. 김제 지평선축제	220
23. 무주 반딧불축제	224
24. 순창 장류축제	230
25.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235
26. 고창 모양성제	240

전 라 남 도

27. 강진 청자축제	245
28.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251
29. 담양 대나무축제	258
30. 장흥 정남진장흥물축제	264
31. 보성 다향제, 녹차대축제	268
32. 목포 항구축제	274
33. 영암 왕인문화축제	280

경 상 북 도

34. 문경 전통차사발축제	286
35.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291
36. 봉화 은어축제	295
37. 포항 국제불빛축제	300

38. 영덕 대게축제	305
-------------------	-----

경 상 남 도

39. 산청 한방약초축제	310
40. 통영 한산대첩축제	314
41.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322
42. 함양 산삼축제	327

제 주 도

43. 제주 들불축제	330
-------------------	-----

VI

축제별 이미지

337

1. 2016년 대표축제	339
2. 2016년 최우수축제	340
3. 2016년 우수축제	343
4. 2016년 유망축제	347

》》》》 2016 문화관광축제

2016년 문화관광축제 총평

I



2016 문화관광축제를 말한다

지진호 (건양대 교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전국의 대다수 지역에서는 축제를 지역차별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인식하여 팔릴 수 있는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축제에 참여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축제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게 되어야 축제가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2016년 문화관광축제 현장에서 확인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축제발전의 흐름을 이해하고, 2017년 문화관광 축제발전의 주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축제를 통한 지방의 국제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목적지는 서울과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몇몇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서울과 특정지역 중심의 외국인 문화관광 활동의 공간적 범위를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 것은 문화관광축제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CNN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겨울축제로 선정한 화천 산천어 축제는 이로 인해 세계 각 언론기관의 노출 효과와 여행사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모집 등에 의해 2016년 약 7만 4천명 이상이 화천을 방문하여 군사도시로 알려진 조그만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재즈 매니아들이 열광할 만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함으로써 가평은 국제적인 예술도시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에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축제의 특성상 야외공간에서 훌륭한 뮤지션들의 공연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 캠핑장 등과 연계하여 24시간 축제가 진행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외국의 젊은 뮤지션들의 선호하는 목적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인근 경기도 이천의 쌀문화 축제장을 찾는 발길이 잦아짐으로써 이 축제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 한국 전통농경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행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SNS홍보를 통해 처음으로 참가한 외국인관광객들이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몰입도가 높아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축제로의 발전전략을 구상한다든가(안성 바우덕이 축제), 국내 여자 씨름선수와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한판 대결인 ‘글로벌 씨름대회’와 같은 단위 프

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적극적 문화 전도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 축제도 있었다.(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김제 지평선축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축제의 위상에 걸맞는 축제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체계의 발전적인 기획안들을 내놓기도 하였다.



〈 참가 외국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외국인 씨름〉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서는 국화산업홍보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해외 바이어와의 협약식 체결과 국화수출 등의 성과를 내는가 하면, 필리핀, 중국, 유럽 등 해외 항구도시와의 네트워크를 추구함으로써 축제개최지의 국제도시로의 야심찬 도약을 시도하는 축제도 있었다(목포 해양문화축제). 또한, 일부의 외국인 관광객 선호 관광지에서 개최하는 축제에서는 자발적인 외국인 관광객 참여열기로 연결되기도 하였다(제주돌불축제).

2017년에는 작년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축제를 통한 지방의 국제화와 관광활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축제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어떤 방법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구축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야만 축제발전과 지방의 국제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축제 인프라 구축과 차별적인 축제 콘텐츠를 개발한 지역의 문화관광축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전담 자원봉사자 사전 교육과 서비스 강화, 각종 안전관리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외국인 관광객유치 대응전략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야간 프로그램의 강화

축제의 야간프로그램은 체류형 관광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몰입도가 강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여, 결국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즉, 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많은 축제

들이 매력적인 야간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6년 한해동안 개최되었던 문화관광축제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축제성과의 돋보인 점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화천산천어 축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광객이 몰려 성황을 이루어 국제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에는 추운 산골도시에 관광객들이 넘쳐흐르는 야간 관광활성화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축제개발 시에는 주간 중심 프로그램이나 야간 중심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화천산천어 축제는 두 가지 모두를 성공시킨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선등거리 및 이벤트, 세계 최대 실내(야간)얼음 조각광장, 연인들을 위한 야간 하트거리, 화천 조경철천문대 등은 추운 겨울밤을 녹인 격조 높은 야간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했다.

포항 불빛축제는 야간축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기획된 전형적인 야간프로그램 위주의 축제다. 그래서 불빛 무지개라는 주제 하에 개막불꽃 쇼, 하이라이트인 국제불꽃 쇼가 구성되었고, Daily 뮤직불꽃 쇼, 불빛 버스킹 페스티벌 등 주제행사와 뮤지컬 오브 라이트 등 공연행사, 불이나 빛과 관련된 다양한 야간 체험행사, 연계행사가 진행되어 관광객들의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었다.

광주 추억의 7080축제에서는 도심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게 하고, 인근 야시장 및 숙박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관광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남진 장흥물축제에서는 주간의 더위에는 물을 이용한 놀이퍼레이드인 살수대첩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면 기온이 내려간 야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EDM 파티를 운영함으로써 관광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 산천어축제 선등거리〉



〈포항 불빛축제〉

또한, 관광객들의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국악관현악단 공연, 무용단 공연, 차발 열린 음악회, 인문학콘서트, 빛 경관조형물 설치 등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한 보성 녹차대축제나 메인 프로그램인 오름 불농기를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토요일 오후에 편성한 제주 들불축제 등도 야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 축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간프로그램에 비해 주간프로그램의 차별성과 상품성이 부족해 주간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축제도 있었다.

3. 디테일 축제서비스

현대 축제의 마케팅 전략은 관광객 입장과 주최측 입장에서 공히 축제서비스 스케이프(service scape)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객 입장에서 축제서비스 스케이프는 축제에서 제공받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고, 주최측 입장에서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 요인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 스케이프 제공에 있어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디테일 서비스 전략이다. 즉, 오늘날에는 디테일한 서비스가 축제의 이미지를 격상시키기도 하고 브랜드화를 강화할 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스마트해진 현대 관광객들은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이 보고 느낀 세밀한 부분까지 SNS를 통해 전파하고 공유함으로써 그 축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디테일한 축제서비스는 오늘날 성공적인 축제 만들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 문화관광축제에서 디테일 축제서비스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는 점은 축제의 고품격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는 쉼터, 휠체어 대여, 자전거 주차장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축제장 전반에 설치하였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장터를 위해 푸드트럭 7대를 지역단체에서 맡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진청자축제에서는 더운 날씨를 고려하여 차광막 설치, 오색 우산그늘, 썬넷(그늘막) 설치, 냉방휴게시설, 평상쉼터 등 휴게·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객 만족도를 전보다 많이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무주 반딧불 축제에서는 쉼터, 포토존, 편의시설, 이동화장실, 홍보관, 종합안내,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수유실 설치, 주차장 확보와 관리 등 전반적으로 질 높은 축제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산대첩축제는 주요 프로그램이 먼 바다에서 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육지에서 설명해 주는 해설사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들의 축제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고창 모양성제에서는 축제장 주변에 충분한 이동 화장실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주변 건물 곳곳에 설치된 화장실을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한 점이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평창 효석문화제에서는 PC와 모바일로 홍보를 이원화 시켜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강화점도 눈길을 끌었다.



〈오색우산그늘〉



〈김제지평선 축제 모유수유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디테일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약자,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디테일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4.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한 노력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가 일시적인 문화행사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축제 재정자립도 향상 ② 민간주도형 축제를 위한 축제 전문가 육성 ③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축제컨텐츠 개발 ④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축제참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문화관광축제에서는 축제의 재정자립화와 민간주도형 축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활용 노력이 돋보였던 축제가 많았다.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서는 협찬 기업체 수와 금액을 전년도보다 늘렸으며, 축제장에 무료존과 유료존을 구분하여 유료존에서만 세계적인 수준의 뮤지션을 만나볼 수 있게 공간을 편성함으로써 축제운영에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도입하여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축제에서는 더 나아가 축제 자유이용권의 발행 및 판매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는 지역주민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축제 재정 자립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즉, 문경시와 문경 축제관광조직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축제 입장권 발매, 엽전(상품권 형태)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연축제의 경우에는 유료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다.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춘천 국제마임축제, 안성 바우덕이 상설실내공연장의 유료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점 설치, 체험부스의 유료화, 기업체 협찬 및 프로그램참여확대 등 축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많은 시도를 각 축제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 입장권 〉



〈안성바우덕이축제 공연〉

한편, 민간주도형 축제를 위한 축제 전문가 영입을 실시하고 있는 축제(강경 젓갈축제, 강진 청자축제, 목포해양문화축제 등)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축제 총감독 체제(문경차사발축제, 영덕 대게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등)를 통해 축제의 노하우 축적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축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가나 지역축제전문가가 주도하는 축제(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춘천 마임축제, 평창효석문화제 등)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평가

II



1

문화관광축제 현황

(1) 연도별 축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축제는 각 특별시·광역시에서 3개 이내, 각 광역도에서 8개 이내의 축제를 추천하면 관광·축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 등 콘텐츠, 축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표 1〉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개수	10	18	21	25	30	29	30	37	45	52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개수	52	56	57	44	44	45	42	40	44	43

(2) 2016년 축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문화관광축제로 43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대표 축제 3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3개임
- 문화관광축제는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한 등급에서 3회 이상 선정된 축제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축제 일몰제의 문제점(지원이 중단된 축제의 쇠퇴, 문화관광축제 브랜드 가치 하락, 경쟁력 있는 우수 축제 상실 등)을 개선하였으며, 2016년에는 관광 상품성이 큰 신규 축제 7개를 새롭게 발굴·선정함
- 또한, 2015년부터는 명예대표축제(대표축제를 졸업한 축제)를 글로벌육성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6년 글로벌육성축제(3개) : 보령머드축제, 안동탈춤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 2016년 축제 평가지표는 2015년도 평가지표와 동일하게 축제의 콘텐츠 차별성과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선정된 축제에는 등급별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대표축제 4.5억원, 최우수축제 2.2억원, 우수축제 1.5억원, 유망축제 0.84억원)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종합적인 해외홍보와 마케팅 등을 지원함

〈표 2〉 2016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서울 (1)	유망	한성백제문화제	10.6~10.9	올림픽공원, 석촌동고분군 등	• 한성백제체험마을, 역사문화거리 행렬, 한성백제 혼불채화식 등
부산 (2)	유망	동래읍성역사축제	10.7~10.9	동래문화회관, 읍성광장, 온천장 일원	• 동래부사행차길놀이, 동래성전투 실경뮤지컬, 동래세가다줄다리기 등
	유망	광안리어방축제	4.22~4.24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	• 그물끌기 한마당, 어방민속마을, 경상좌수사행렬 등
대구 (1)	유망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5.4~5.8	대구중구 약령시 일원	• 고유제, 2016 정성당 나누기, 한약 방체험, 스템프 골목투어 등
인천 (1)	유망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8.12~8.14	달빛축제공원, 인천내 원도심, 지역 라이브클럽 등	• 펜타포트 스테이지, 드림 스테이 지, 플레이그라운드, 푸드존, 텐트 캠핑존 등
광주 (1)	최우수	추억의7080 충장축제	9.29~10.3	국립아시아문화전 당, 충장로, 금남로 등	• 추억의 테마거리, 추억의 고고장, 충장미래공작소, 거리퍼레이드 등
대전 (1)	유망	대전효문화뿌리 축제	9.23~9.25	「효! 월드」 뿌리공원 및 원도심 일원	• 문중 퍼레이드, 전국 청소년 동아 리 경진대회, 해외민속공연, 수상 창극 등
울산 (1)	유망	울산웅기축제	5.5~5.8	외고산 웅기마을 일원	• 스토리액터, 민속놀이, 이글루 만 들기, 미꾸라지 잡기, 웅기 웰빙 소 품 전시 등
경기 (4)	최우수	이천쌀문화축제	10.19~10.23	이천시 설봉공원	• 농심품년큰잔치, 거북놀이, 마당극 이천쌀 스토리, 설봉미술대회 등
	대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10.1~10.3	자라섬 및 가평읍내 일원	• 재즈 아일랜드, 파티스테이지, 미 드나잇 재즈카페, 웰컴포스트 등
	유망	여주오곡나루축제	10.28~10.30	여주 신록사 관광지 일원	• 옛날나루터 정취재연 동물농장, 마 당극, 마차타고 고구마 캐기, 동물 경주장 등
	유망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9.29~10.3	안성맞춤랜드, 안성시내일원	• 안성바우덕이 남사당공연, 지역별 전통전승연희, 어름살이체험 등
강원 (4)	대표	얼음나라화천 산천어 축제	1.9~1.31	화천군 화천읍 및 3개면 일원	• 얼음낚시, 맨손잡기, 산천어 밤낚 시, 눈썰매, 봅슬레이, 얼굴이싱, 점등식 등

〈표 계속〉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강원 (4)	우수	평창효석문화제	9.2~9.11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음악교실, 소설 속 인물체험, 영화 상영, 메밀꽃 포토존, 빛 분수 등
	유망	춘천국제마임축제	5.26~5.29	KT&G상상마당 춘천, 중앙로, 수변공원	• 거리광대극, 제천공무, 다미르쇼, 몸짓그룹 몸꾼, 마임페스티벌 등
	유망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9.6~9.11	따뚜공연장, 젊음의 광장, 원일로 등	• 댄스 경연, 마임, 버스킹, 뮤지컬, 농악대축전, 그림자극, 관현악 및 한국무용 공연 등
충북 (1)	유망	괴산고추축제	9.1~9.4	괴산군청 앞 광장	• 세계고추 전시회, 괴산고추품평 회, 고추판매장터, 전야제, 임꺽정 주막운영 등
충남 (4)	우수	강경젓갈축제	10.12~10.16	젓갈공원, 젓갈시장, 젓갈전시관, 옥녀봉 일원	• 마당극, 젓갈페레이드, 젓갈김치 담그기, 젓갈 페이스 페인팅 및 네일아트, 강경 발효체험 등
	우수	부여서동연꽃축제	7.8~7.17	부여서동공원 일원	• 개막주제공연, 서동요 전국 창작 동요 부르기대회, 서동선화 나이 트 페레이드 등
	유망	서산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10.7~10.9	충남 서산시 해미읍성 일원	• 고유제,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 재현, 보부상 체험, 패랭이 제작 체험, 서산벚가릿대농악, 지점놀이 등
	유망	한산모시문화제	6.3~6.6	서천군 한산면 모시문화원 일원	• 패션쇼, 저산팔읍 길쌈놀이, 모시 경매, 한산 모시짜기 전국경연대 회 등
전북 (5)	대표	김제지평선축제	9.29~10.3	전북 김제시 일원	• 김제 벽골제 야행, 가족대항 초가 집 만들기, 풍년 기원 입석 줄다 리기, 쌍룡놀이 등
	최우수	무주반딧불축제	8.27~9.4	무주군 일원	• 반딧불체험 등 환경 곤충체험행 사, 문화 예술 놀이 행사, 민속체 험 등
	우수	순창장류축제	10.13~10.16	순창전통고추장민 속마을	• 순창 5대명창 추모공연, 순창전통 장류 상설체험장, 메주먹은 장어 잡기 등
	유망	완주와일드푸드축 제	9.23~9.25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 상상마칭밴드 페레이드, 와일드쿠 킹쇼,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리틀 와푸족체험 등

〈표 계속〉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전북 (5)	유망	고창모양성제	10.5~10.9	모양성(고창읍성) 및 시가지 일원	• 개막 출정 퍼레이드, 답성놀이 재현, 수문장 교대식, 전통타악 퍼포먼스, 거리공연, 전국 모양성 사진대회 등
전남 (7)	최우수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4.7~4.10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 신비의 바닷길 체험, 새벽 바닷길 햇불 퍼레이드, 뽕할머니 소망띠 잇기, 영등상 놀이, 진돗개 체험 등
	최우수	강진청자축제	7.30~8.7	강진군 청자촌	• 청자야 반갑다, 한중 도자기 교류전,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 고려청자 머그컵 낚시 체험, 청자축제 캐릭터 만들기 등
	우수	담양대나무축제	5.3~5.8	죽녹원(죽녹원 한옥체험장), 관방제림 일원	• 죽물시장 가는 길, 가마솥 대통밥 체험, 죽신제, 건강 竹竹걷기 대회, 대나무 활쏘기, 담양 별빛여행 등
	우수	정남진장흥물축제	7.29~8.4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익스트림 출발 드림팀, 우든보트 등
	유망	목포항구축제 (구. 해양문화축제)	7.29~8.2	목포항, 삼학도일원	• 풍어 길놀이 “목포는 항구다”, 사랑의 다리, 추억의 목포항 파시거리, 목포항치맥페스티벌 등
	유망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	5.4~5.8	전남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 및 보성차밭 일원	• 다신제, 전국학생차예절경연, 티아트페스티벌, 차만들기, 찻잎따기, 녹차시음, 녹차음식만들기 등
	유망	영암왕인문화축제	4.7~4.10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역사공원, 도기박물관 등	• 열쑈's 난장한마당, 구립의 밤, 낭주골 어울마당, 왕인 트릭아트 역사여행 등
경북 (5)	최우수	문경전통찻사발 축제	4.30~5.8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 사기장일 들려주는 찻사발이야기, 찻사발빔기, 찻사발그림그리기, 망명이가마불지피기, 등
	우수	봉화은어축제	7.30~8.6	봉화읍 체육공원, 내성천	• 은어반두잡이, 은어맨손잡이, 은어구이체험, 물장난, 은어종이배경주, 수박서리 및 삼꽃구이 체험 등

〈표 계속〉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경북 (5)	유망	포항국제불빛축제	7.28~7.31	영일대해수욕장, 형산강체육공원 일대	• 개막 불빛쇼, Daily 뮤직불꽃쇼, 국제불꽃쇼, 포항프린지한마당, 불빛버스킹페스티벌 등
	우수	영덕대게축제	3.31~4.3	영덕군 강구항 일원	• 영덕대게 마당극, 어린이 뮤지컬, 영덕대게 달리기, 황금영덕대게 낚시, 영덕대세 나이트쇼, 영덕대 게 포차 등
	유망	고령대가야체험 축제	4.7 ~ 4.10	대가야역사테마관 광지, 대가야읍 일원	• 퍼레이드 ‘대가야의 진군’, 대가 야활만들기체험, 대가야금동관제 작체험, 대가야목공예체험, 대가 야유물발굴체험 등
경남 (4)	최우수	산청한방약초축제	9.30~10.10	동의보감촌, 정광들 일원	• 산청혜민서 무료진료, 동의보감 전시, 약초생태 전시, 한방기체험 장, 어린이 한방체험, 한방약초테 마공원 등
	우수	통영한산대첩축제	8.11~8.15	병선마당 및 통제영, 이순신공원 등 통영시 일원	• 이순신장군 행렬 재현, 거북선 출 정식, 이순신장군 전통무예시연, 통제영 수책 건너기
	유망	마산가고파국화축제	10.28~11.7	마산항 제1부두 일원	• 합포만 멀티미디어 불꽃쇼, 국향 콘서트, 고성오광대, 국화가요제, 국화 꽃그림 그리기 대회, 국화주 시음 등
	유망	함양산삼축제	7.29~8.2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 일원	• 황금 산삼을 찾아라, 함양 산삼 캐기 체험, 심마니 역사문화 체험 장, 함양 산삼 경매 이벤트 등
제주 (1)	우수	제주들불축제	3.3~3.6	제주시 일원(주행사장 :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	• 봄엽! 희망충전 문화예술한마당, 샘! 샘! 샘! 콘서트, 들불 희망기원 제, 집줄놓기 경연, 희망 “달집” 만들기 경연대회 등

2

문화관광축제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
-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문화관광축제의 질적 제고

■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16. 1월 ~ 12월
- 평가대상 : 2016년 문화관광축제 43개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3개	7개	10개	23개

- 평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평가내용 : 전문가 현장평가, 소비자 온라인평가, 지자체 자체성과평가
 - 전문가 현장평가
 - 전문가 평가단(민간전문가 18인) 중 각 축제별로 민간전문가(2인), 문화체육관광부(1인) 등 총 3명으로 구성
 - 축제 기획서 사전평가(5점),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40점), 축제운영의 적절성(30점), 축제의 발전성(15점), 축제의 성과(10점)
 - 소비자 온라인평가
 - 축제 참가 소비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지자체 성과평가
 - 방문객 만족도 조사 및 경제효과(직접 효과) 분석, 방문객 수 집계

■ 추진 경위

- 평가위원 위촉('16. 1월) 및 제1차 평가위원회 개최(' 16.2월)
- 축제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1차: '16.1.29./서울, 2차: ' 16.3.4./세종)
- 문화관광축제 평가 실시('16.1~11월) 및 결과 보고(' 16.11월)

(2) 2016년 평가 내용

■ 추진방향

- 문화관광축제의 등급별 고착화를 완화하고, 신규축제 진입 활성화
 - 축제 등급별 기준점수 폭 확대, 일정점수 이하 축제는 퇴출
- 축제전문가 중심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문화관광축제 질 제고
 - 전년도 평가결과 보고서를 각 지자체에 통보, 축제개선에 반영 및 문화관광축제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
 - 지자체의 자체성과 평가결과를 문화관광축제 선정 시 반영
- 각 축제별 소재와 자원을 특화한 주제프로그램을 중점 평가
 - 축제 주제 프로그램의 완성도, 타 축제와의 차별성 등 축제콘텐츠 평가에 중점
 - ※ 축제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 대중연예인 참여 등 과도한 행사는 감점
- 축제운영의 효율성, 편의성 및 안전성 등 평가

■ 전문가 현장평가 세부내용

- 평가대상 축제 배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위원 활동상황 등을 고려(상피제 적용)하여 평가대상축제 배정 (상반기/하반기 구분)
- 평가방법
 - 축제 기간 중 2~3일(토요일 또는 일요일 포함)동안 축제장에 체류하며 축제의 핵심프로그램 반드시 평가
 - 평가위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여 평가하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관광객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는 주심 평가위원이 주도적으로 작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축제계획서, 축제 방문객 집계 계획서 및 2015년 현장평가보고서를 축제 개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송부
 - 평가위원은 각 축제별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평가점수표, 주심평가위원은 평가점수표와 평가보고서를 문체부로 제출
 - 평가위원은 점수부여 시 등급별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

현재 등급	상	중	하
대표/최우수축제	93 ~ 100점	85 ~ 92점	70 ~ 84점
우수축제	88 ~ 95점	80 ~ 87점	65 ~ 79점
유망축제	83 ~ 90점	75 ~ 82점	60 ~ 74점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3인)의 평균점수 산정
 -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점 및 최하점의 편차가 10점 이상일 경우, 평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최하점과 최고점과의 편차를 10점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지자체 자체성과평가 세부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방문객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별 설문조사 시 공통적으로 조사할 설문항목은 반드시 포함
축제 경제효과 (직접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지역 외 주민의 총 지출액을 구분하여 직접 경제효과 분석(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미인정)
축제 방문객 수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주관기관에서 조사하되, 최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방문객 집계 지침에 따라 산출

(3) 2016년 문화관광축제 평가대상

등급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서울(1)				한성백제문화제
부산(2)				동래읍성역사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대구(1)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1)				인천펜타포트축제
광주(1)		추억의7080충장축제		
대전(1)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울산(1)				울산옹기축제*
경기(4)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이천쌀문화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강원(4)	화천산천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춘천국제마임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충북(1)				괴산고추축제
충남(4)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전북(5)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고창모양성제*
전남(7)		강진청자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정남진장홍물축제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 목포해양문화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경북(5)		문경찾사발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불빛축제 영덕대게축제*
경남(4)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함양산삼축제*
제주(1)			제주들불축제	
계(43)	3개	7개	10개	23개

주 : *는 신규 축제

(4) 평가결과 활용

- 2017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자료로 활용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는 선정 시 40%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의 소비자 모니터링 결과는 선정 시 10% 반영
 - 지자체의 자체성과평가 결과는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여부 등)
- 축제별 현장평가 및 시·도별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보고서 발간
- 축제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자체 개선실적을 축제 평가 및 선정 시 반영

지자체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종합

III



1

개 요

(1) 조사개요

■ 목 적

- 과학적인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2016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소비지출 규모를 조사하여 해당 축제를 진단한 후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 발전을 도모함
- 축제별로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및 분석 실시

■ 조사방법

- 조사주체 : 축제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 조사시기 : 축제 전체기간(토·일요일 포함)
- 조사대상 : 지역주민과 외지관광객(타 지역거주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 조사항목 : 총 23개 항목
- 유효표본 : 각 대상축제별 200명 이상
- 응답방법 : 7단계 측정(매우 그렇다~전혀 아니다)
- ※ 7단계 측정을 임의로 구성하거나 항목을 생략할 경우 '0' 점 처리

■ 세부 설문내용

구분	항목 수	주요 내용
방문객 만족도	10개	• 축제의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사전홍보 등
방문객 비용지출	6개	•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등
기타 일반사항	7개	• 방문목적, 체류기간, 숙박여부, 재방문 등

■ 조사 및 분석 시 주의사항

- 설문기간은 축제 전체기간에 걸쳐 같은 비율로 설문지를 받아야 하고 무작위적이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표본 추출
- 설문에 응한 방문객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게 된 주된 동기가 축제를 보러온 경우가 아니면 설문조사분석 대상에서 제외

(2) 축제 설문



문화체육관광부

안녕하세요? 당 축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변 및 정보는 통계 분석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I.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축제가 재미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축제 관련 프로그램이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축제 관련 먹거리가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축제 관련 살거리가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축제 관련 사전 홍보가 잘 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축제장 내 안내·해설이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7.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 됐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8. 축제장 시설이 안전해 보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9. 축제장의 접근성 및 주차장이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10.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방문을 유도하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II. 소비지출	아래 금액은 본인 포함하여 (명)이 지출한 총액입니다.	
교 통 비	_____ 원	주유비, 주차료,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등
숙 박 비	_____ 원	민박, 호텔, 모텔, 펜션, 콘도 등
식음료비	_____ 원	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음식값, 음료비
유 흥 비	_____ 원	축제장 밖에서 지출한 관람료, 노래방, 술값 등
쇼 핑 비	_____ 원	축제 기념품, 농특산물 구입비 등
기 타	_____ 원	체험비, 입장료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비용

III. 일반사항			
성 별	남 <input type="checkbox"/> 녀 <input type="checkbox"/>	연 령	_____ 세
방문목적	축제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왔다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체류기간	지금까지 축제장에 머문 시간 (시간 포함하여 시간)		
숙박여부	당일 <input type="checkbox"/> 1박 2일 <input type="checkbox"/> 2박 3일 <input type="checkbox"/> 3박 4일 <input type="checkbox"/>		
재 방 문	올해 첫 방문 <input type="checkbox"/> 이전에도 방문했음 (총 _____ 회)		
거 주 지	지역주민 <input type="checkbox"/> 외지인일 경우 (_____ 시·도 _____ 시·군)		

2

분석대상 및 평가항목

(1) 종합분석 대상축제

- 종합분석은 크게 방문객 만족도와 방문객 소비지출로 구분되며, 이 중 방문객 만족도는 42개 축제, 방문객 소비지출은 43개 축제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함
- 방문객 만족도 분석 대상 : 42개
 -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공통평가항목(방문객 만족도)을 적용하지 않아 방문객 만족도 분석대상에서 제외
- 방문객 소비지출 분석 대상 : 43개
 - 2016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43개 축제 모두 분석에 반영함

만족도 (42개)	소비지출 (43개)
<p>동래읍성역사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펜타포트축제, 추억의 7080충장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울산웅기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이천쌀문화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춘천국제마임축제, 괴산고추축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고창모양성제, 강진청자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정남진장홍물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목포해양문화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문경차사발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불빛축제, 영덕대게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함양산삼축제, 제주들불축제</p>	<p>한성백제문화제, 동래읍성역사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펜타포트축제, 추억의 7080충장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울산웅기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이천쌀문화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춘천국제마임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괴산고추축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고창모양성제, 강진청자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정남진장홍물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목포해양문화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문경차사발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불빛축제, 영덕대게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함양산삼축제, 제주들불축제</p>

(2) 대상축제 유형 구분

- 전체 축제를 2016년 지역축제 총괄표의 축제종류에 따라 전통역사, 문화예술, 지역특산물, 생태자연, 주민화합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6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43개의 축제의 경우 주민화합에 해당되는 축제가 없어 주민화합을 제외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전통역사축제에는 한성백제문화제, 동래읍성역사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대구약령시한방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울산웅기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고창모양성제, 목포항구축제, 문경찾사발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제주들불축제 등 14개 축제가 해당됨
- 문화예술축제에는 인천펜타포트축제, 추억의7080충장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춘천국제마임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부여서동연꽃축제, 강진청자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포항불빛축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등 13개 축제가 해당됨
- 지역특산물축제에는 이천쌀문화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괴산고추축제,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영덕대게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함양산삼축제 등 12개 축제가 해당됨
- 생태자연축제에는 무주반딧불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정남진장홍물축제, 봉화은어축제 등 4개 축제가 해당됨
- 설문지는 각 축제별로 200매 이상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는데, 최소 214매부터 최대 1,200매를 회수함

축제명칭	유효표본(매)	유형	축제명칭	유효표본(매)	유형
강경젓갈	234	지역특산물	여주오곡	254	지역특산물
강진청자	325	문화예술	영덕대게	393	지역특산물
고령대가야	319	전통역사	영암왕인	493	문화예술
고창모양성제	220	전통역사	완주푸드	220	지역특산물
광안리어방	360	전통역사	울산옹기	235	전통역사
광주충장	239	문화예술	원주댄싱	262	문화예술
괴산고추	319	지역특산물	이천쌀	223	지역특산물
김제지평선	216	전통역사	인천펜타포트	781	문화예술
담양대나무	421	지역특산물	자라섬재즈	434	문화예술
대구약령시	355	전통역사	장흥물	525	생태자연
대전효문화	463	전통역사	제주들불	406	전통역사
동래읍성	306	전통역사	진도바닷길	451	생태자연
마산국화	514	문화예술	춘천마임	428	문화예술
목포항구	406	전통역사	통영한산	339	전통역사
무주반딧불	386	생태자연	평창효석	261	문화예술
문경찾사발	577	전통역사	포항불빛	382	문화예술
보성다향	452	지역특산물	한산모시	220	지역특산물
봉화은어	394	생태자연	한성백제	247	전통역사
부여서동	214	문화예술	함양산삼	442	지역특산물
산청한방	260	지역특산물	해미읍성	242	전통역사
순창장류	220	지역특산물	화천산천어	1,200	문화예술
안성남사당	294	문화예술			

(3) 평가항목

- 축제방문객들의 만족도와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전체 평균값과 대비시켜 각 축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함
- 2016년에는 만족도 평가항목 10개, 소비지출 평가항목 6개의 2015년에 사용한 측정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만족도의 경우 7단계 측정(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을 적용하여 분석함

구 분	설 문 내 용
만족도	1 이 축제가 재미있다
	2 축제 관련 프로그램이 좋다
	3 축제 관련 먹거리가 좋다
	4 축제 관련 살거리가 좋다
	5 축제 관련 사전 홍보가 잘 되었다
	6 축제장 내 안내·해설이 좋다
	7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 됐다
	8 축제장 시설이 안전해 보였다
	9 축제장의 접근성 및 주차장이 좋다
	10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방문을 유도하겠다
소비지출	교통비(주유비, 주차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등)
	숙박비(민박, 호텔, 모텔, 펜션, 콘도 등)
	식음료비(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음식값, 음료비)
	유흥비(축제장 밖에서 지출한 관람료, 노래방, 술값 등)
	쇼핑비(축제 기념품, 농특산물 구입비 등)
	기타(체험비, 입장료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비용)

(4) 분석방법

- 방문객 만족도는 연도별 만족도, 세부항목별 만족도, 축제 등급별 만족도, 축제 유형별 만족도, 축제별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함
- 연도별 만족도의 경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관광축제 전체에 대한 평균만족도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10개의 만족도 측정항목이 동일하게 측정된 2015년도와 2016년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함
- 축제 등급별 만족도는 문화관광축제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2015년도와 2016년도 등급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각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등급 간 비교를 실시함
- 축제 유형별 만족도는 지역축제 총괄표의 축제종류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및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축제 유형별 비교분석을 실시함
- 축제별 만족도는 2016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43개의 축제 중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을 제외한 42개 축제 각각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함
- 방문객 소비지출은 연도별 소비지출, 항목별 소비지출,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축제별 소비지출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함
- 연도별 소비지출의 경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으며, 항목별 소비지출은 6개의 소비지출 항목 중 교통비를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해 최근 3년 평균 소비지출과 2016년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함
-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은 문화관광축제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은 지역축제 총괄표의 축제종류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축제유형에 따른 항목별 소비지출을 비교함
- 축제별 소비지출은 2016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43개의 축제 전체를 대상으로 항목별 소비지출과 전체 소비지출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함

3

방문객 만족도 결과 종합

(1) 연도별 만족도 변화

○ 2016년 만족도 평가는 5.23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함

- 평가항목은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 살거리, 축제 먹거리, 축제 사전홍보, 축제장 안내·해설, 지역문화 이해, 축제장 시설안전, 접근성,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등의 10개로, 2015년 만족도 5.16점보다 개선된 5.2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축제만족도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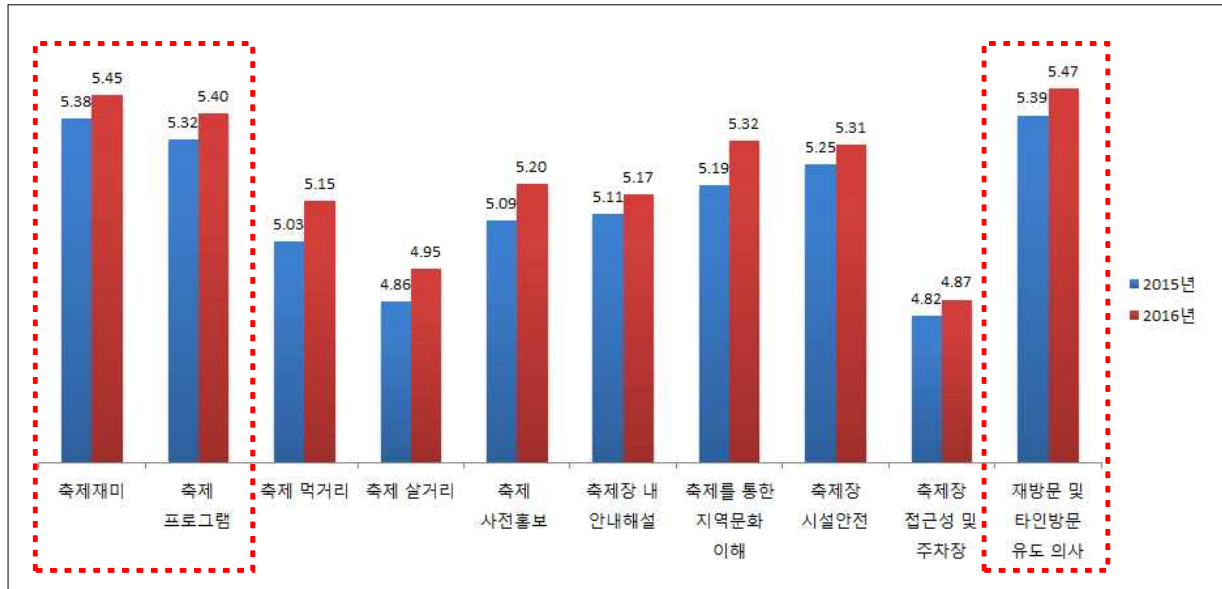
항목	년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2016	년도	항목
전체만족도 평 균 값		4.67	4.70	4.71	4.69	4.68	4.70	4.71	4.78	4.69	4.76	4.84	4.87	5.16	5.23		전체만족도 평 균 값
행사다양		5.00	4.98	5.01	4.96	4.96	4.99	4.97	5.07	4.97	5.03	5.15	5.08	5.38	5.45		축제재미
행사재미		5.04	5.00	4.99	4.95	4.98	4.98	4.92	5.07	4.97	5.04	5.15	5.09				
체험프로		4.85	4.83	4.94	4.87	4.87	4.89	4.92	4.95	4.83	4.93	5.02	4.96				
상품다양		4.37	4.41	4.38	4.37	4.34	4.42	4.46	4.50	4.48	4.54	4.58	4.73	4.86	4.95		축제 살거리
상품품질		4.43	4.50	4.50	4.47	4.46	4.50	4.53	4.54	4.52	4.59	4.61	4.75				
상품가격		4.24	4.31	4.30	4.27	4.25	4.31	4.37	4.36	4.35	4.41	4.45	4.60				
음식다양		4.38	4.51	4.41	4.41	4.34	4.39	4.44	4.45	4.42	4.46	4.57	4.69	5.03	5.15		축제 먹거리
음식가격		4.16	4.22	4.26	4.28	4.19	4.24	4.32	4.33	4.30	4.35	4.45	4.57				
사전홍보		4.62	4.68	4.75	4.76	4.84	4.81	4.77	4.87	4.73	4.84	4.92	4.74	5.09	5.20		사전홍보
안내시설		4.72	4.77	4.84	4.85	4.86	4.85	4.89	4.95	4.87	4.93	5.03	4.90	5.11	5.17		안내해설
안내책자		4.88	4.93	4.95	4.93	4.95	5.00	4.98	5.07	4.99	5.00	5.11	5.01				
요원친절		4.91	4.95	4.98	4.98	5.00	5.02	5.02	5.05	4.98	5.01	5.12	5.26	-	-		-
신속대응		-	-	-	-	-	-	-	-	-	-	-	5.11	-	-		-
접근용이		5.51	5.44	5.44	5.32	5.36	5.35	5.25	5.42	5.26	5.26	5.35	5.35	4.82	4.87		접근성 및 주차장
주차편리		4.23	4.21	4.31	4.33	4.30	4.28	4.30	4.40	4.25	4.42	4.43	4.62				
휴식공간		4.45	4.40	4.41	4.46	4.44	4.35	4.51	4.55	4.48	4.59	4.65	4.71	-	-		-
화 장 실		4.59	4.70	4.64	4.66	4.62	4.64	4.67	4.73	4.57	4.66	4.71	4.79	-	-		-
공간배치		-	-	-	-	-	-	-	-	-	-	-	4.95	-	-		-
문화이해		4.93	5.04	4.94	4.88	4.85	4.85	4.81	4.92	4.82	4.89	4.98	4.99	5.19	5.32		문화이해
시설안전		-	-	-	-	-	-	-	-	-	-	-	5.06	5.25	5.31		시설안전
절대만족		-	-	-	-	-	-	-	-	-	-	-	5.00	-	-		-
상대만족		-	-	-	-	-	-	-	-	-	-	-	5.01	-	-		-
감정만족		-	-	-	-	-	-	-	-	-	-	-	5.07	-	-		-
계속참여		-	-	-	-	-	-	-	-	-	-	-	5.27	5.39	5.47		재방문 및 추천의향
추천의향		-	-	-	-	-	-	-	-	-	-	-	5.34				

(2) 항목별 만족도

■ 항목별 만족도

- 2016년 만족도 중 가장 높은 항목은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로 5.47점(7.0만점)을 기록함
 - 그 다음으로 「축제 재미」 5.45점, 「축제 프로그램」 5.40점, 「지역문화 이해」 5.32점, 「시설 안전」 5.3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가장 낮은 항목은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으로 4.87점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 「살거리」 4.95점, 「먹거리」 5.15점, 「안내해설」 5.17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이 5.47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인 축제 방문 및 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분석됨
- 축제 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 재미」와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가 각각 5.45, 5.40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관광축제가 방문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으로 판단됨
- 또한 방문객 만족도에 대한 모든 항목이 2015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 2015년도에 비해 가장 많이 향상된 항목은 「지역문화 이해」(+0.13점)로 분석되었으며, 「축제 먹거리」(+0.12점), 「축제 사전홍보」(+0.11점), 「축제 살거리」(+0.0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2015년도 만족도 수준이 낮았던 항목들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접근성 및 주차장」 관련 항목은 만족도 수준이 계속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부문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줌

연도 \ 항목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 먹거리	축제 살거리	축제 사전홍보	축제장 안내해설	지역 문화이해	시설 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2015년	5.38	5.32	5.03	4.86	5.09	5.11	5.19	5.25	4.82	5.39
2016년	5.45	5.40	5.15	4.95	5.20	5.17	5.32	5.31	4.87	5.47



[문화관광축제 항목별 만족도 비교]

(3) 축제 등급별 만족도

- 2016년도 문화관광축제는 대표축제 3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3개를 선정하여 지원·추진함
-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부합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대표축제 2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2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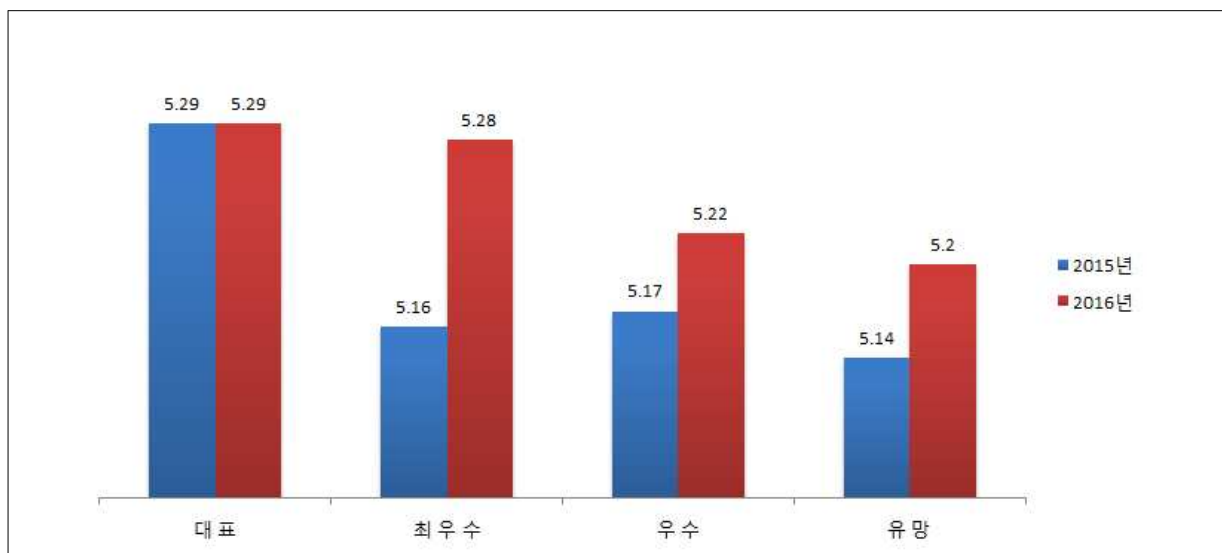
■ 대표축제가 가장 높은 만족도 보임

- 등급별 만족도 평균에서는 대표축제 5.29점, 최우수축제 5.28점, 우수축제 5.22점, 유망축제 5.20점 순으로 나타나 대표축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등급이 상향될수록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상위등급의 축제일수록 축제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전반적인 축제에 대한 방문객의 평가가 긍정적임을 유추해볼 수 있음

■ 전년대비 등급별 만족도 향상

- 2015년에는 대표축제 5.29점, 최우수 5.16점, 우수축제 5.17점, 유망축제 5.14점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등급별 만족도는 대표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서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연도 \ 등급	대 표	최 우 수	우 수	유 망
2015년	5.29	5.16	5.17	5.14
2016년	5.29	5.28	5.22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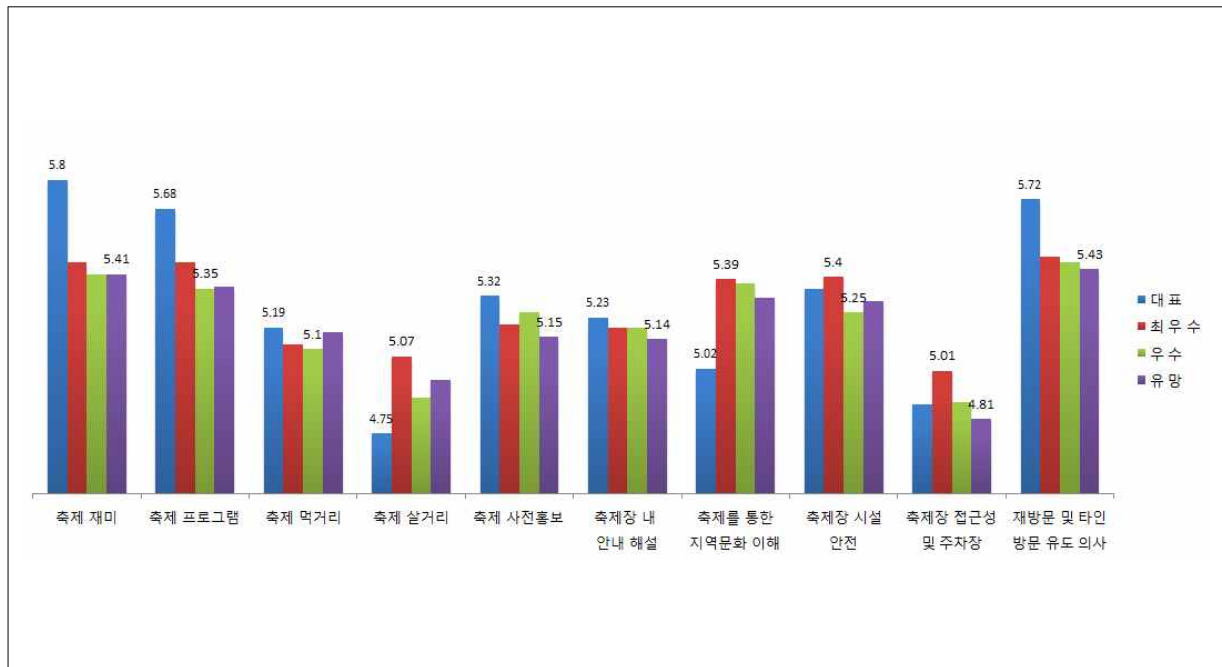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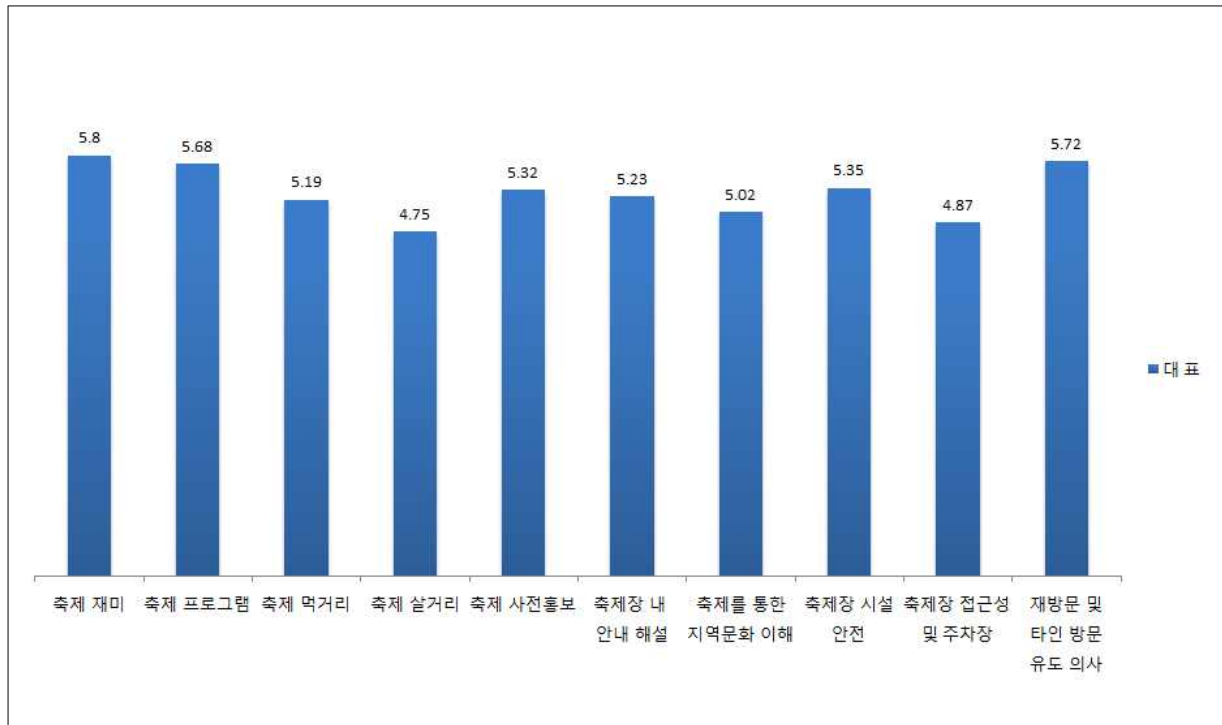
■ 등급별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 대표축제의 경우에는 「축제 재미」가 5.80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최우수축제와 우수축제 및 유망축제는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가 각각 5.48점, 5.46점, 5.43점으로 가장 높게 분석됨
- 모든 등급에서 축제 재미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대표축제 5.80점, 최우수축제 5.46점, 우수축제 5.41점, 유망축제 5.41점)
-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대표축제의 경우 「축제 살거리」가 4.7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최우수축제와 우수축제 및 유망축제는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각각 5.01점, 4.88점, 4.81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축제 살거리의 경우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가 아니더라도 축제 기념품 개발 또는 지역의 농수산물 연계 등 살거리를 확충하여 방문객의 만족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방안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항목의 경우 모든 등급에서 낮은 수준의 만족도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선정 및 셔틀버스 등의 운영시스템 개선과 주차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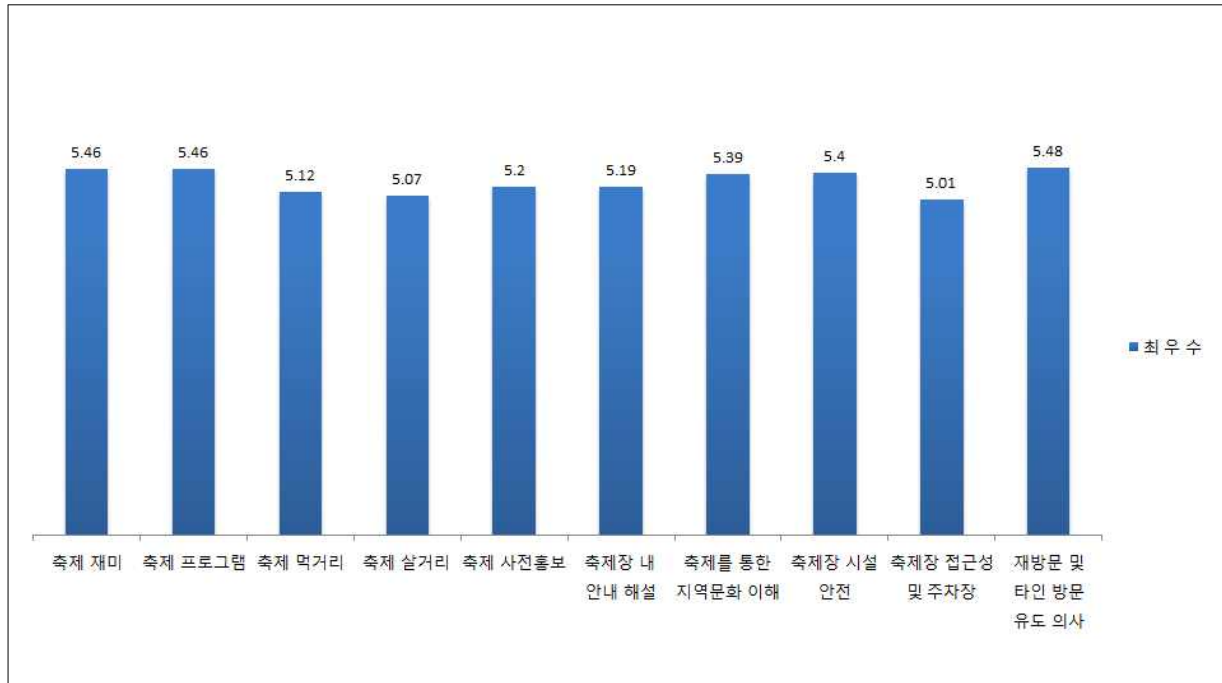
항목 \ 등급	대 표	최 우 수	우 수	유 망
평 균 값	5.29	5.28	5.22	5.20
축제 재미	5.80	5.46	5.41	5.41
축제 프로그램 좋음	5.68	5.46	5.35	5.36
축제 먹거리 좋음	5.19	5.12	5.10	5.17
축제 살거리 좋음	4.75	5.07	4.90	4.97
축제 사전홍보 우수	5.32	5.20	5.25	5.15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5.23	5.19	5.19	5.14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5.02	5.39	5.37	5.31
축제장 시설 안전	5.35	5.40	5.25	5.30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4.87	5.01	4.88	4.81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5.72	5.48	5.46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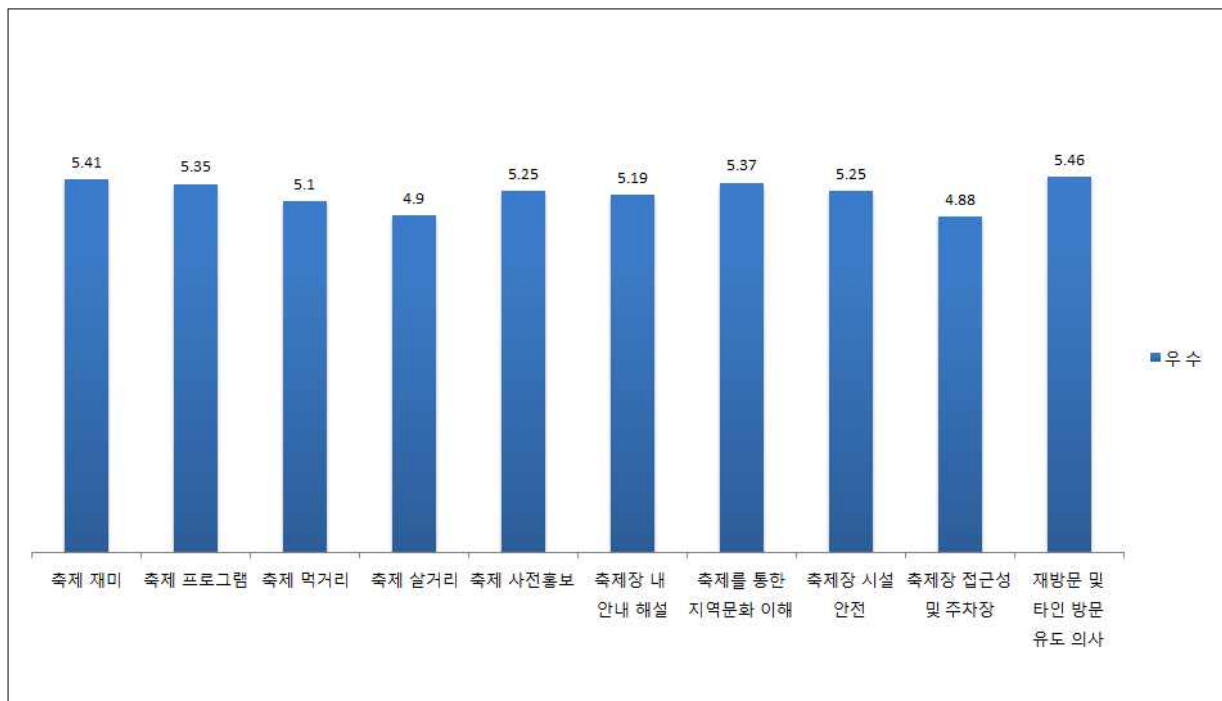
[2016년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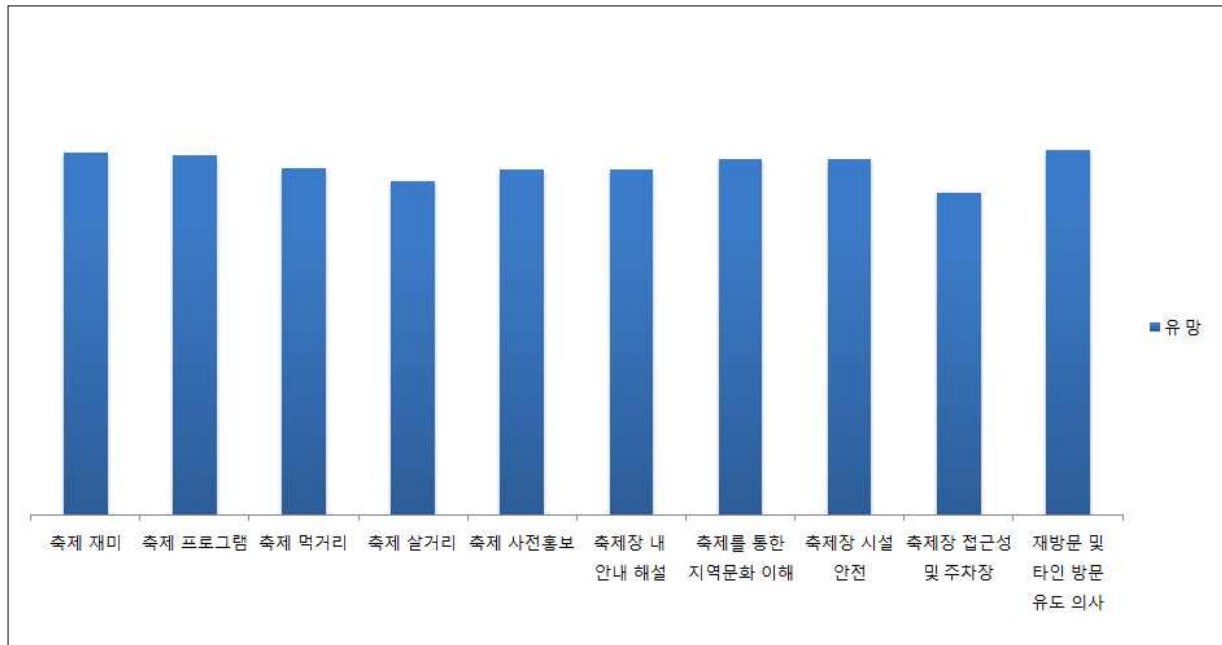
[2016년 대표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2016년 최우수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2016년 우수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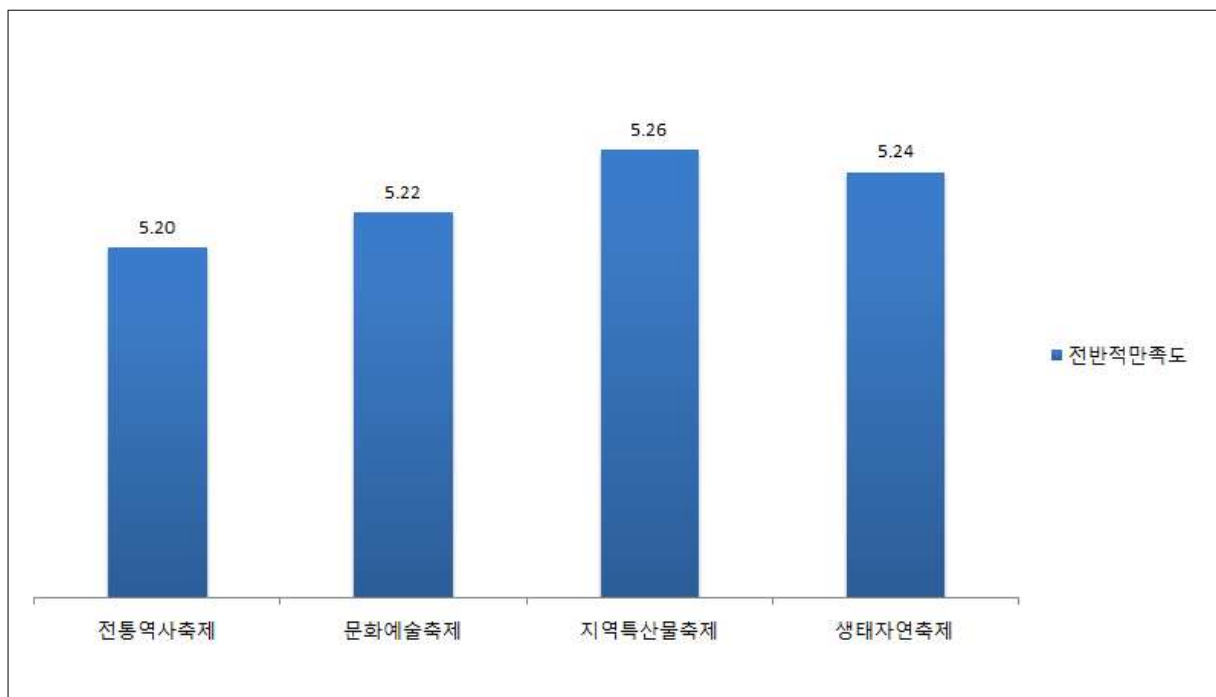
[2016년 유망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4) 축제 유형별 만족도

- 전체 축제를 2016년 지역축제 총괄표의 축제종류에 따라 전통역사축제, 문화예술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생태자연축제로 구분함
- 총 43개의 문화관광축제는 전통역사축제 14개, 문화예술축제 13개, 지역특산물축제 12개, 생태자연축제 4개로 구분됨

■ 지역특산물 축제가 높은 만족도 보임

- 축제 유형별로 전반적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지역특산물축제가 5.26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생태자연축제 5.24점, 문화예술축제 5.22점, 전통역사축제 5.20점의 순으로 나타남
- 축제 유형에 따라 전반적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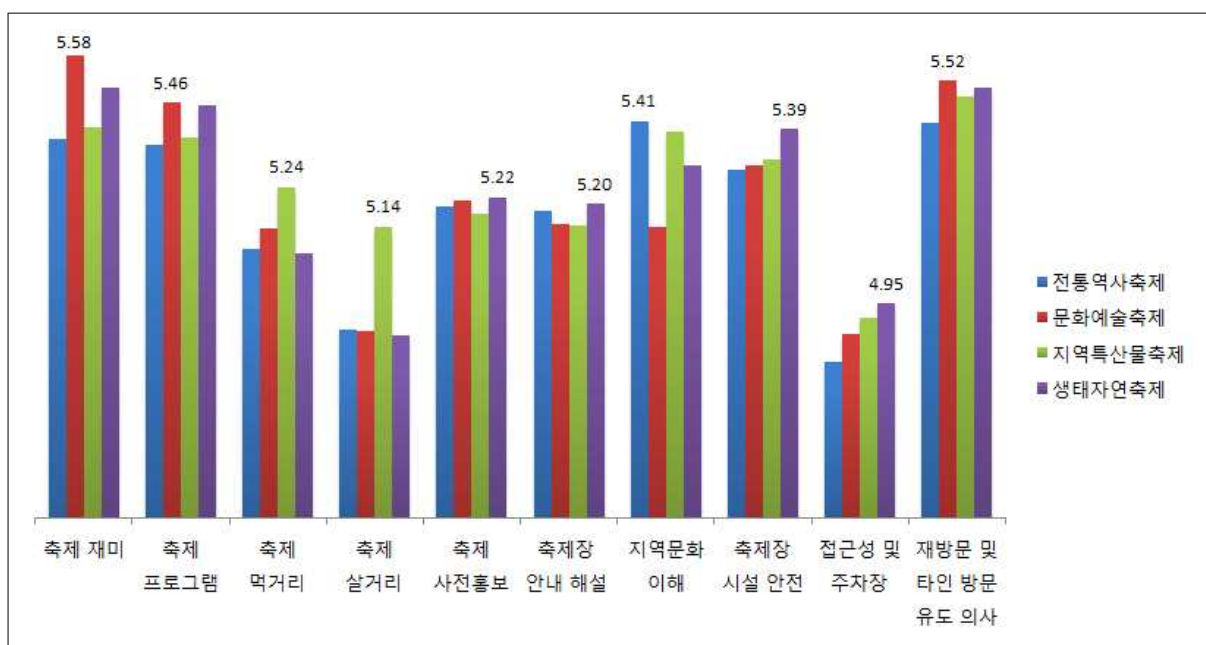


[2016년 문화관광축제 축제 유형별 전반적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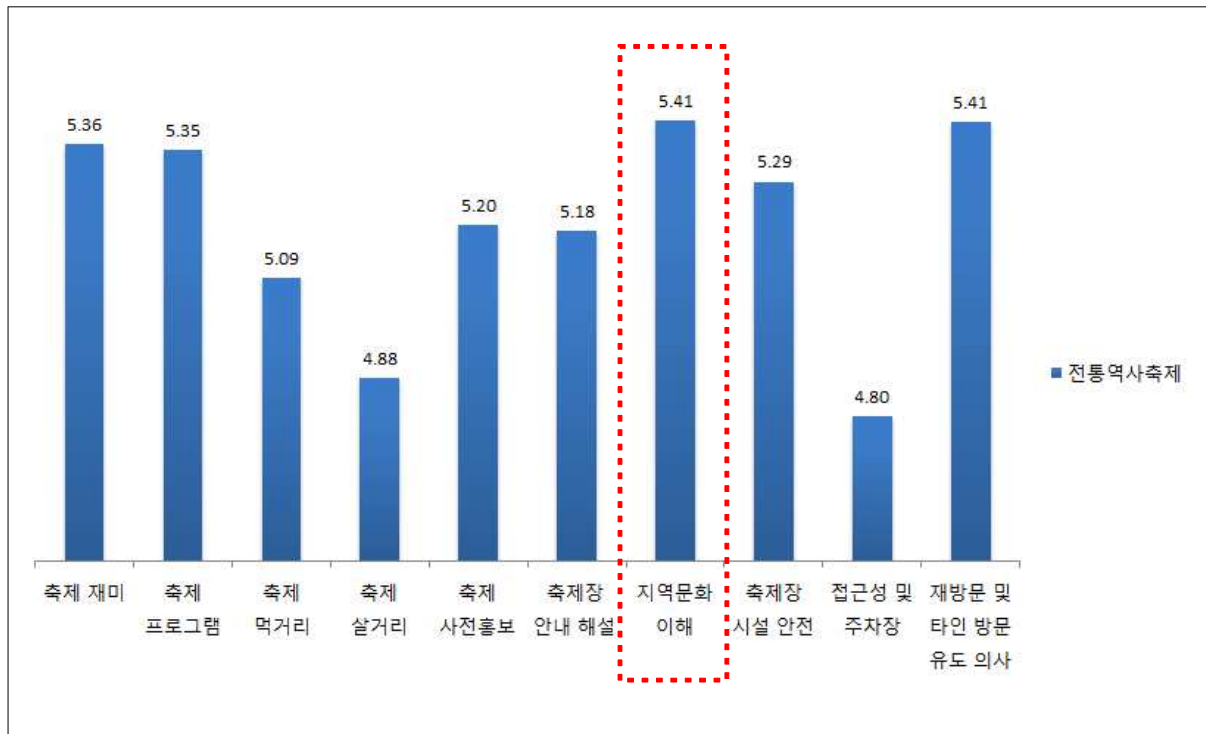
■ 항목별로 축제유형에 따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들이 상이함

- 전통역사축제 : 「지역문화 이해」 항목
 - 문화예술축제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항목
 - 지역특산물축제 : 「축제 먹거리」, 「축제 살거리」 항목
 - 생태자연축제 : 「축제 사전홍보」, 「안내해설」, 「시설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항목
- 세부항목별 축제유형에 따른 만족도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각의 축제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축제유형 구분이 적절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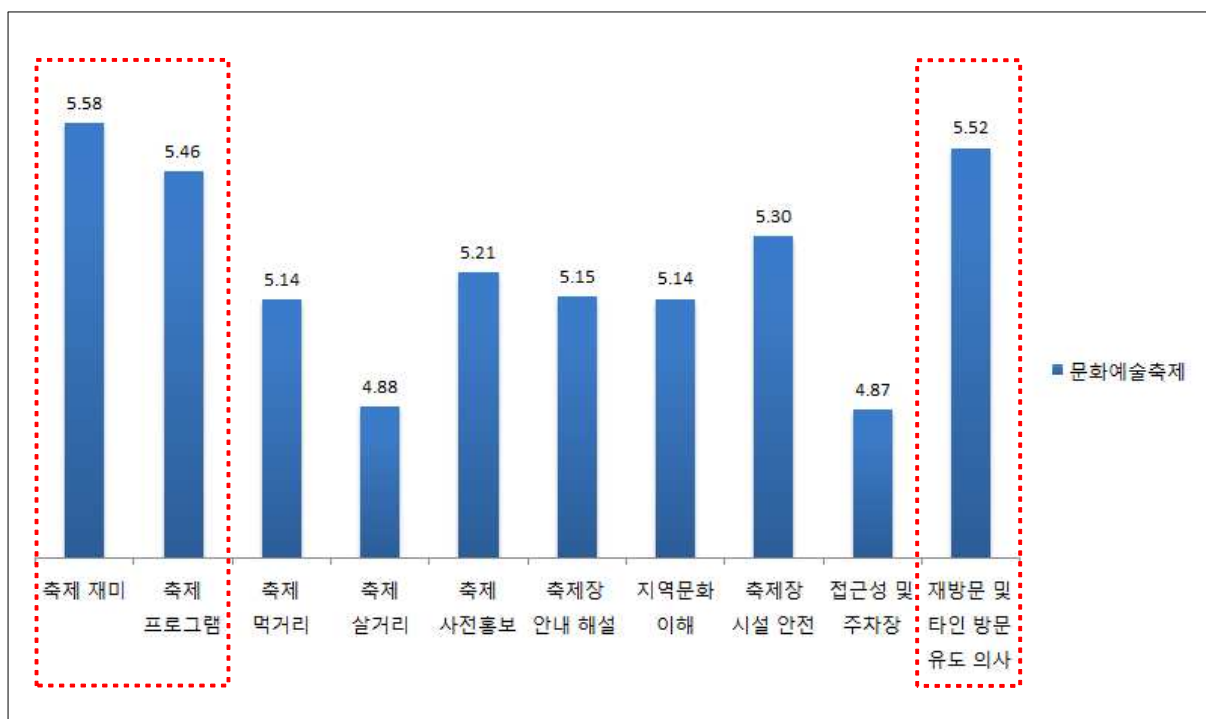
구 분	전통역사축제	문화예술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생태자연축제
평 균 값	5.20	5.22	5.26	5.24
축제 재미	5.36	5.58	5.40	5.50
축제 프로그램 좋음	5.35	5.46	5.37	5.45
축제 먹거리 좋음	5.09	5.14	5.24	5.08
축제 살거리 좋음	4.88	4.88	5.14	4.87
축제 사전홍보 우수	5.20	5.21	5.18	5.22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5.18	5.15	5.15	5.20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5.41	5.14	5.39	5.30
축제장 시설 안전	5.29	5.30	5.31	5.39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4.80	4.87	4.91	4.95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5.41	5.52	5.48	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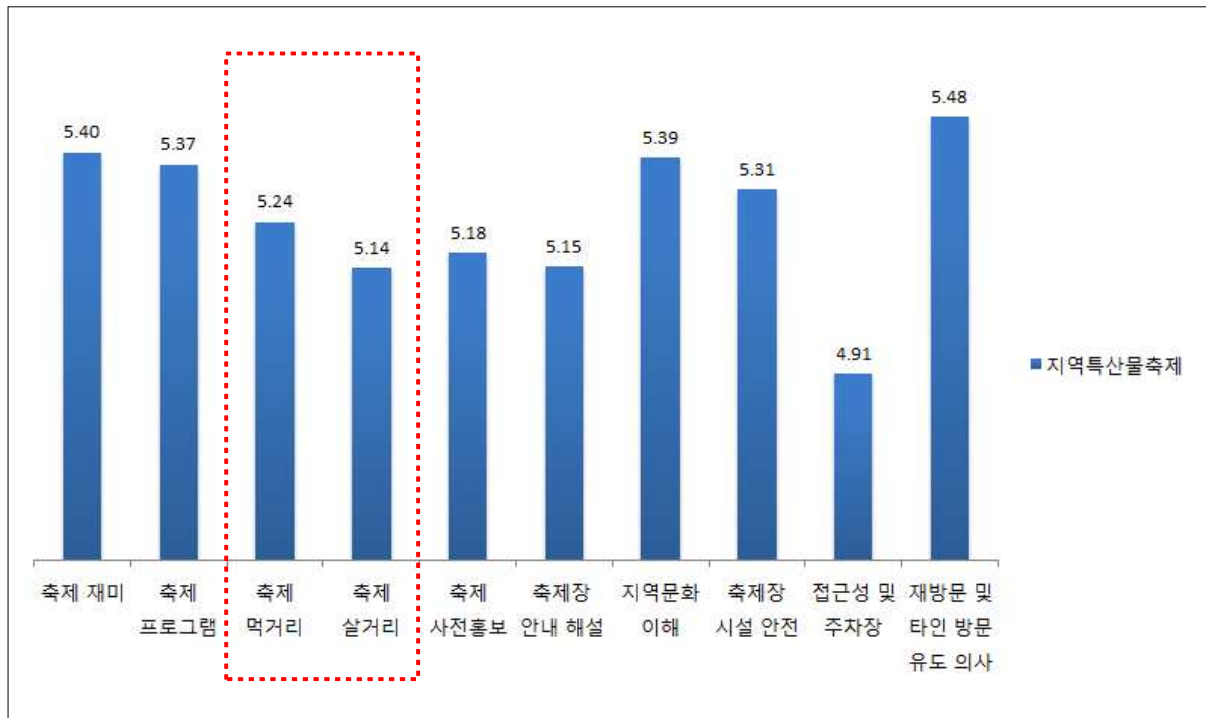
[2016년 문화관광축제 축제유형별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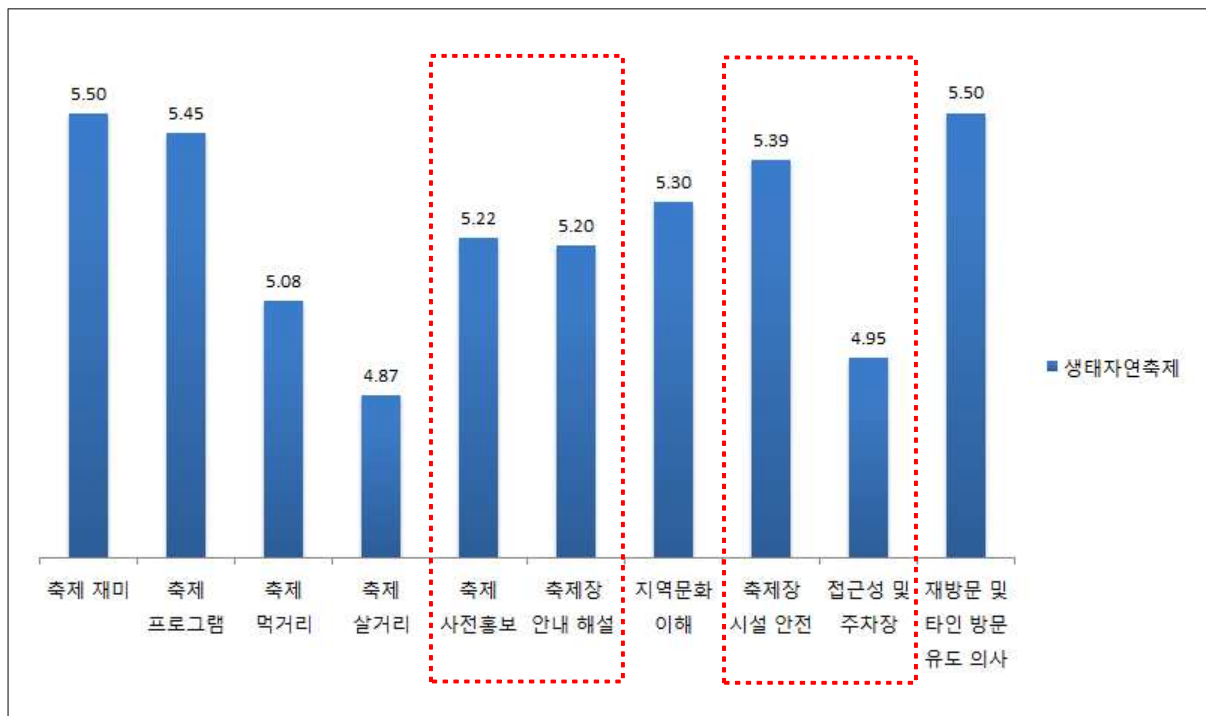
[전통역사축제 유형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문화예술축제 유형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지역특산물축제 유형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생태자연축제 유형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5) 축제별 만족도 비교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축제별 방문객 만족도는 각 축제별 주최 측이 제출한 자체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써, 축제마다 서로 다른 평가기관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축제 간 우열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각 축제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전체축제 비교 (문화관광축제 등급 순)

축제 등급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항 목	평 균	김제 지평선	화천 산천어	자라섬 재즈	문경 찻사발	이천쌀	무주 반딧불
전체만족도	5.23	5.45	5.40	5.03	5.20	5.37	5.22
축제재미	5.45	5.70	5.66	6.04	5.40	5.54	5.40
프로그램	5.40	5.70	5.63	5.70	5.40	5.56	5.36
먹거리	5.15	5.50	4.87	5.21	4.94	5.40	5.17
살거리	4.95	5.20	4.83	4.22	4.96	5.36	5.03
사전홍보	5.20	5.60	5.30	5.07	4.97	5.3	5.18
안내해설	5.17	5.40	5.43	4.87	5.05	5.26	5.13
지역문화	5.32	5.60	5.27	4.18	5.31	5.39	5.30
시설안전	5.31	5.60	5.46	4.98	5.37	5.39	5.36
/주차장	4.87	4.50	5.66	4.44	5.21	4.93	5.02
재방문 /추천의사	5.47	5.70	5.89	5.57	5.40	5.58	5.28

축제 등급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항 목	평 균	강진청자	광주충장	진도 바닷길	산청한방	담양 대나무	평창효석
전체만족도	5.23	5.21	4.96	5.34	5.65	5.02	5.32
축제재미	5.45	5.34	5.28	5.39	5.85	5.12	5.71
프로그램	5.40	5.30	5.34	5.38	5.85	5.11	5.48
먹거리	5.15	4.90	4.79	5.16	5.49	5.05	5.50
살거리	4.95	5.01	4.60	5.07	5.49	4.79	5.16
사전홍보	5.20	5.06	5.08	5.21	5.58	4.99	5.15
안내해설	5.17	5.00	5.09	5.24	5.56	4.98	5.03
지역문화	5.32	5.41	4.97	5.43	5.92	5.19	5.67
시설안전	5.31	5.52	4.91	5.45	5.80	5.12	5.22
접근성/주차장	4.87	5.18	4.28	5.44	4.98	4.60	4.73
재방문 /추천의사	5.47	5.35	5.24	5.60	5.94	5.29	5.54

〈표 계속〉

축제 등급		우수축제					
항 목	평 균	부여서동	순창장류	고령 대가야	봉화은어	통영한산	제주들불
전체만족도	5.23	5.88	5.52	5.16	5.32	4.63	5.10
축제재미	5.45	5.96	5.60	5.34	5.68	4.94	5.04
프로그램	5.40	6.04	5.60	5.36	5.60	4.94	4.77
먹거리	5.15	5.61	5.50	4.89	5.07	4.66	4.68
살거리	4.95	5.56	5.20	4.73	4.79	4.47	4.63
사전홍보	5.20	6.03	5.40	5.00	5.41	4.74	5.69
안내해설	5.17	5.97	5.30	5.08	5.42	4.90	5.14
지역문화	5.32	5.86	5.70	5.34	5.40	4.94	5.32
시설안전	5.31	6.00	5.70	5.29	5.47	4.45	4.93
/주차장	4.87	5.78	5.40	5.07	4.80	3.71	5.22
재방문 /추천의사	5.47	5.98	5.80	5.47	5.61	4.56	5.57

축제 등급		우수축제		유망축제			
항 목	평 균	강경젓갈	장흥물	인천 펜타포트	괴산고추	보성다향	해미읍성
전체만족도	5.23	5.12	5.09	5.04	5.13	4.85	5.45
축제재미	5.45	5.21	5.51	5.52	5.19	4.99	5.26
프로그램	5.40	5.15	5.47	5.42	5.10	4.99	5.42
먹거리	5.15	5.14	4.9	5.19	4.95	4.67	5.33
살거리	4.95	5.10	4.58	4.62	5.31	4.61	5.33
사전홍보	5.20	5.03	5.07	4.79	5.10	4.65	5.39
안내해설	5.17	5.06	5.01	4.90	5.03	4.75	5.41
지역문화	5.32	5.25	5.06	4.35	5.36	4.93	5.51
시설안전	5.31	5.02	5.29	5.26	5.22	5.08	5.61
접근성/주차장	4.87	4.98	4.53	4.88	4.60	4.63	5.62
재방문 /추천의사	5.47	5.26	5.50	5.47	5.43	5.19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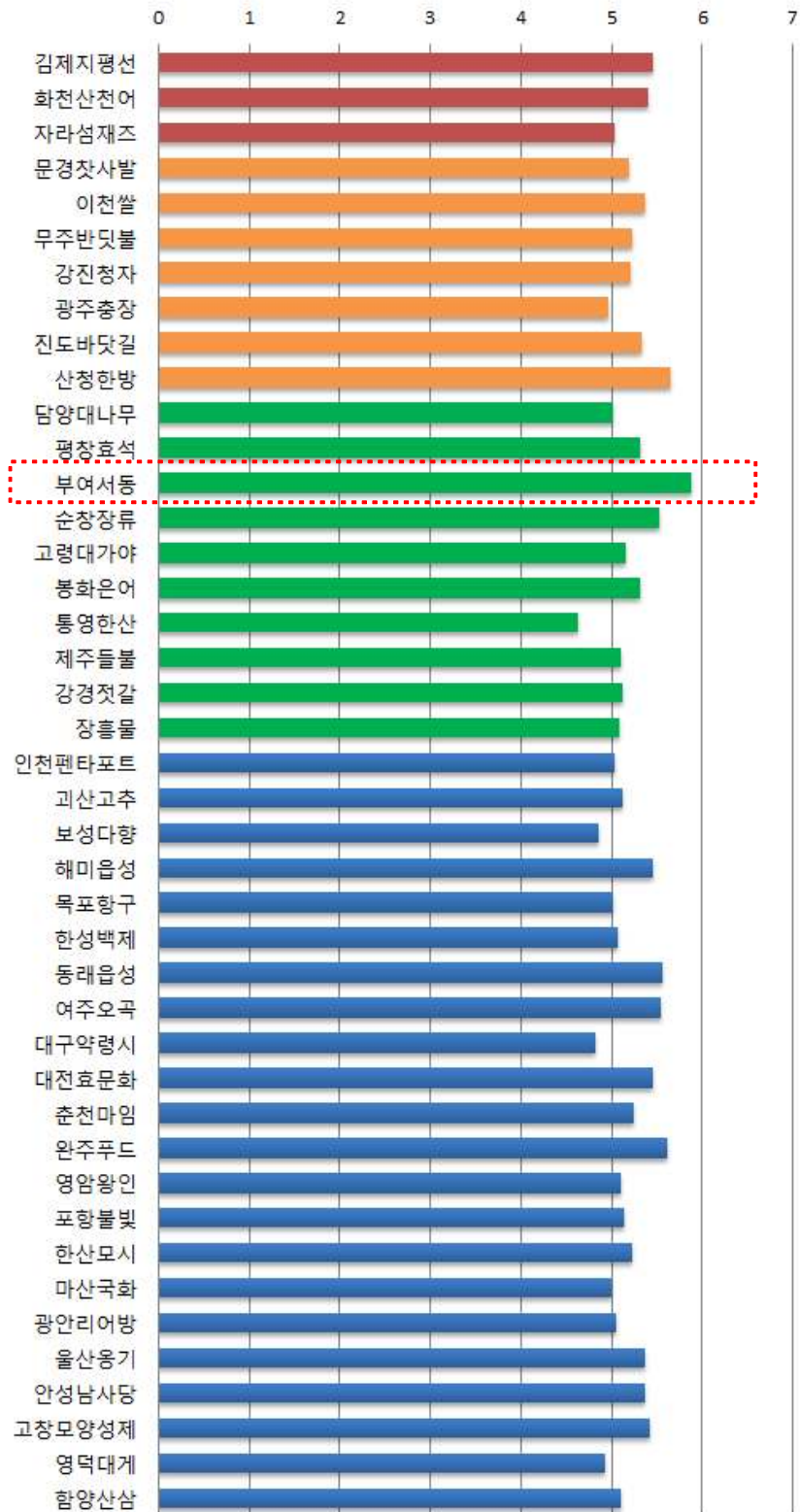
〈표 계속〉

축제 등급		유망축제					
항 목	평 균	목포항구	한성백제	동래읍성	여주오곡	대구 약령시	대전 효문화
전체만족도	5.23	5.02	5.07	5.57	5.54	4.82	5.45
축제재미	5.45	5.19	5.35	5.98	6.03	4.86	5.65
프로그램	5.40	5.18	5.27	5.95	5.88	4.90	5.62
먹거리	5.15	5.11	4.73	5.68	5.79	4.56	5.54
살거리	4.95	4.90	4.63	4.95	5.58	4.66	4.96
사전홍보	5.20	4.96	4.97	5.47	5.17	4.74	5.47
안내해설	5.17	4.97	5.31	5.47	5.15	4.73	5.47
지역문화	5.32	5.11	5.34	5.89	5.72	5.20	5.59
시설안전	5.31	5.13	5.19	5.46	5.34	5.00	5.59
/주차장	4.87	4.55	5.02	4.88	4.82	4.30	4.89
재방문 /추천의사	5.47	5.14	4.87	5.95	5.96	5.21	5.67

축제 등급		유망축제					
항 목	평 균	춘천마임	완주푸드	영암왕인	포항불빛	한산모시	마산국화
전체만족도	5.23	5.24	5.61	5.10	5.14	5.23	5.00
축제재미	5.45	5.63	5.70	5.22	5.63	5.45	5.40
프로그램	5.40	5.26	5.80	5.23	5.38	5.35	5.20
먹거리	5.15	4.93	5.60	4.91	5.00	5.37	5.10
살거리	4.95	4.88	5.40	4.77	4.82	5.30	4.70
사전홍보	5.20	5.21	5.70	5.09	5.29	5.15	5.10
안내해설	5.17	5.29	5.40	5.03	5.09	5.29	4.80
지역문화	5.32	5.12	5.60	5.16	5.15	5.32	5.00
시설안전	5.31	5.31	5.50	5.25	5.18	5.29	5.20
접근성/주차장	4.87	5.24	5.50	4.88	4.47	4.82	4.20
재방문 /추천의사	5.47	5.49	5.90	5.41	5.43	4.93	5.30

〈표 계속〉

축제 등급		유망축제					
항 목	평 균	광안리 어방	울산옹기	안성 남사당	고창 모양성제	영덕대게	함양산삼
전체만족도	5.23	5.05	5.37	5.37	5.42	4.92	5.11
축제재미	5.45	5.17	5.62	5.55	5.60	5.01	5.06
프로그램	5.40	5.24	5.57	5.51	5.60	5.00	5.04
먹거리	5.15	5.03	5.25	5.66	5.30	5.03	4.93
살거리	4.95	4.73	5.17	5.35	5.00	4.72	4.86
사전홍보	5.20	4.96	5.37	5.32	5.40	4.99	5.05
안내해설	5.17	5.19	5.16	5.29	5.30	4.94	5.04
지역문화	5.32	5.20	5.75	5.57	5.70	4.99	5.25
시설안전	5.31	5.25	5.63	5.28	5.50	4.96	5.35
/주차장	4.87	4.45	4.68	4.69	5.10	4.57	5.10
재방문 /추천의사	5.47	5.31	5.54	5.51	5.70	4.99	5.43



[2016년 문화관광축제 축제별 전체 만족도 비교]

4

방문객 소비지출 결과 종합

(1) 전제

-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통비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됨
 - 원칙적으로 방문객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 교통비 항목은 축제를 개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기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총교통비용(거주지→경유지→축제장)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교통비 항목은 소비지출 비교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함
- ※ 단, 각 축제별 소비지출에서는 교통비 항목 제시
- 아울러, 각각의 설문조사기관에서 집계한 소비지출 금액이 너무나 큰 편차를 보임. 일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치였는 바,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숫자는 단순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2) 연도별 소비지출 변화

- 2016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소비지출 금액은 1인당 51,654원으로써 전년대비 7.3%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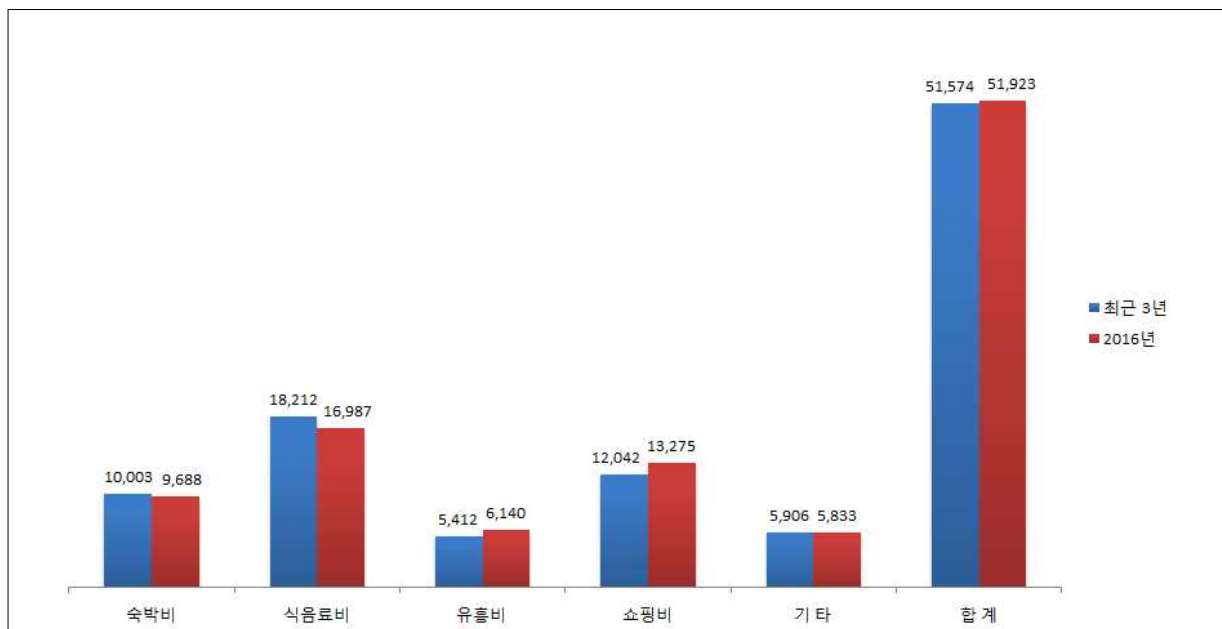
(단위 : 원)

년 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2006	9,542	15,382	5,056	14,886	4,108	48,974
2007	8,521	16,761	5,605	17,317	4,708	52,912
2008	7,707	15,128	5,150	14,876	5,393	48,254
2009	7,944	16,902	4,695	14,974	5,601	50,116
2010	8,712	16,163	4,777	14,846	4,112	48,610
2011	10,287	17,502	5,488	14,970	4,570	52,817
2012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2013	9,395	17,392	5,709	12,285	5,349	50,131
2014	11,135	21,099	5,548	13,233	5,445	56,460
2015	9,478	16,144	4,978	10,607	6,924	48,131
최근 3년 평균	10,003	18,212	5,412	12,042	5,906	51,574
2016	9,688	16,987	6,140	13,275	5,833	51,923

(3) 항목별 소비지출

- 2016년도 축제방문객의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식음료비가 32.4%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쇼핑비 25.7%, 숙박비 18.7%, 유흥비 11.9%, 기타비 11.3%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과 비교해 보면, 유흥비·쇼핑비는 증가한 반면, 식음료비·숙박비·기타비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년에 비해 유흥비와 쇼핑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축제장뿐만 아니라 축제장 밖에서의 소비지출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축제장 안에서의 살거리가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식음료비·숙박비·기타비는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체류시간이 감소함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됨
 - 이에, 향후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제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축제운영 및 먹거리·즐길거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2016년	금 액 (원)	9,688	16,987	6,140	13,275	5,833	51,923
	구성비(%)	18.7	32.7	11.8	25.6	11.2	100.0%
최근 3년	금 액 (원)	10,003	18,212	5,412	12,042	5,906	51,574
	구성비(%)	19.4	35.3	10.5	23.3	1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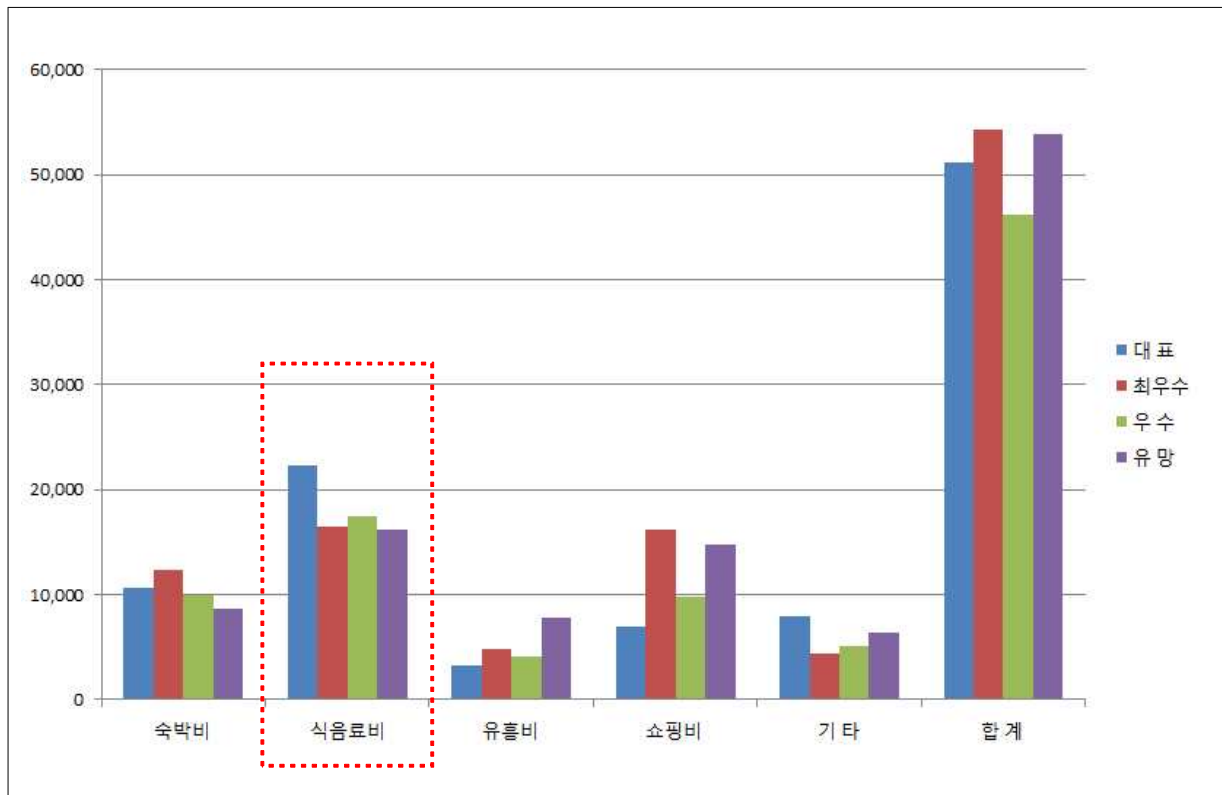
[2016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지출 세부항목 비교]

(4)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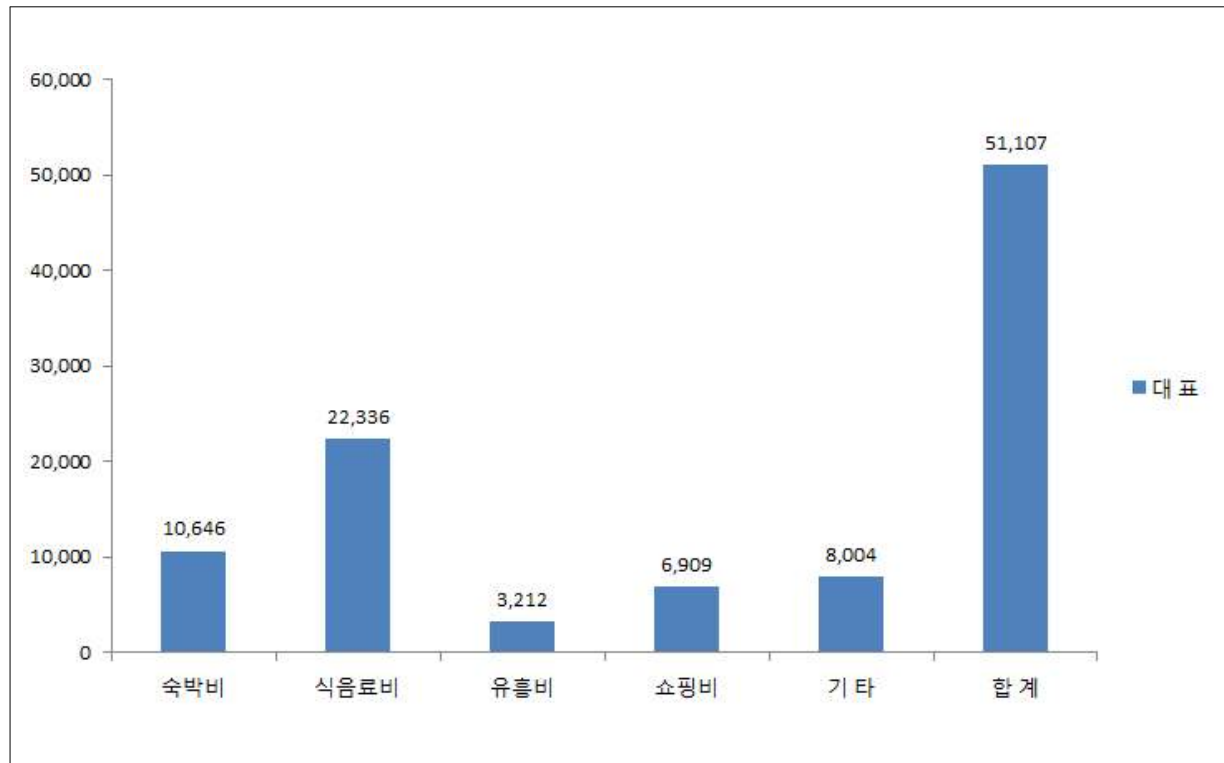
- 2016년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을 축제 등급별로 비교해 보면 최우수축제가 54,301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망축제 53,823원, 대표축제 51,107원, 우수축제 46,183원 순으로 나타남
- 등급별 소비항목별로 살펴보면, 모든 축제등급에서 식음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대표축제와 우수축제에서는 유희비가 가장 낮았고, 최우수축제와 유망축제에서는 기타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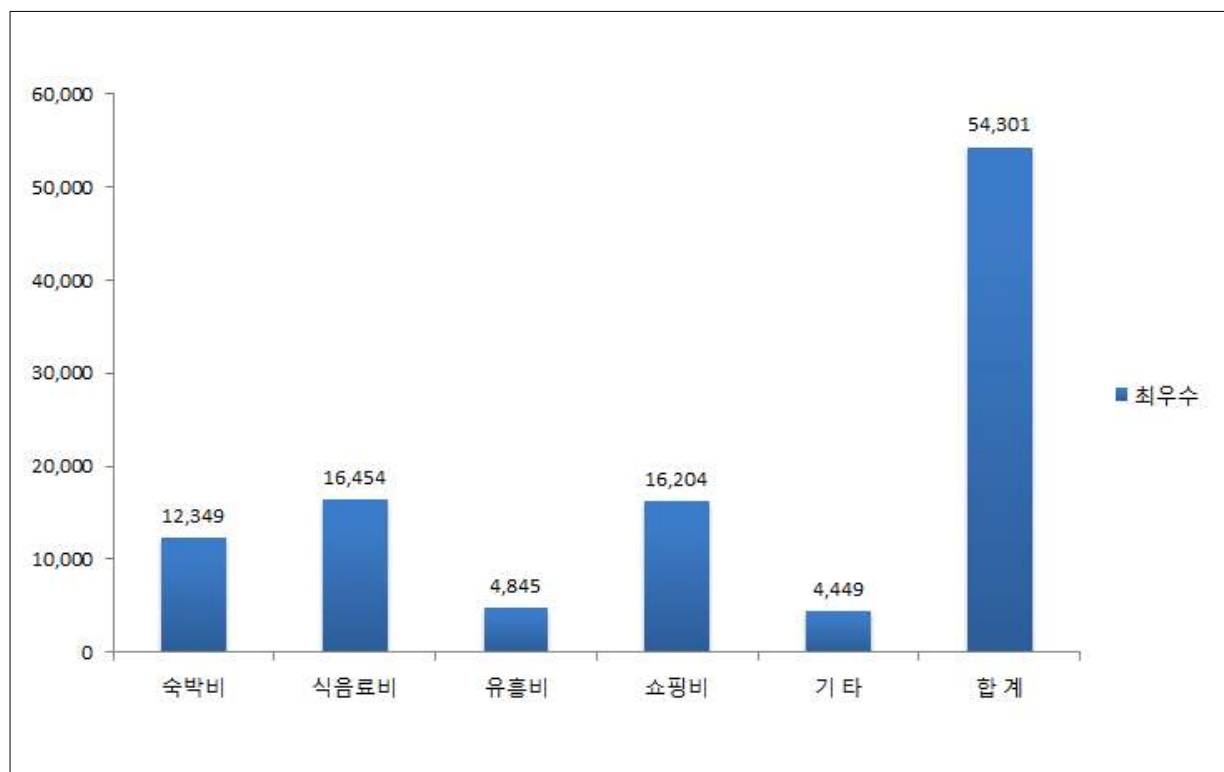
	숙박비	식음료비	유희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전 체	9,688	16,987	6,140	13,275	5,833	51,923
대 표	10,646	22,336	3,212	6,909	8,004	51,107
최우수	12,349	16,454	4,845	16,204	4,449	54,301
우 수	9,893	17,472	4,029	9,737	5,051	46,183
유 망	8,665	16,241	7,833	14,752	6,332	53,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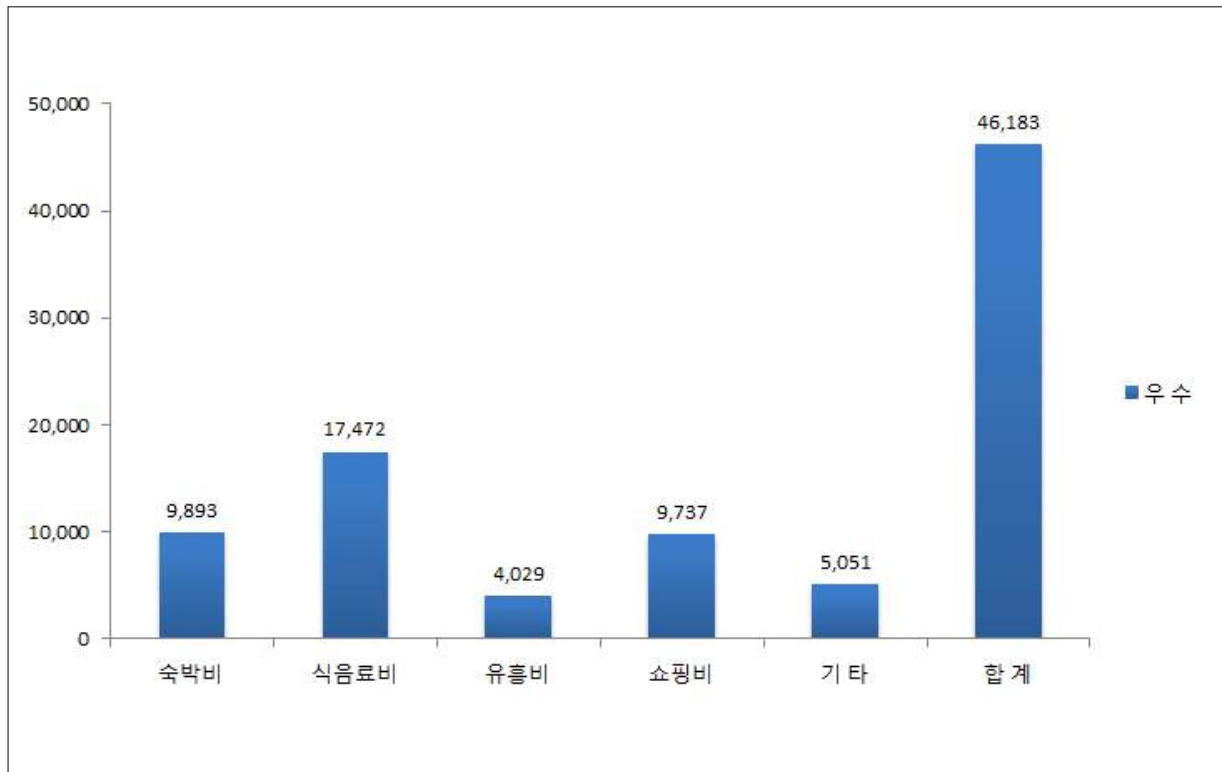
[2016년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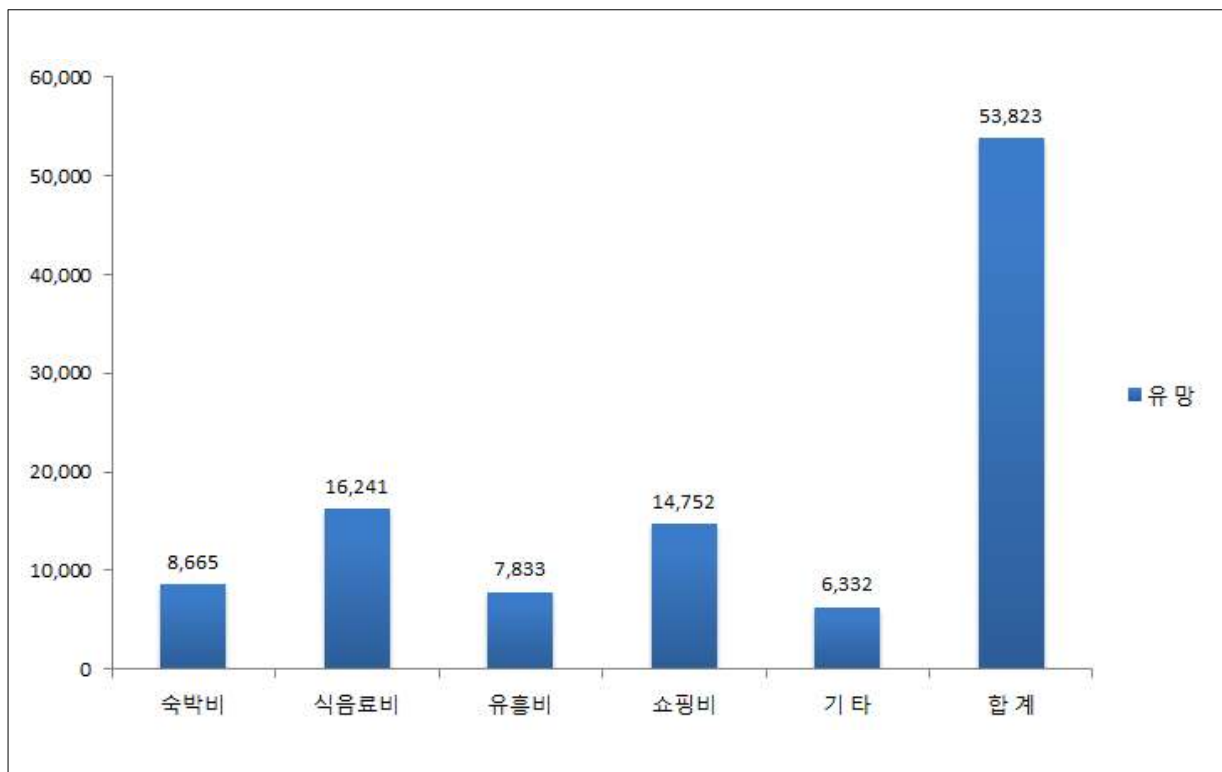
[2016년 대표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2016년 최우수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2016년 우수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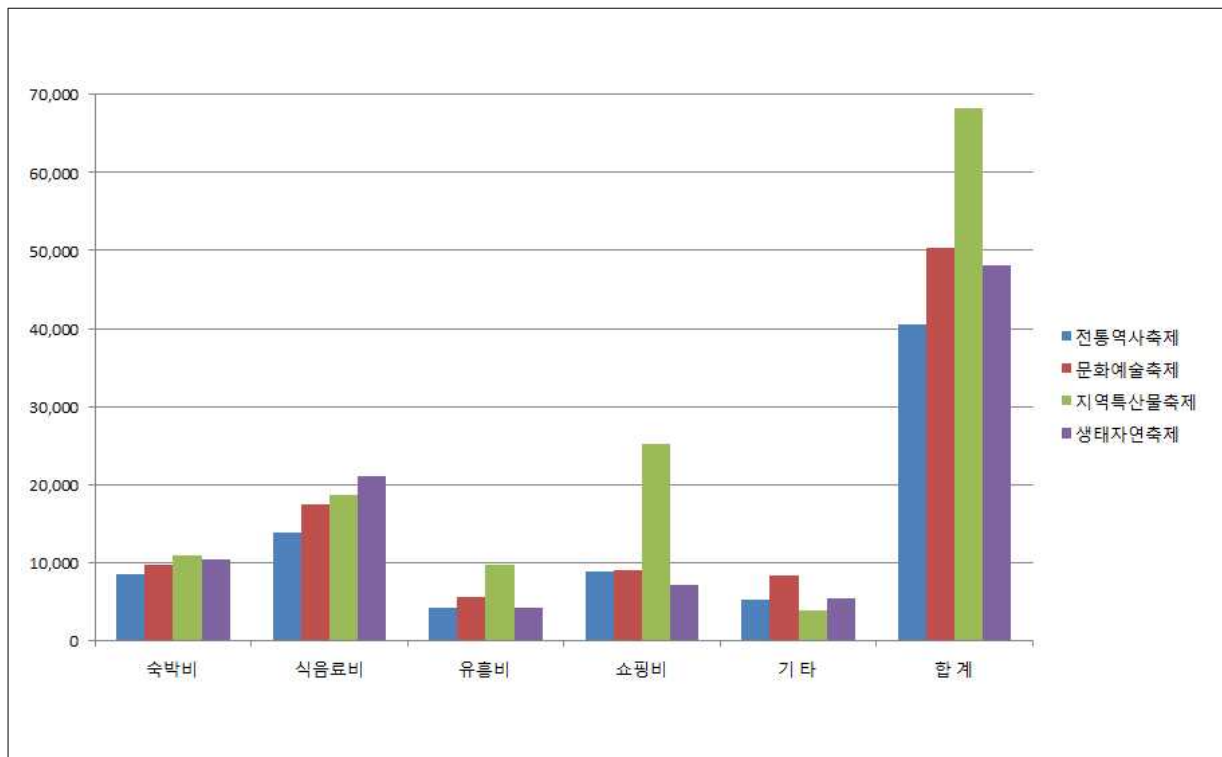
[2016년 유망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5)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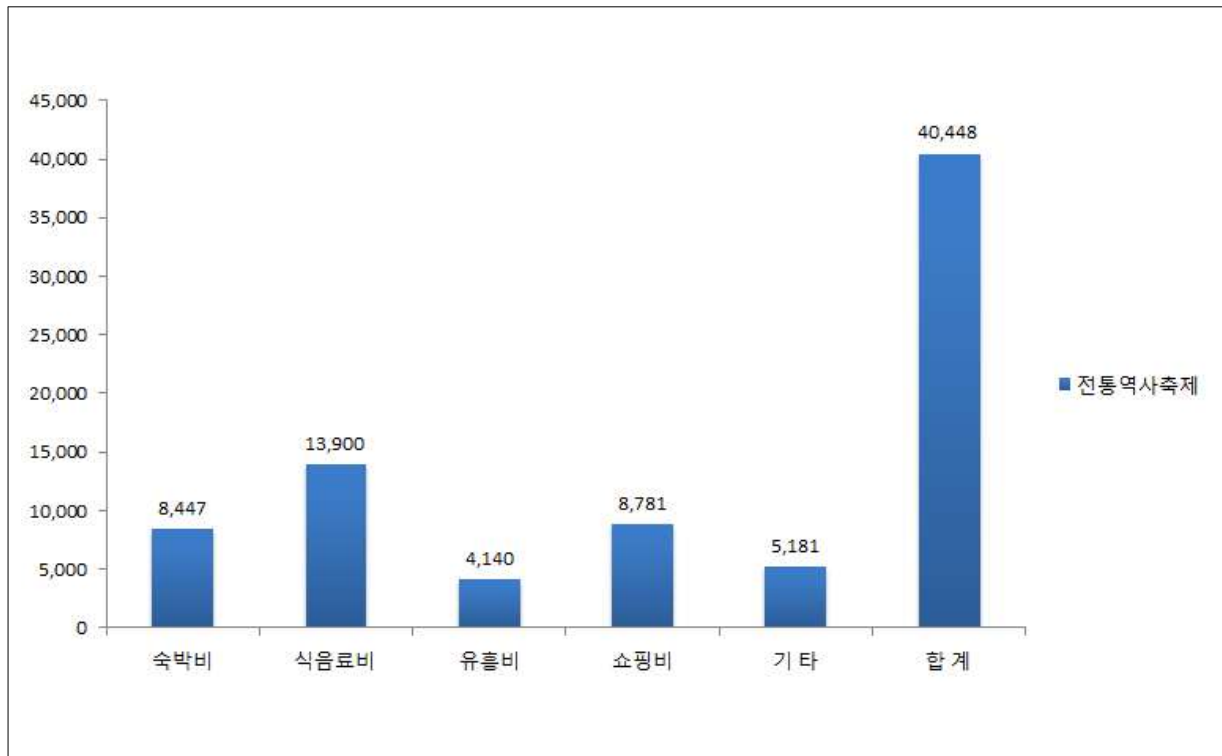
- 2016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지역축제 총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축제종류에 따라 전통역사축제, 문화예술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생태자연축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비지출 구조를 비교함
- 가장 소비지출이 많은 축제 유형은 지역특산물축제로 평균 소비지출액은 68,189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는 지역특산물 축제가 쇼핑비에서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숙박비와 유흥비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식음료비의 경우 생태자연축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비의 경우 문화예술축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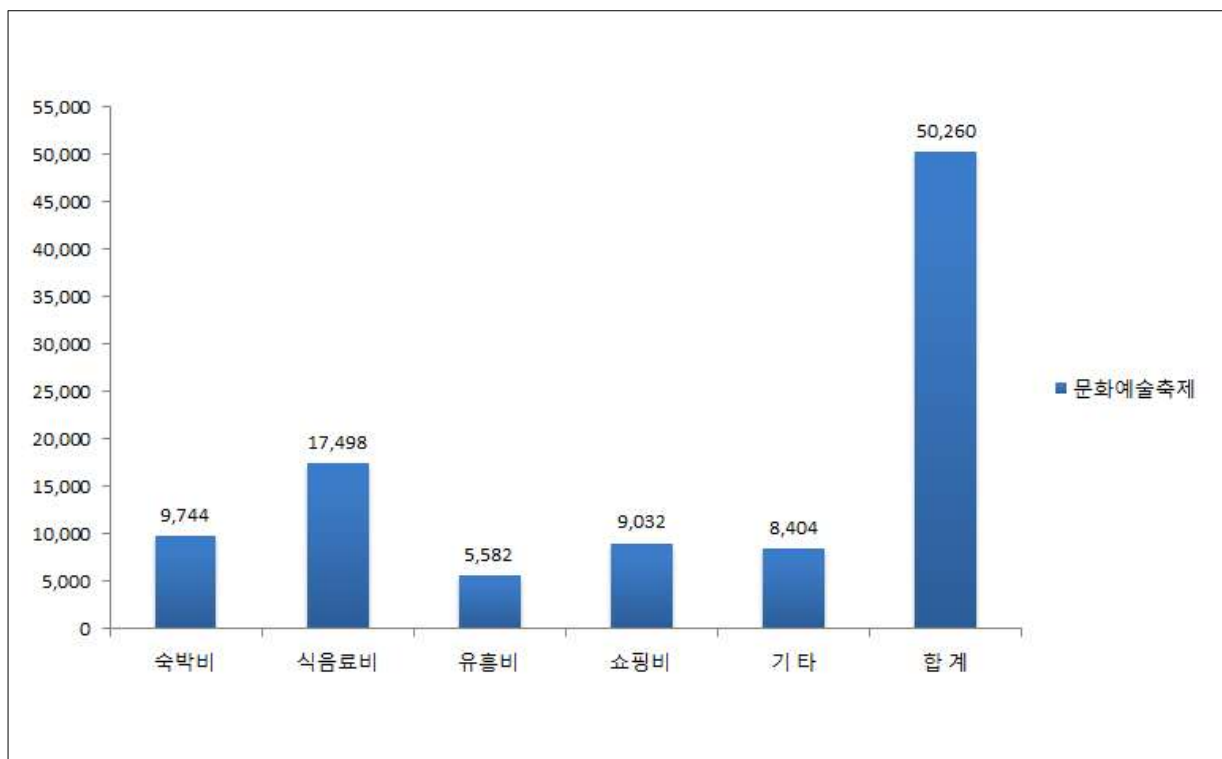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평 균	9,688	16,987	6,140	13,275	5,833	51,923
전통역사축제	8,447	13,900	4,140	8,781	5,181	40,448
문화예술축제	9,744	17,498	5,582	9,032	8,404	50,260
지역특산물축제	10,824	18,695	9,715	25,153	3,801	68,189
생태자연축제	10,444	21,006	4,225	7,159	5,345	48,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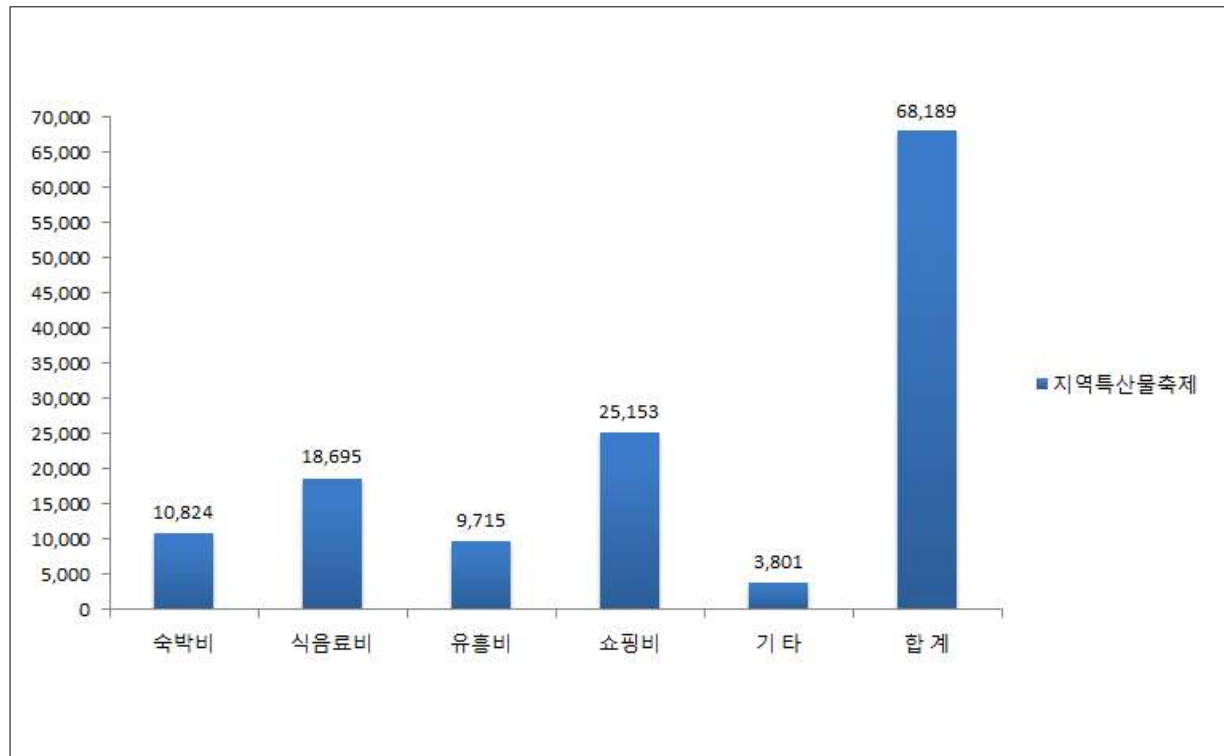
[2016년 문화관광축제 축제유형별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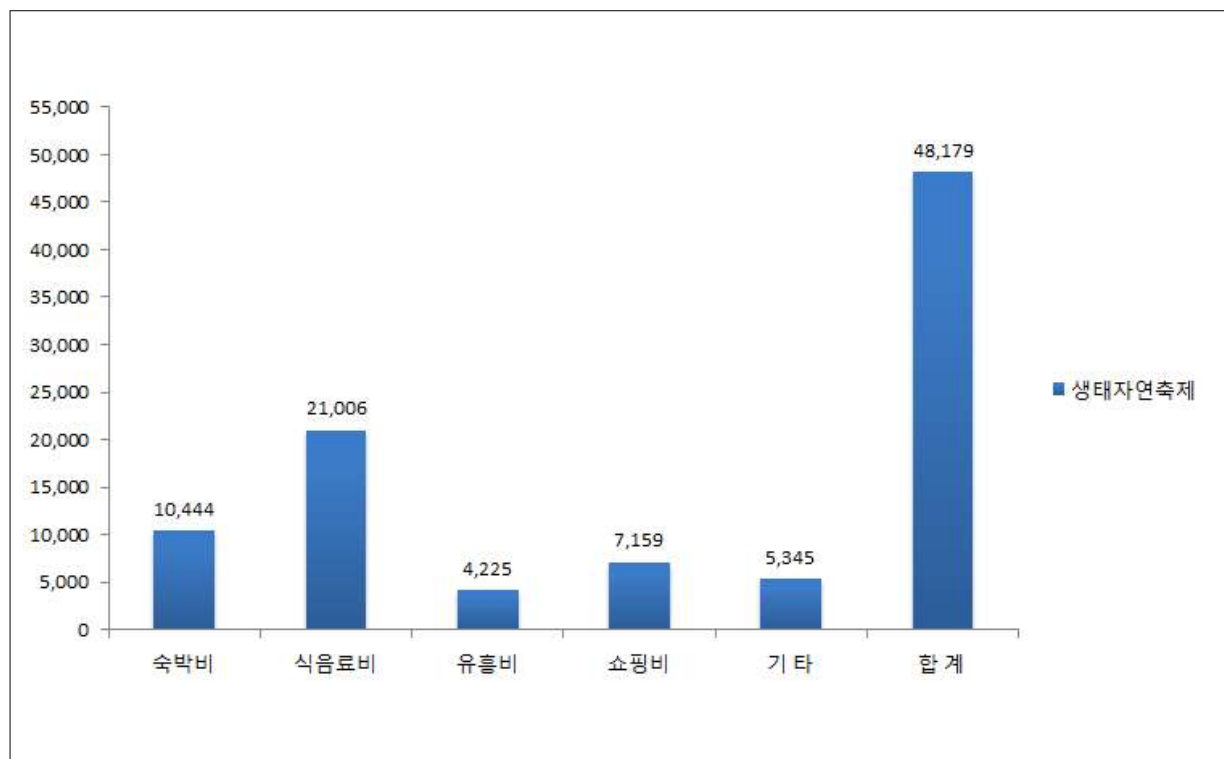
[전통역사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문화예술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지역특산물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생태자연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6) 축제별 소비지출 비교

■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축제 : 함양산삼축제

- 2016년에 열린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교통비를 제외한 방문객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축제는 함양산삼축제(285,828원)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인천펜타포트축제 120,572원, 산청한방약초축제 100,430원, 춘천마임축제 86,089원, 통영한산대첩축제 85,591원, 자라섬재즈페스티벌 73,594원 순으로 높았음
- 이는 축제의 소재가 다소 고가(산삼 및 약초, 공연입장료 등)여서 지역특산물축제와 문화예술축제에서 소비지출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항목별로 소비지출이 높은 축제

- 숙박비
 - 산청한방약초축제가 38,27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함양산삼축제 38,217원, 춘천마임축제 27,205원, 통영한산대첩축제 26,654원, 인천펜타포트축제가 23,344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식음료비
 - 함양산삼축제가 67,76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천펜타포트축제가 36,886원, 자라섬재즈페스티벌 35,194원, 정남진장흥물축제 34,485원, 통영한산대첩축제 31,85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유흥비
 - 함양산삼축제가 70,14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청한방약초축제 15,167원,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14,360원, 춘천마임축제 13,248원, 통영한산대첩축제 11,68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쇼핑비
 - 함양산삼축제가 109,7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덕대게축제 27,958원, 괴산고추축제가 27,606원, 이천쌀문화축제 25,421원, 산청한방약초축제 24,961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타비
 - 인천펜타포트축제가 41,29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춘천마임축제 18,337원, 제주들불축제 16,921원, 대구약령시한방축제 13,161원, 화천산천어축제 13,079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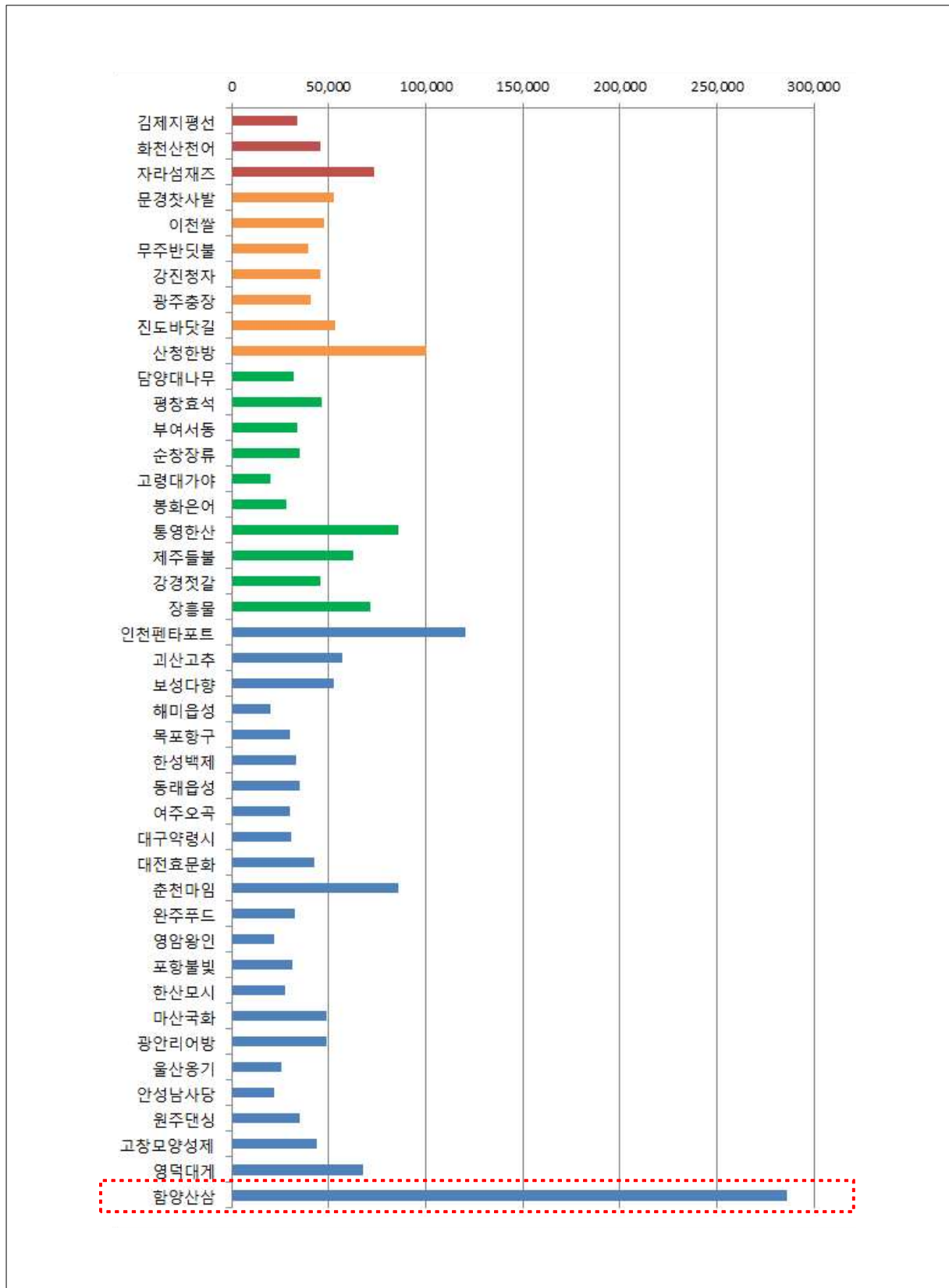
(단위 : 원)

축제등급	축 제 명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평 균	9,688	16,987	6,140	13,275	5,833	51,923
대표	김제지평선	4,176	14,165	2,368	10,637	2,508	33,854
	화천산천어	5,921	17,649	3,314	5,910	13,079	45,873
	자라섬재즈	21,840	35,194	3,955	4,179	8,426	73,594
최우수	문경찻사발	11,243	16,540	2,705	17,999	4,065	52,552
	이천쌀	1,986	14,214	1,752	25,421	4,413	47,786
	무주반딧불	11,119	16,105	1,683	6,617	4,147	39,671
	강진청자	8,654	16,242	4,096	13,300	3,312	45,604
	광주충장	3,721	17,740	3,250	14,435	1,875	41,021
	진도바닷길	11,449	21,668	5,259	10,696	3,968	53,040
	산청한방	38,270	12,668	15,167	24,961	9,364	100,430
우수	담양대나무	5,414	17,559	2,507	4,456	2,001	31,937
	평창효석	7,980	16,579	4,318	13,810	3,716	46,403
	부여서동	8,229	9,912	3,263	9,671	3,007	34,082
	순창장류	2,065	14,722	2,375	13,920	1,831	34,913
	고령대가야	4,991	7,763	572	3,844	3,181	20,351
	봉화은어	4,296	11,766	3,182	3,995	5,060	28,299
	통영한산	26,654	31,850	11,686	9,148	6,253	85,591
	제주들불	20,737	11,729	5,022	8,522	16,921	62,931
	강경젓갈	3,650	18,360	590	22,680	340	45,620
	장흥물	14,911	34,485	6,777	7,330	8,204	71,707

〈표 계속〉

(단위 : 원)

축제등급	축 제 명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평 균	9,688	16,987	6,140	13,275	5,833	51,923
유망	인천펜타포트	23,344	36,886	9,543	9,506	41,293	120,572
	괴산고추	3,417	16,166	4,665	27,606	5,009	56,863
	보성다향	13,714	19,057	4,123	11,069	4,810	52,773
	해미읍성	4,411	10,916	1,544	2,893	517	20,281
	목포항구	5,260	13,700	2,900	6,365	2,025	30,250
	한성백제	4,286	14,841	1,903	6,419	6,063	33,512
	동래읍성	8,711	7,632	7,088	6,704	4,970	35,105
	여주오곡	902	9,619	1,039	13,078	5,166	29,804
	대구약령시	1,552	6,009	1,132	8,706	13,161	30,560
	대전효문화	9,049	15,205	5,526	12,104	688	42,572
	춘천마임	27,205	14,308	13,248	12,991	18,337	86,089
	완주푸드	1,579	11,463	2,749	13,364	3,499	32,654
	영암왕인	2,600	11,380	1,700	5,150	1,260	22,090
	포항불빛	5,205	14,166	4,908	4,502	2,708	31,489
	한산모시	5,059	11,161	3,056	7,622	935	27,833
	마산국화	5,932	17,079	5,628	15,073	5,459	49,171
	광안리어방	9,592	15,250	8,302	9,468	6,295	48,907
	울산옹기	72	11,450	1,229	9,811	3,122	25,684
	안성남사당	1,803	11,545	987	5,536	2,127	21,998
	원주댄싱	4,235	8,797	14,360	3,358	4,648	35,398
	고창모양성제	7,527	17,547	5,977	10,310	2,762	44,123
	영덕대게	15,619	11,591	8,415	27,958	4,440	68,023
	함양산삼	38,217	67,765	70,142	109,704	-	285,828



[2016년 문화관광축제 축제별 전체 소비지출 비교]

5

외지관광객 비율

■ 전체 외지관광객 비율은 69.7% 차지

- 2016년 문화관광축제를 방문한 참가자 중에서 외지관광객은 69.7%, 지역주민은 30.3%로 나타나, 외지관광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축제별 외지관광객 방문 비율을 살펴보면, 화천산천어축제가 9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평창효석문화제 96.2%, 담양대나무축제 95.7%, 정남진장흥물축제 94.9%, 봉화은어축제 93.1% 순으로 나타남
- 외지관광객 방문에 비해 지역주민 방문 비율이 높은 축제는 총 10개로 나타나며 이 중, 동래읍성역사축제가 93.8%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88.3%, 대구약령시한방축제 79.3%, 제주들불축제 74.6%, 한성백제문화제 70.8% 순임

축제명칭	비율(%)		축제명칭	비율(%)	
	지역주민	외지관광객		지역주민	외지관광객
강경젓갈	28.2	71.8	여주오곡	48.8	51.2
강진청자	9.2	90.8	영덕대게	15.8	84.2
고령대가야	17.0	83.0	영암왕인	11.6	88.4
고창모양성제	30.9	69.1	완주푸드	19.5	80.5
광안리어방	26.3	73.7	울산옹기	66.4	33.6
광주충장	36.0	64.0	원주댄싱	10.8	89.2
괴산고추	24.1	75.9	이천쌀	23.8	76.2
김제지평선	13.0	87.0	인천펜타포트	39.1	60.9
담양대나무	4.3	95.7	자라섬재즈	9.4	90.6
대구약령시	79.3	20.7	장흥물	5.1	94.9
대전효문화	88.3	11.7	제주들불	74.6	25.4
동래읍성	93.8	6.2	진도바닷길	11.8	88.2
마산국화	51.9	48.1	춘천마임	55.8	44.2
목포항구	49.8	50.2	통영한산	30.1	69.9
무주반딧불	17.1	82.9	평창효석	3.8	96.2
문경차사발	16.8	83.2	포항불빛	52.1	47.9
보성다향	7.3	92.7	한산모시	19.5	80.5
봉화은어	6.9	93.1	한성백제	70.8	29.2
부여서동	14.0	86.0	함양산삼	16.1	83.9
산청한방	15.8	84.2	해미읍성	18.6	81.4
순창장류	8.2	91.8	화천산천어	3.4	96.6
안성남사당	59.9	40.1	평균	30.3	69.7

6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86.5% 차지

- “○○축제가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 주 동기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즉,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사람의 비율은 86.5%로 높게 나타남
- 2015년도에 비해 19.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문화관광축제가 해당 지역 방문객 유입 증가요인임을 유추해볼 수 있음
- 축제별로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을 살펴보면, 화천산천어축제와 이천쌀문화축제가 10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99.3% 완주와일드푸드축제 97.3% 김제지평선축제 96.8%, 영암왕인문화축제 96.1%,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95.8%, 보성다향제 95.6%, 통영한산대첩축제 95.5% 순으로 높았음
- 반면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이 낮은 축제를 살펴보면, 평창효석문화제가 59.0%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65.2%, 광안리어방축제 68.5%, 영덕대게축제 70.0% 순으로 분석됨

축제명칭	비율(%)	축제명칭	비율(%)	축제명칭	비율(%)
강경젓갈	90.7	문경찾사발	90.3	자라섬재즈	99.3
강진청자	74.4	보성다향	95.6	장흥물	94.3
고령대가야	90.2	봉화은어	88.4	제주들불	74.6
고창모양성제	88.2	부여서동	91.0	진도바닷길	95.8
광안리어방	68.5	산청한방	90.8	춘천마임	-
광주충장	83.4	순창장류	94.5	통영한산	95.5
괴산고추	84.0	안성남사당	83.7	평창효석	59.0
김제지평선	96.8	여주오곡	83.9	포항불빛	-
담양대나무	82.5	영덕대게	70.0	한산모시	81.4
대구약령시	76.8	영암왕인	96.1	한성백제	74.7
대전효문화	89.6	완주푸드	97.3	함양산삼	89.1
동래읍성	94.0	울산옹기	94.9	해미읍성	82.9
마산국화	88.9	원주댄싱	65.2	화천산천어	100
목포항구	85.8	이천쌀	100		
무주반딧불	77.7	인천펜타포트	-	평균	86.5

지자체의 축제별 설문조사 분석결과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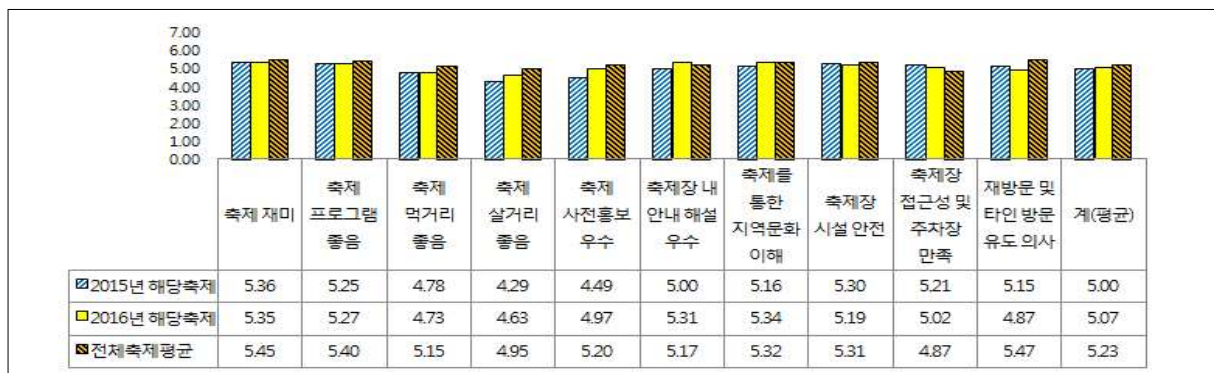


1

서울 한성백제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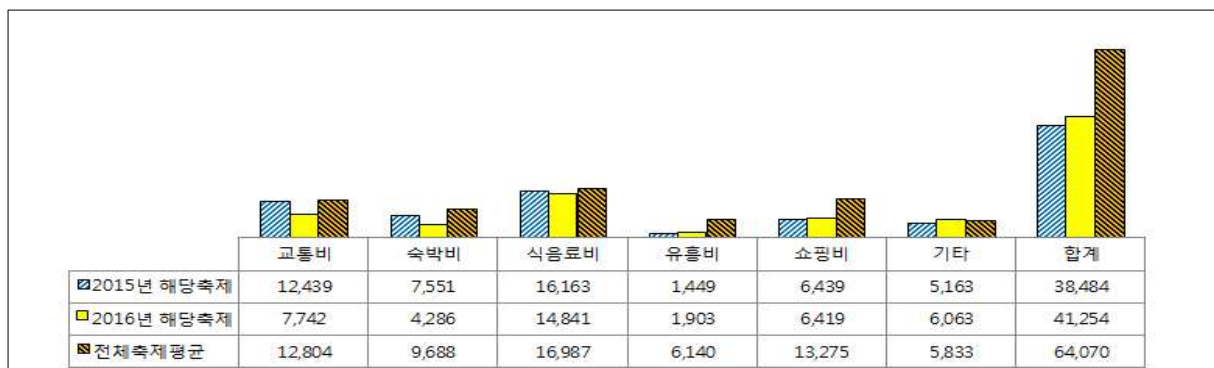
만족도

한성백제문화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안내 해설과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 만족도 등은 낮게 분석됨. 축제의 특징이나 정체성이 부족하여 먹거리·살거리 역시 부족하게 되고, 따라서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 역시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주제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획·연출이 강화되어야 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770원 증가하였지만, 전국 평균의 64.4%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숙박비·유흥비·쇼핑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특히 숙박비와 식음료비의 지출은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임.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숙박·유흥비 지출의 유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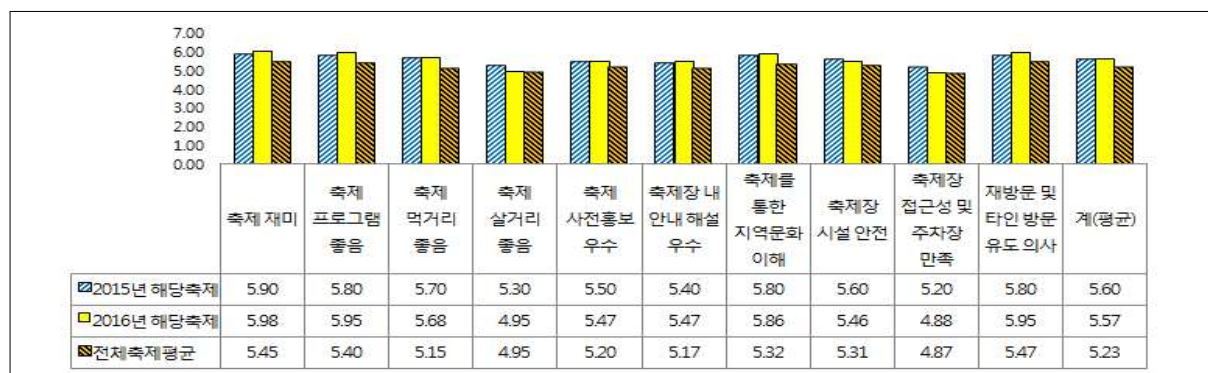


2

부산 동래읍성역사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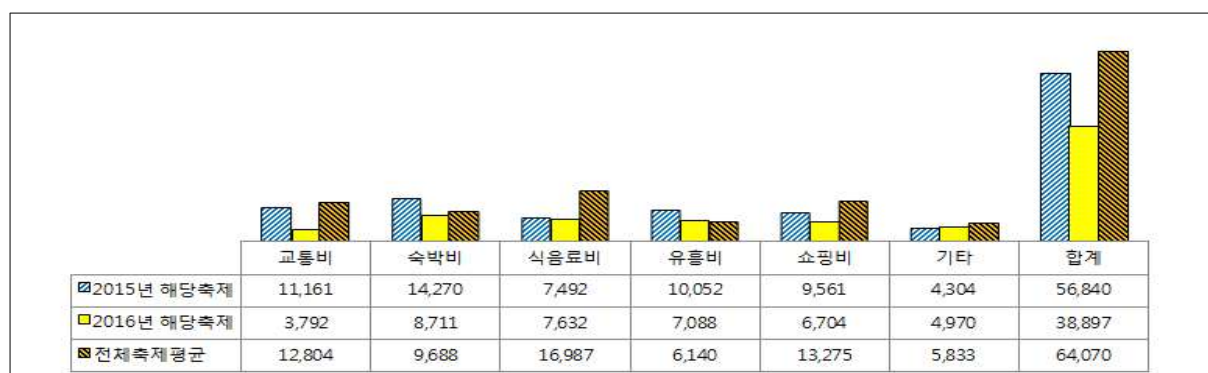
만족도

동래읍성역사축제의 만족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축제 평균 대비 다소 높은 편임. 모든 항목에서 전체 축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살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등의 항목이 낮은 수준임. 이는 낮은 수준의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며, 살거리의 개발·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축제 효과의 극대화가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과 달리,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60.7%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전년 대비하여도 크게 감소하였음. 지출항목별로는 유흥비만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을 뿐, 교통비·식음료비·쇼핑비는 현저하게 낮은 지출 수준을 보임.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주제와 연관된 기념품·식음료 개발 등의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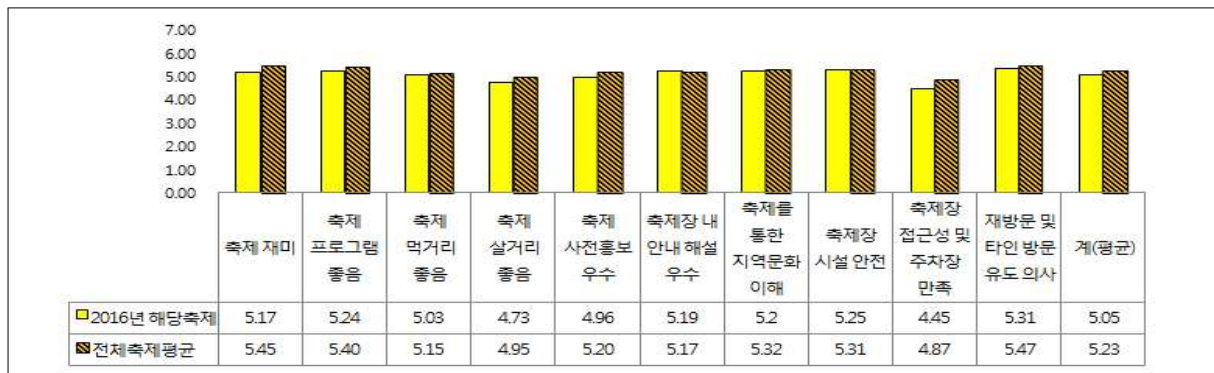


3

부산 광안리어방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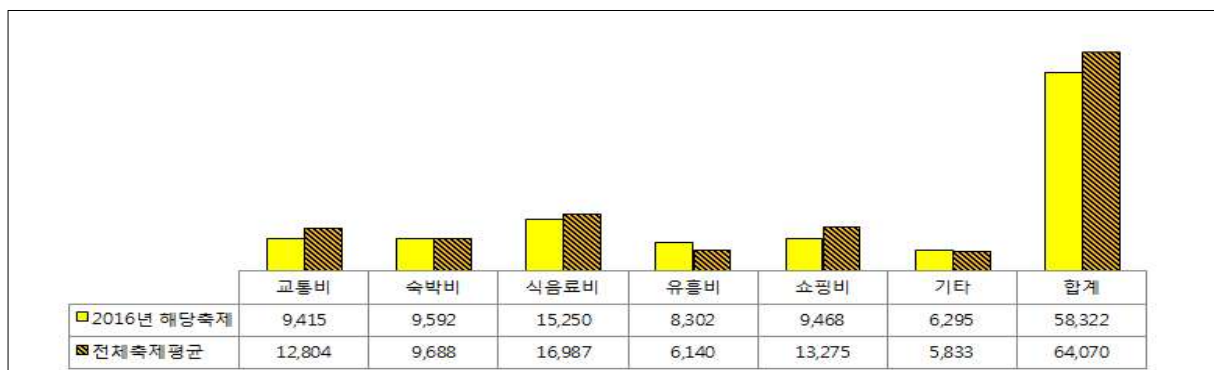
만족도

광안리어방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며, 신규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항목별로는 안내 해설의 만족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반면,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지역문화 이해·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등은 다소 낮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시설·프로그램·이벤트 등과 연계해야, 축제의 재미와 의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의 91.0% 수준으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유흥비와 기타 비용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식음료비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교통비·쇼핑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와 관련된 식음료와 살거리 개발을 통한 소비지출 확대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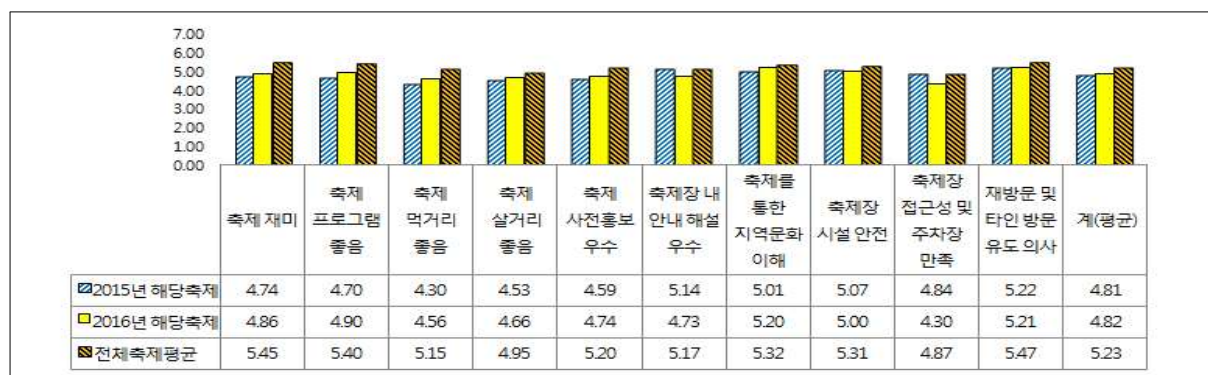


4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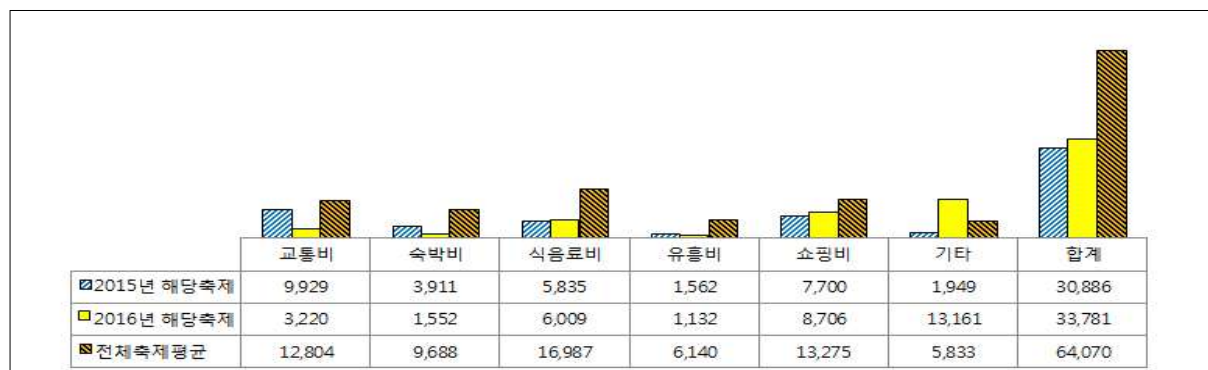
만족도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함. 항목별로는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가 높은 반면, 접근성 및 주차장·안내해설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또한, 먹거리·살거리 만족도 역시 낮게 분석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와 연계된 축제 특성을 유지한 채, 킬러 콘텐츠의 개발 및 상품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절반 수준(52.7%)이며,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기타 항목의 지출은 높게 나타남. 특히, 축제통용화폐를 개발하였음에도 식음료비·쇼핑비 지출이 낮게 나타나 개선의 필요가 있음.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숙박관 광객 유치·체류시간의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연계 상품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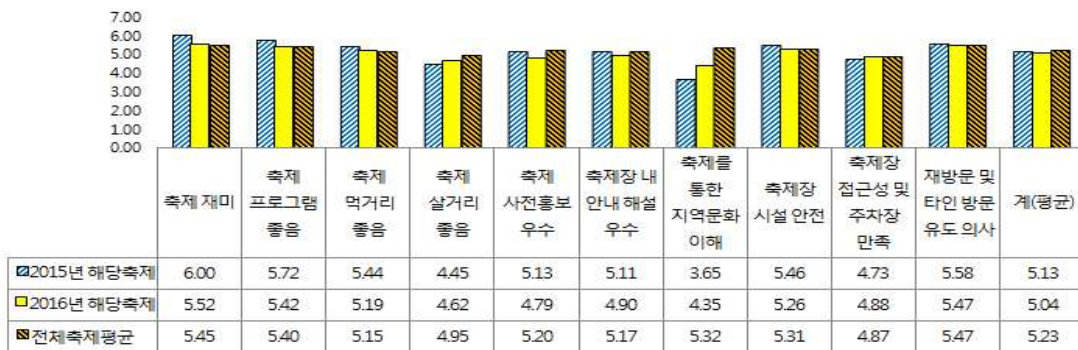


5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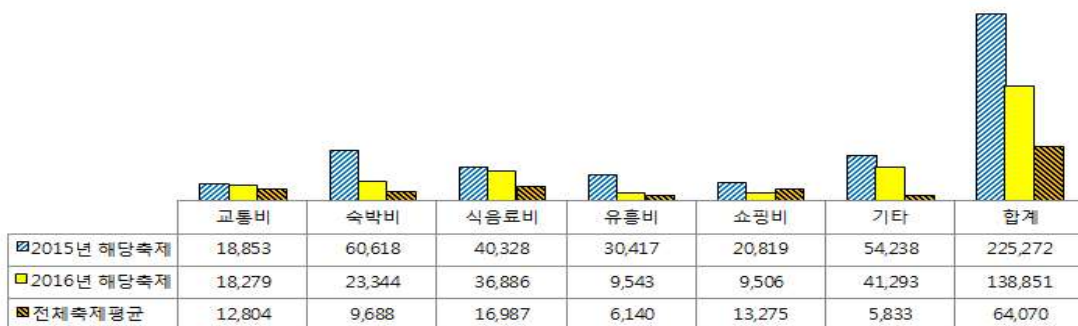
만족도

펜타포트 음악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항목 외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함.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높게 나타난 반면, 살거리·사전홍보·안내해설·지역문화이해 등은 낮게 나타남. 특히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에도 만족 수준이 현저히 낮은 편임. 이에 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지역문화와의 연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216.7%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지출 항목과 금액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지만, 쇼핑비는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이는 축제와 지역사회의 접점이 부족하다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과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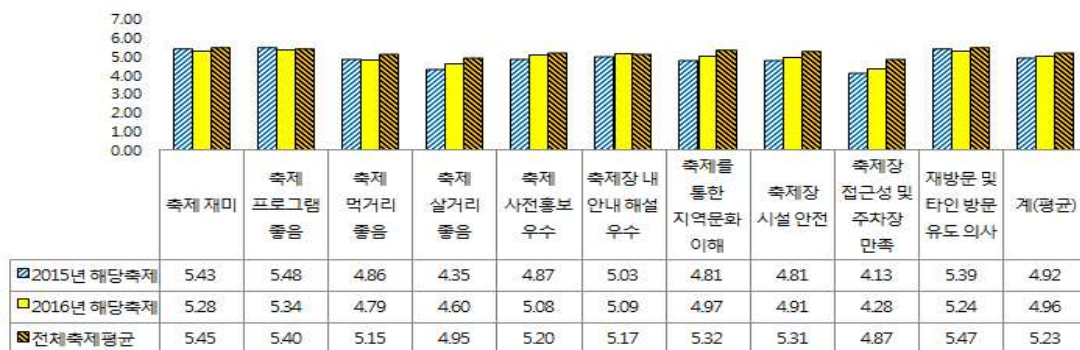


6

추억의 7080 충장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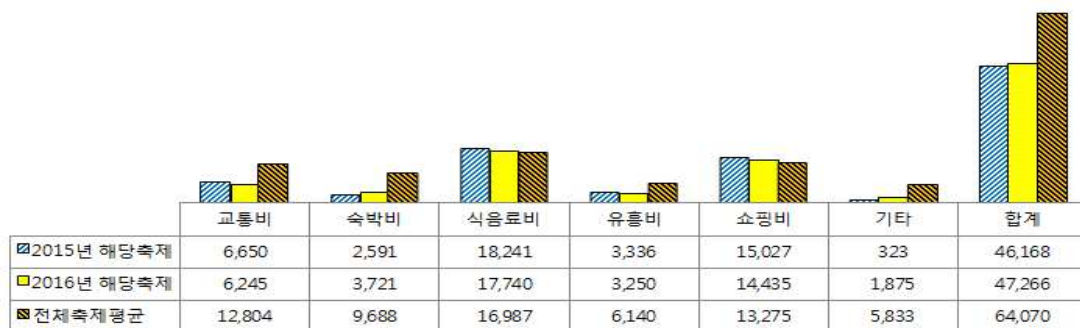
만족도

추억의 7080 충장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만족도 평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항목별로는 전년대비 살거리·사전홍보·안내해설·지역문화 이해·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증가하였으나,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는 감소함. 도심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특성을 반영, 시설 안전·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발견되나 아직 부족한 수준임. 성공적인 축제 육성을 위해 운영의 디테일을 살리는 방안과 흥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출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평균의 73.8%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 대비 식음료비·쇼핑비는 높은 반면, 교통비·숙박비·유흥비는 낮게 나타남. 전년 대비 숙박비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숙박객 유치 방안 모색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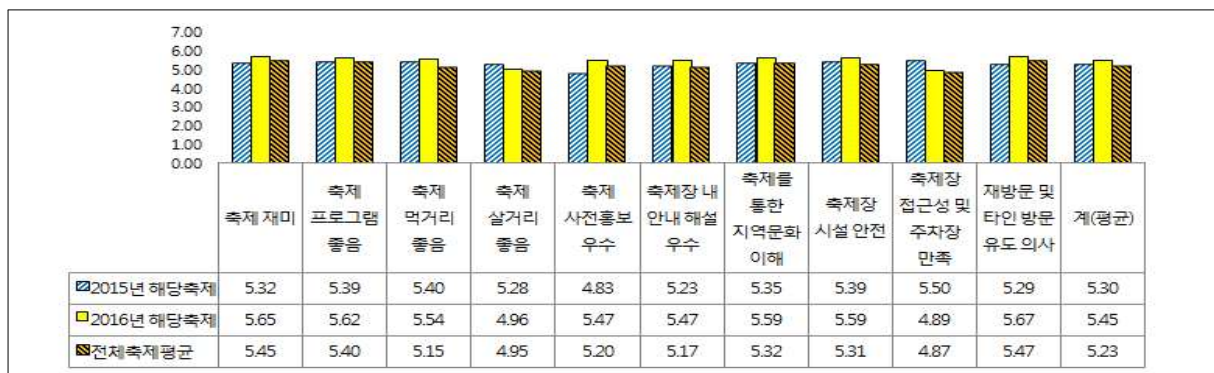


7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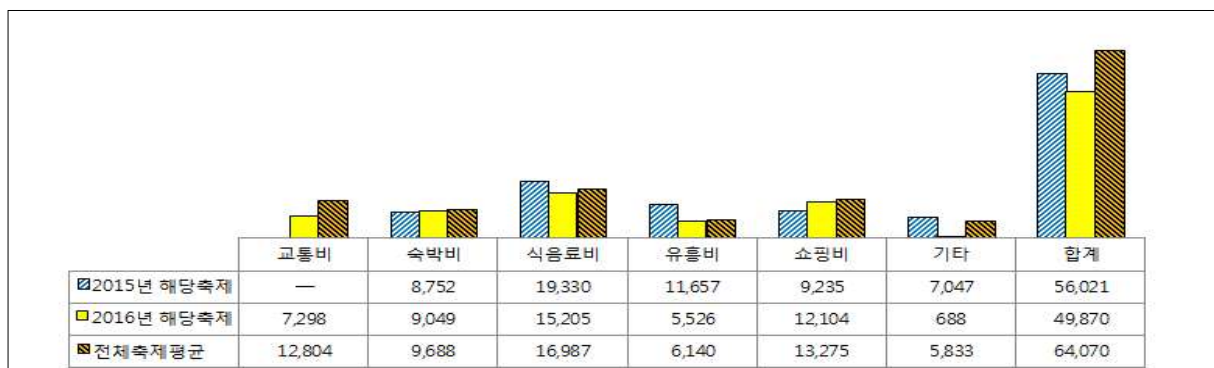
만족도

효문화뿌리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전년 대비 살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항목 만족은 감소함.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측면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여 방문객들은 축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으며, 전년 대비하여도 감소하여, 퍼레이드 시 혼잡도 개선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과는 달리,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의 77.8%로 다소 낮게 나타나며, 전년 대비하여도 감소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쇼핑비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식음료비·유흥비·기타비용은 감소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이색적인 식음료 개발 및 야간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축제 기획과 운영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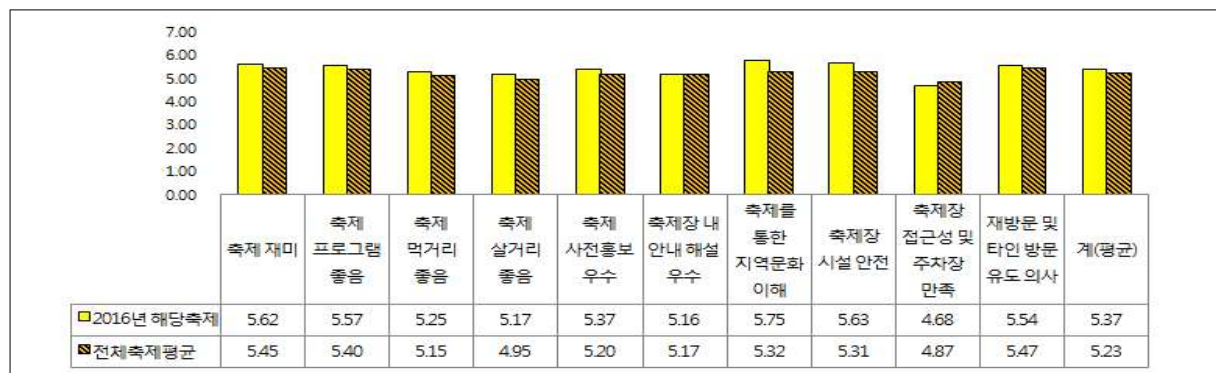


8

울산 옹기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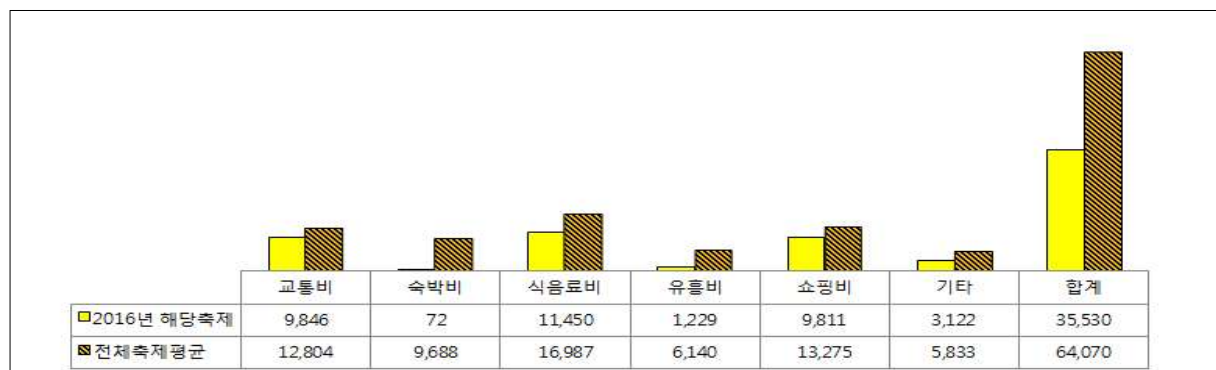
만족도

옹기축제는 전체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신규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항목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이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낮게 나타남.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자차를 통해 방문하며,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만큼, 추가적인 임시 주차장 확충 및 동선 개선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 향상이 가능할 것임.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의 절반수준(55.5%)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이는 전체 평균을 약간 상회한 만족도 조사와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의 지출이 낮게 나타나며 특히 숙박비와 유흥비가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특색 있는 향토음식·특산품 등 먹거리 및 살거리의 발굴과 함께, 야간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한 숙박관광객 유치에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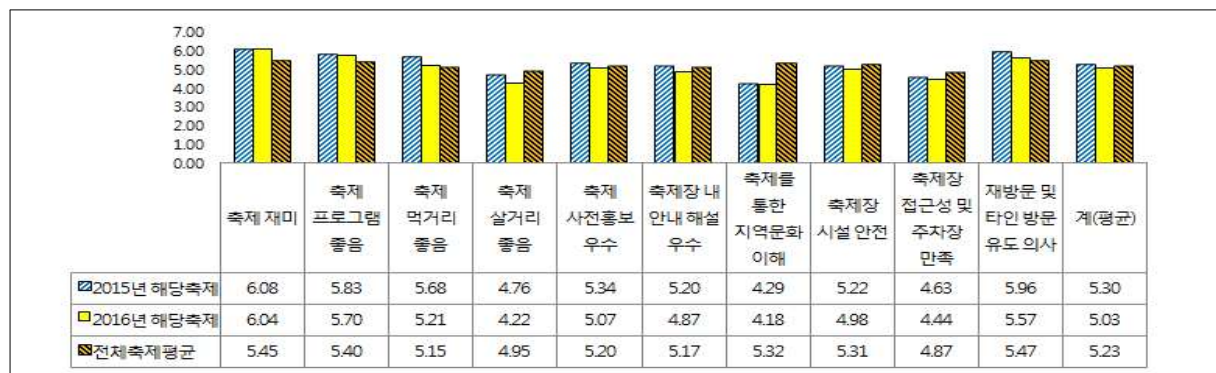


9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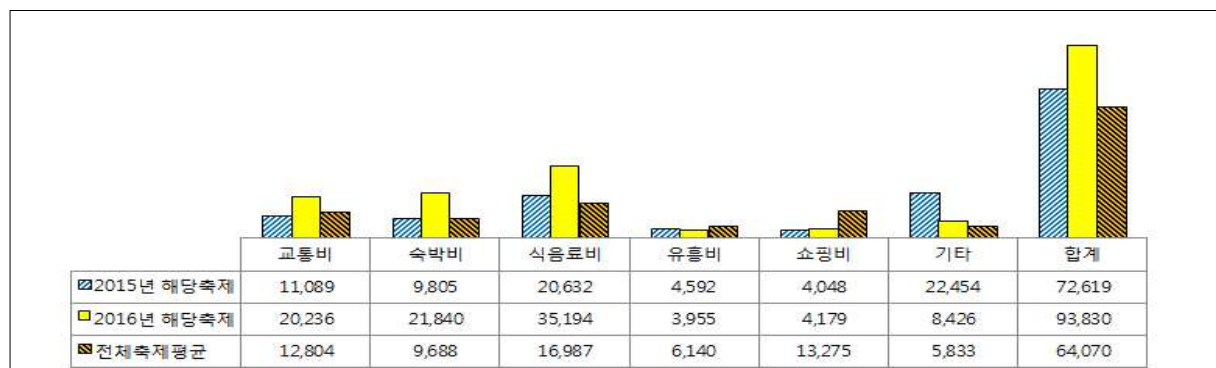
만족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만족도 평균은 전체 축제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 만족이 높은 반면 살거리·사전홍보·안내해설·지역 문화 이해·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전년도 조사에 비해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축제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지역 축제로의 정착을 위해 연계관광 등을 고려한 지역 확산 효과를 고민해야 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46.4%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전년 대비하여 증가함. 지출항목별로는,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는 전년대비 성장과 함께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유흥비·쇼핑비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함. 숙박객이 식음료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나, 유흥비·쇼핑비 지출은 낮아 축제 효과가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고 있음. 축제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과 상품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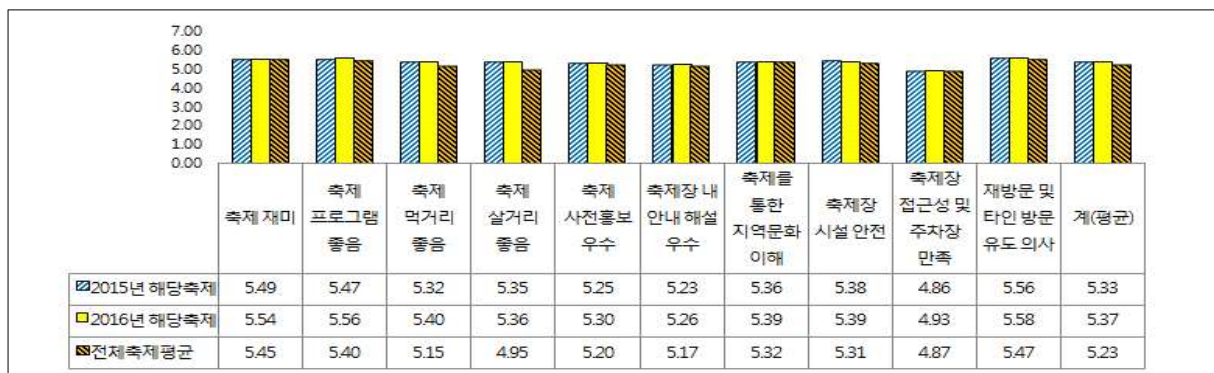


10

이천 쌀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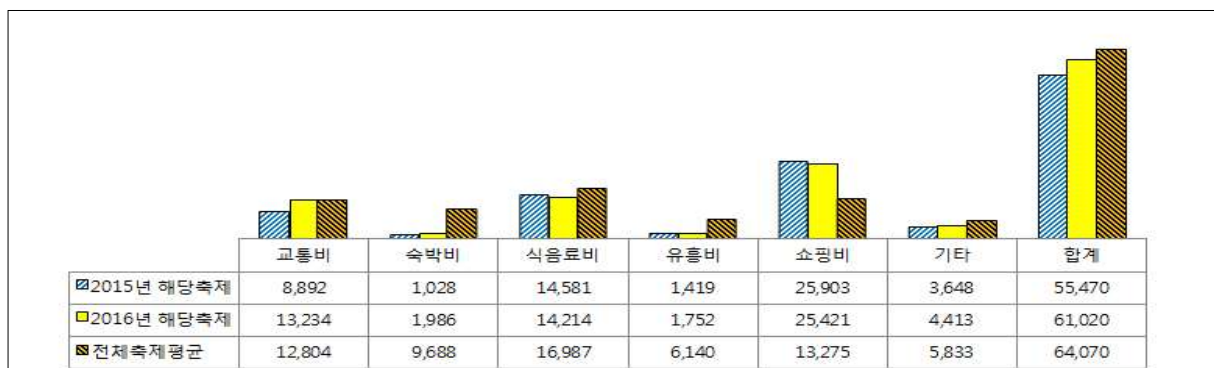
만족도

쌀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이는 모든 항목에서 나타나는 결과임. 전년 만족도 조사 결과와 대비하여 포함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가 높게 나타나 방문객의 긍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나, 주차공간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동선 배치가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95.2%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 전국 평균을 상회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쇼핑비가 전체 축제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과 달리 식음료비는 다소 낮게, 숙박비·유흥비는 아주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증대를 위해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숙박관광객 유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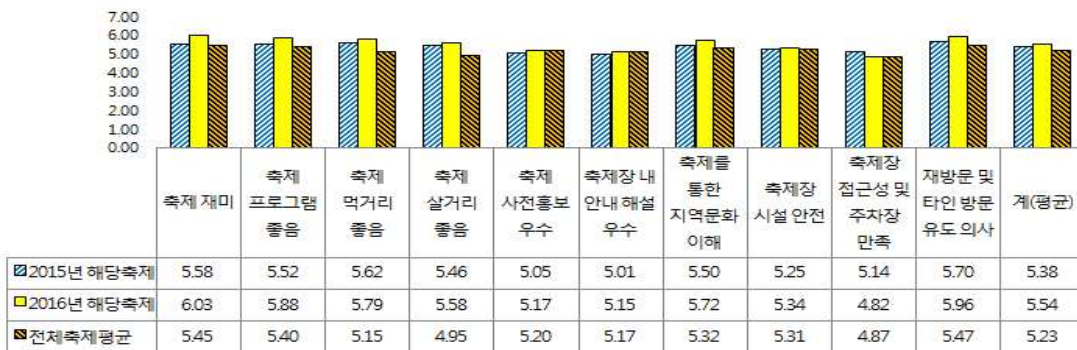


11

여주 오곡나루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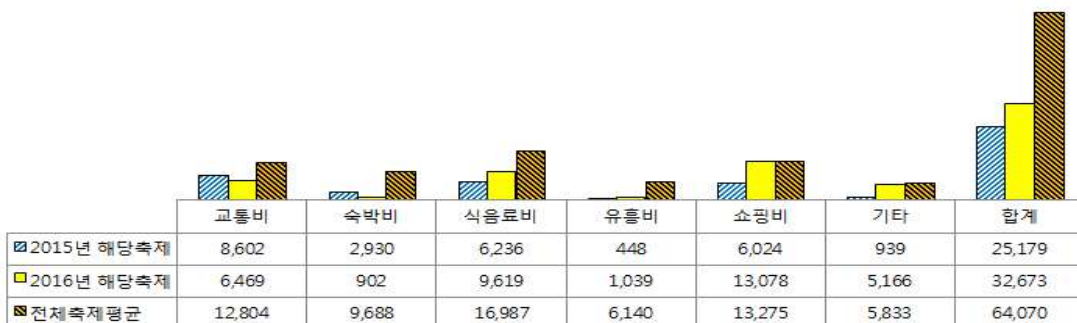
만족도

오곡나루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나타나는 결과임. 전년 대비 대부분 항목의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나,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감소하였고,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상황임.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방문객의 긍정적 평가가 확인되나, 사전홍보·안내해설·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관리와 동선 통제 등 서비스요소의 강화가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절반(51.0%)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방문객 만족도 조사와 다른 결과를 보임. 전년 대비 식음료비·쇼핑비는 증가하였으나, 숙박비·교통비는 감소함. 특히, 모든 항목의 소비지출이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특색 있는 먹거리 발굴과 함께 숙박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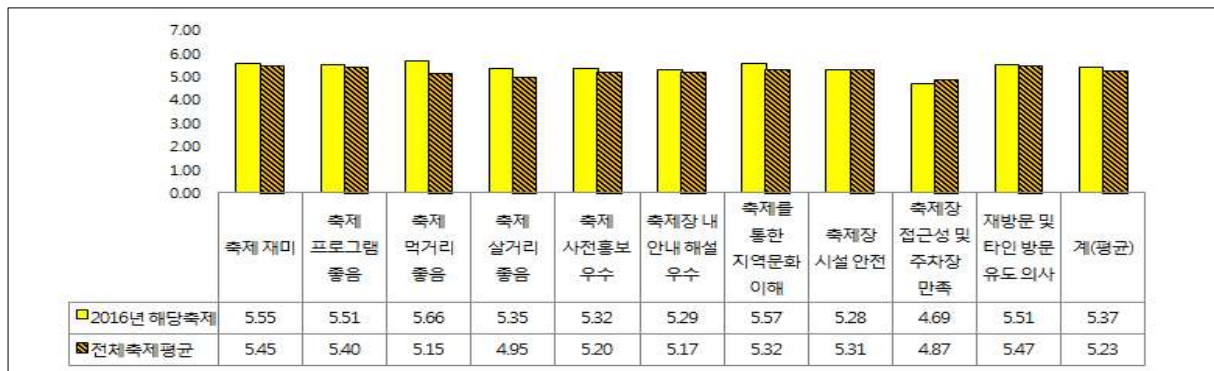


12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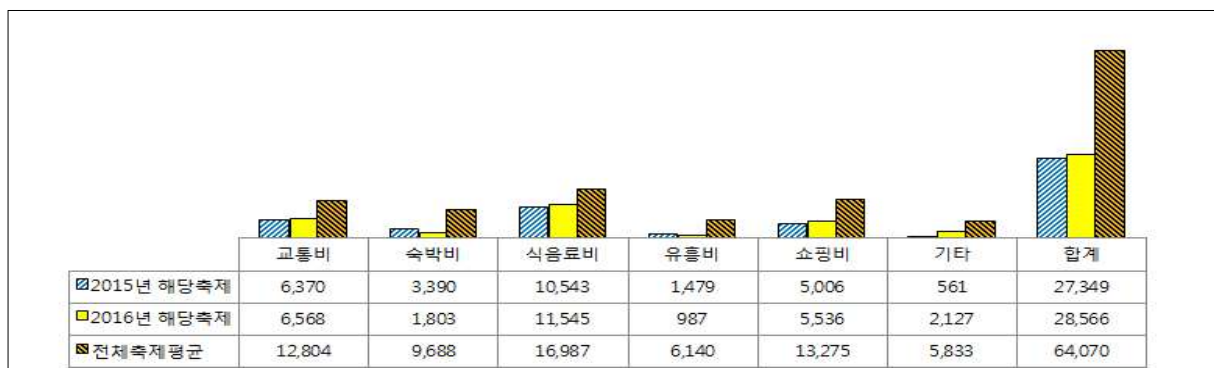
만족도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며, 신규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항목별로는 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시주차장 추가설치·셔틀버스 증차·대중교통서비스 확충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의 44.6%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방문객 만족도와 다른 결과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유흥비 항목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전체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 식음료비·쇼핑비 지출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평균 대비 아주 낮은 수준임.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상징물의 캐릭터 강화를 통한 먹거리·살거리 개발 및 숙박객 유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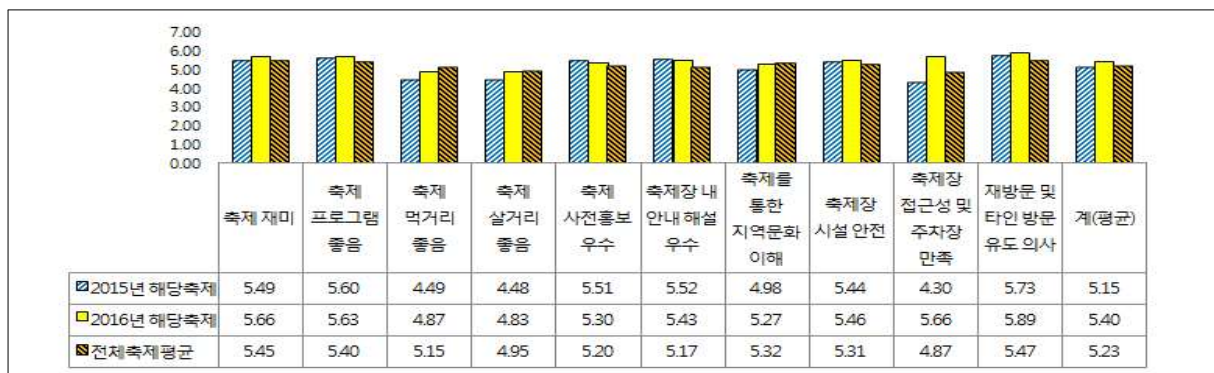


13

화천 산천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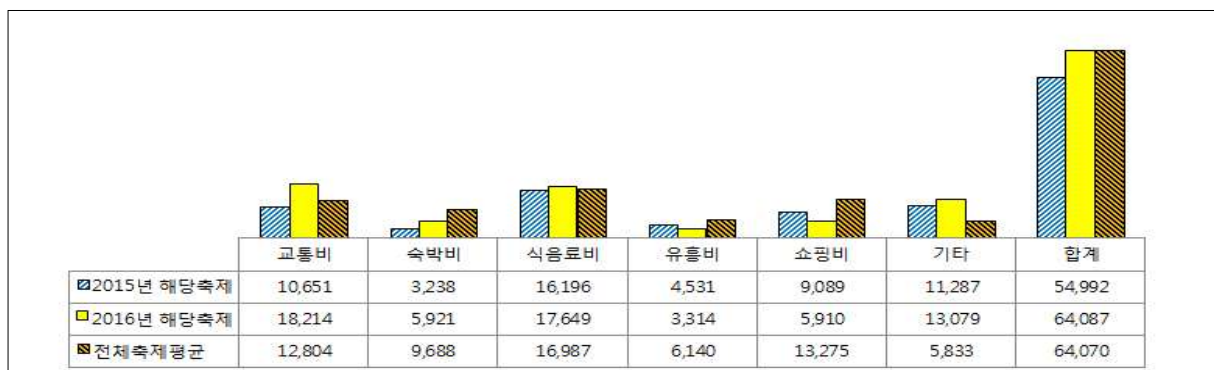
만족도

산천어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남.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먹거리·살거리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다만,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에 있어서 전년 대비 급성장이 나타나 해당 항목의 개선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천어 메뉴개발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의 효과적 판매 방안 모색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식음료비·기타비용 항목은 전체 평균 보다 높고 작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숙박비·유흥비·쇼핑비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함. 이에 소비지출 증대를 위하여, 화천 시내에 부족한 숙박시설·식음시설의 확충을 통한 수용 여건 확보 및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한 숙박관광객 유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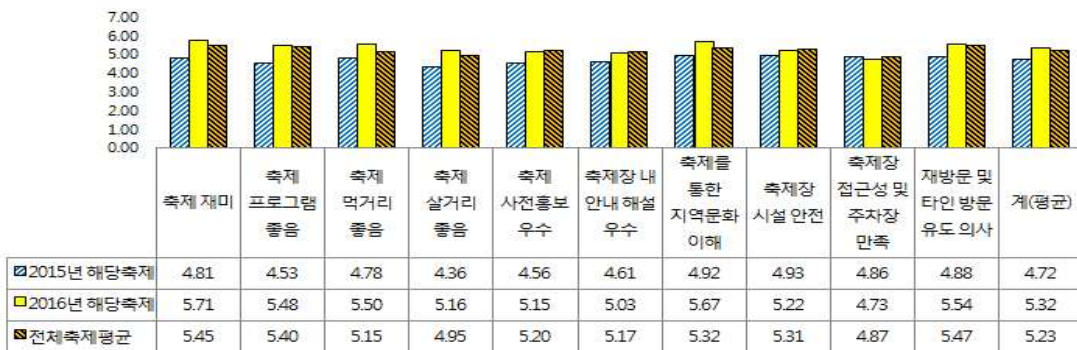


14

평창 효석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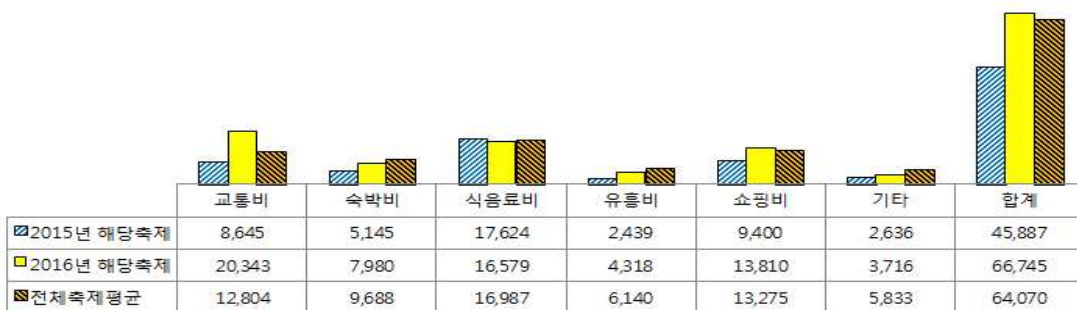
만족도

효석문화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만족도 수준이 크게 증가함. 항목별로는 사전홍보·안내해설·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게,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지역문화 이해·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는 전체 평균을 상회함. 야간 프로그램 강화 등 전년 대비 성공적인 기획과 운영이 이루어졌다 평가할 수 있으나, 축제 성장을 위해서는 접근성·안내체계 등 편의성의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의 104.2% 수준으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쇼핑비만 전체 평균을 상회함. 숙박비·유흥비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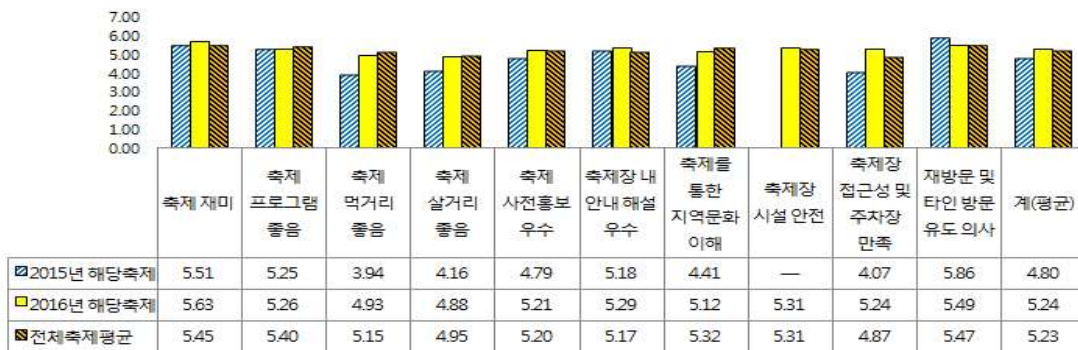


15

춘천 국제마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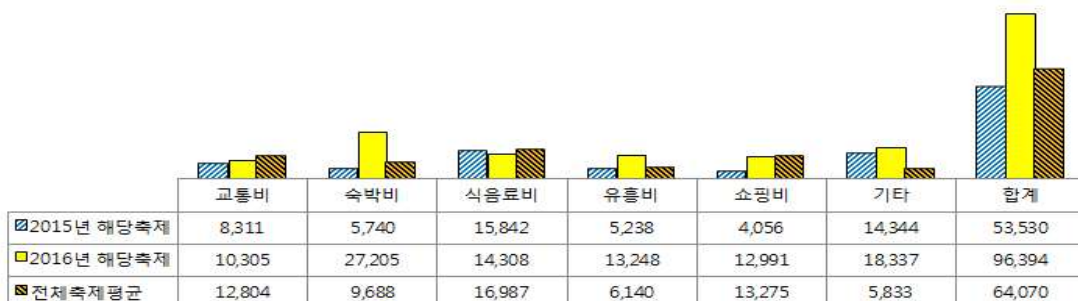
만족도

국제마임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며, 전년 대비 만족도는 증가함.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사전홍보·안내해설·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는 전체 평균보다 높게, 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지역문화 이해는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다만, 먹거리·살거리·지역문화 이해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음에도 전년 대비 증가하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 먹거리·살거리 개발 등을 통한 지역과의 연계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150.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며, 전년 대비 대부분의 항목의 지출이 증가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유흥비·기타비용의 지출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이는 야간축제로 진행되는 축제 특성이 반영된 결임. 소비지출 증가를 위해 지역 연계를 통한 먹거리·살거리 개선이 필요함.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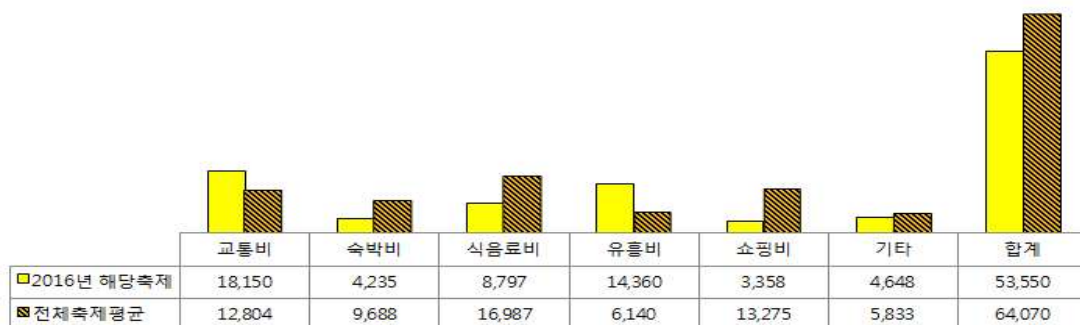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만족도

다이내믹댄싱카니발의 만족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공통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점수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축제들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83.6%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유흥비는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에 반해 숙박비·식음료비·쇼핑비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함. 특히, 쇼핑비는 전체 평균 대비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숙박비·식음료비 증대 방안 및 축제 기념품 개발·지역 연계 상품 개발 등을 통한 쇼핑비 증대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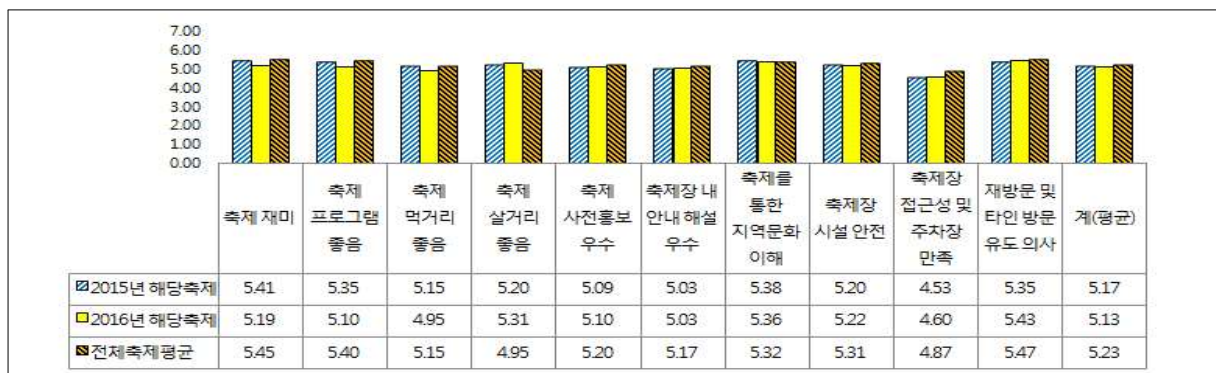


17

괴산 고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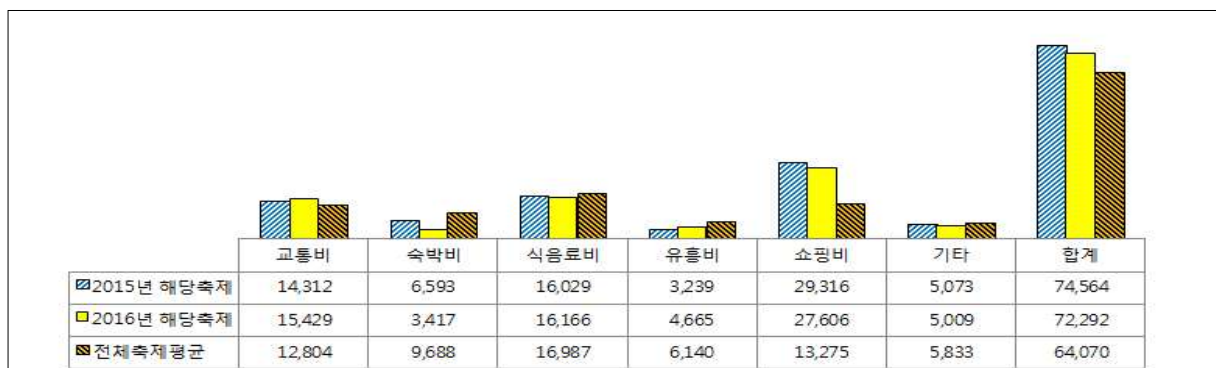
만족도

고추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보험세를 보이고 있음. 항목별로도 살거리·지역문화 이해를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 만족도의 감소가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 콘텐츠 강화·프로그램 개발·홍보 및 안내체계 관리·접근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획·운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112.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보면, 쇼핑비는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축제 콘텐츠와 관련된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숙박비·유흥비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함. 이에 소비지출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숙박객 유치에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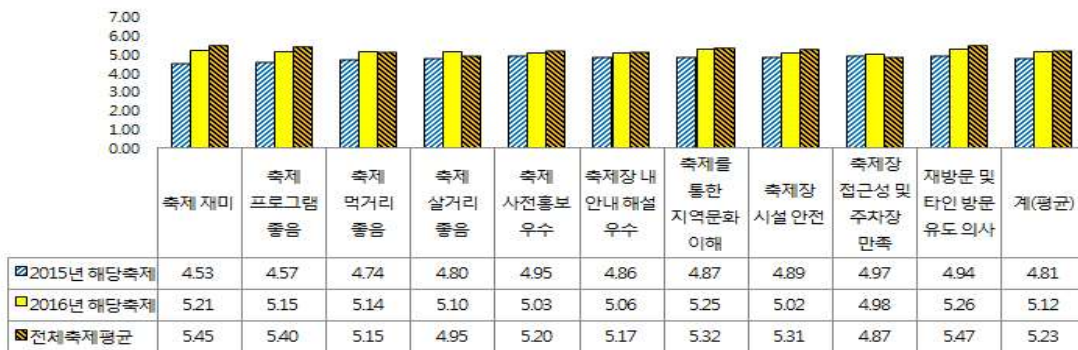


18

강경 첫갈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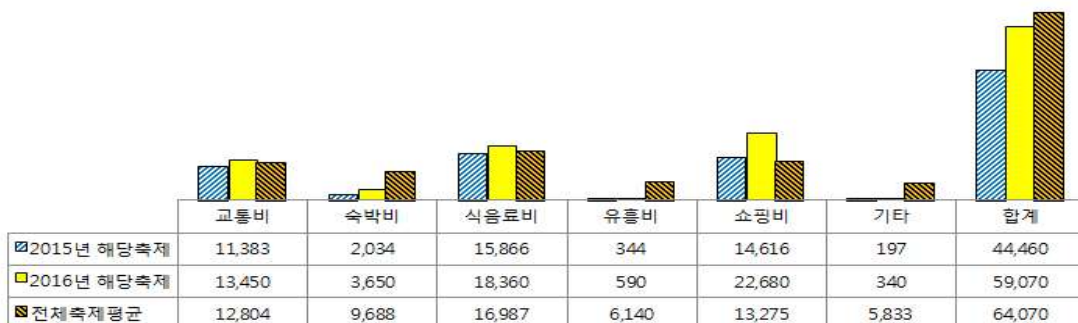
만족도

첫갈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증가하였음.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사전홍보·안내해설·지역문화·시설안전 만족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살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높게 나타남. 다만, 축제 재미·프로그램 등의 항목은 전년 대비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여 축제가 성장 중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축제 재미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92.2%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항목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보면, 쇼핑비 지출은 전체 평균 대비 아주 높은 편이며, 식음료비·교통비도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다만 숙박비·유흥비·기타비용은 낮은 수준으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숙박객 유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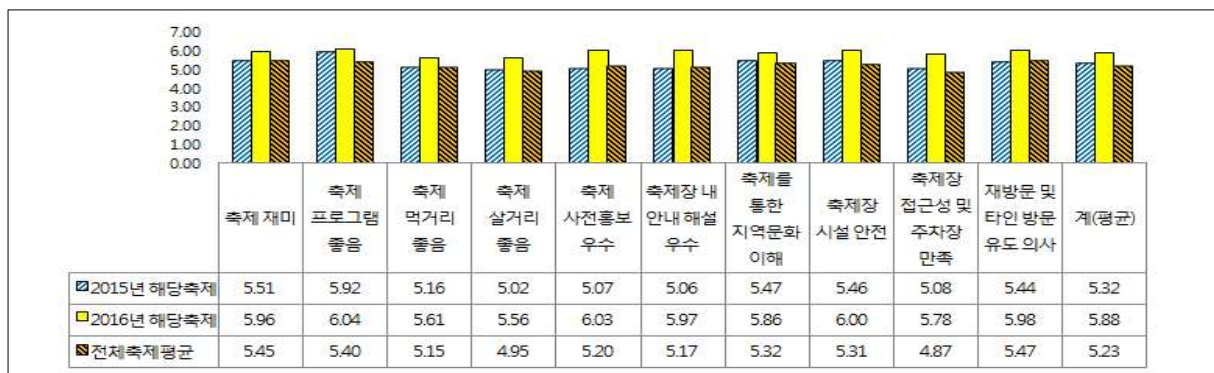


19

부여 서동연꽃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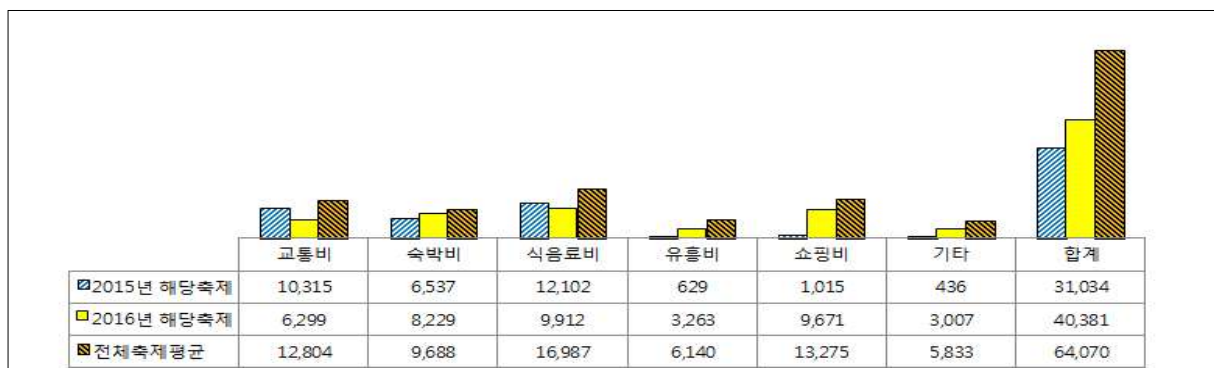
만족도

서동연꽃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보다 높으며 이는 모든 항목에서 나타남. 또한 전년 대비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음. 항목별로는 프로그램·사전홍보 만족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살거리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에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변화를 통해 방문객의 재방문 확보 전략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63.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만족도 조사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남. 전년 대비하여 교통비·식음료비의 감소, 숙박비·유흥비·쇼핑비용 지출의 증가가 확인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의 지출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비지출의 확대를 위하여 숙박·식음시설 및 연계 관광시스템 등 지역 전체의 관광객 수용체계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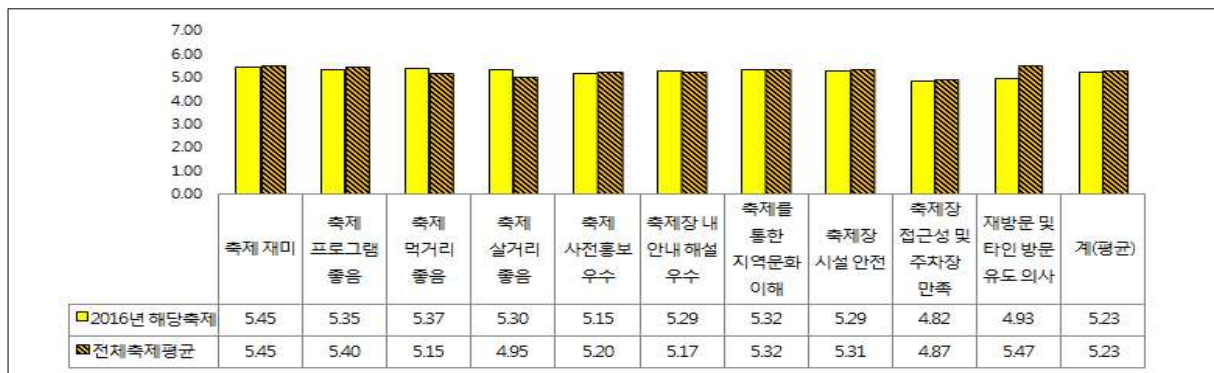


20

한산 모시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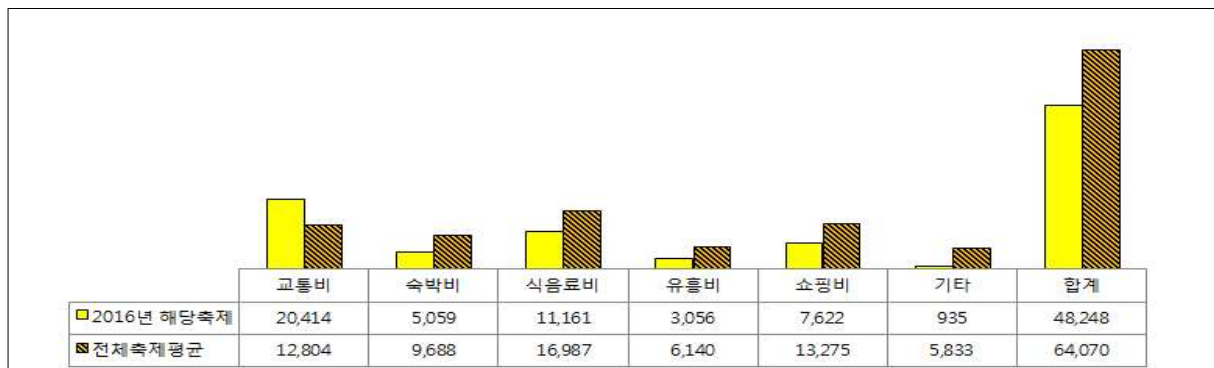
만족도

모시문화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전년도 축제는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취소되어 비교는 불가능함. 항목별로는 먹거리·살거리·안내해설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프로그램·사전홍보·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낮게 나타남. 특히, 만족도에 비해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가 낮게 나타나 방문객의 불만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안내 및 홍보체계 구축·접근성 확보 등 편의성 개선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의 75.3%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달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의 159.4% 수준인 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지출이 낮은 수준임.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류형 방문객 유치를 위한 숙박·식음 시설 및 먹거리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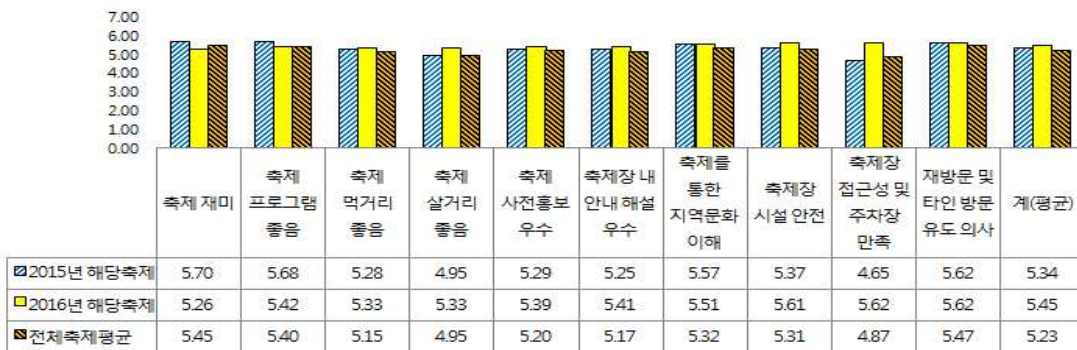


21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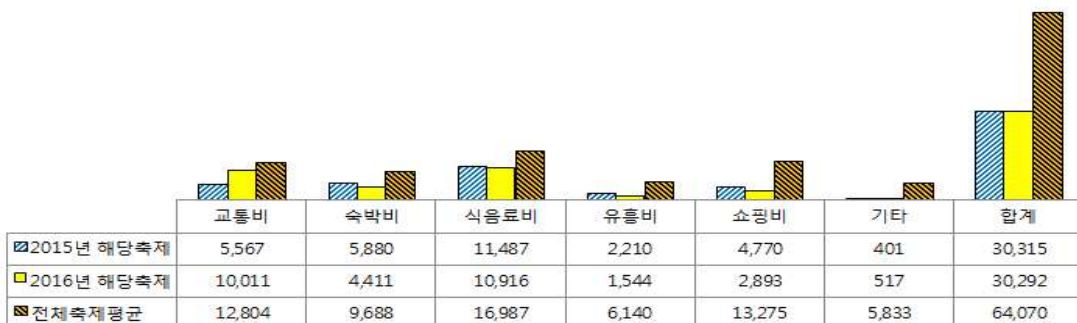
만족도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 만족도는 증가하였음. 항목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축제 재미 만족이 전체 평균보다 낮고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다만,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전년대비 급성장 하였고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관련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 콘텐츠·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타 축제와의 차별화를 이루어야 할 것임.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47.3%)으로 낮게 나타나며, 전년 대비 교통비만 증가하였을 뿐 대부분의 지출이 감소하였음. 특히 쇼핑비는 전체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임. 소비지출확대를 위해 방문객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과 연계된 상품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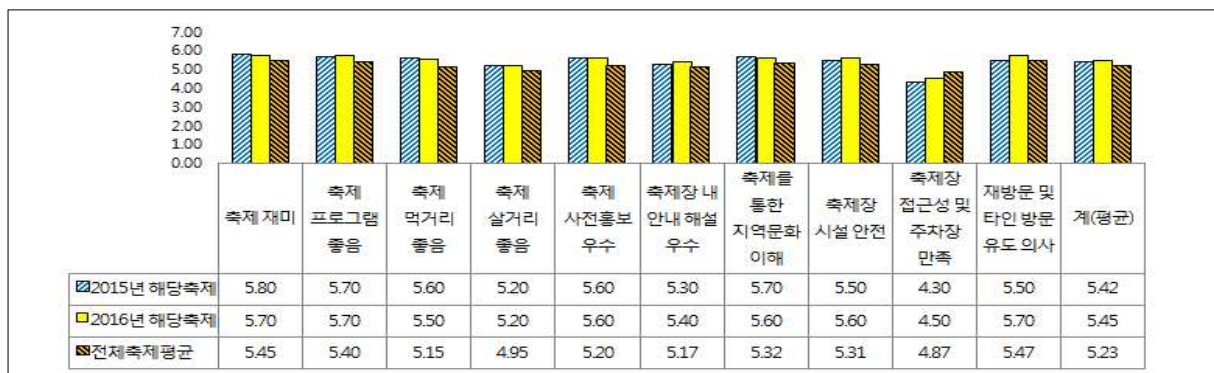


22

김제 지평선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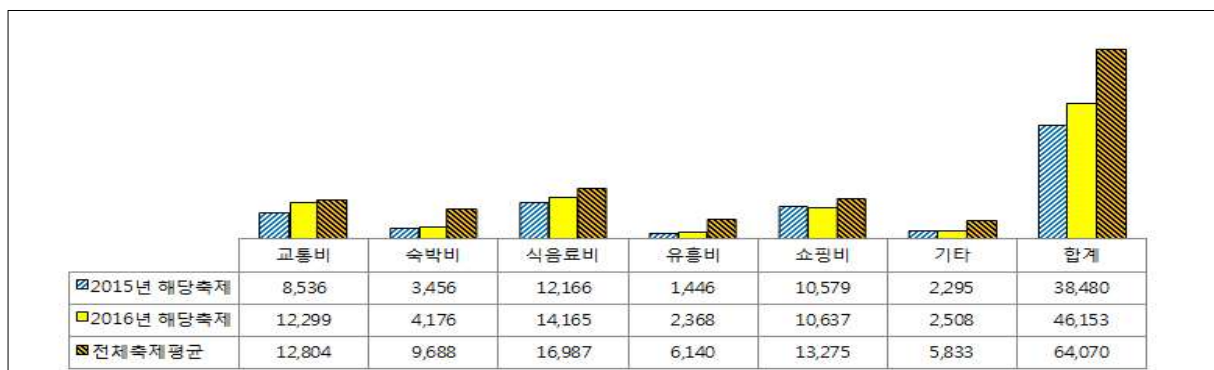
만족도

지평선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며, 전년 대비 포함세를 유지하고 있음. 항목별로는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는 전체 평균 이하로 나타나며, 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특히,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아직 전체 축제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 동선 체계 재구축 및 주차시설 확보가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72.0% 수준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나, 전년 대비 7,673원 증가한 상황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숙박비와 유흥비는 전체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쇼핑비는 전년 대비하여도 감소한 상황임. 다만,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 등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먹거리·살거리 개발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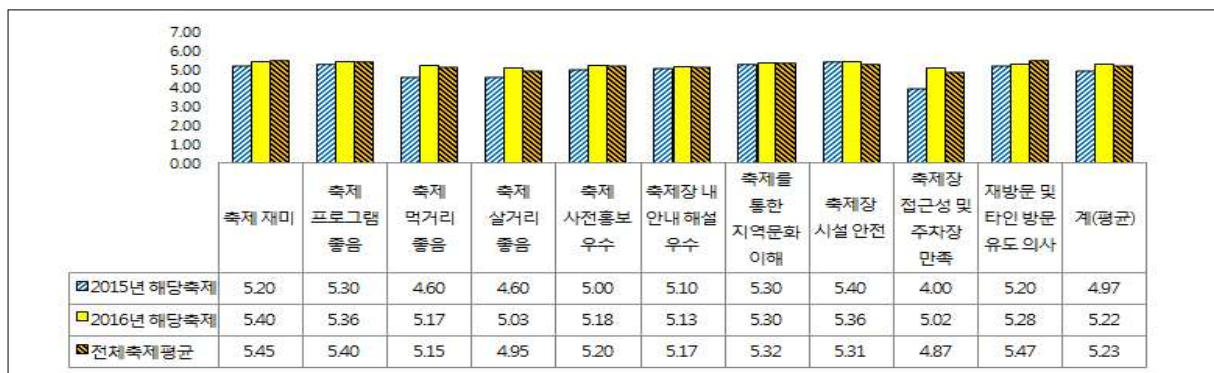


23

무주 반딧불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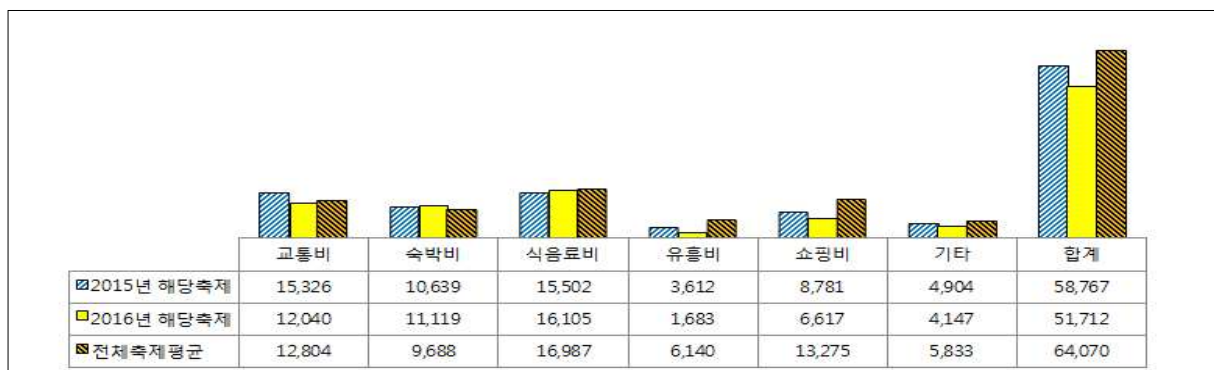
만족도

반딧불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항목별로는 먹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개선 중에 있음이 확인됨. 다만, 만족도 평균은 전체 축제 평균과 유사하나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가 낮게 나타나 방문객의 불만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살거리 개발을 통한 재미 확보와 접근성·안내해설 등 편의성 확보가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축제 전체 평균 대비 80.7% 수준으로, 타 축제와 유사한 만족도 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는 전체 평균과 유사한 반면, 유흥비·쇼핑비 지출은 낮은 편이며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축제 주제와 연결된 다양한 체험 및 지역 특산물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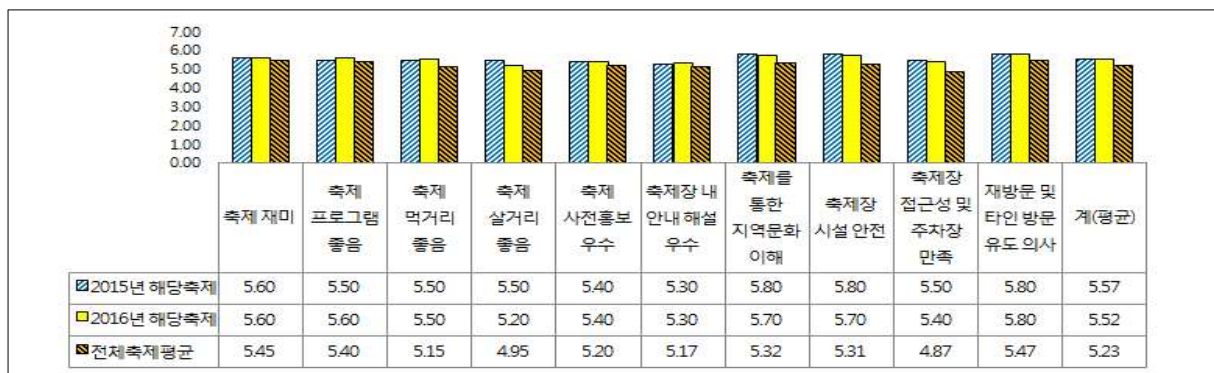


24

순창 장류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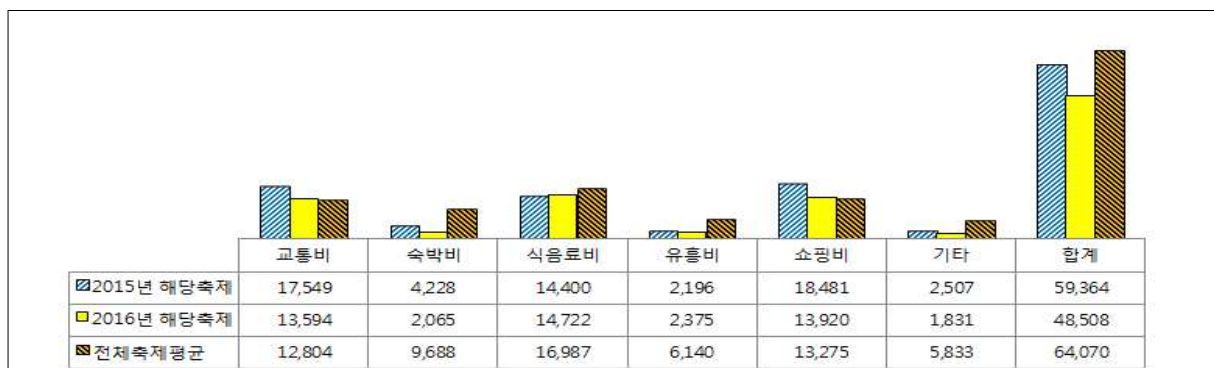
만족도

장류축제의 만족도는 축제 전국 평균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나며,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가 나타남.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 역시 작년과 같은 수치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축제의 기획과 운영이 성공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살거리·지역문화·시설안전 만족도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개선 노력이 필요함. 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의 완성도 확보가 중요한 시점임.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10,856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평균 대비 75.7% 수준으로 높은 만족도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식음료비·쇼핑비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숙박비·유흥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야간 프로그램 개선·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등을 통한 체류형 방문객 유치로 지역 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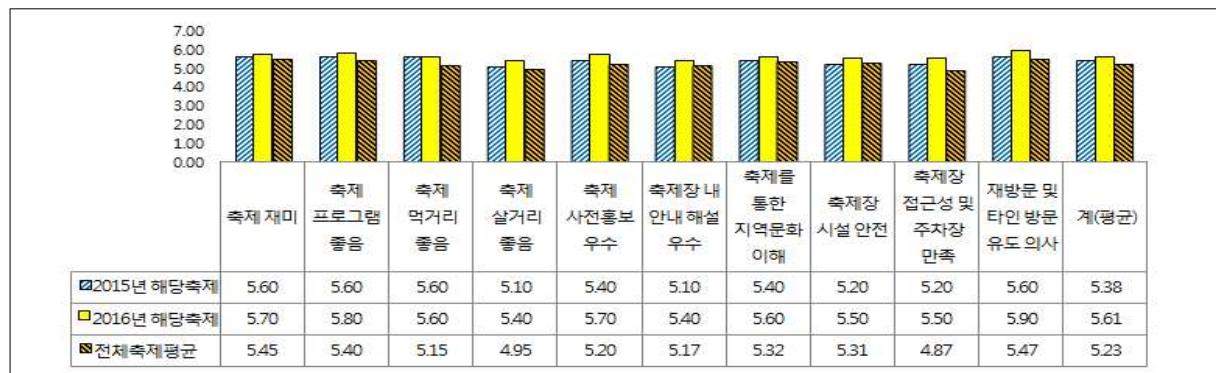


25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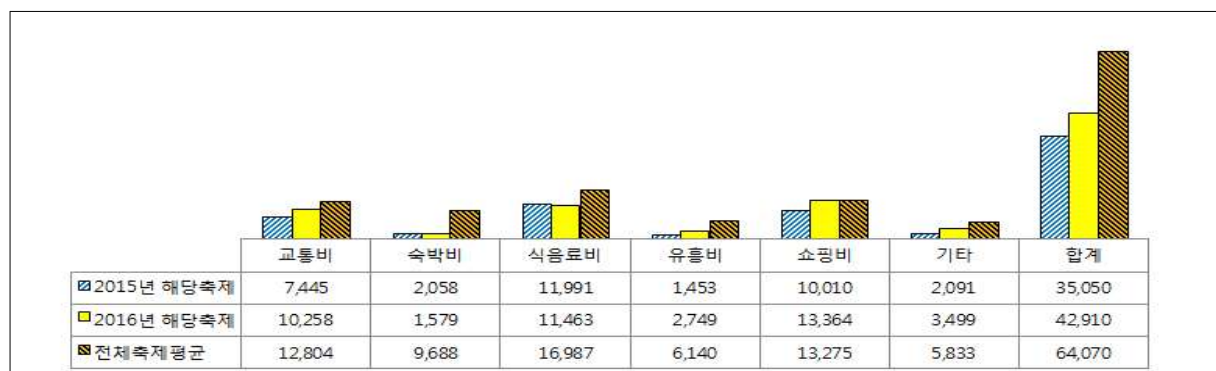
만족도

와일드푸드축제의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전체 축제 대비 높게 나타나며, 전년 대비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증가 혹은 유지되었음.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살거리·안내해설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전체 대비 높게 나타나 방문객들의 평가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음. 품질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프로그램의 완성도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높은 만족도와는 달리 전체 축제 평균 대비 67.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전년 대비 지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해당 축제가 먹거리 관련 축제인 만큼 소비지출 증대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먹거리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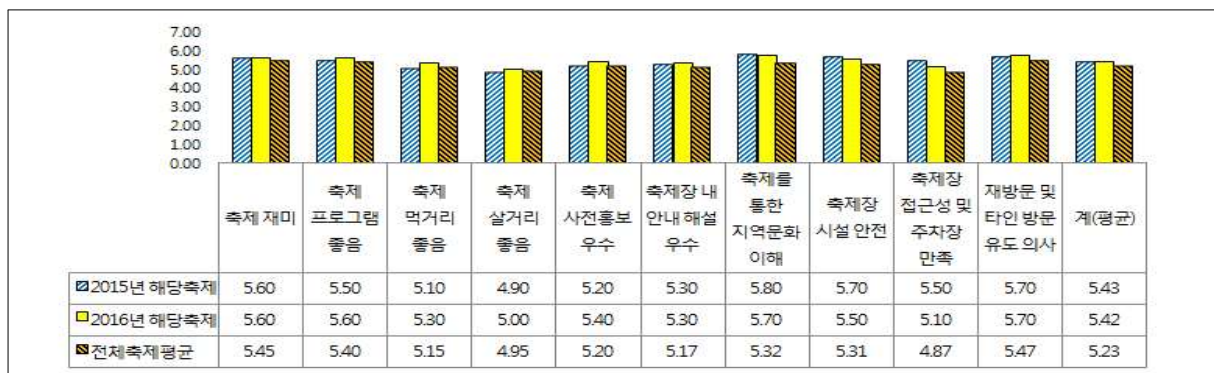


26

고창 모양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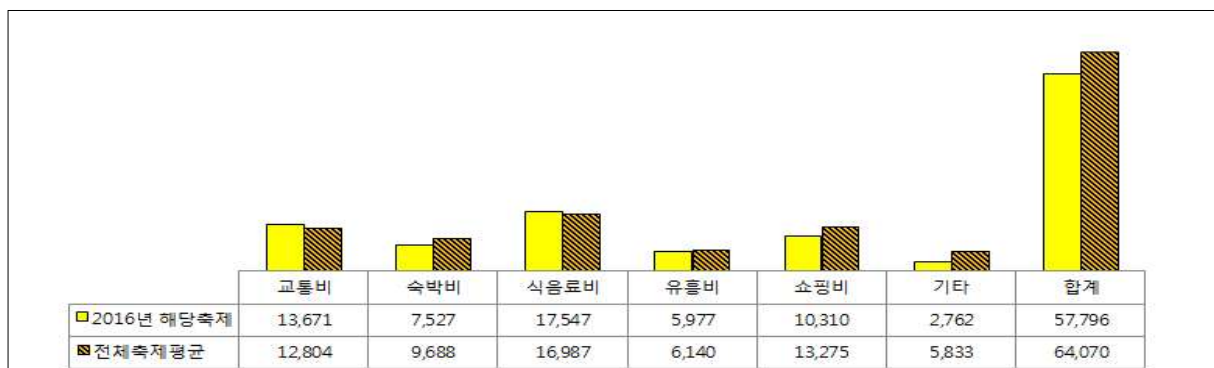
만족도

모양성제의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전체 축제 대비 높게 나타나며, 전년 만족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항목별로는 지역문화·축제 재미·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살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조금 낮은 편임. 특히,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가 높게 나타나 방문객들의 축제 평가가 우수함을 알 수 있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연계 상품을 더 개발하여 먹거리·살거리 확충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대비 90.7% 수준으로 다소 낮은 편이며, 전년 자료가 없어 비교는 불가능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식음료비 지출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숙박비·유흥비·쇼핑비·기타 지출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류형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과 상징물 개발을 통한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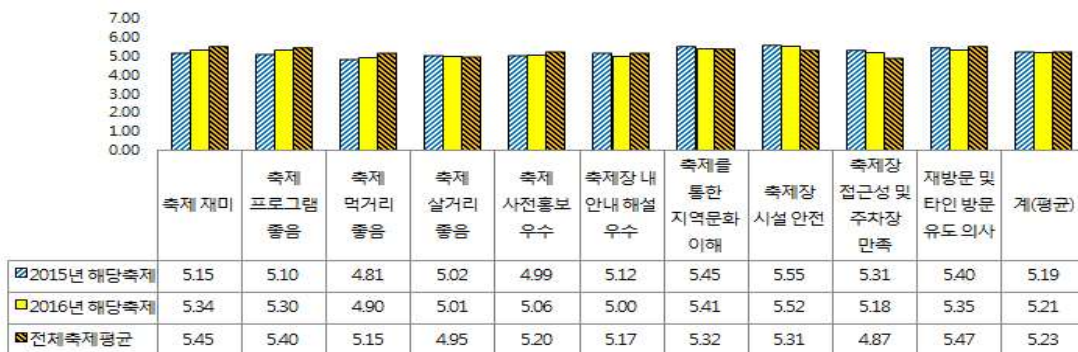


27

강진 청자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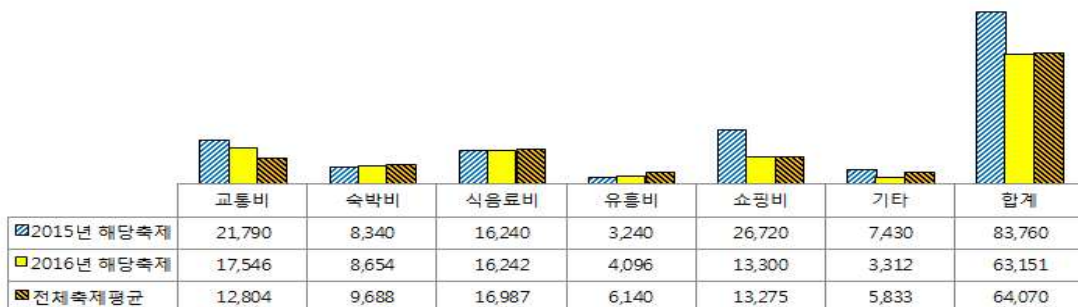
만족도

청자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포함세를 유지하고 있음. 항목별로는 살거리·지역문화·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사전홍보·안내해설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특히,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 등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강화와 이를 통한 먹거리·살거리 개발 및 축제 재미 충족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과 비슷한 수준(98.6%)이지만, 전년 대비 20,609원 감소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쇼핑비의 감소(13,420원)가 두드러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숙박시설 확충 등 인프라 확보를 통한 숙박객 유치 및 청자가격 사전 고지 등을 통한 쇼핑지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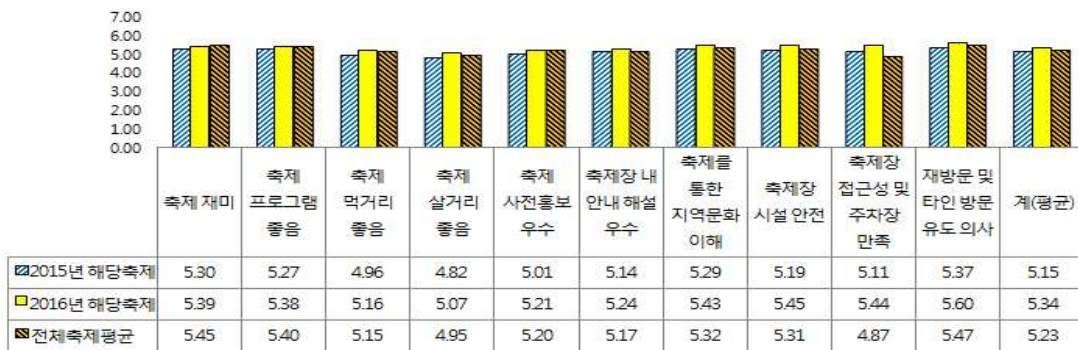


28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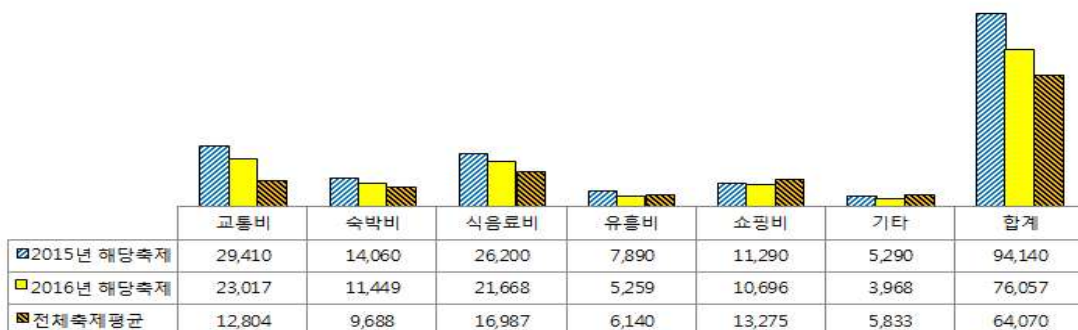
만족도

신비의 바닷길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 만족도보다 증가하였으며, 축제 재미·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한편 먹거리·살거리 만족도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제와 연결된 먹거리·살거리 발굴을 통한 소득 창출 방안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의 118.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나, 전년 대비 18,083원 감소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 항목은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유흥비·쇼핑비·기타 지출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지출액의 전년 대비 감소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주제와 연계된 기념품의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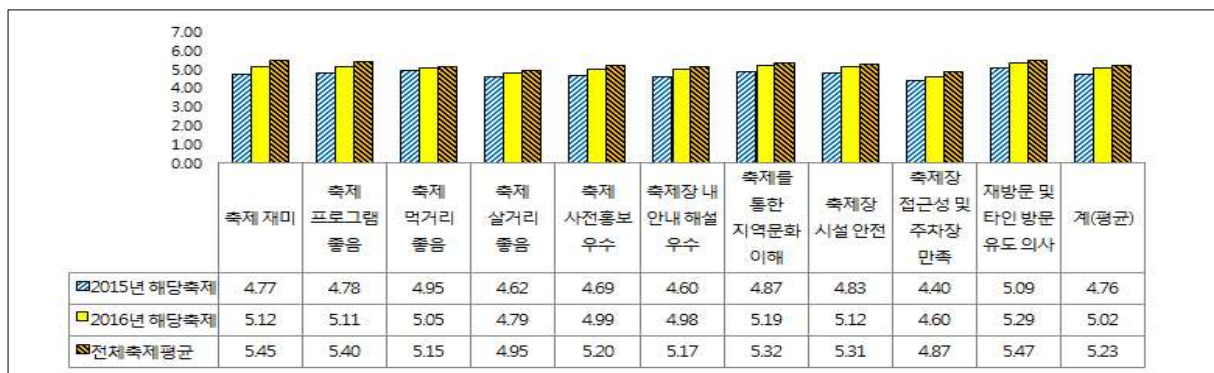


29

담양 대나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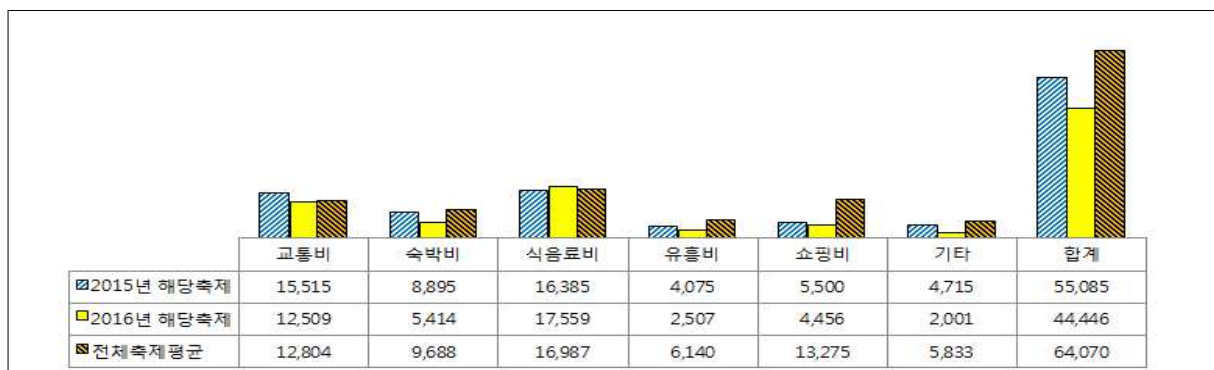
만족도

대나무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이는 모든 항목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다만,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어 축제 기획·운영이 개선 중에 있음이 확인됨. 항목별로는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가 가장 낮게 보고되어 개선이 시급하며,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여의사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나 차년도 축제의 성과가 기대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69.4%로 방문객 만족도와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식음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지출이 전체 평균보다 적고, 전년 대비하여 감소하였음.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류형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대나무 관련 상품의 소비 진작을 위해 보다 실용적인 제품 개발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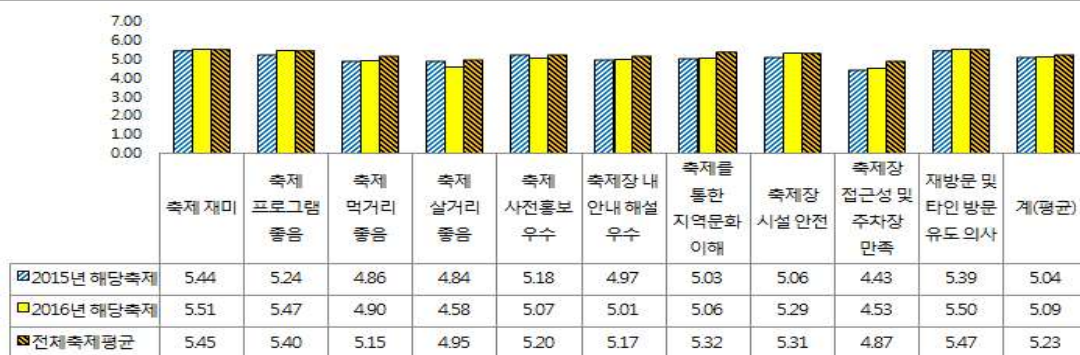


30

장흥 정남진장흥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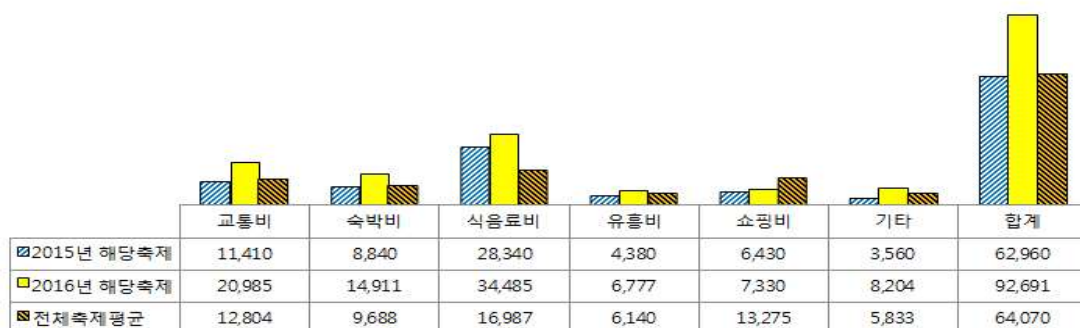
만족도

정남진장흥물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음.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 만족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항목의 만족도는 낮은 편임. 특히, 살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가 낮게 보고되어 개선이 필요함. 다만,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는 전체 평균보다 높게 보고되어, 방문객들의 우수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정체문제 해결을 통한 접근성 개선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144.7%로 만족도 조사와 달리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전년대비 급증(29,731원)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의 지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쇼핑비를 제외한 항목의 지출액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기념품 제작 등 쇼핑 유인책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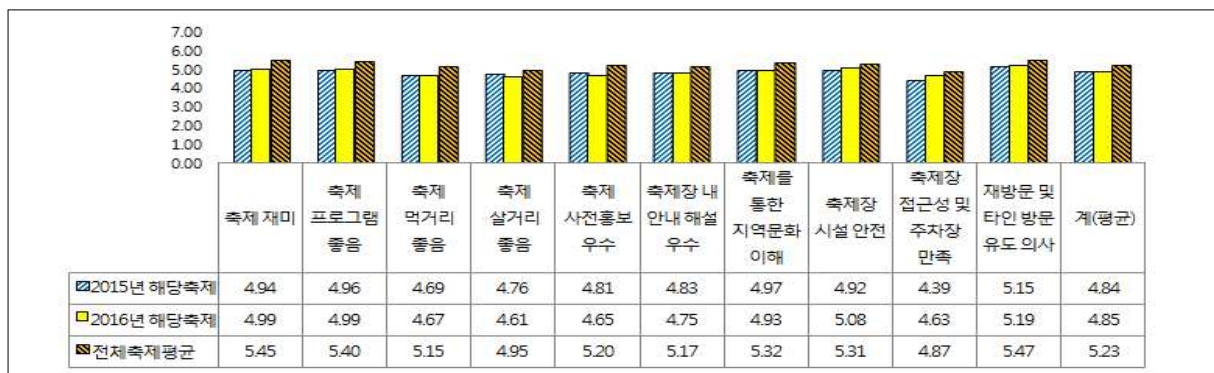


31

보성 다향제, 녹차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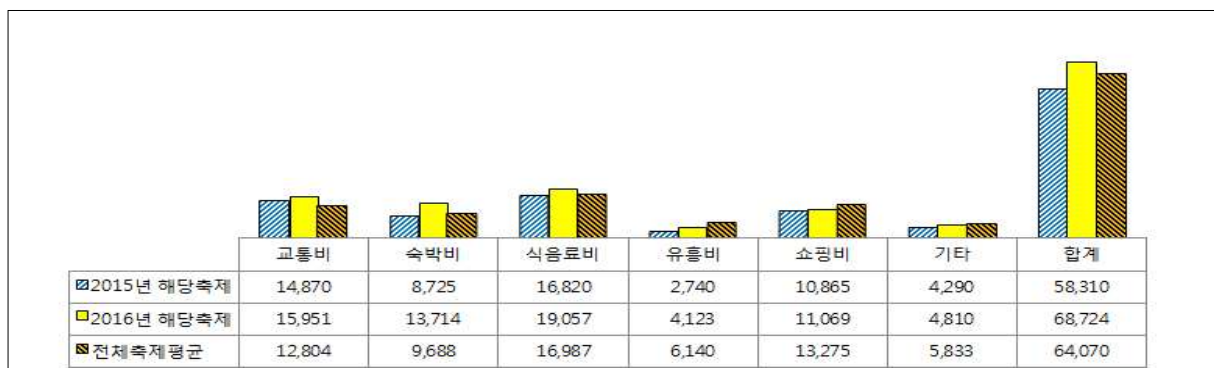
만족도

다향제, 녹차대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만족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체 축제 평균보다 다소 낮게 보고됨.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진단 및 평가가 요구되며, 특히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먹거리·살거리·홍보·접근성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107.3% 수준으로 높게 보고되어 만족도 조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년 대비 모든 항목의 지출이 증가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 지출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유흥비·쇼핑비·기타비용 지출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판매부스 관리·감독을 통한 쇼핑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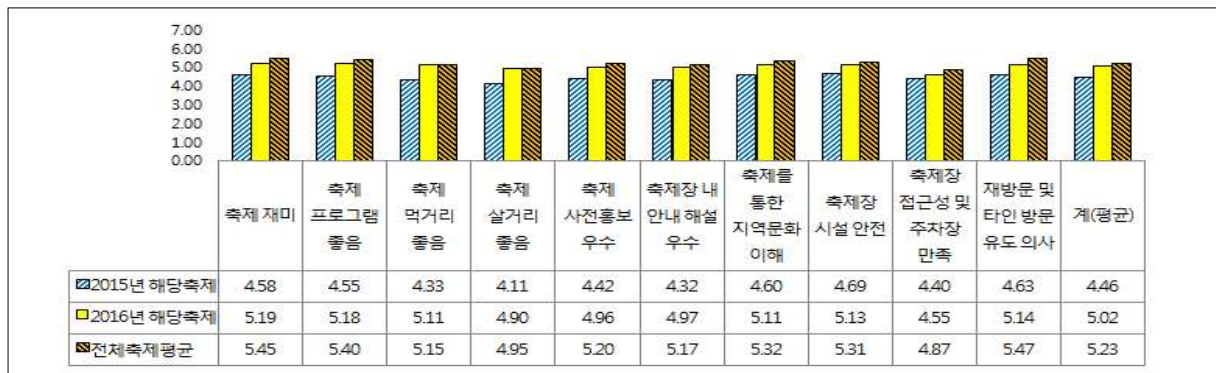


32

목포 항구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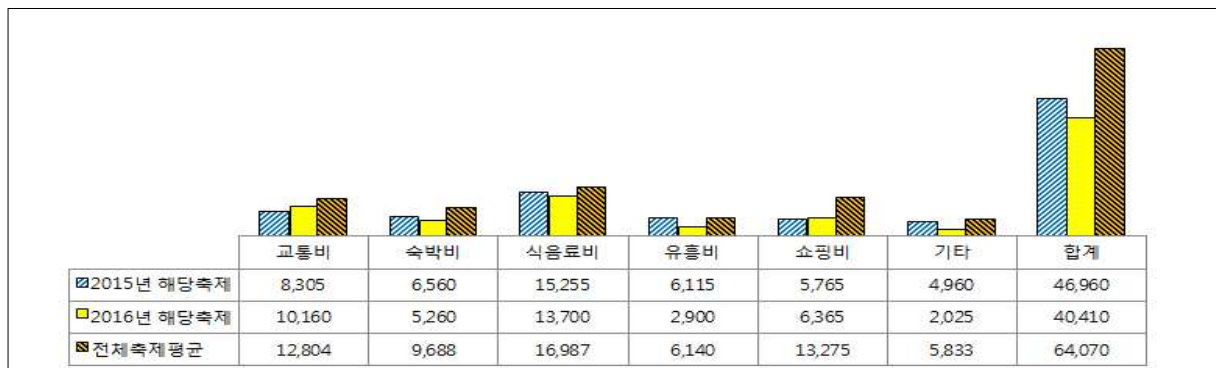
만족도

항구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다만, 전년대비 만족도가 대폭 증가한 상황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 중에 있음.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반면, 살거리·사전 홍보·안내해설·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 주제와 연결된 상품 개발, 주차장과 행사지 간의 접근성 개선, 홍보 및 안내체계 등 편의성 개선 등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63.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며,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의 지출액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기타비용 지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특히, 숙박비·유흥비·쇼핑비는 전체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임.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해산물 구매 이벤트와 원가시장 개방 등 주제에 부합하는 쇼핑상품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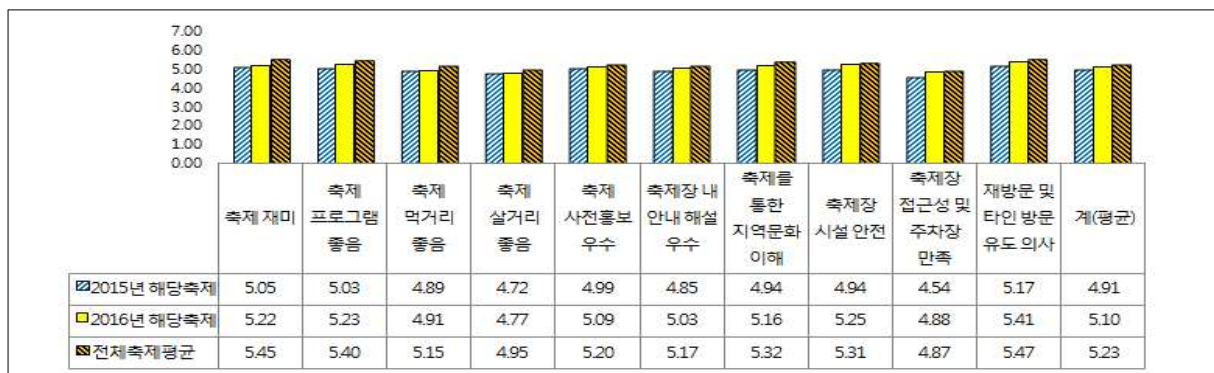


33

영암 왕인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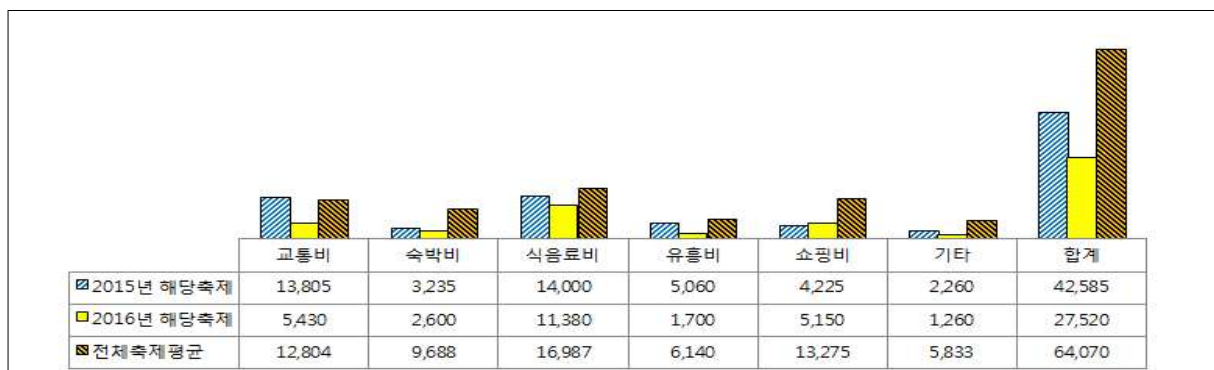
만족도

왕인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며,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항목별로는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전체 축제 대비 낮게 보고됨. 특히, 먹거리·살거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다만,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년 축제 방문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제와 연결된 먹거리·살거리의 개발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43.0%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며,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보면, 모든 항목의 지출액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증가한 쇼핑비도 전체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야간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숙박객 유인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은 축제 주제와 연관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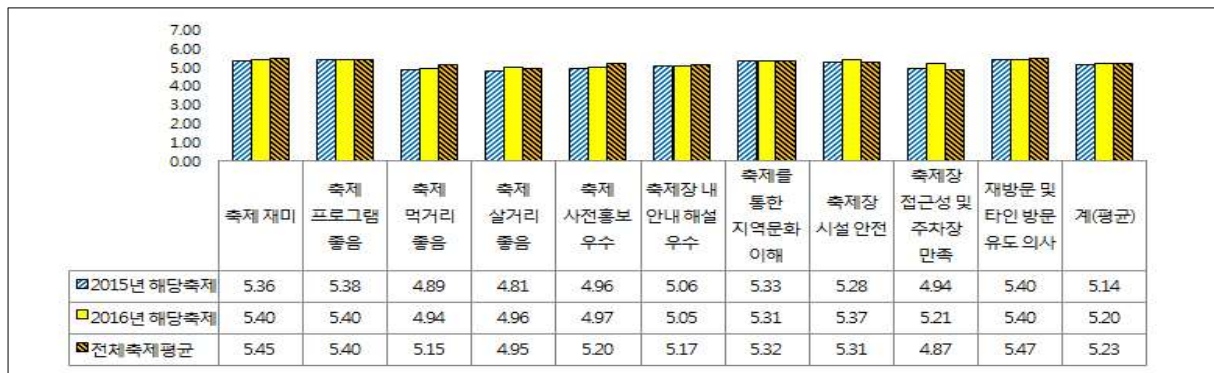


34

문경 전통차사발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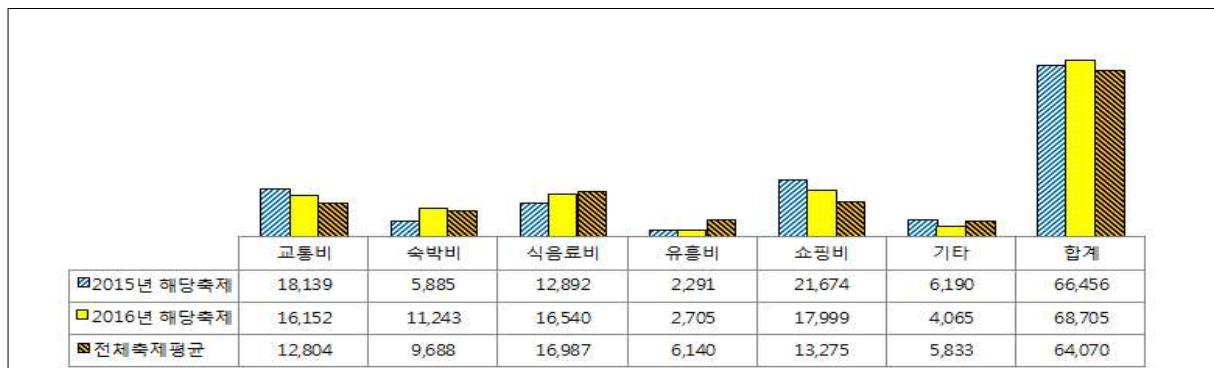
만족도

전통차사발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지역문화·시설안전에 대한 평가는 자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 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안내해설 등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성을 강화한 먹거리·살거리 발굴과 안내해설 등 인적서비스 제고를 통한 편의성 확충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107.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며, 전년 대비 2,249원 상승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유흥비와 기타비용을 제외한 항목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나, 교통비·쇼핑비·기타비용의 지출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특히 유흥비 지출은 전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임. 소비지출 확대와 파급효과 증대를 위해 주변관광지와 연계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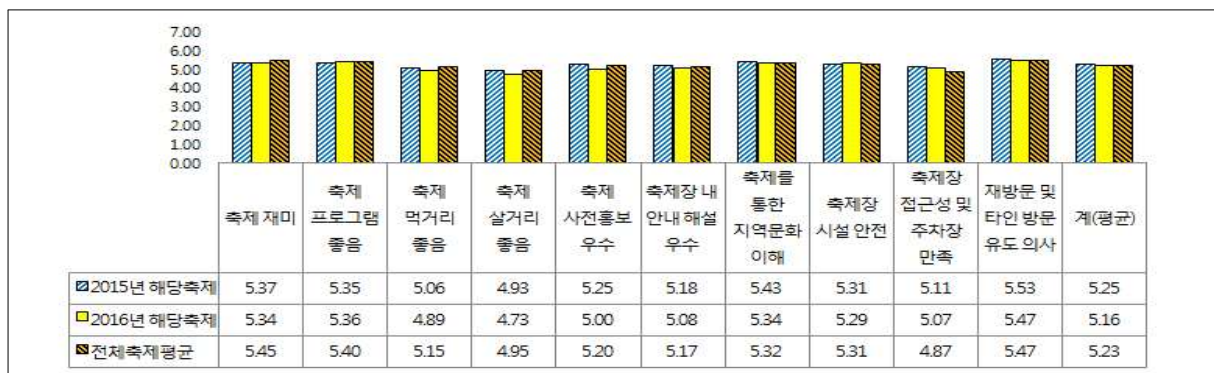


35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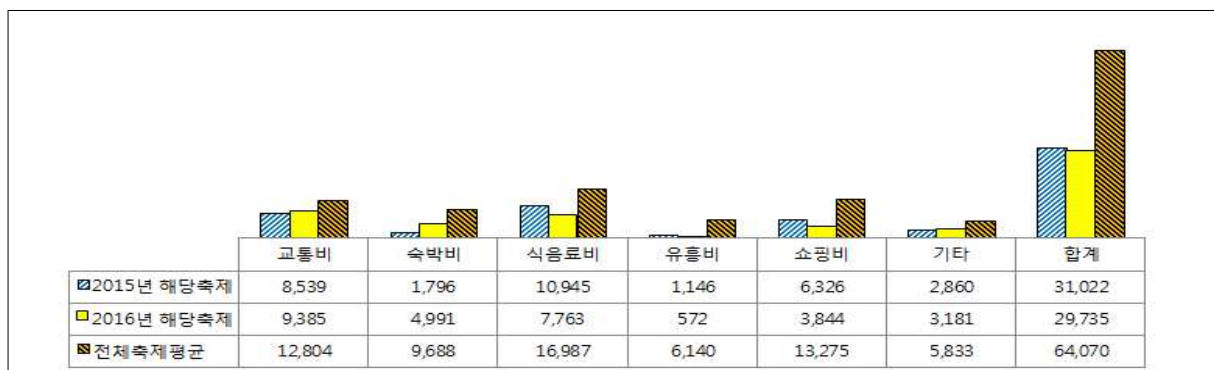
만족도

대가야체험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지역문화 만족은 높은 편이나, 먹거리·살거리 만족은 다른 항목 대비 낮게 나타나고 전년 대비 만족도가 감소하였음. 자만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가 가장 높게 조사되어, 방문객들의 축제 평가는 우수함이 확인됨. 축제활성화를 위해 주제와 연결된 먹거리·살거리 발굴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46.4%)이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의 지출금액이 전체 평균보다 낮으며, 식음료비·쇼핑비 지출은 전년대비 감소함. 이는 먹거리·살거리 만족이 낮게 나타난 만족도 조사와 유사한 결과임.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먹거리·살거리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체류형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숙박객 유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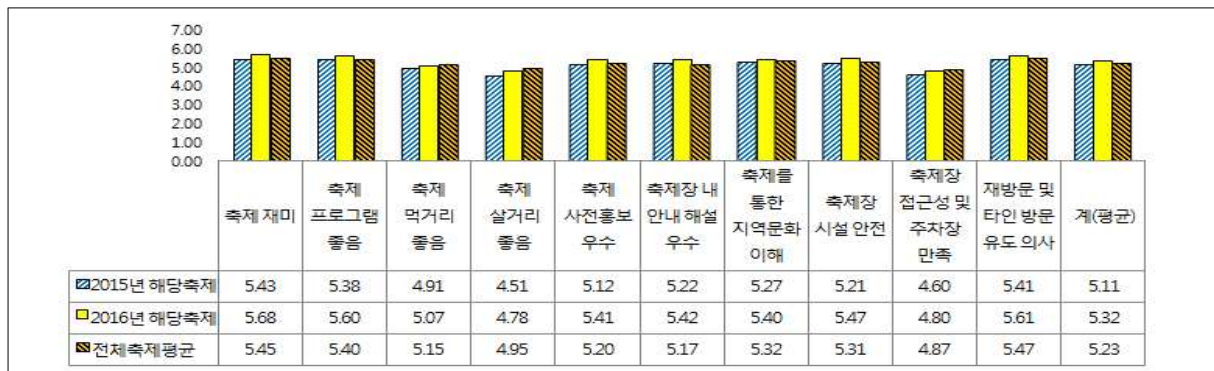


36

봉화 은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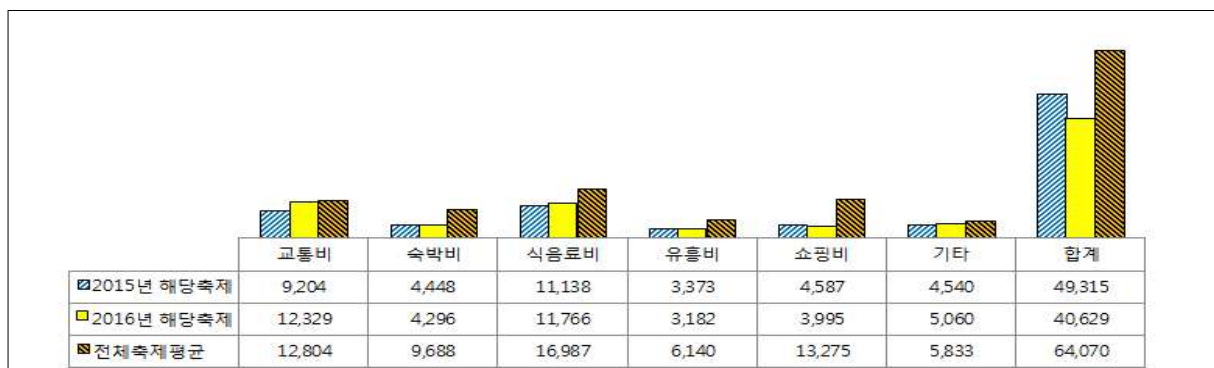
만족도

은어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며,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항목별로는 먹거리·살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증가함. 다만, 먹거리·살거리 만족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함. 축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노점상 등 관리 제고가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63.4% 수준이며, 전년 대비 8,686원 감소하여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의 지출이 전체 평균 대비 낮았으며, 숙박비·유흥비·쇼핑비 지출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임.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기념품 개발, 축제 셔츠 판매,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특색 있는 살거리를 통한 쇼핑비 지출 향상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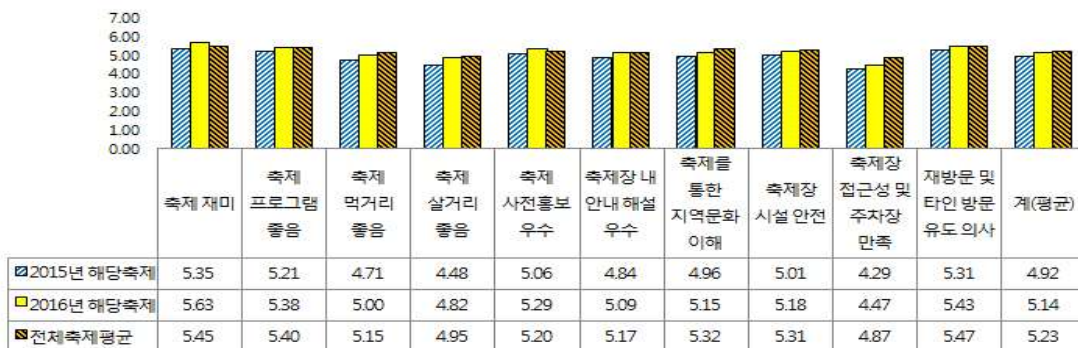


37

포항 국제불빛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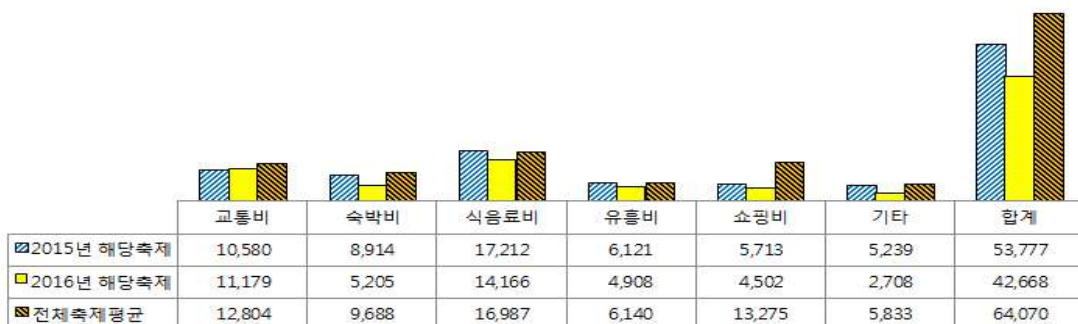
만족도

국제불빛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나,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축제 재미·사전홍보 만족도를 제외한 항목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특히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먹거리·살거리 만족도가 낮게 보고되어 개선이 시급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재미와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먹거리·살거리의 발굴 및 축제장 진출입로 등 동선 관리가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66.6% 수준이며,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의 지출액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쇼핑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이는 살거리 만족도가 낮게 보고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것임.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기념품 제작 등 특색 있는 살거리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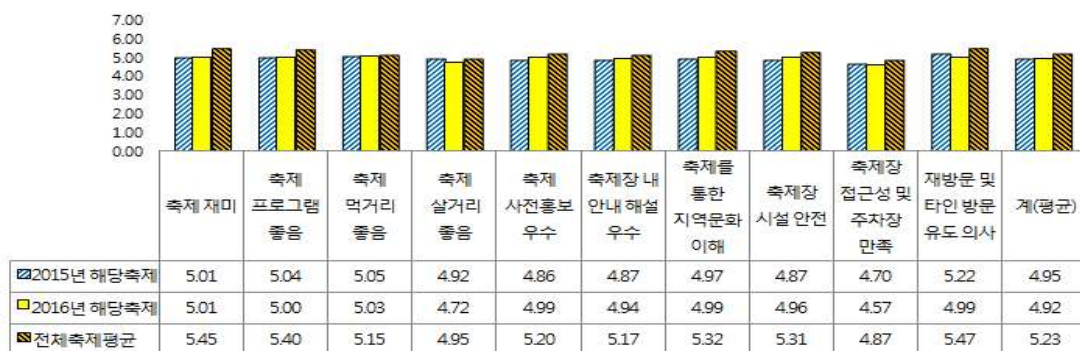


38

영덕 대게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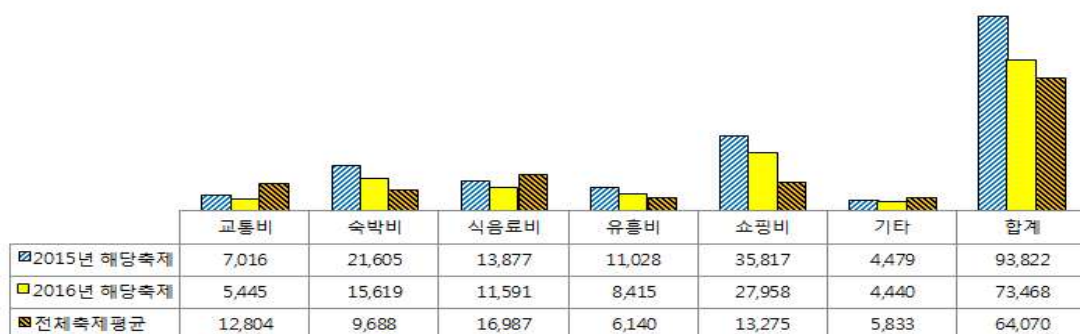
만족도

대게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며, 전년 만족도와 유사한 수준임(신규 축제임에도 전년 자료가 존재하여 비교 가능).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나며, 사전홍보·안내해설·지역문화·시설안전을 제외한 항목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축제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반적인 수용태세 구축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의 114.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유흥비·쇼핑비가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특히, 쇼핑비는 전년 대비 가장 적게 지출한 항목(7,859원 감소)임.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단속 등 식음료·쇼핑 관련 수용태세 제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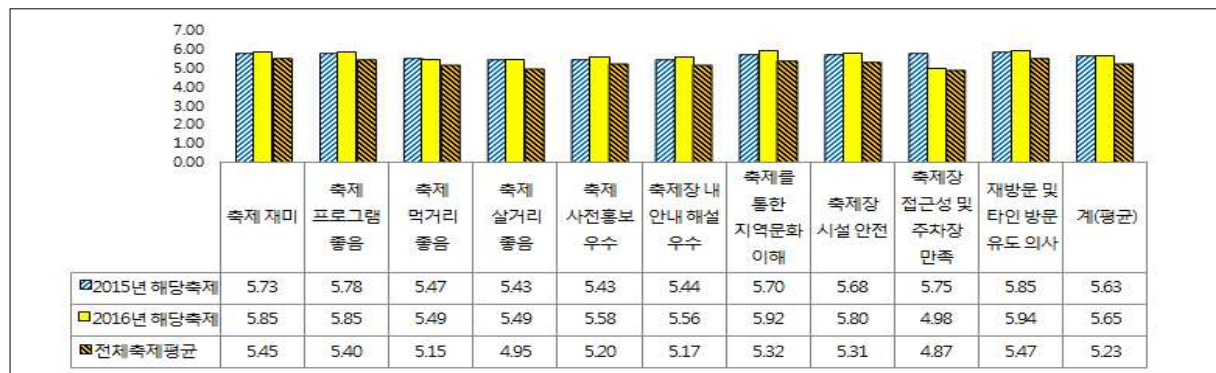


39

산청 한방약초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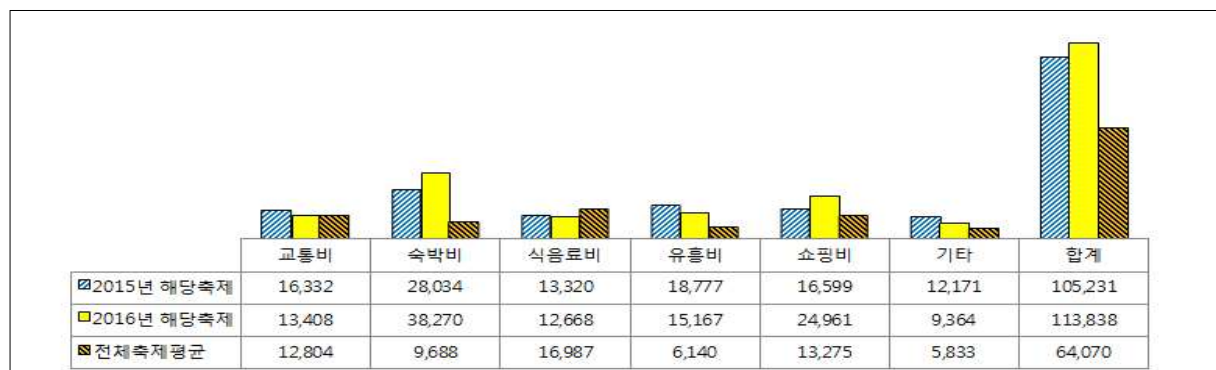
만족도

한방약초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을 상회하며, 전년 만족도와 유사한 수준임.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항목의 만족도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축제 개최를 통해 획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 조사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접근성 및 주차장 개선을 위해 임시주차장 확보·셔틀버스 증차 등 교통체계 제고가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의 177.7%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쇼핑비 지출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식음료비의 지출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함. 소비지출확대를 위하여 식당 이용객 수요 충족을 위한 식음료판매부스의 확대 등 수용태세 확충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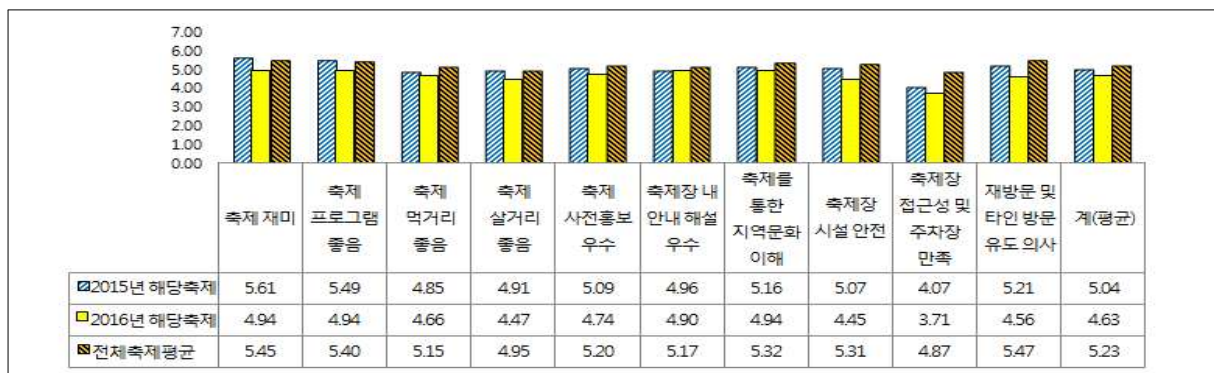


40

통영 한산대첩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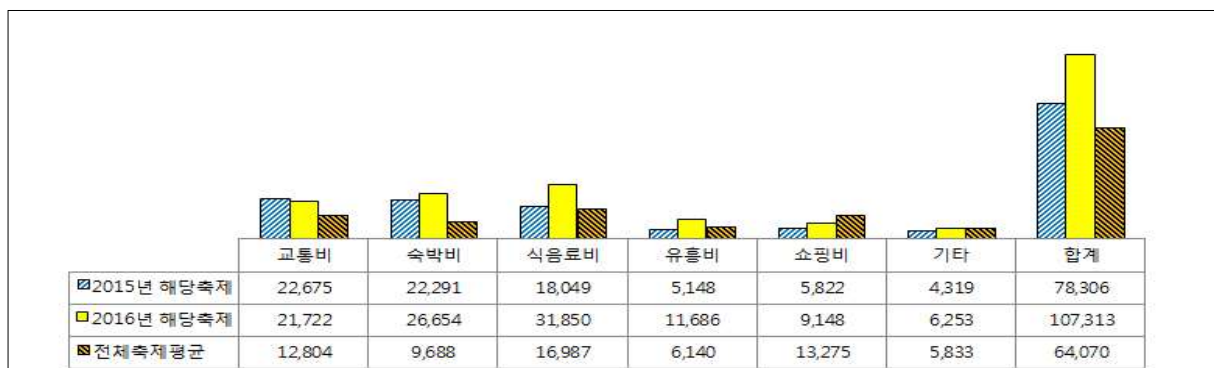
만족도

한산대첩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만족도 수준이 급감하였음.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전년 대비 감소함. 특히,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의 컨셉과 운영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 조사와는 달리 전체 축제 평균의 167.5%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보면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지출금액이 전체 평균을 상회함. 다만, 식음료비의 지출은 혹서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축제 주제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이색적인 살거리의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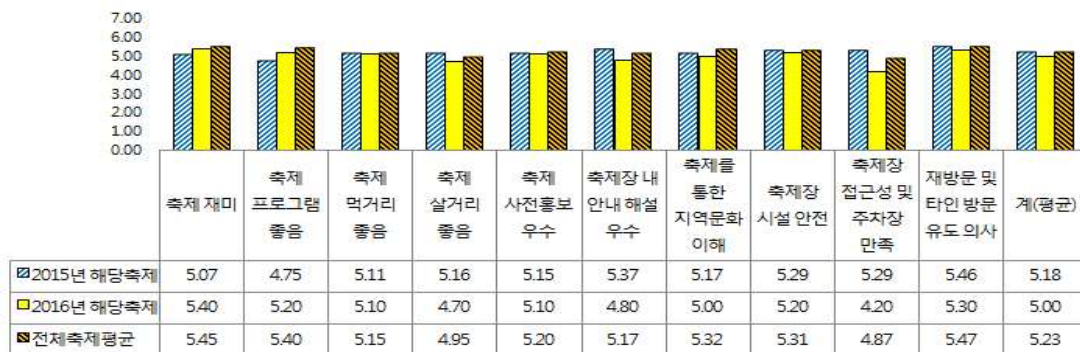


41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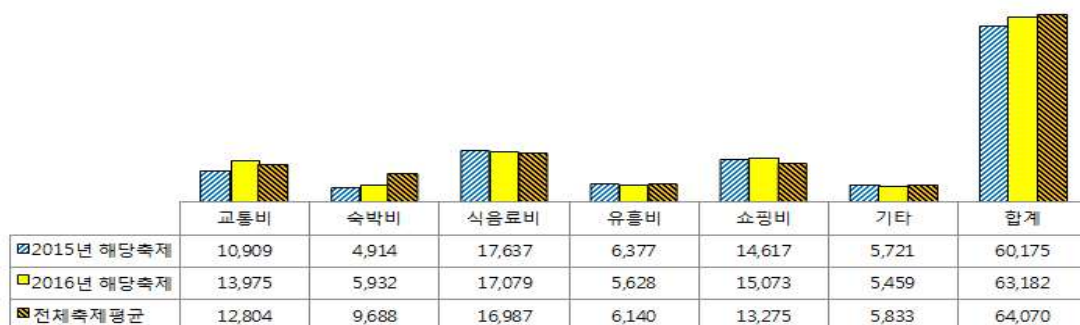
만족도

가고파국화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항목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고, 살거리·안내해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또한,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의 경우 전년 대비 만족도가 급감한 반면, 축제 재미·프로그램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여 축제의 위락성은 향상되고 있는 중임.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체계와 주차시설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며, 살거리 개발과 함께 인적 서비스 등을 통한 편의성 확충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98.6%)으로 낮은 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소비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와 유흥비 지출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식음료비 지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발굴 및 개선을 통한 방문객 체류시간 증대와 숙박객 유치에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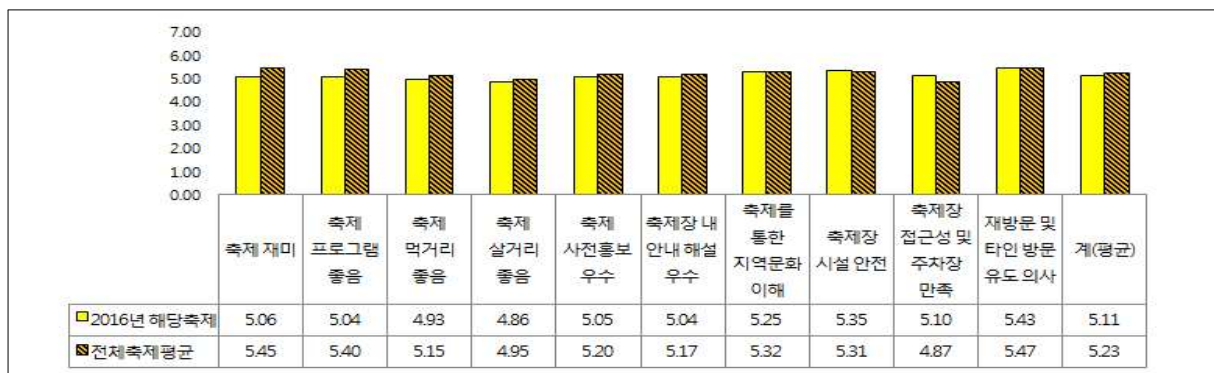


42

함양 산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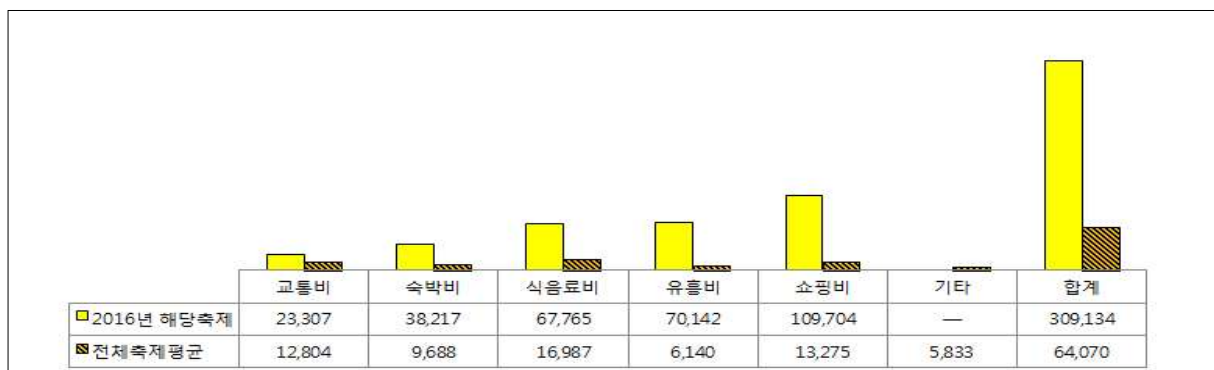
만족도

산삼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신규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항목별로는 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항목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먹거리·살거리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반기에 개최되는 축제 특성을 감안 차가운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며, 특색 있는 살거리의 발굴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482.5%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는 만족도 조사와는 상이한 결과임(만족도 조사에서는 먹거리·살거리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게 보고됨). 당일방문객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축제임에도 숙박비 지출이 전체 평균의 4배에 가깝게 보고되었고, 기타 비용이 0원임을 감안할 때 조사 상 오류의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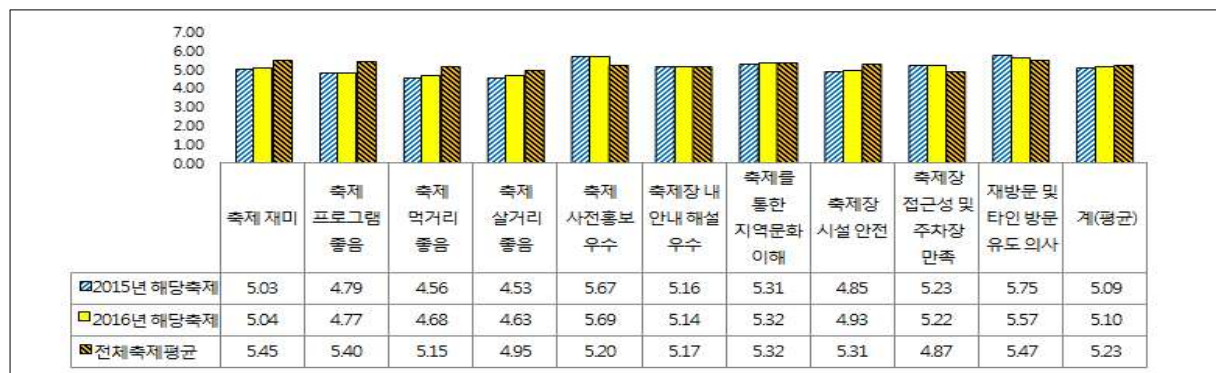


43

제주 들불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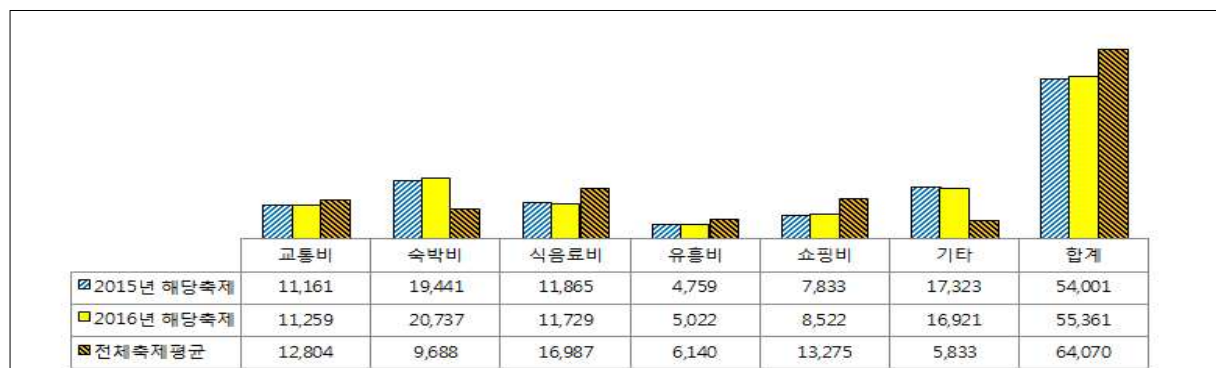
만족도

들불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항목별로는 사전홍보·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만 전체 평균을 상회할 뿐, 대부분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특히, 먹거리·살거리·프로그램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다만,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는 높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살거리의 품질 개선과 함께, 참여형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체 축제 평균의 86.4% 수준이나,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제주도라는 지역 특성 상 숙박비 지출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식음료비·쇼핑비 지출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음. 이는 먹거리·살거리 만족이 낮게 나타난 만족도 조사 결과와 유사하며,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먹거리 품질관리 및 캐릭터 상품 등 살거리 개선이 필요함.



전문가 현장평가 축제별 결과

V



개 요

- 문화관광축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질적 제고를 위하여 매년 문화관광축제에 대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장 평가를 위하여 지역 대학의 문화관광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외부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축제별로 2명의 평가위원은 축제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직접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참관평가 항목기준’에 의거 평가함

〈2016년 문화관광축제 참관평가 항목기준〉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1) 축제기획서	○ 기획서의 전반적인 분야(축제 목적 및 방향, 콘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
2) 축제의 특성/ 축제 콘텐츠	○ 축제 주제(소재)관련 대표 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완성도
	○ 타 축제와의 소재 및 프로그램 차별성과 매력성 - 축제 방문객에 위한 특색있는 참여·체험 프로그램/축제 캐릭터 개발 등
	○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연계투어/ 체류형 야간프로그램 등
3) 축제의 운영	○ 자원봉사자 교육시스템 등 행사장내 운영 효율성
	○ 축제 기획·운영 전문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정도
	○ 축제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 - 타 지자체 등과 축제 홍보·마케팅 협업, 지역 외 전국단위 홍보 등
	○ 접근성·공간배치 등 행사장 환경 및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4) 축제발전성	○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
	○ 축제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지방자치단체장의 육성의지 등 성장가능성
5) 축제의 성과	○ 안정적인 축제(상설)조직체 구성 및 운영여부, 축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 여부
	○ 축제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 및 국내외 인지도(홍보효과 등)
	○ 방문객 만족도 및 지역경제 효과
	○ 방문객 수 집계와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정도

1

한성백제문화제

(1) 개요

- 기간 : 2016년 10월 6일(목) ~ 10월 9일(일)
- 장소 : 올림픽공원 평화의문광장, 석촌동고분군, 경당역사공원, 위례성대로, 한성백제박물관 등
- 주최 : 송파구·송파문화원
- 주관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슬로건 : 한성백제! 송파의 빛다. 사람을 담다!
 - 대표프로그램 : 한성백제체험마을, 역사문화거리행렬
 - 주제프로그램 : 한성백제 혼불채화식, 동명제 (한성백제 고분제), 몽촌토성 성곽걷기
 - 참여프로그램 : 전국 청소년예능동아리 경연대회, 한성백제 어울마당, 몽촌한성백제 전국 창작동요제, 호돌이열차와 함께하는 한성백제유적 발굴현장 체험, 한성백제 학술대회 등
 - 기타 프로그램 : 한성백제 민속재현 (도리깨놀이),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한성백제 창작뮤지컬, 한성백제 착한콘서트, 해자 수변무대 공연 등

(2) 총평

■ 잘된 점

- 한성백제의 주제성 부각 노력
 - 한성백제의 주요 역사적 사건을 퍼레이드로 구성하고 고증을 통해 제작한 의상·소품 등을 사용하여 한성백제 역사문화의 분위기를 재현함. 특히 방문객이 원하면 누구나 백제시대 의상을 무료로 제공한 것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됨
- 이색적인 퍼포먼스 및 행렬 재현
 - 백제시대의 사건이나 인물 등을 소재로 흥미롭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규모 퍼포먼스 외에 행렬 진행 중에도 소규모 퍼포먼스 등을 구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함

- 역사적 고증을 통한 이야기 활용
 - 전문가의 고증을 거친 한성백제 이야기를 한성백제체험마을, 역사문화거리행렬,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프로그램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실성을 강화함
-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변경
 - 축제추진위원회는 작년 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위원들의 의견사항을 반영하는 등 축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성백제 민속 재현 등 다수의 신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 전문연기자 역할을 제외한 행렬참여자를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는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분위기를 자아냄
 - 또한, 자원봉사단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의 일손을 돕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음
- 다양한 축제 매뉴얼 보유
 - 축제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교육 및 안전/응급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축제 전에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사전 교육함으로써 축제 인적 역량을 강화함
 - 또한, 공무원들이 진행 참여 뿐만 아니라 관광객 실측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음. 안전매뉴얼 보유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의 소재인 한성백제문화의 정체성 필요
 - 한성백제문화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와의 차별성 찾기가 중요함. 그러나 한성백제문화만의 특징이나 정체성이 없음. 그 동안 고증을 통해 모아진 자료를 활용하여 축제의 정체성 구축이 중요함. 이는 테마와 컨셉과는 다른 것임
- 축제의 구체적인 주제 필요
 - 현재 “한성백제! 송파를 빛다. 사람을 담다”와 같은 축제 주제는 매우 포괄적이며 축제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음. 이에 축제의 명확한 테마, 컨셉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함. 발굴된 축제의 주제를 활용하여 축제 공간, 프로그램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 한성백제문화에 대한 연출성 강화 필요
 - 한성백제문화제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와 이야기, 프로그램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하고 공간 전체 또는 각 프로그램별 기획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축제 전문가의 참여 부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한성백제문화에 대한 연출성 강화가 필요함. 이에 지역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인 롯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롯데월드” 측의 기획 및 컨설팅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축제 진행의 전문성 강화 필요
 - 대부분 축제 기획, 진행 등을 축제추진위원회와 송파구 공무원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한성백제문화라는 콘텐츠와 잠재력에 비해 축제의 기획, 진행력, 연출력 등이 다소 미흡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축제가 보다 수준 높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섭외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성공한 국내외 축제들을 벤치마킹하여 축제전문가 섭외를 통한 총감독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공간 스토리 디자인 필요
 - 비록 작은 규모지만 도심 속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 수 있게 하는 좋은 축제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나, 축제장 전체적으로 시설 배치, 프로그램 구성 등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못한 느낌임
 - 이에 한성백제문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 공간을 구상할 수 있는 스토리 구상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임
 - 이 스토리 구상/디자인을 통해 전체 축제의 시설, 프로그램, 관광객 동선 등이 상호 연결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이 축제가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지니기 위하여 한성백제문화라는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형 축제’ 또는 ‘콘텐츠형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함
 - 공간의 협소함 해결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 필요
 - 올림픽공원은 매우 방대한 면적을 보유하고 특색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완성도 높게 구현하기에는 현재 축제장 규모가 작음
 - 이에, 행사장 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원 내 유희부지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관기관 협력 필요
 - 송파구, 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시(서울관광마케팅)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다소 부족한 결과라 할 수 있음. 이에,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백제의 주제성 부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백제의 주요 역사적 사건을 퍼레이드로 구성하고 고증을 통해 제작한 의상·소품 등을 사용하여 한성백제 역사문화의 분위기를 재현함 ○ 역사적 고증을 통한 이야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고증을 거친 한성백제 이야기를 한성백제체험마을, 역사문화거리행렬,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프로그램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실성을 강화함 ○ ‘한성백제마을’ 프로그램을 전체 공간의 컨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축제의 소재인 한성백제문화의 정체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백제문화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그 동안 고증을 통해 모아진 자료를 활용하여 축제의 정체성 구축이 중요함. 이는 테마와 컨셉과는 다른 것임 ○ 축제의 구체적인 주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축제 주제는 매우 포괄적이며 축제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음. 이에 축제의 명확한 테마, 컨셉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함 ○ 축제 진행의 전문성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획, 진행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축제의 콘텐츠와 잠재력에 비해 축제의 기획, 진행력, 연출력 등이 다소 미흡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준 높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전문가 섭외를 통한 총감독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성백제문화에 대한 연출성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백제문화에 대한 연출성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인 롯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롯데월드” 측의 기획 및 컨설팅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색적인 퍼포먼스 및 행렬 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시대의 사건이나 인물 등을 소재로 흥미롭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규모 퍼포먼스 외에 행렬 진행 중에도 소규모 퍼포먼스 등을 구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함 ○ 공간 스토리 디자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전체적으로 시설 배치, 프로그램 구성 등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못한 느낌임. 이에 한성백제문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 공간을 구상할 수 있는 스토리 구상이 필요함 - 이 스토리 구상/디자인을 통해 전체 축제의 시설, 프로그램, 관광객 동선 등이 상호 연결될 수 있을 것임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공연장의 축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중앙에 위치한 공연장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축제장 시설 배치의 연계성을 단절시키는 느낌임 - 이에 메인공연장을 축소하고 그 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함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연기자 역할을 제외한 행렬참여자를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는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분위기임 ○ 축제 개최를 위한 다양한 매뉴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교육 및 안전/응급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축제 전에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사전 교육함으로써 축제 인적 역량을 강화함 ○ 홍보마케팅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도권 거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 이는 축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결과라 할 수 있음. 이에 축제에 대한 홍보마케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기업의 스폰서십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업인 롯데그룹의 지원으로 축제 예산의 일부를 충당하여 축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원 내 유희부지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추진위원회는 작년 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위원들의 의견사항을 반영하는 등 축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노력함 ○ 유관기관 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 서울시(서울관광마케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추진팀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파구와 축제추진위원회는 작년 축제의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위원들의 의견사항을 반영하는 등 축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지역 확산 및 지속적인 지역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축제 기간 중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축제 참여자들이 송파구 지역으로 분산되어 송파구 전체 지역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2

부산 동래읍성역사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년 10월 7일 ~ 10월 9일, 3일간

■ 장 소 : 동래문화회관, 읍성광장, 온천장 일원

■ 주 최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 관 : 동래문화원 · 동래읍성역사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행사: 동래부사행차길놀이, 동래성전투실경뮤지컬, 동래세가닥줄다리기, 동래온천 용왕제 길놀이, 동래장터재현, 동래과전 주막, 동래부사 송상현 이야기 인형극 등
- 공연프로그램: 동래부사집무재현(마당극), 여는 마당(불꽃쇼), 전통줄타기공연, 전통민속 공연(동래학춤, 동래야류 등), 국악관현악단, 숲속프린지음악회, 전통무술태권공연, 여성 오케스트라공연, 힐링콘서트 등
- 참여·체험행사: 읍성민 씨름대회, 저울추달기 체험, 동래읍성 성곽 밟기 역사 탐방, 동래과전주막운영, 장영실 과학체험전, 엽전체험, 대장간체험, 도자기체험, 제기차기왕 선발대회, 국궁 및 무술체험, 미래우체통, 한복체험, 향교체험 등
- 부대행사: 옥tober페스트(농심호텔 맥주축제), 동래세일대축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홍보관 운영, 명륜1번가 음식품평회, 먹거리장터 운영, 주민자치회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임진왜란424주기 추모제향 등

(2) 총 평

■ 잘된 점

-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동래부사 송상현과 동래읍성 읍민들이 결사항전했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 역사문화축제로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한 동래성전투 실경뮤지컬을 비롯하여 동래의 역사문화적 전통성을 보여주는 핵심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중심축으로 기획된 ‘동래성 전투 실경 뮤지컬’은 무대환경 및 연

출력이 매우 뛰어난 완성도 높은 공연프로그램으로 동래성 전투의 역사적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하여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주제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동래성 전투 실경 뮤지컬 이외에 동래부사집무재현 마당극, 동래부사 송상현 이야기 인형극 등 축제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하여 축제콘텐츠의 확장을 시도한 점도 타 읍성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행사장을 문화회관, 주차장 일원, 복문일원, 읍성광장, 복문입구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행사장소를 폭넓게 활용하였으며, 행사장 연출 및 운영에 있어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전통복장 착용 등 역사문화축제로서의 장소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 동래구의 주요 관광목적지인 동래온천 활성화를 위해 동래세가닥줄다리기, 동래온천용왕제 길놀이 등 축제프로그램을 분산 개최함으로써 축제를 지역상권 활성화의 촉매제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의 핵심프로그램을 제외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들의 경우 축제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고 다른 역사문화축제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동래읍성역사축제의 핵심주제와 연관된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중요한 핵심 소재인 동래성전투와 동래읍성체험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동래읍성 체험과 관련된 축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축제동선에 따라 축제장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나, 구역별로 보다 특화된 기능 및 테마를 부여함으로써 개별 구역의 테마성을 강화하고 축제관람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동래읍성역사축제는 동래구의 역사문화적 전통성을 확인 강화하고 전통적 가치를 재현하는 지역축제로서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 및 실행에 있어 관광형축제로서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축제방문객의 90%이상이 동래구민 및 부산시민으로 축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노력이 필요함
- 전쟁과 충절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교육의 관례화된 반복은 축제를 지나치게 형식화할 우려가 많으므로, 동래성 함락 직전 송상현과 함께 죽기로 작정한 송상현의 여인 금성과 이양녀의 이야기 등 주제를 풍부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다른 이야기를 발굴하여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만들려는 시도도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회 동래읍성역사축제 종합추진계획’에 축제의 기본방향, 프로그램 별 세부추진계획, 축제운영체계 및 운영계획, 축제홍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주제 관련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를 재현한 ‘동래성전투 실경뮤지컬’은 복문 언덕을 배경으로 한 무대의 현장감, 작품 연출 및 연기자의 전문성, 음향 및 조명 등의 기술력이 모두 뛰어나 완성도가 매우 높았으며, 축제기간 중 5회의 주야간 공연 모두 만석을 이룰 정도로 집객력을 확보하고 있어 동래읍성 역사축제의 대표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 - 전문연기자와 함께 관내 초등학생 및 지역민 50명을 보조 연기자로 참여시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점도 읍성민이 일치단결하여 전투에 참여한 동래성 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둠 ○ 타 축제와의 소재 및 프로그램 차별성과 매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래부사행차 길놀이, 동래세가닥 줄다리기, 동래온천 용왕제 길놀이, 동래읍성 성곽밧기, 동래학춤과 동래야류, 동래파전 주막과 동래장터 재현 등 부산의 중심으로서 동래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풍부한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역사문화축제로서의 축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공연·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축제주제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공연·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축제주제를 강화하고 각인시키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동래성 전투와 함께 동래읍성역사축제의 핵심 소재인 동래읍성과 연관된 축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해설사와 함께 하는 동래 문화유적지 탐방 투어를 3회 운영하였으나 축제장과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연계관광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동래구에서 추진중인 동래 스토리텔링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래의 풍부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게 경험할 수 있는 연계관광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내 운용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대학생 및 일반인 45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축제현장 홍보, 축제장 안내, 축제장 운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축제자 자원봉사자 전담요원을 별도로 선발하여 구역별 팀장으로 활용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축제기간 3일 중 2일간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소를 변경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여 큰 차질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축제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홈페이지, 다음 포털사이트, SNS, 블로그, 지역언론매체, 부산도시철도 게시판, 부산시 전역 주요 전광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축제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경상권 대표문화관광축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눈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함 ○ 접근성·공간 배치 등 행사장 환경 및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행사장을 축제동선에 따라 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축제공간을 구성하여 축제프로그램 및 축제서비스 기능을 배치하였으나, 개별 구역의 테마성 강화를 통해 축제관람의 축제참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축제장의 주 출입구인 문화회관과 북문 입구에 동래읍성역사축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웰빙건강체험마당, 마을문고 책교환, 명물거리 홍보관, 사회적기업·마을홍보관, 선관위홍보관, 재가복지홍보관 등 지역공공부스들이 위치해 있어 축제방문객들, 특히 외지방문객들에게 축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주출입구에 축제주제와 관련된 전시·홍보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북문언덕에서 진행되는 동래성전투 실경뮤지컬의 경우 관람환경이 열악한 야외무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관람환경을 갖추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에 비해 부산시 도시철도역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다양한 협회와 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 지역민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방문객 안전관리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래구청, 동래경찰서, 동래소방서, 한전동래지점,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상수도 동래사업소 등이 참여하는 안전축제 운영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내에서는 안전축제운영본부가 축제의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900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행사별로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함 ○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 등 성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래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됨 - 동래읍성역사축제는 동래성전투라는 역사적 사실, 동래읍성이라는 역사적 장소성, 동래구의 풍부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축제 상설 조직체 구성 및 운영 여부, 축제 재정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래읍성역사축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동래읍성역사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기획, 조정, 축제자문 및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는 동래구청이 축제 총괄계획 수립, 행사장 운영, 축제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등을 맡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축제기획 및 실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 및 국내외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회 동래읍성역사축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방문객 수는 약 5만 4천명, 그리고 전체 방문객의 94%가 동래구민 및 부산시민으로 조사되어 관광객 유발 효과는 매우 약한 것으로 분석됨 - 축제와 관련된 언론보도(media coverage)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부산지역 언론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적 인지도는 아직 약한 것으로 판단됨 ○ 방문객 만족도 및 지역경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회 동래읍성역사축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축제경제효과는 약 21억 2천만원으로 추정되어 지역경제효과는 낮은 수준임 ○ 방문객 수 집계·관리 체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수 집계·관리 체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집계시간의 조정 및 연장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부산 광안리어방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년 4월 22~ 4월 24일

■ 장 소 :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

■ 주 최 : 수영구

■ 주 관 : 수영구 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2016년 광안리어방축제는 대표 프로그램 1개와 주제프로그램 5개로 구성
- 대표 프로그램: 그물끌기 한마당(어기영차 그물끌자)
 - 어방의 상징으로 “안용복”을 설정, 수군과 어민간의 갈등해소를 통해 “어방의 탄생”과 “수영팔경”, “좌수영어방놀이”를 뮤지컬로 연출
 - 어방의 주요 요소들(기존의 어방그물끌기 프로그램과 무형문화재 좌수영어방놀이)의 원형을 살리고 이야기 구조를 가미하여 유기적인 뮤지컬의 형태로 제작(각색)
 - 주요 출연진은 극단 멤버를 중심으로 1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물꾼으로 600명의 현장 축제참여자가 참여
 - 진행순서: 여기는 광안리(프롤로그-용와, 어린용복) → 장산낙조(용와, 어린용복, 붉은해 연희자) → 남장낙안(기러기떼, 물고기떼, 육지동물 연희자) → 경상좌수사 부임행렬 → 재송직화(용복 어머니, 여자 어민들, 반딧불 연희자) → 운대귀범(산·바다 연희자, 남자어민들) → 줄 엮기(내왕소리) → 봉대월출(해와 달 연희자) → 백산만취(그림자 연희자) → 연산모종(전체 어민들) → 용왕고사(전체 어민들, 촌장님) → 가후리(용복어머니, 경상좌수사, 어린용복) → 그물끌기(사리소리) → 활어잡기(가래소리) → 어방의 탄생(진두어화) → 대동놀이(칭칭소리)
- 주제 프로그램 ①: 진두어화(그물끌기 한마당과 연계)
 - 옛 좌수영어방에서 횃불을 들고 고기(멸치)를 잡는 수영 지방의 전통적인 고기잡이 모습을 어선의 횃불과 바다에 비친 불빛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으로 재현
- 주제 프로그램 ②: 어방민속마을
 - 시설물(수군병영, 어촌공방, 어민마을)과 주제관(광안리어방축제의 역사와 사진, 경상좌수영성 개요 및 사진, 조선의 수군역사와 사진, 좌수영어방놀이) 운영 중심

-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해설위주의 프로그램 운영(2015년과 달라진 점)
- 주제 프로그램 ③: 경상좌수사행렬
 - 경상좌수사행렬 재현 행사(축제의 주제와 부합하도록 경상좌수사 행렬(망쥬레) 컨셉에 맞추어 행렬기획
 - 행렬구간: 구청광장~광안해변로~광안해변공원 야외상설무대
 - 행렬구성: 전통과 현대를 상징하는 행렬로 구성
 - 제1장 선도행렬 : 경상좌수사 행렬 테마부각
 - 제2장 전통행렬 : 수영의 인물, 수영의 전통민속공연
 - 제3장 현대행렬 : 어울림 한마당, 거리퍼포먼스, 거리공연, 외국인, 참여단체, 지역 상가, 기업체 홍보팀 등
- 주제 프로그램 ④: 수문장 교대식
 - 수영성(어방민속마을) 남북문 앞에서 경상좌수영 수문장 교대의식, 무예공연, 전투 재현 등 퍼포먼스를 통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
 - 주요 프로그램: 1. 교대의식 절차 : 대고타 → 자물쇠, 패, 군호 수령 → 초엄 → 중엄 인수인계 → 삼엄 → 퇴장. 2. 군사 무예 시연
- 주제 프로그램 ⑤: 무형문화재 공연(수영야류 등)
 - 시지정무형문화재 제2호 수영농청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2) 총 평

■ 잘된 점

- 동래읍성축제는 역사의 자랑거리인 승전이나 승리를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패전”이라는 소재를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삼아 역사의 교훈과 반성을 이끌어 내고 현대의 축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관광의 관점에서 보면 “Black Tourism”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으며 축제 소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음
- 또한 전문배우와 지역의 동호인 그리고 일반아마추어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축제의 주연으로 참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축제의 참 모습을 보여줌
- 아울러 금년도 홍보채널을 온라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람객의 양과 질을 증대시킨 점을 감안하여 향후 모바일 등 더욱 다양한 방법의 관람객 증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광안리 어방축제는 어방이라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콘텐츠를 매개로 한 축제로서 프로그램의 기획이 축제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됨. 이런 점에서 뮤지컬 형식으로 재현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을 제외하고 어방이라는 무형문화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점에서 어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해설프로그램이 배치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임
- 또한, 대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제, 참여·체험,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어 다소 혼란스럽게 다가온 점은 향후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해야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더욱이 일부 프로그램은 어방이라는 주제와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프로그램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주제프로그램과 참여체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대표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표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연출이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매년 공연형식을 달리하는 것 보다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공연프로그램이 가지는 참여제한이라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참여성과 놀이성이 돋보이는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는 어방이라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주제의 축제로서 축제의 기획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축제기획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축제기획서의 대부분이 프로그램의 나열에만 그치고 있어 각 프로그램의 의도와 기획 방향, 프로그램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임. 특히 축제의 목적이나 방향, 콘텐츠 기획 의도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축제기획서 작성에 충실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작년 축제에 비해 올해 축제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획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축제프로그램을 기계적으로 나열한 느낌이 강함. ○ 특히 본 축제는 어방을 뮤지컬 형식으로 꾸미고 있는데 비해 뮤지컬의 스토리와 연출의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음.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자료가 해설이 부족했음.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안리어방축제는 어방이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대표프로그램은 수영팔경과 좌수영어방놀이를 뮤지컬 형식으로 재현한 ‘그물끌기 한마당’임. 이는 수군과 어민의 갈등과 화합으로 어방의 탄생을 그려낸 뮤지컬 공연형식을 띄고 있음. 무형문화재를 주제로 하는 축제는 전국에 몇 군데 개최되는 곳이 있으나 뮤지컬 형식을 취하는 축제에는 없는 독특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현재는 다소 부족하지만 광안리 어방축제의 대표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광안리어방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는 있으나,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나 기획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재미나 감동요소가 부족하여 축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방축제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연프로그램의 특성상 매년 같은 주제를 같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외에 관객들로 하여금 몰입감을 유발할 수 있는 놀이성이 첨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표프로그램의 연계에 진행되는 진두어화는 공연과 어우러질 경우 한밤의 장관을 연출할 수 있는 요소는 있으나 규모가 작아 광안리 해양경관과의 어울림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오히려 전통 어로를 좀 더 부각시켜 어방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도 어방이라는 의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함. ○ 어방축제는 참여체험프로그램들을 배치하여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다른 축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유사프로그램이 대부분이어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대부분 축제 프로그램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광안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측면도 있음. 따라서 차년도에는 수영구 일대의 주요 관광자원과 어방과의 장소성을 결합하는 시도가 더욱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안리어방축제가 전국을 대표하는 우수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무형문화재인 어방을 의미를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대표 프로그램이 어방 그물끌기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올해와 같이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년 주제를 바꾸어야 하고, 진정성과 놀이성의 조화라는 점에서도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축제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나열되어 있음. 향후 마트형 프로그램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어방의 의미를 축제 프로그램 전반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축제의 공간이 광안리 해변을 중심으로 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중감과 연출감이 다소 떨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축제를 광안리 거리와 골목길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일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는 구청중심의 추진기획단과 기획과 실무중심의 축제위원회로 분리되어 민관이 함께하는 축제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관중심의 축제성격이 강함.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동원이 강한 축제로 보여짐. 향후 실질적인 축제위원회 중심의 민간주도 축제로 전환하여 기획과 운영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축제운영 전반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한 축제로 보여짐. 대학생 및 일반인 중심으로 자원봉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축제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홍보는 언론홍보, 인터넷 홍보, 인쇄홍보, 옥외홍보, 기타 홍보 등 세분화된 홍보계획과 다양한 미디어 매체 및 홍보채널을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어방축제는 축제인지도가 낮아 축제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접근성 등 행사장 환경은 축제개최공간이 광안리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에서 개최되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화장실도 임시화장실과 공용 및 개방화장실이 주변에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어 방문자들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었음. 그러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자가용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교통문제 해소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안리어방축제는 무형문화재인 좌수영어방놀이를 소재로 한 콘텐츠 중심의 축제로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제라고 보여짐. ○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의지도 있으며 특히 시민의 자발적 참여 열기가 높은 축제로서 지자체의 육성 여하에 따라 전국적 우수축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임. ○ 그러나 수영구는 문화공보과 관광진흥계에서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국적 우수축제를 가진 다른 지자체에 대부분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구성을 통해 진행하는데 비해 다소 아쉬운 부분임. ○ 축제의 체계적인 진행과 지원을 위해서는 관광 및 축제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전국적인 우수축제의 경우, 행정시스템의 지원과 더불어 축제운영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이런 점에서 어방축제는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움 점임. 따라서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축제개최를 위해서는 축제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권한을 강화하는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의 축제는 재정자립도라는 측면에서 수익과 관련된 프로그램 구성이 전무하다시피 함. 유료제 프로그램의 운영은 축제 참가자들의 축제몰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구성과 기획에 있어서 향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안리어방축제의 가장 큰 성과는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인 좌수영어방놀이를 축제의 장으로 끌어 들여 독창적인 축제로의 소재로 발전시켰다는 점임. ○ 광안리 해수욕장과 해변 일대는 전국적인 명성이 있는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다소 콘텐츠적인 요소가 부족했는데, 축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만한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가장 큰 성과임.

4

대구 약령시한방문화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5.4.(수) ~ 5.8(일)
- 장 소 : 대구중구 약령시 일원 및 근대골목연계
- 주 최 :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중구
- 주 관 : (사)약령시보존위원회
- 주요행사
 - 식전행사 : 고유제(약령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례의식)
 - 개막행사 : 어지전달, 개박식, 2016 정성탕 나누기, 개막축하공연
 - 본 행 사 : 사상체질관, 한방무료진료, 전승기예(한약재 썰기 달인)경연대회, 한약방체협, 스탬프 골목투어 등 5개분야 60여개 프로그램

(2) 총 평

■ 잘된 점

-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1658년에 개장된 대구 약령시의 역사와 전통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금년 39회째는 ‘거리마다 한방의 향기, 걸음마다 건강한 웃음’이라는 주제에 걸 맞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음.
- 오랜 역사 속에 형성된 약전골목에서는 한방향기가 물씬 풍겨나고, 관람객들은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신비로운 약재 구경과 체험을 즐기며, 한방상품을 쇼핑하는 모습들이 정겨워보였음.
- 특히 젊은 층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평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축제장 입구에 한복대여점을 개설하여 보부상 복장, 장금이 의녀복장, 버스킹 공연 등으로 전통한방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젊은 층관람객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축제장의 공간을 ‘약령거리’, ‘건강거리’, ‘재밋거리’, ‘저자거리’, ‘애깃거리’ 등 5개의 테마존으로 구별함으로서 관람객의 다양한 관심에 부합려는 콘텐츠의 변화와 기획력이 긍정적으로 평됨.
- 또한 한의약박물관과 약전골목 자체가 한방문화축제를 위한 기반여건 차원에서 매우 긍

정적이라 사료되며 "한방의 향기, 예술의 향기 가득한 약령시로 오이소"란 슬로건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준비와 '근대문화거리' 및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 관광객 유치를 통한 우리 고유의 전통한의학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통약령시의 부활 및 한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민건강생활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의미와 개최의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약령시 상인 중심으로 구성된 축제조직위원회의 축적된 노하우로 현대 관광트랜드인 힐링콘텐츠의 도입 및 다양화가 가능하며, 인류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돋보이는 축제라 사료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공간의 특성상 전시체험판매 부스들이 도로중앙을 점유, 협소한 관계로 관람객들이 스쳐지나가는 경향이 많았으며, 특산품 판매위주의 축제분위기가 강함으로 일부 구간에 포켓무대를 조성하여 문화가 흐르는 축제로 변화를 주었으면 함.
- 또한 한의학박물관에는 한방족욕체험, 전통의상입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나 오전 관람객들의 참여가 저조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는 모습이 아쉬웠으며, 운영요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축제전반적인 관점에서 대구 약령시는 우리나라 한방문화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로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며,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의 행사를 보강하여 일정별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구의 여러 가지 문화와 산업 중에서 전통한방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도입한다면 대구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또한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의 열기가 강하여 자칫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인지도가 저하될 가능성도 있음으로 상호 연계성을 보완·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축제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컨셉 설정과 주제에 부합되도록 콘텐츠를 도입하였으며, 축제기간동안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일정별 테마를 설정하여 관람객 지향적인 축제로서 매력성을 높이하고자하는 기획의도가 돋보였음. - 어린이날, 어버이날의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사전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프로그램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한 점과 축제장 구성에 있어서 관람동선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약령거리’, ‘건강거리’, ‘재밋거리’, ‘저자거리’, ‘애깃거리’ 등 5개의 테마ZONE을 설정하여 행사장을 정형화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각각의 ZONE별로 구분하였으나 상호간 경계성이 모호함으로, 구간별로 게이트를 조성하는 등 차별화를 기할 수 있다면 보다 매력적이 될 수 있음. ○ 또한 축제장내에서 관람객의 소비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축제통용화폐(엽전15,000개)를 도입, 축제장에서 사용케 한 점은 약령시상가의 직접소득증대와 전통문화와 부합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기획이었음. - 다만 동전의 소재와 명칭, 디자인 등이 옛날 엽전(예:韓方通寶)과 비슷하게 한다면 기념품으로서의 가치도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주제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된 점은 바람직하나, 평상시에도 메인무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아쉬웠으며, 대구 약령시와 거래하는 외국의 약재상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과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를 보강한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한방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문화관광축제로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2) 축제의 특성/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약령시는 1658년에 개장되었으며 1908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으나 일제강점기시절 단절되는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하여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우리의 전통한의약과 한방문화를 핵심콘텐츠로 38년동안 지속되어온 축제라는 점에서 역사성과 고유성,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평가에서 언급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콘텐츠의 변화를 다양하게 시도했으며, 특히 사상체질체험을 비롯한 십전대보환, 다이어트환, 약령환만들기 등 전통프로그램의 도입과 젊은층의 관심 유발을 위해 ‘한복사진 콘테스트’, ‘한방미용체험’, ‘버스킹 공연’, ‘아트바이크 게릴라 홍보전’, ‘일자별 특성에 맞는 약령 프린지 공연’ 등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젊은이의 호기심을 충족하기에 충분했으며, 혼잡하고 산만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5개의 테마거리로 지정해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함축적 콘텐츠로 구성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됨. - 서울약령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등 유사축제들과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도록 특화시켜야 함. - 대구약령시의 경우 진서의 행렬보다는 내·외국인 약재상들의 행렬이 역사성과 매력성에 더 부합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보부상 복장, 장금이 의녀복 등 화려한 한복을 대여해 축제장을 다니며 사진촬영 후 SNS 게재하기 등은 홍보효과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1906년 일제에 의해 철거된허물어진 대구읍성의 복원을 지원하며 함께 하는 “대구읍성 쌓기” 등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콘텐츠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대구의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남의 광장, SNS홍보단을 운영한다면 보다 글로벌한 축제 이미지 업이 될 수 있음.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운영을 위하여 종합상황실 책임자를 약령시보존위원회 이사장과 대구시 의료산업과장을 총괄 공동책임자로 하여 반장 제도 하에 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민·관의 공조체제를 구축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약전골목 축제장을 총10개 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장 및 관리요원을 12명씩 배치함으로써 문제발생시 구역 회원에게 즉각적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구역별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한 점도 바람직한 운영방법이라 생각됨. ○ 축제대행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프로그램 사전 점검 및 진행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안전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5일 동안 총 1,090명의 현장안전관리 요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근무수칙 교육은 물론 행사장내 청결관리와 안내요원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 교통대책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p>○ 전승기에경연대회와 약령패기 프로그램에 약령시 상인이 동참해 시민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주변상가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축제기간 중 축제 통용화폐인 엽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주변 식당 및 카페의 할인 행사를 유도해 축제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약재상 등 상가에서는 축제기간 중 무료 약차 시음 행사와 화장실 개방, 약령시 공통 물품 봉투를 제작·사용 하도록 한 점도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었음.</p> <p>○ 자원봉사자 근무복을 전통 한복조끼를 활용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해 약령시축제의 고유한 특성을 잘 표현하도록 함.</p> <p>다만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서 외국인을 위한 안내방송이 필요하며, 통역안내원들이 수시로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외국인에게 적극적인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의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p>오후시간대에 밀리는 관람객에 비해 오전시간대에는 축제장이 한산한 분위기였으므로 초청객이나 단체관람객들은 오전시간대에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검토 대상임.</p>
4) 축제 발전성	<p>○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대구약령시의 오랜 역사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통한방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한의약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금년에는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축제기반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p> <p>○ 특히 올해 39회의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축제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약령시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마인드가 충만하며, 최근에는 지난축제의 평가를 통한 개선점을 보완하려는 의지의 적극성이 축제 발전에 동력이 되고 있음.</p> <p>○ 또한 대구광역시와 중구가 주최하며 (사)약령시보존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어 민·관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4계절 찾아오는 근대골목과 연계성이 강하여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축제의 발전성은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음</p> <p>- 축제의 메인 공간인 약령시는 서문시장↔약령시↔교동귀금속거리↔주얼리타운 등으로 이어지는 ‘패션한방거리’에 속하고 있으나 축제분위기는 약령시 구간에서만 이루어짐으로 서문시장과 교동귀금속거리, 주얼리타운 등에서도 축제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함이 바람직함.</p> <p>- 한방문화축제는 약령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행사이며, 지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관광사업과 연계해 한방의료 체험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 축제대표 공연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임.</p>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대구약령시는 국제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축제를 통하여 내·외국인에게 유명한 관광명소로 만들고 국제적인 축제기반 조성을 위해서 외국어 표기 등 글로벌 개념의 시장으로 변화되어야 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브랜드가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좌우한다는 경향을 미루어 볼 때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한방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 바람직한 성과라 사료됨. ○ 사회적 측면에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한방문화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전통한의약에 대한 이해증진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한방요법을 일반인에게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축제라 사료됨. ○ 경제적 측면에서 약령시 상가들의 직접수입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들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축제가 끝난 후에도 방문객들이 체험 후에 단골 고객이 되어 재 방문하는 형식으로 지역 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p>다만 축제를 통한 직접수입도 중요하지만 도시마케팅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이해해야 하며, 축제기간동안 관람객 유치를 통해 전통한의약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구축하고 한의약의 소비촉진과 한방생활의 저변확대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프로그램개발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p>

5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1) 개요

■ 기간 : 2016년 8월 12일(금) ~ 8월 14일(일) 3일간

※ 전체행사는 2016년 5월~8월 (사업집중기간 : 7월 2일 ~ 8월14일)

■ 장소 : 송도 달빛축제공원, 인천내 원도심, 지역 라이브클럽 등

■ 주최 : 인천광역시

■ 주관 : (주)에스컴이엔티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주요행사 : 락 페스티벌, 루키프로젝트, 라이브 딜리버리, 라이브클럽데이

○ 공연 프로그램

- 펜타포트 스테이지(메인) 국내외 대표 락 밴드들의 라이브 공연
- 드림 스테이지(서브) 락을 비롯해 국내 외 다양한 장르의 실력과 뮤지션들의 개성 넘치는 라이브 공연
- 문라이트 스테이지(서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즐기는 가설 야외 무대

○ 페스티벌 프로그램

- 플레이그라운드 :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공연과 함께 색다른 페스티벌의 재미를 주는 콘텐츠
- 쿨존 : 분수, 야외 풀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 시설
- 레게스테이지 : 락 외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콘서트

○ F&B 서비스

- 푸드존 / 질 높은 음식과 음료를 합리적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장터

○ 캠핑

- 텐트 캠핑존 / 3일간의 페스티벌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백 동의 텐트를 설치, 임대

(2) 총 평

■ 잘된 점

- 국내의 대표적인 대중음악축제로서 규모 있는 락페스티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년 10주년 행사 이후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며, 고유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내 대표행사임
- 축제 장소인 달빛축제공원은 지속적으로 음악축제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넓은 녹지와 주위에 별다른 시설물들이 없는 개방형 공간으로 주변의 민원발생 가능성이 적음. 이를 위한 주민 소음관련 설명회 개최 등 노력도 인정됨
- 야외 음악축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아티스트들이 공연하기 편하며, 참가자들도 락 음악을 매개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좋은 환경임
- 각 부스 및 참여업체들의 입점 및 홍보시설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있어 주관기관의 관리도 잘되고 있어, 축제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음
-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등 사전 안내 뿐 아니라, 꽃가마 셔틀버스, 현지 정보안내, 주차장 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안내 및 주차장 예약 등도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 화장실과 휴게실, 흡연지역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전년 10주년 행사 이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떠한 점에 있어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움
- 전년 지적사항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축제장소의 특성으로 행사의 주요 스테이지들이 평지에서 인접해 있는 관계로 혼잡성을 피하기 어렵고, 쿨존, 푸드존, 체험 프로그램 등의 공간분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행사운영이나 기획이 주관사인 (주)에스컴이엔티에 의해 진행되다보니, 주최측인 인천광역시의 역할이나 기여도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관련하여 주최측에서 가장 핵심프로그램인 락페스티벌 이외에 루키프로젝트, 라이브 딜리버리, 라이브클럽데이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핵심 프로그램 이외에는 주목을 끌기 어렵고, 이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노력도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문화예술과가 주관이며, 관광진흥과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유기적인 관계망의 협력 정도를 알아보기는 어려움)
- 이는 전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의 특성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유료행사이기 때문에, 상업성이 강하고, 지역주민이나 가족대상 층의 고려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관광콘텐츠로서, 브랜드 확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루키프로젝트, 라이브 딜리버리, 라이브클럽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지도가 적을 뿐 아니라, 타겟층 자체가 특수하여 인천시민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서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상업행사로서, 푸드존에서 영업하는 외식업체 및 주류업체의 독점적인 영업과 전략으로 인해, 메뉴의 한정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역청년장사꾼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타 지역 축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인천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 인근 상점들과 노력한다던가, 경쟁을 통한 지역청년장사꾼들의 입점을 고려하는 등의 개선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함. 현재는 (주)에스컴이엔티에에 의해 입점기업들도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는 기획, 콘텐츠, 운영, 발전성, 성과 등 평가항목 면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연계관광 및 지역축제로서 뿌리내릴 수 있는 자발성 등의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유로운 공연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특히 성범죄 등에 대비한 대응책 및 치안문제 등에 대해 주최 측의 적극적인 대응책과 문제해결 가이드 마련도 더 강하게 필요한 상황임.

국내 양대 록 축제로 꼽히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이 현장에서 잇따라 벌어진 성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펜타포트에는 국내외 아티스트 80여 팀, 관객 8만 6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그런데 인파로 붐빈 현장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속출했다. 피해를 입은 일부 관객은 주최 측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객은 이어 “결국 공연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그 남성은 공연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여성들끼리만 있는 돛자리에 돌아다니더군요. 펜션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라며 “그런데 제가 대화를 나눈 스태프분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가요? 분명 무전을 날리시는 것 같았는데요. 어차피 공연이 끝나가니까, 마지막이니까라는 이유로 방치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론화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놔두자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라고 질타했다....

...축제 현장에서는 화장실 몰카 범죄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성 관객은 SNS를 통해 “간이화장실이 남녀로 나뉘어 있었지만 휴대전화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며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2016. 8. 18일자 기사>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는 락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천을 널리 홍보하고 인천의 가치 재창조에 기여하려는 기획의도가 돋보임. ○ 이를 위해 지역 브랜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에 노력하고, 펜타포트 라이브 딜리버리를 통해 시민참여형 축제를 꾀하고, 시민 문화향유권 증진에 노력하고자 함 ○ 지역 브랜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에 노력하여 지역 숙박업체, 음식점 등 패키지상품 구성을 꾀하고, 특히, 외국인대상 인천 투어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도 마련함 ○ 차별적인 음악축제의 목표에 따라, 락페스티벌의 인지도를 꾸준히 높여나가며 전년도 10주년 행사를 치루고, 국내외 인정받는 대표적인 최고의 락페스티벌로 성장하였음 ○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의 경우 타 축제와 다르게 전문 타겟층을 대상으로 락뮤지션의 공연을 통해 매니아형 야외축제의 전형을 마련했다는 점이며, 고정적인 장소의 활용을 통해 야간공연을 통해 야외뮤직 페스티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점임 ○ 그러나 주요 행사인 락페스티벌이 유료행사이고 한정된 공간(달빛축제공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주민이나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움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음. 가족단위 관람객 확보(8세미만 및 65세 이상 관람객 무료 입장 등), 키즈존 마련 등 일부 노력을 하기는 하였으나, 축제의 주된 기획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의 특성상 주관기관인 용역기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행사운영, 기획, 입점업체 관리, 진행요원관리까지 대부분이 (주)에스컴이엔티에 의해 진행되는 탓에 지역의 자생적인 축제기획위원회나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임 ○ 지적사항에 따라, 락페스티벌 이외에 루키프로젝트, 라이브 딜리버리, 라이브 클럽데이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향유를 강조하고 있으나, 홍보 및 지역주민의 참여정도가 효과성이 충분히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 예를 들어 루키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네이버뮤직 플랫폼을 활용, 스폰서기업 유치를 통해 규모확장 등을 꾀하였으나, 지역관광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및 킬러프로그램의 마련, 활용 등도 충분히 기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락페스티벌의 경우 락 매니아 층이나 뮤지션의 팬들만의 축제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 후원사를 통한 체험활동이나 쿨존, 플레이그라운드 등의 페스티벌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은 락에 대한 문외한들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외연확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축제는 락음악에 특화된 출연뮤지션의 음악공연이 핵심적인 음악축제로서, 타 축제와 달리 핵심콘텐츠는 인기가 높은 어떤 뮤지션을 섭외하여 출연시키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런 특성 때문에 10년이 넘는 장수 음악축제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 및 콘텐츠 특성이 인기와 화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명 뮤지션의 섭외 등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올해의 경우도 ZION.T, 10cm, 넬 등 인기가 높은 뮤지션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역축제 발전가능성보다는 유행을 타는 단기적인 흐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의 차별성 및 색깔을 고민할 수밖에 없음. 명실상부한 락페스티벌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해 축제의 기획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지역 및 타겟층의 수요 측정, 관련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마련 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예산 및 섭외의 능력 등이 고려되지만, 해외아티스트의 경우 통상 일본 락 페스티벌에 라인업이 확정 된 뒤 한국 공연에도 오는 형태가 많은데, 올해 방문 대표인 3팀 모두 도쿄 섬머소닉 라인업에 들렀다 오는 형태로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차별적인 특성으로 볼 때, 다소 지루질 수 있는 부분이었음 ○ 또한, 지역문화축제로서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축제를 위해서는 루키프로젝트, 라이브 딜리버리, 라이브클럽데이 등의 프로그램의 결과가 본 메인행사인 락페스티벌에 어떻게 반영되고, 환류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부분적이라도 지역주민 참여 및 아티스트들의 기여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임 (주)에스컴이엔티에 의해 운영 및 입점업체 선정, 운영요원들의 관리 등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축제의 운영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며 일관성이 있음 ○ 다만, 10년이라는 경력에 무색하게, 가장 큰 무대인 펜타포트 스테이지와 드림 스테이지의 공연이 텅 없이 반복되게 시간표가 짜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운드 체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타임키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객의 공연선택시 불만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10년이 지나면서 특정 업체의 이권개입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유료상업행사로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특히 푸드존에서 영업하는 외식업체 및 주류업체의 독점적인 영업과 전략으로 인해, 메뉴의 한정성, 높은 가격 등 문제 발생을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해 인근 상인연합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지역청년장사꾼의 포함 등 지자체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들의 참여 방안 및 후원 등을 고민해야 함. 참여 및 협력사들 및 압표관리 문제 등도 신경써야 할 부분임 ○ 샤워시설 및 캠핑장 운영, 화장실 관리 등은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됨. 다만, 올해 가장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열리는 행사였던 만큼, 폭염을 대비한 그늘막이나 휴식공간, 열사병 방지를 위한 시원한 천막공간 마련 및 의료사건 발생 대비 대책 등이 더 많았어야 함에도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적은 비용을 통한 스폰서 연계 종이모자 및 토시 제공 등이 가능. 또한,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clean zone 및 쓰레기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도 더 고려해야 할 사항임. ○ 전년도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인천지역의 문화와 특산물, 먹거리, 관련 연계행사 및 관광프로그램의 홍보 등이 메인행사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관련 부스 등 공간도 제한적이었음. 상업행사로서의 특성은 이해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지역의 브랜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음악축제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지역문화와 콘텐츠의 가능성을 좀 더 공격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및 부스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함. 지역상품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야시장 연계, 지역특성 반영 다문화장터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축제관련 기념품 종류와 상품판매 등이 폭염에 맞춘 음료수와 패스트푸드, 타월 등 펜타포트와 음악에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개성있는 콘텐츠와 지역문화를 담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부재하였음. 자발적인 참가자들의 홍보와 참여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무료와이파이 제공(통신사 협찬)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현장중계 경연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콘텐츠 개발 등이 아쉬운 부분임 ○ 대중교통 이용과 셔틀 버스 이용은 편리하나 셔틀버스 운행시간은 제한적이었으며, 야간시간의 안내 및 주차장 연계 등이 불편하였음 ○ 축제장 주변 인접도로 등에 행사 알림 안내나 방문객용 주차장 안내판 등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음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10회를 맞이하였으며, 대표 음악축제로서의 브랜드를 충분히 갖고 있는 락음악축제로서 축제의 발전성은 앞으로도 기대되는 바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음악축제로서 공연하는 음악가들의 수준도 매년 상승하고 있어 국제적인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락페스티벌로 자리 잡고 있어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장점이자 한계로서 볼 수 있는 음악축제의 성격이 한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매니아 중심형 락페스티벌인 탓에 인천지역 주민 및 가족 단위, 일반형 축제로서 발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인천’ 보다는 ‘펜타포트’라는 브랜드가 커짐에 따라, 지역의 문화관광축제로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야 하는가가 큰 숙제임 ○ 지속적으로 문화관광축제로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올해 시도하였던 시민참여 및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밀도 및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이고, 메인 행사에서도 인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zone) 및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인천시내 곳곳에서 같은 일자에 동시다발적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문화상품으로서뿐 아니라, 관광상품으로서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계절성을 타는 여름기간의 단기 축제라는 성격 이외에 특정공간에 펜타포트 브랜드 관련 상설공연장 등 랜드마크를 마련하고, 상시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예. 리버풀의 캐번클럽 등 스토리텔링 활용 장소명소화 전략 마련).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관광콘텐츠로서, 브랜드 확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임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락페스티벌이라는 축제의 특성상 젊은 층을 대상으로 특정 타겟을 중심으로 하는 한정적 축제로서의 성격이 짙으나, 야외공간에서 10년 넘게 훌륭한 뮤지션들의 공연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 캠핑장 등과 연계하여, 야외에서 음악을 밤새 즐길 수 있는 24시간 축제의 장 마련이라는 점, 국내외에서 락페스티벌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지자체와 연계하여 구축했다는 점 등은 축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캠핑장의 넓은 텐트 간격 및 소음으로부터의 방해요소가 적은 점 등은 타 축제 대비 장점으로 인식됨 ○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매우 높으며, 문화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완성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관광축제로서의 가능성은 메인 행사의 방문객 수로만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효과나 지역문화홍보 효과 등에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관광축제로서 우수축제 수준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인천 주민들이 참여의 장 및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장소, 시기, 참여범위,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

6

광주 추억의7080충장축제

(1) 개요

- 기간 : 2016년 9월 29일(목) - 10월 3일(월) 5일간
-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거리 일원
- 주최 : 광주광역시 동구
- 주관 : 추억의 7080충장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한국관광공사
- 협찬 : 농협, 교보생명
- 주요행사
 - 3개부문 29개행사
 - 낭만으로 가는 정거장 : 추억의 테마거리, 추억의 고고장, 추억의 물러장, 추억의 사랑방(동창회), 모닥모닥 추억 체험 한마당, 추억의 가을 운동회, 추억의 테마조성, 그때 그 시절 먹거리, 폐막행사(방송사)
 - 행복의 숲으로 가는 정거장 : 충장미래공작소, 충장빛의 숲, 오! 樂 가~樂 충장여행기, 날라리 달구지, 코리아 충장 쇼핑데이, 전국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함께 비비고 나비고, 지역문화그룹 공연, 우리 동네 스타를 찾아서, 충장교류한마당
 - 희망으로 가는 정거장 : 개막행사, 거리퍼레이드(전국 거리퍼레이드 경연, 충장 거리페스티벌, 별빛 야간 거리페스티벌), 추억의 별밤 캠핑, 충장댄스, World-Pop 페스티벌, World Day, 충장 DJ 페스티벌, 제4회 전국창작예술경연대회, 추억. 충장 꿈희망 콘서트(방송사), 왔다! 청년 보부상

(2) 총평

■ 잘된 점

- 제 13회 충장축제는 8000여명의 지역민이 참여하였던 거리 퍼레이드 등 지역민의 자긍심과 화합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함

- 정치, 행정, 금융, 언론의 호남 최대의 요충지였던 7080시대의 총장로, 금남로 일대가 외곽 지역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그 기능을 잃고 쇠퇴해 가는 중 ‘추억’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축제를 통한 구도심의 도시 재생 기능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판단함
-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청소년 단체를 활용하여 시도했던 World day, World Pop 페스티벌 등을 통해 ‘추억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성을 반영하여 과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음
- 킬러콘텐츠인 길거리 퍼레이드를 주제별, 또는 성격별 유형을 나누어 토요일과 일요일 등 2일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영국 노팅힐 카니발 퍼레이드 참조)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의 명확한 주제성과 방향성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잘 발달되었으나 운영적인 디테일이 아쉬운 축제로, 방대한 축제장과 수많은 프로그램 및 관광객이 몰려서 관광객이 어느 프로그램이 어느 곳에서 진행이 되는지 혼란을 겪는 등 거리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웠으므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함
- 과거를 재현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은 잘 되었던 것에 반해 흥미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연출이 매우 아쉬웠음. 소수의 연기자만 행사장을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인근 학교나 단체의 협조를 얻어 각 부스마다 상시 인력을 동원하여 7080시대와 역할에 맞는 연출과 코스프레를 하고 방문객과 소통을 하면 몰입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사료됨
- 세계 10대 거리축제를 목표로 많은 시민들이 동원되고 있는 거리퍼레이드의 경우 심사위원 앞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는 본 일본의 마쓰리와 노팅힐 카니발 등과 같이 공연을 각 골목에서부터 연출할 수 있게 유도하여 모든 관람객들과 주변 상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연출이 필요하다 사료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동안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제의 전반적인 세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계획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활용도가 다소 낮아 보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축제 기간 동안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거리축제의 특성 상 넓은 축제 장소에서 브로셔에 나와 있는 일정을 찾기 위해 정확한 장소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방문객들이 많았으므로 축제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내도와 표지판 또한 각 공연장 앞에 간단한 공연 설명을 기재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인근의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광객들에게도 축제를 인지시키고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도심 캠핑장을 조성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주고 인근 야시장 및 숙박 시설과 연계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유익한 기획이라 평가됨 ○ 3개의 큰 컨셉을 나누어 각 구역의 장소나 소품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낸 것은 발전된 시도였다 판단됨 ○ 개막식의 경우 기관장들의 인사가 너무 길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사전 제작된 영상을 보여주던지, 공연 행사에 그들이 직접 참여해 짧지만 재미있고 강하게 의미 전달을 하는 기획력이 필요해보임 ○ 충장축제의 메인 콘텐츠인 추억의 테마거리가 있는 ‘낭만으로 가는 정거장’이나 주요 무대가 있는 ‘희망으로 가는 정거장’에 반해 ‘행복으로 가는 정거장’엔 상대적으로 관람객의 유입이 적었으므로 축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절한 킬러 콘텐츠들의 분배가 필요해 보임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0여명의 지역민들이 다양한 주제와 특성을 갖고 참가한 거리 퍼레이드 및 생활체육 복싱대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평소에 축척해 온 취미나 특기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은 축제의 본 의미를 살린 좋은 기획이었다고 판단됨 ○ 개막식과 폐막식은 현재 전체적으로 지양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출연에 다소 의지한 부분이 있음 ○ 거리 축제의 특징을 살리고, 많은 방문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무대를 확대하고 많은 공연을 실행한 것은 좋았으나 너무 많은 공연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공연장 배치 상 사운드가 중복되어 다소 혼잡스러운 부분이 있었음 ○ DJ 페스티벌, 추억의 고고장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기획되었다 판단됨 ○ 광주 지역 플리마켓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청년 장돌뱅이란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마켓몰을 만들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장 축제의 새로운 발상으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과거를 재현하는 부스나 시민형 거리 퍼레이드 같은 경우 이미 충장 축제를 모방을 한 다른 지자체들의 후발 축제들이나 기존 충장 축제와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으므로 한국 거리 퍼레이드 축제를 이끄는 선진 축제 및 최우수 축제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짐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중간마다 ‘클리닝 타임’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 청소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 점은 시민 의식 향상과 깨끗한 축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됨 ○ 행사 기간 우천시 천막을 임시방편으로 설치해 주기도 하고 우비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나 공연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되었으므로 편의상 최소한의 메인무대(특설무대)에는 햇빛이나 우천시를 대비한 장치물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짐 ○ 월드 팝페스티벌의 경우 유창한 영어 통역이 진행 되었고 각 국 출연진들의 참여도가 적극적이어서 세계로 나아가자는 축제의 주제에 부합했음 ○ 집계 계획서에 나온 데로 축제 방문객 집계 장소는 잘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집계 요원의 집계 방법이 일관성이 없어서 지적인 결과 바로 시정되었음 ○ 축제장 주변 건물들의 협조를 얻어 화장실을 개방토록 한 것은 방문객의 편의를 잘 배려한 조치라고 판단됨 ○ 축제장의 전체적인 안내도와 방향 표지판, 공연장마다의 입간판의 설치 및 자연스러운 동선 이동에 대한 고려가 시급함 ○ 브로셔와 일정이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타이트한 일정표 탓에 기존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시작이 지체되어 관람객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여유 있게 일정을 잡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안내를 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을 덜어 줄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전담 자원봉사자 등 사전 교육이 된 자원 봉사자들과 스테프들의 활약으로 빗속에서도 ‘사고 제로’의 축제를 완성해 냈다고 판단됨 ○ 월드팝 페스티벌의 경우 브로셔나 실행 계획서엔 페스티벌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컨테스트로 진행이 되는 등 브로셔에 정확한 프로그램명 기재와 정보 제공이 필요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개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진행에 있어 체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축제 관계자들의 역할이 잘 구분되어 진행이 원활하고 협조적이며, 특히 구청장님을 비롯한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공무원들의 협력이 돋보임 ○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돋보이는 행사로 관과 민이 협력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억의 충장 축제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이후의 축제의 방향성과 발전 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을 통해 국제화 및 축제 브랜드화를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부터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라 사료됨 ○ 향후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의 궁극적인 주체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축제 아카데미와 전문가를 결합하여 교육하고 논의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콘텐츠는 우수하나 축제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먹거리 개발과 축제 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 할 필요성을 제시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회 광주 충장 축제는 메인 프로그램인 거리 퍼레이드 시 빛속에서도 8000여명의 참가자 외 1만 여명의 인파가 몰려 역대 최대치의 인파를 기록함 ○ 축제 시 나타나는 바가지 음식 값, 무분별한 노점상 설치를 관리한 결과 충장로 도심상가, 대인상가 등 주변 상권에서도 수혜를 얻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됨 ○ 수도권과 거리적으로 멀다는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기대보다 많은 내국인들의 방문은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독특성이 반영된다면 접근성과는 무관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 축제로 지속적으로 대표 프로그램을 서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7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 9. 23(금) ~ 9. 25(일) / 3일간

■ 장 소 : 효! 월드」뿌리공원 및 원도심 일원

■ 주 최 : 대전광역시 중구

■ 주 관 : 대전효문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문중행사

- 문중 퍼레이드, 문중체험관, 문화예술제, 문중 명랑운동회

○ 문화(공연)행사

- 전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마당극, 그 시절 추억의 쇼
- 대한민국 육군·공군 나라사랑 애국 음악회, 홍보대사 위촉,
- 해외민속공연, 수상창극, 전통 민속놀이 시연 (3개), 청소년 어울마당
- 추억의 고고장, 불꽃놀이(2일), 효 콘서트(연예인, 국악),
- 효 뿌리 백일장 및 사생대회, 효행 마당극, 전국 시조경창대회

○ 체험(참여)행사

- 80세 미래 일기, 효타임 나만의 가족시간 계산, 효 가족 캠프
- 증강현실 효 킬러 팡, 북청 물장수, 붕어빵 만들기
- 응답하라 7080(추억의 교실, 추억의 문방구, DJ효 토크박스),
- 내 이름은 꽃이다, 청소년 효 골든 벨, 효도 계약서 작성
- 불효자 옥살이&형벌체험, 효 서당 효초리

○ 전시행사

- 한국족보박물관 특별전(만성보와 보학 이야기) 등

○ 수변무대 공연 및 부대행사

(2) 총 평

■ 잘된 점

-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 고유의 성씨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축제로서, 만성산, 효 문화마을 등의 인프라 구축과 문중 프레이드를 대규모로 추진함으로써 축제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었음
- 본 축제의 야간 수상창극 공연은 축제장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공연으로써 야간의 특별한 볼거리 제공과 함께 축제의 특성화 가능성을 보여 주었음
- 축제장 주차 안내 및 퍼레이드 진행 등에 있어서 대전 중구 공무원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음
- 각 문중이 퍼레이드에 단순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 문중에게는 직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함으로써 축제 운영 참여와 프로그램 다양성 제공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문중 퍼레이드는 진행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대부분의 문중은 복장 및 입장하는 방식에서 독창성이 없어서 지루한 상황이 연출되었음
- 문중 퍼레이드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교통 및 행사장이 매우 혼잡하였으며, 만년교를 건너는 통행 등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우려되었음
-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구성하는 많은 콘텐츠가 축제 주제성과 무관한 측면이 많으며, 흥미 유발 정도가 부족해 보임
- 대전효뿌리문화축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독창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국제화 및 젊은 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절실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 문중 퍼레이드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날짜 및 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일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중구 지역행사를 관광객이 적은 주중으로 옮기는 등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중 퍼레이드는 전국 각지 160여개 문중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부 문중은 특색에 맞는 복장과 말 등을타고 입장하는 등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음 ○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문중 퍼레이드를 주중인 축제 첫날 오전에 진행함으로써 일반 관광객 참여에 한계를 주고 있었음. 주말 또는 야간에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필요가 있음 ○ 문중 퍼레이드는 일회 동시에 진행됨으로 인해 교통의 혼잡및 인산인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며, 주제 관련 볼거리의 날짜 편중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 바, 향후문중 퍼레이드를 2일간 분산하는 기획의 검토 필요 ○ 금년에는 중국 통정시 공연단 초청공연과 대만 문중 초청으로 국제교류와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하였음 ○ 30여 문중에서 운영하는 문중문화체험관은 교육적인 의미를많이 담고 있었으며 탁본 체험, 가훈 및 휘호 써주기 등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상황과 다양성 및 흥미성이 부족한 면을 보여 주었음 ○ 축제장 입구에 설치된 추억의 교실체험 및 추억의 DJ 음악다방, 행사장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추억의 고고장 등은 축제의주제성과 관련성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축제 정체성과 차별성을 감소 시키는 작용을 하였음 ○ 수상무대를 활용한 공연은 축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활용한 바람직한 사례로 볼 수 있음. 본 축제의 특성화 측면에서 향후 공연의 내용과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어보임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에서 개막식은 짧고 간결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본 축제의 개막식은 각종 인사들의 축하메시지가 너무 길어참석자들의 비난과 원망이 발생하였음 ○ 상당한 거리가 있는 행사장 진입로부터 축제장까지 셔틀 전동카 3대를 수시 운영함으로써 노약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음 ○ 주무대 관람석에 특별한 햇빛 가림 시설이 없어서 문중퍼레이드 입장 후 착석하고 있던 대기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축제장 진입 차량 통제와 주차안내를 위한 주요지역 곳곳에서 중구 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원활한 축제 운영을 도왔음 ○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전국에서 단체로 참가한 문중이 각기점심으로 도시락을 주문배달하여 공원 여기저기에서 먹는 경우가 많았으며, 향후 이에 대한 별도 공간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매우 적극적임 ○ 축제장 만성산에는 계속하여 성씨비를 늘려나가는 인프라 시설 확대를 통하여 효문화뿌리축제 행사장의 기반 구축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음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간 중 전체적으로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순수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이에 비해 적어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아직 크지않은 것으로 보임 ○ 향후 야간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축제 기획과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함

8

울산 옹기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년 5월 5일 ~ 5월 8일(4일간)

■ 장 소 :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

■ 주 최 : 울주군

■ 주 관 : 울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옹기산적촌: 스토리액터, 민속놀이, 고구마 굽기, 삼겹살 굽기, 물건기, 장작굽기, OX퀴즈, 옹기경매, 퍼레이드
- 옹기난장촌: 이글루 만들기, 흙만들기/흙밟기 놀이터, 흙물감 그리기, 옹기토 찍기 및 던지기, 장독 뚜껑그리기, 원숭이 조소, 기상천외 옹기만들기
- 옹기장난촌: 미꾸라지 잡기, 흙탕물 씨름/뽕굴리, 흙탕물 옹기보물찾기
- 옹기장수촌: 옹기 웰빙 소품 전시, 옹기 응용 인테리어 전시

(2) 총 평

■ 잘된 점

- 차별화된 축제 주제: 국내 유일의 옹기축제로서 ‘옹기’라는 특화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 양호하다고 평가됨
- 마을공간 활용 축제: 대부분 임시 조성된 공간에서 축제가 개최되나 울산옹기축제는 옹기마을이라는 마을공간에서 축제가 개최되는 특징이 있음
- 축제 주제 부각을 위한 프로그램: 옹기라는 주제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등은 방문객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 옹기라는 주제와 관련성 낮은 프로그램들이 함께 개최됨으로 인해서 축제의 핵심 주제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

- 안전 문제: 옹기 굽는 마을에서 진행되는 행사여서 옹기 조각 등 위험요소가 있고, 설치된 시설 철골구조 노출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내 자료 정비: 행사장 곳곳에 종이에 손으로 쓴 임시 안내문 등이 많아 행사장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옹기축제 종합추진계획에 축제 준비 및 개최관련 주체들의 역할, 세부 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2016년에 16회를 맞이하는 축제로 그동안 축제 기획 및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평가됨 ○ ‘2016 울산옹기축제 종합추진계획’에 세부 프로그램 계획, 홍보 계획, 인력 운영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일의 ‘옹기’라는 주제를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및 연출은 양호하다고 평가됨 ○ 하지만 주제와 무관한 여러 행사들이 함께 진행되어 축제의 주제 및 가치를 저하시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축제 주제(소재)관련 대표 프로그램(Killer Contents) 완성도: 국내 유일의 옹기 축제, 옹기마을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흙 체험 프로그램: 옹기의 소재가 되는 진흙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함 - 옹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 방문객들이 직접 옹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즐거움을 주고, 기념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옹기 주제 공연 프로그램: ‘옹기마을을 찾아 온 산적들’이라는 주제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옹기’ 이미지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 타 축제와의 소재 및 프로그램 차별성과 매력성: 핵심 주제(옹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분명한 차별성이 있으나, ‘옹기’와 관련성이 낮고 타 축제에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기’를 주제로 한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들은 양호하다고 평가됨 - 축제 캐릭터(옹순이, 옹돌이, 불순이, 불돌이)를 개발했고 행사장에서도 볼 수 있었으나 캐릭터로서의 상징성, 메시지 전달성은 미흡하다고 평가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기’와 관련성 낮은 프로그램(울주민속박물관 및 웅기마을공원지구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등)이 다수 운영되었는데, 축제의 핵심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매년 개최할 프로그램의 경우 ‘울산웅기축제’와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울산 이외 지역의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울산웅기축제와 울산시 타 관광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오송역 가족관광 열차, 크루즈 연계 상품 등이 계획되었으나 방문객 유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울산웅기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울산시의 타 관광지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계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기마을 중심의 축제 공간 구성, 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타 축제와 연계 홍보, 지역주민 홍보단 운영 등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 방문객 안전사고 가능 요소(웅기 파편, 진흙 체험장 등), 임시 안내 문구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행사장 내 운영 효율성, 축제 홍보의 효율성·적절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약 13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운영을 지원하였으나 대부분이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 및 지역의 방송·일간지 홍보, 중앙 일간지 기사단 팸투어 운영, 대한민국 웅기 공모전 추진, 순창군과 공동 홍보 추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할매 홍보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 접근성·공간배치 등 행사장 환경 및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이용 방문객들을 위해 남창역과 행사장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으나 KTX 울산역 등 기타 대중교통과의 연계 방안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울산역 셔틀버스 임시 정류장이 마련되었으나 승강장 위치, 운행 및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였음) - 웅기마을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졌으나 행사장 내 운행 차량이 있어 방문객 이동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으며, 울주민속박물관 지역과 이원화된 공간 구성으로 축제가 집중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평가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곳곳에 손글씨로 종이에 임시 작성한 안내문(예: 음식 메뉴, 용기 판매 가격, 시설물 및 프로그램 안내, 출입 금지 등), 제작된 용기 접근을 막기 위한 차단선 등이 많아 어수선했던 느낌이 있음. 보다 쾌적하고 통일된 행사장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각종 안내 판넬 등에 대한 사전 제작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 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관련 사업체가 운영되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용기마을에서 개최되는 축제 특성상 지역 주민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 용기관련 사업체들은 용기 제작 체험, 용기 전시 및 판매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었으며, 지역 주민들은 농산물 판매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음 - 용기와 관련성 없이 용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울산용기축제로 인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축제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축제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등 방문객 안전관리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없는 축제 개최를 위한 재해대처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음 - 용기마을의 환경(예: 좁은 골목, 깨진 용기 파편 더미 등)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인 용기마을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행사 진행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예: 용기박물관 앞에 설치된 진흙체험 공간 등)의 철골 구조, 시설물 고정을 위한 와이어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이므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용기마을 내 관련 기업 운영, 단체장의 육성 의지 및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자치단체장의 육성여지 등 성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가 국내에 하나뿐인 주제(용기)로 개최되는 점, 지역의 전통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점 등의 차원에서 지역에서 축제에 갖는 기대와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안정적인 축제조직 구성 및 운영, 축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부터 울산용기축제 사무국이 상설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안정적인 축제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조직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됨 - 지자체의 재정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이외 지역 방문객 비중 증가, 2015년 문화관광유망축제 대비 다소 높은 방문객 만족도, 용기 판매 등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발생 등은 축제의 성과로 판단됨 ○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 및 국내외 인지도(홍보효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5월 30일 개최된 ‘2016 울산용기축제 평가보고회’관련 언론 기사에 의하면 총 방문객 중 울산시 이외 지역 방문객 비중이 33.6%로 2014년(14.9%) 및 2015년(31.5%) 보다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자료로 볼 때 울산용기축제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방문객 만족도 및 지역경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5월 30일 개최된 ‘2016 울산용기축제 평가보고회’관련 언론 기사에 의하면 직접경제 효과가 11.5억원, 생산유발효과 20.3억원, 소득유발효과 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2억원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인식, 축제장 시설안전, 축제의 재미 등 부분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문화관광축제 만족도 비교에서도 2015년 문화관광유망축제 대비 0.2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방문객 수 집계 방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출입구가 2곳 인데 각 지점에서 계측기를 활용하여 방문객 수를 측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중복 집계 문제 최소화 방안, 최종 방문객 수 추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1) 개요

■ 기 간 : 2016. 10. 1(토) ~ 10. 3(월)

■ 장 소 : 자라섬 및 가평읍내 일원

■ 주 최 : 가평군

■ 주 관 : (사) 자라섬청소년센터

■ 주요행사

- 공연 프로그램
 - 공식 초청: 재즈 아일랜드(유료), 파티스테이지(유료), 페스티벌 라운지, 재즈팔레트, 재즈큐브
 - 오프밴드 선발: 웰컴포스트, 어쿠스틱 스테이지, 가평 유스 프로그램, 팝업스테이지, 미드나잇 재즈카페
- 가평 관련 프로그램(축제 기간 내 진행)
 - 올나잇 시네마, 팝마켓, 팝파티, 페스티벌 기념음료, 가평 빌리지
- 공연 외 프로그램
 - 프랑스 포커스, 자라섬 재즈 콘쿨, 찾아가는 자라섬 재즈

(2) 총 평

■ 잘된 점

-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13회를 맞이하면서 현재 국제적인 재즈행사로 자리 잡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2016년 페스티벌의 경우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한불상호교류의 일환으로 개최되어 의미가 있음.
- 지역적으로는 가평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으며,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재방문율이 높은 검증된 행사로 인정받음.
- 축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료행사로서 재정자립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공의 인프라 제공과 어울려 민간의 주도적인 행사라는 점이 의미있음.

- 축제의 한계가 될 수도 있으나, 재즈라는 특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페스티벌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타 축제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자라섬 및 가평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운영에도 관여하는 ‘지역축제’로서 문화부의 대표축제로서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매년 지적되는 지역사회와의 유리된 축제라는 점에서 가평빌리지 존 등 나름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체 행사에서 비중이 낮고, 동선 등에서 접근성이 떨어져있음. 특히 공연영역은 물론 비공연영역에서도 지역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축제로 인해 자라섬 등 일부 축제개최공간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늘어나지만 남이섬 이외에 연계관광 및 확장성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가을철의 좋은 날씨, 페스티벌을 방문하는 연령층이 젊은 층이라는 점 등을 고려 볼 때, 젊은 층과 가족단위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관광진흥책과 즐길거리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장기적으로는 가평이라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재즈거리 등 재즈를 테마로 한 재즈관광클러스터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자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협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나친 상업화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매년 특정기업의 부스로 채워져 있어 축제공간이 ‘지역민의 장’이라기보다는 ‘협찬기업 홍보의 장’으로 전락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임. 단일 음악페스티벌의 사례로서는 민간자본의 지원을 통해 행사가 완성도를 갖추는 것이 운영면에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고 등의 지원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축제의 측면으로 보자면 공공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 팜파티 등 노력을 개진하고 있으나 비중이 크지 않고, 행사장에서는 지역관련 부스가 관광두레 등 관련하여 먹거리 등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가평빌리지 연관 지역 부스들의 경우 동선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역에 있어 아쉬운 부분임.
- 또한, 재즈아일랜드, 파티스테이지 등 일부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통해 축제의 자립성을 갖춘 것은 평가할 만하나, 수준 높은 공연의 경우 입장료가 비싸 일반 관객들의 접근성이 제약받고 있는 것은 축제의 취지와 배치되는 부분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볼 때 축제의 기획 목적이 명료하고 콘텐츠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구성되어 음악공연으로서의 완성도는 높았음. ○ 올해도 재즈마니아들이 열광할만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초청해서 기대에 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명 뮤지션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좋았음. 또한 유명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자체 발굴 팀, 아마투어팀 등 다양한 뮤지션들을 초청해 공연의 기회를 준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공연축제의 한계성 참여프로그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늘어날 필요는 있음. 또한 재즈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이 재즈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해설적 프로그램도 강화되었으면 함. ○ 그러나 매년 지적되어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가평읍내를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라섬이라는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다보니 지역사회와의 연계효과는 미진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향후 이점에 대한 축제 주최 및 주관기관의 적극적 고민이 필요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존과 유료존을 구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뮤지션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으며, 축제의 콘텐츠를 충분히 즐기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던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공연 무대인 재즈아일랜드는 세계적 수준의 뮤지션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무료공연 무대인 페스티발라운지, 어쿠스틱스테이지 등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재즈공연이 열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음. - 유료 공연의 경우 공연의 질을 고려한다면, 비싸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관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입장료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무료공연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함. ○ 매년 특정 국가를 정해 그 나라의 재즈뮤지션을 초청하는데, 올해는 프랑스였음.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는 특정 국가의 뮤지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서 의미가 있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콘텐츠는 재즈공연으로 중심으로 특화된 축제로서 콘텐츠의 구성이나 완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음. ○ 가평읍내 올라잇시네마 등 수요기반 콘텐츠 발굴의 노력도 경주되고 있으며, 축제장 곳곳에서 가족단위 관람객도 발견되고, 편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측면은 인정할 만 함. ○ 그러나 매년 지적되어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빌리지 존에서 하고는 있으나 가평읍내에서 벌이는 축제행사 가운데 메인프로그램만큼 획기적인 것이 없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재즈음악페스티벌로서의 차별화는 충분히 인정되나, 종합적인 특성을 갖는 지역대표축제로서의 특성을 갖는가 하는 점은 보다 면밀히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임.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참가자들과 운영시스템, 관련 교육 등은 잘 운영되고 있었음. ○ 다만,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보다 강조하는 운영마인드의 확충이 보다 필요한 부분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축제기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가평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셔틀버스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유료 성인 6,000원 기준, 긴 대기시간)은 축제 관람객들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됨. 야간공연이 주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대중교통 연계성 등을 위해 더 다양한 루트와 옵션 등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천재지변이라는 날씨의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바닥이 젖어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최측이 방수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아쉬움. 종이의자 등 상품 판매로만 유도하는 상황은 지역축제의 특성과 정서상 잘 맞지 않음.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더운 날씨를 대비한 그늘막 제공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임 ○ 휠체어석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한 장애인 배려 내지 적극적인 지원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사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음 ○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정작 지역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가평역 앞 관광안내소 경우 야간공연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임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후원기관을 중심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음악축제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인접지역 축제로서의 가능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지역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관광축제의 발전성을 본다면, 기획방향 등에서 있어 많은 수정을 필요로 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숫자 및 만족도 등에서는 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연계 관광 등을 고려한 지역확산 효과 등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전년도 지적과 마찬가지로 이 축제가 지역 이미지의 제고와 관광활성화 등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10

이천 쌀문화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 10. 19 - 10. 23. (5일간)

■ 장 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 최 : 이천시

■ 주 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문화마당 : 농심풍년큰잔치, 체험:복조리/짚공예/쌀케익/가래떡구이/달고나/가마니짜기
경연:농촌지도자 베틀경연 등
- 풍년마당 : 이천쌀홍보관, 전통혼례, 거북놀이, 체험판매:엿만들기/대장간 등
- 기원마당 : 마당극:이천쌀 스토리, 기원놀이:쌀사랑깃발만들기/소원지쓰기 등
- 동화마당 : 공연:인형극,,시:그림전시, 체험:농촌나드리전/벼탈곡/모내기 등
- 햅쌀장터 : 판매:햅쌀/농특산물 난전전시:과일전시/농특산물전시, 나눔의 장 등
- 놀이마당 : 상설프로: 전통놀이, 수시진행: 풍년놀이, 마당:공기놀이 등
- 농경마당 : 공연: 상설공연, 체험: 벼생육/벼화단/색칠, 전시: 화훼전/농기(農旗) 등
- 쌀밥카페 : 전시판매:쌀가공업체13개내외, 쌀맛보기:가마솥밥~이천명 이천원 등
- 주막거리 : 이천쌀밥/한식, 쌀누룽지/쌀국수/쌀떡국, 쌀막걸리/착한가격 안주 판매 등
- 햅쌀거리 : 공연:길놀이/거북놀이/풍물행사:진상행렬/무지개가래떡만들기 등
- 동네마당 : 추수감사제 및 개막놀이, 노인회의 날(웃놀이), 바비큐요리경연 등
- 그 외 : 설봉미술대회, 휘호대회, 사진전시회
- 전 체 : (입국) 팜플렛,경품응모권 배부, (출국) 경품 추첨

(2) 총 평

■ 잘된 점

- ‘이리오너라 먹고 놀자’ 라는 주제 맞게 국내외관광객과 함께 ‘무지개가래떡만들기’ 등 이천쌀의 정체성과 그 가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실제로 참여한 관광객

에게 흥미와 맛을 느끼도록 하는 다채로운 체험행사 등을 볼 때 주최 측의 정성과 노력이 돋보임.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에 걸 맞는 일관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어 축제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있음. 특히 공연장의 명칭을 마당으로 구분하여 관광객들이 수월히 동선 이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연장 간의 조화로움이 돋보인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연무대가 아니라 마당이라는 자연적인 공간에서 관객들이 쉽게 분위기에 빠지도록 행사프로그램 및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연들이 관광객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어 축제의 근본적인 속성인 난장판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음.

- 본 축제는 외국인관광객들이 전통문화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우리의 고유한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경향이 높아, 한국농경문화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축제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음. 이에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한 축제로서 제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현지화전략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경우, 수월히 세계인을 모을 수 있는 국제적 이벤트행사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행사는 본 축제에서 자연스럽게 이천쌀을 맛보게 하고 축제에 녹아들어가도록 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서 본 축제에서 집중도가 높은 행사로 평가됨. 또한 보고, 먹고, 놀고, 나누고, 더하고의 추진방향에 따라 관광객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놀고, 먹으며 즐거움을 공유하는 매우 생산적인 축제로 평가 됨.
- 축제의 소재가 대부분 축제의 이름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축제프로그램이 완성된다는 관점에서 이천쌀문화축제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조화롭게 구성되고 각 주제에 맞게 적절히 진행되고 있음. 그리고 사람들은 축제가 가진 명칭으로 인해 축제의 매력을 상상하며, 축제에 대한 재미와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본축제는 먹고 즐기면서도 쉽게 축제에 동화되고 있어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또한 각 마당마다 즐기고 살아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완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며 다양한 세분시장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됨. 더욱이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이천쌀을 먹고, 구입하게 되며 동시에 농경문화를 체험하고, 같이 일하고, 다양한 공연을 감상하는 일석이조의 맛과 재미와 경험을 느끼게 하도록 연출되어 있어 주목됨 이렇게 이천의 상징인 이천쌀과 농경문화를 소재로 한 본 축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농경문화의 추억을 느끼게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축제활용도와 문화적 가치성이 높게 평가 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이천쌀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편이나 고객의 반응이 좋은 테마와 그렇지 못한 테마에 대한 적절한 공간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다년간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의사결정의 공간배치우선순위가 필요하며 장기적

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마스트플랜이 필요함. 따라서 행사를 주관하는 차원에서 좋은 모델을 선정하여 이러한 조건들을 구비하는 아이템들이 많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도하여 선별적으로 가게나 기타 프로그램공간들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 축제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표 이천쌀’에 대한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기획과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입구에 설치된 홍보관도 보다 규모가 크고 일관성 있는 지역특산품을 제대로 전시 배치하여 관광객의 관심과 집중도를 높힐 필요가 있음. 외국인 안내체계도 보다 다양한 언어와 서비스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보다 숙련된 안내원을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충분하 사전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축제마당마다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에 핵심적인 킬러프로그램을 부각시켜 영상이나 그림을 통한 홍보전략을 구사하여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제의 마당과 거리들이 이천쌀의 우수성을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홍보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한마당을 통한 직,간접적인 이천쌀 홍보전략은 축제를 마치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이천쌀의 홍보대사가 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차공간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동선 배치가 다소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공원 내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병목현상이 심하고 병목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대응체계정비가 필요 함. 축제행사장 입구의 복잡한 공간에 교통안내원이나 도우미가 부족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위주의 교통통제도 중요하지만 도로상의 관광객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행사 식당전반에 안전장치가 보완 될 필요가 있으며, 화재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메뉴얼 정비가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제18회로 개최되는 “이천쌀 문화축제”는 이천의 대표 브랜드인 이천쌀을 한국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농경문화를 연계하여 다양한 주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놀이를 개발하고 체험과 공연을 가미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있음. 특히 다년간 축적된 프로그램들이 해마다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어 내용의 완성도와 관광객들의 참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표축제의 선택과 집중이 돋보임. 어린이들의 경우 우리의 농경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고, 같이 공감하고, 다양한 공연과 어울려 환상적인 추억을 제공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맛과 재미와 경험을 느끼게 하도록 연출되어 있음. 향후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이천쌀문화축제의 의미와 축제활용도와 그 문화적 가치성이 높이 평가 됨. ○ 이천쌀문화축제의 근본적인 이념이 한해 동안 수확한 이천의 고유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추제가 진행되고 있어, 이천농업인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이천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농업인 축제로 승화하고 있음. 실제로 생산한 이천농산물들이 축제현장에서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고 과학적인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만족을 배가시키고 있어 주목됨. 특히 보고, 먹고, 놀고, 나누고, 더하고의 추진방향에 따라 관광객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놀고, 먹으며 즐거움을 공유하는 매우 생산적인 축제로 평가 됨. 또한 외국인관광객들이 전통문화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우리의 고유한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경향이 높아 한국농경문화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축제로의 발전적인 기획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 축제의 프로그램들이 각 마당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기획 운영되고 있으나,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어 각 마당마다 주제가 강화된 핵심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 관객들에게 해석기능을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가치와 의미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 이러한 마당별 핵심프로그램을 대표 그램과 연동하여 일관성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함. ○ 이천쌀 판매장의 분위기를 보다 시장터의 분위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각 공간적인 배치도 확실한 주제나 특산품의 특성을 제대로 대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판매마케팅 관점에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됨. 또한 관광객들의 관심이 폭발적인 곳이 있는 반면에 비교적 한산한 가게가 있어 향후 보다 관심을 가지는 곳에 공간규모를 늘리는 유연성이 있는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행사를 주관하는 차원에서 좋은 공간모델과 아이템들을 선정하여 이러한 조건들을 구비하는 가게가 많도록 차별화된 공간유도로 선별적으로 입주전략이 필요 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라는 주제 맞게 국내외관광객과 함께하고 이천쌀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실제로 참여한 관광객들이 흥미와 맛을 느끼도록 하는 체험행사가 축제행사의 백미로 평가됨. 또한 농업인, 예술인, 놀이꾼, 시민 및 관광객 등 참여단체 성격별로 공간을 분리하여 起(거북놀이)→承(농경문화)→轉(잔치와 놀이)→結(먹거리와 판매)순으로 구성하고 행렬 및 대동놀이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단위 공간들의 연계성 강화하여 이천쌀의 브랜드에 걸 맞는 일관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음. ○ 특히 각 공연장의 마당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각 특성콘텐츠별로 구성 구분되고 있어 관광객들이 쉽게 동선을 이동하고 공간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축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정취가 묻어나는 마당이라는 자연적인 공간에서 관객들이 쉽게 분위기에 동참하도록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향후 재방문에 상당한 영향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평가 됨. 대부분의 공연들이 관광객들이 직접 호흡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축제에 대한 관광객 동화현상이 빠르게 전이되고 있음. ○ 본 축제에 가장 돋보이는 점은 많은 외국인관광객이 한국전통농경문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통화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이천쌀로 만든 음식을 만끽하고 즐거워 한다는 측면은 우리농경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이천쌀축제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현지화음식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국인들과 기놀이, 손씨름, 줄씨름, 소쿠리널뛰기, 닭싸움, 제기차기, 줄넘기, 단체줄넘기, 신발던지기, 지게질, 굴렁쇠, 피구, 강강술래 등 한국인과 함께 어울려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른 축제에서 볼 수 없는 한국의 정취를 느끼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 이러한 측면은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축제가 국제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과 성공을 예견하게 있음. ○ 풍년마당의 무지개가래떡 만들기, 전통의상포토존, 농경마당과 기원마당의 분위기연출 및 쌀밥카페마당에서 설치된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초대형 가마솥에서 장작불로 만든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행사는 본 축제에서 가장 중심성이 높은 행사로서 축제성공의 핵심주제로 평가 됨. 또한 가마솥 행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져 이천쌀을 맛보면서 느끼는 어울림 마당인 본 행사는 참여지향형 축제행사의 모범사례일 뿐 아니라 이천쌀의 우수성과 브랜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으로 평가 됨. ○ 행사 식당전반에 안전장치가 다소미비하며, 프로판가스 장치가 방치된 곳이 있어 화재의 위험성을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표 이천쌀’에 대한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기획과 실행전략이 다소 산만하고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이 다년간의 실행관계로 매우 효율적이며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실제로 각 마당에 펼쳐지는 내용들이 실제 참가가 용이하도록 운영되고 있고 한마당이라는 관점에서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 활용이 주목되고 있음.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지는 내용들로 잘 구성되어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우리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분위기 연출은 축제전체의 흥미를 높이고 있음. ○ 특히 최우수축제에 걸맞게 전통농경문화를 제대로 재현하면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신명나는 한마당에 참여하고 놀이마당, 마당극과 전통 굿이 어울리는 기원마당, 술과 음식을 즐기는 주막거리, 이천 햅쌀을 판매하는 햅쌀장터 등의 각 마당들에 먹고 노는 분위기 연출과 다양한 콘텐츠들로 운영되고 있어 축제의 흥미를 배가시키고 있음. ○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차별적인 이천가을의 의미를 되새기고 추수와 풍년의 주제가 듬뿍 담긴 보다 내면적인 콘텐츠구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객들이 주인공이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폭발적인 킬러성 대표이벤트연출이 필요하며 행사중간에 경품행사도 삽입하여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흥미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음. ○ 주차공간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동선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공원 내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병목현상이 심하고 분산과 배치의 합리적인 관리체제가 필요 함. 축제행사장 입구의 복잡한 공간에 교통안내원이나 도우미가 부족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위주의 교통통제도 중요하지만 도로상의 관광객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에서 많은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은 외국들이 한국의 농경문화를 수월히 이해하고 흥미와 참여도가 높다는 점임. 이것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본 축제가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평가 됨.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농경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이천을 관광목적지로 찾을 수 있는 공격적인 대응전략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체계나 외국어안내가 다소 강화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선 성종 때부터 임금님께 진상했고 지금까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천쌀의 역사적인 의미를 재해석하여 ‘임금님표 이천쌀’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문화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천쌀의 우수성을 새로이 재조명하는 작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아직은 전체적으로 지역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소 부족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적인 프로그램제시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으로 지역내발적인 가치성을 높이는 방향성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쌀문화축제가 이천의 농경문화 위상제고와 함께 다양한 세분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대응이 높게 평가 됨. 특히 축제 전반적으로 농경문화의 추억과 향수를 담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경문화의 정체성을 축제 한마당을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주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은 축제임. ○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매우 즐거워하나 보다 많은 외국인관광객들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외국인 관광객유치 대응전략수립이 필요함. 따라서 축제가 끝난 지금부터 이천과 유사한 외국의 농경지역을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고, 축제장 내에 특산품을 상호 교환하는 수출입자유전시공간을 조성하고 그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축제에서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도는 높으나 관광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폭발적이고 대동제적인 성격의 한마당 놀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됨. 그리고 현재 축제가 개최되는 마당과 함께 위치하고 있는 ‘이천세계도자센터’의 활용이 다소 비효율적임. 세계도자기센터는 이천쌀문화와 함께 한국전통문화의 상징임으로 단순하게 노선 연결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당의 테마로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도자기와 농경문화와 연계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천도자기 관련 전통조형물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본 축제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시키는 것은 중요한 촉매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어서 이천쌀과 함께 이천시를 대표하는 도자기, 온천, 복숭아와 연계하여 이천농경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연계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1

여주 오곡나루축제

(1) 개요

■ 기간 : 2016년 10월 28일(금) - 10월 30일 (일) 3일간

■ 장소 : 여주 신륵사 관광지 일원

■ 주최 : 여주시

■ 주관 : 여주 오곡나루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나루터/동물농장 : 옛날나루터 정취재현 동물농장, 동물경주장
- 나루께 : 행복하고 여유로운 쉼터
- 나루마당 : 여는 마당극 등 주제공연
- 오곡장터 : 오곡백과 직거래 난전
- 오곡거리 : 여주문화/특산물 홍보
- 민속마당 : 서민 중심의 극과 연예
- 체험마당 : 여주의 전통문화 체험
- 잔치마당 : 달콤한 음식의 추억
- 고구마밭 : 마차타고 고구마 캐기

(2) 총 평

■ 잘된 점

- 여주 오곡나루축제는 농업인들이 풍년농사를 자축하며 시민 화합 도모와 관광객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농업관광형 축제라는 점에서 다소 차별성을 가짐
-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고 있으며, 여주의 쌀, 고구마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을 농업인들이 축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형식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수도권지역에 위치하면서도 고유한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농 교류형 축제라는

점과 농촌콘텐츠 중심의 특색있는 문화관광축제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음

- 각종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성장가능성을 높였으며, 지적사항 등에 따라, 축제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다만 명확한 킬러콘텐츠가 부재한 가운데, 축제주제인 오곡나루의 주제와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스토리텔링도 명확치 않아 프로그램의 종류는 많으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고, 복잡한 형태의 난장형 축제로서 정리가 안 된 인상을 주고 있음
- 또한, 거버넌스 구조가 명확치 않고, 여주시가 거의 모든 준비를 다하는 가운데, 추진위원회 역할이 다소 불분명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운영주체 및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제출된 여주오곡나루축제의 계획서는 주제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형식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며, 계획서에 따라서 축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거버넌스 구조가 명확치 않고,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다소 불분명하여, 기획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다소 의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시장님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기획요소가 잘 드러나 있지 않음 - 지역 문화원이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부분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축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문화재단 등 전문기관의 기획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여주의 대표농산물인 쌀, 고구마, 땅콩을 비롯한 여주 농·특산물을 총칭하여 오곡으로 부르고 있으며, 또한 축제장내 고구마 밭을 설치 운영하고, 고구마 캐기 체험을 시행함으로써 여주특산물인 고구마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오곡과 더불어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옛 조선시대 조포나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이함. 옛 나루터에서 볼 수 있는 전통주막과, 대장간, 씨름 등 나루터 전통문화를 재현하여 관광객의 호응을 얻음. ○ 전년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듯이, 남한강 조포나루터만이 가지고 있는 풍경과 정취를 살리기 위해 오곡장터와 나루장터를 초가집과 초가부스를 활용하여 옛 모습을 재현하여 나이 많은 관광객들에게는 옛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게 구성하여 좋은 호응을 얻음 ○ 농촌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난전의 경우 관광객들이 농산물 생산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6차산업화를 염두에 둔 농촌관광의 형태로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경우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오곡과 더불어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옛 조선시대 조포나루터를 이용한 콘텐츠의 강조는 나름 의미가 있으나, 오곡에 대한 주제와 세부 프로그램들간의 연관성, 스토리텔링이나 전반적인 축제의 컨셉에 대한 일관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이마저 나루라는 또 다른 주제와 잘 결합되어 시너지를 낸다기보다는 Zone 구성에 있어 2분되는 형식만 있을 뿐으로 전체적으로 축제기획의 컨셉이 모호하다는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종합선물세트적인 인상이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각 구역별 오곡 특징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달리하고, 동선에 있어서도 오곡의 씨뿌리기(기획)→가꾸기(개발)→수확하기(추수)→나루를 통해 나눠주기(유통) 등 다양한 기능과 특징에 따라 구역 및 프로그램의 특성을 나누고 일목요연하게 배치하였으면 좋겠음 - 전년도에 지적된 바와 같이 나루는 축제의 동선상 마지막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거나, 관람객을 유인하여 차별적인 수변콘텐츠의 완성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플랜 및 구상이 있어야 할 것임 ○ 해당 축제하면 떠오르는 킬러콘텐츠가 부재하다는 점도 하나의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은하수 낙화놀이 및 군고구마콘서트, 소원지 작성 등 개별적이며, 소소한 콘텐츠는 있으나,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약하다고 할 수 있음. 낙화놀이의 경우 타 지역과의 차별성도 고민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다보니, 3일간의 축제이지만, 사흘 모두 유사한 프로그램이 매일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재방문을 유도할만한 여지가 크지 않음 - 지역의 연관성이 큰 세종대왕의 브랜드를 어떻게 축제에 접목시킬 것인가도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산물의 직접 판매 뿐 아니라, 가공식품의 활용을 위한 요리 경연대회 등 주민의 참여와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동물농장 및 동물경주장 등의 경우 전문업체 위탁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축제의 전체적인 컨셉과 다소 상이하며, 자칫하면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프로그램 운영접근이 필요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루터의 재현을 위해 100% 초가부스로 나루터를 꾸미고 현대식 탁자대신 평상에서 나루터를 바라보며 음식을 먹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옛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됨 ○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축제를 기획, 운영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전과 가수공연 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체험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여주농촌관광협의회 등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노력한 점도 우수함 ○ 지적사항 등을 숙지하여 공간의 구성을 정리하고, 축제장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였으며, 전통초가부스의 운영 및 농산물 판매자 이력제 등도 보완하는 등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음 ○ 청년장사꾼 등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food truck을 배치하고, 홍보한 점도 돋보인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다양한 부스의 참가인원은 많으나, 주차관리, 콘텐츠운영, 전기관리 등 각 맡은 부분에만 충실하여,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문제발생시 문의 및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통합창구 및 콘트롤 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축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staff으로 참가하거나,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총괄적인 안내 및 유기적인 연계망이 있어야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임 (현재는 시의 소수인력이 축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음). ○ 축제장의 공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난장 형식의 축제장 구성으로 인해 축제장과 나루터 방문객들의 동선이 얹혀있으며, 무질서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축제의 특성상 이러한 점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힘들으나, 기본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별 기준 동선과 화살표 등의 충실한 안내가 더 보강된다면, 체계적으로 정리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임 - 운영관리와 통제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여, 잡상인 및 과도한 홍보부스, 소음을 유발하는 각설이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간혹 눈에 띄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주 오곡나루 축제는 기본적으로 맛과 품질에서 뛰어난 여주의 농·특산물을 농업인들이 직접 축제장에서 판매하고 홍보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6차산업형 차별적인 축제로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축제의 기획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지만, 오곡장터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부스 참여 등으로 주민들과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 및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 하지만, 축제 운영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축제의 기획 및 운영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관광축제의 성격보다는 농업축제의 성격이 짙으며, 타 축제와의 차별성은 있으나, 자칫 잘못될 경우 농산물 판매 및 유통축제로 굳어질 우려도 있음 ○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전과 전략방향, 스토리텔링을 명확히 하고, 추진주체와 운영재원의 장기적인 마련 등 자립형 축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장기적인 축제의 생명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센터와 문화관광과 등 유관부서의 유기적인 협력과 시너지 창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해당 축제하면 떠오르는 킬러콘텐츠와 브랜드의 개발 등 축제의 브랜드 파워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도 숙제라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대학과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킬러콘텐츠를 개발해나가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비전과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산물 중심형 축제로서, 지역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축제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발전적 목표를 추구하는 장으로 형성되었고,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음 ○ 축제의 소재가 농작물이라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낮익은 여주오곡나루축제는 단순축제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근 밭을 임차한 고구마캐기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도 성과라 할 수 있음 ○ 미흡한 점은 수도권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안 좋고, 교통사정 등으로 광역권 방문객이 찾아오기 어려운 구조로, 이에 대한 홍보 및 유인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량적인 방문객 숫자 이외에 정성적인 홍보 효과 극대화 등에도 노력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대상 팸투어 기획 등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대학의 외국 유학생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유치 등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음

12

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 9. 29 - 10. 3. (6일간)

■ 장 소 : 안성맞춤랜드, 안성시내일원

■ 주 최 : 안성시

■ 주 관 :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 전야제, 개막식 등
- 상설행사 : 안성바우덕이 남사당공연, 전통창작문화공연 등
- 특별행사 : 지역별전통전승연회, 전통연희창작공연 등
- 체험행사 : 어름살이체험, 버들아트체험 등
- 시민참여행사 : 세계인어울림한마당,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 부대행사 : 유조형물(전체)

(2) 총 평

■ 잘된 점

- 안성맞춤 바우덕이 남사당축제는 축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으며, 본 축제는 무엇보다 바우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존재와 그에 얽힌 수많은 스토리텔링에 근거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축제에 내재된 전통문화정신들을 잘 엮어 체계화시키고 관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특히 안성장터를 당시의 모습들을 제대로 재현하고 있으며 장터바닥의 전면에 잔디를 심어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음. 그리고 지난해에 지적 받은 사항들을 SNS 등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5가지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축제를 정비하는 등 다각적이면서도 질적 측면에서 지난해 보다 더욱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 금년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전반적으로 축제내용의 완성도가 높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가미되어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빅데이터 분석의 시도는 곧 새로운 관점에서의 스마트시대에 대비한 축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며, 온·오프라인 이 조화된 축제의 창조성을 시사하고 있음.

- 축제장 조성 시 동선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관람객들이 선택과 집중이 용이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바우덕이 6막 공연은 관광객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킬러콘텐츠로 부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평가됨.
- 본 축제에 흥미를 부여하는 주요 컨셉인 ‘남사당’이 전통시장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특히 축제의 주최자, 주관자, 자원봉사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축제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시골장터 전체에 잔디가 심어져 있어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과 축제가 어우러진 푸르름이 있는 축제로 신선한 느낌을 부여하며, 안전의 측면에서도 매뉴얼이 잘 정비되어 있고 화장실도 비교적 잘 관리되는 등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였음.
-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은 매우 능동적이고 활발히 잘 진행되고 있으며 관람객들이 쉽게 축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가 적절했으며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음. 실제로 각 장르별 행사에 남사당이라는 풍물패와 전통문화를 관광객스스로가 참여하고 어울리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으며, 소수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축제를 통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축제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도 엿볼 수 있었음.
- 본 축제에 내제된 기본적인 속성이 모든 한국의 지방이 갖고 있는 풍물 놀이패를 상당히 과학적으로 재해석하고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노력한 흔적이 매우 바람직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관객의 요구와 욕구에 더욱 부합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처음으로 참가한 몇 명의 외국인관광객들과 면담한 결과, 특별히 본 축제에 대한 설명이나 남사당문화의 가치를 해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축제 행사에 동화되고 신기성을 만끽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보아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가 향후 글로벌 축제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해설 및 이해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비록 소수의 외국인 찾아오는 국가의 경우도 그 국가들을 체크하여 그들의 국가 언어로 된 안내시스템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축제의 이동 동선공간에 바우덕이축제의 해석기능을 가미한다면, 타 축제에 비해 상당히 차별적인 이미지로 부각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본 축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단초가 될 것임.
- 또한 야간에도 주요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한국어와 외국어로 해석해 주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축제의 의미와 가치를 내외국인에게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바우덕이의 이미지가 다소 산만하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으로 바우덕이의 이미

지 확립을 위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하고 차별적인 이미지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축제전반에 걸쳐 바우덕이의 존재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음.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바우덕이가 문화콘텐츠로 구체화, 형상화 되어 역동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다가와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이 다소 부족했음. 따라서 바우덕이의 정체성을 찾는 다양한 작업들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향후 바우덕이가 살아 움직이는 전통향수문화축제로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풍물놀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과 신기성이 약함으로 축제의 주제가 다소 산만하고 관광객들에게 이미지혼선을 가져다주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축제에서 바우덕이를 찾고 남사당패와 어울려 한바탕축제를 벌인다는 측면에서 바우덕이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주제성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바우덕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며, 그 가치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축제를 찾아야만, 바우덕이를 만나고 남사당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상승될 수 있도록 바우덕이를 활용한 마케팅 풀(pull)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각 행사의 중분류도 바우덕이를 주제로 한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안성도시 전체가 바우덕이브랜드로 넘쳐나는 새로운 도시이미지의 통합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축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흥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바우덕이와 남사당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도우미와 정밀한 안내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행사를 집대성한 하나의 ‘문화예술 촌’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한국의 고유한 전통놀이패와 안성맞춤이라는 다소 풍자적인 주제와 어울려 관람객들이 한바탕 공연에 참여하여 저절로 신명 나는 흥미롭고 즐거운 프로그램들로 기획되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축제에 주목해야할 사안으로 전년도에 지적 받은 사항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SNS 등 빅데이터분석을 통하여 즉 ①주제성강화콘텐츠개발, ②남사당체험프로그램확충, ③편의성증대관람객맞춤운영, ④가족동반프로그램확충, ⑤야간제류형프로그램강화 등 5가지의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됨으로서 질적 수준을 높였다고 판단됨. ○ 또한 바우덕이 상설실내공연장의 유료화, 농특산물 판매장터 및 축산장터, 음식점, 체험부스 등의 유료화 등을 축제의 재정자립화를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 됨. ○ 본 축제가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바우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존재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바우덕이를 주제로 한 ‘8도 조선바우덕이선발대회’ 등 등의 참여형, 또는 콘텐츠트형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에 있어 축제장입구에서 1시간 이상 정체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해설 및 이해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비록 소수일 지라도 외국인 방문객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들 국가언어로 된 안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도입한다면 글로벌 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는 무엇보다 안성시가 바우덕이와 남사당 그리고 추억의 시골장터에 대한 역사성과 문화성을 축제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남사당 바우덕이 역할을 하는 인물과 이를 계승하는 실제 공연팀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축제 콘텐츠와 차별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안성맞춤도시 안성이 바우덕이의 존재가 희미하다면, 축제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축제전반에 바우덕이의 향수가 묻어있고 스토리가 베어 나오고 있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축제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됨. ○ 금년 축제는 ‘신명에 취하고 남사당에 물들다’라는 주제에 부합되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람객 몰입도와 참여가 높았으며, 특히 관광객 유인력이 높은 중요 콘텐츠는 남사당 바우덕이의 줄타기 공연이며 이것이 전통시장과 조화를 이루고 상설공연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축제주제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음. - 바우덕이가 인어공주처럼 바우덕이 캐릭터개발, 바우덕이에니메이션, 바우덕이영화제작 등 바우덕이의 정체성과 이미지확립을 위한 작업들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번 축제의 특성이 바우덕이의 주제로 한 콘텐츠에다가 부가적인 중요콘텐츠들이 잘 연계되어 축제전체를 과거의 안성으로 돌리는 데에 성공을 거두고 있어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 지역주민 및 축제관계자들이 한꺼번에 집중할 수 있는 폭발적인 이벤트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음. 예를 들어, 축제피크날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각 장르별로 수많은 바우덕이를 동시에 출연시킨다든가 축제에 선발된 바우덕이와 관객들이 어울려져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는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할 수도 있음. 따라서 축제 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좋은 모델을 개발한다면, 폭발적인 안성바우덕이 킬러콘텐츠 프로그램이 재탄생이 기대 됨. ○ 특히 본 축제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은 거리퍼레이드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함께 동참하는 모습들이 매우 흥미로웠으며, 각 공연행사의 장르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각 특성콘텐츠별로 차별화 되어 있고 주제별로 잘 구분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쉽게 이동하고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성 있는 축제로 평가됨.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우리의 정체성이 제대로 묻어나면서도 마당과 주변의 자연적인 공간이 제대로 어울려져 관광객들이 쉽게 분위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연출이 돋보였음. 특히 해외민속공연단을 초청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행사가 매우 신선한 느낌을 주었음 -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들도 우리의 바우덕이와 같은 상징인물들이 있을 것임으로 같은 공통적인 바우덕이 요소를 매개로 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국제적인 바우덕이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은 매우 능동적이고 활발히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체계의 구체화, 축제공간의 청결성유지 등 관광객들이 수월히 축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제공과 공간배치가 적절히 되었음. ○ 실제로 각 장르별 행사에 남사당이라는 풍물패와 전통문화를 관광객스스로가 참여하고 어울리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며, 많지는 않지만 참여한 외국인들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많이 가져 축제의 국제화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평가됨 - 단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도우미와 정밀한 안내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야간에도 주요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한국어와 외국어로 해석해 주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축제의 의미와 가치를 국내외국인에게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축제운영에 있어서 주제에 맞게 외형적인 체계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내면적인 측면에서 콘텐츠의 가치를 발현시키는 해석기능과 표현기능을 좀 더 보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축제도 길놀이 퍼레이드와 남사당공연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나, 주제성강화프로그램과 야간제류형강화프로그램의 내면적인 가치를 높혀 관광객들의 지지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또한 관광객들이 주인공이 되어 실제참여하게 하여 한마당에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출함으로써 바우덕이 축제의 재방문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소 내용이나 주제가 중복되고 너무 많은 아이টে을 운영하다보니 다소 산만하고 집중도가 흐려지는 행사들도 눈에 띄어, 축제전체를 운영하고 통제하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안내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조금 더 많이 배치하여 안내서비스를 보완하였으면 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시는 시자체내에서 친환경부문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를 축제와 연계시켜 청정농산, 축산지역으로 특화하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축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명확한 주제선정에 따른 차별적인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보다는 축제의 미래가 기대되는 행사들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이 많은 호응을 받고있어 축제의 국제화발전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됨. 따라서 바우덕이를 마중물로 하여 세계인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시스템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 바우덕이의 정체성에 대한 재해석과 이미지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이번축제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연동되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바우덕이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한국속에서 세계인의 숨결을 찾을수 있으며 본 축제가 능히 그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축제의 모든 순기능들이 안성의 지역발전과 직결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돋보여 향후 더욱 발전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평가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실제로 주지하다시피 축제의 제목이 남사당과 바우덕이, 전통시장 등의 아이টে이 축제전반을 비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분위기 연출과 행사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축제의 흐름이 남사당이라는 조직체계와 바우덕이라는 주인공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보편적인 농산물이나 단순한 테마로 하는 타 축제와 달리 역동적이며 행사장 전반에 걸쳐 흐르는 흥겨운 남사당 콘텐츠와 바우덕이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축제전반에 걸쳐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지역특산물과 음식점 등 다양한 장터분위기에 남사당 바우덕이 연출이 혼합되어 관람객들의 소비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31억 2천1백만원이라는 직접수입을 올렸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수입원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기여한 성과로 평가됨. ○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 축제에 내제된 기본적인 속성이 모든 한국의 지방이 갖고 있는 풀물 놀이패를 상당히 과학적으로 재해석하고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노력한 흔적이 보임으로서,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관객의 요구와 욕구에 더욱 부합하는 발전축제가 될 것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처음으로 참가한 몇 명의 외국인관광객들이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바우덕이 축제가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축제로의 발전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는 바우덕이의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축제의 제목이 다소 산만하고 관광객들에게 이미지혼선을 가져다주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2017 안성맞춤 바우덕이 축제” (안), “2017 안성바우덕이 축제” (안)와 같이 바우덕이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남사당을 생략하여, 제목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행사의 중분류도 바우덕이를 주제로 한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안성도시 전체가 바우덕이 브랜드로 넘쳐나는 새로운 도시이미지의 통합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시할 필요가 있음.

13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 1. 9(토) ~ 1. 31(일) / 23일간

■ 장 소 : 화천군 화천읍 및 3개면 일원

■ 주 최 : 화천군

■ 주 관 : 재단법인 나라

■ 주요행사

- 산천어 체험
 - 현장/예약/영유아/외국인 전용 얼음낚시, 루어낚시, 맨손잡기, 산천어 밤낚시 등
- 눈/얼음 체험
 - 눈썰매, 봅슬레이, 얼곰이성, 세계얼음썰매 체험존, 겨울스포츠존, 하늘가르기, 놀이기구 편파크 등
- 문화/이벤트
 - 창작썰매콘테스트, 겨울문화촌, 천사의 날, 호돌이와 포돌이의 날, 천체투영실, 세계겨울축제 국제심포지엄, 산이와 진이가 만나는 날 등
- 사랑방마실
 - 바로과로 겨울축제, 사방거리 동동축제, 동심산촌랜드
- 시가지/연계행사
 - 선등거리 점등식 및 이벤트, 세계최대 실내얼음 조각광장, 산천어공방, 산천어커피박물관, 산천어시네마, 화천조경철천문대 등
- 먹거리/살거리
 - 공식먹거리터, 산천어식당, 향토주전부리장, 산천어구이터, 산천어회센터, 농특산물판매장, 매점, 낚시점, 대한민국 산천어작가 기념품판매점 등

(2) 총 평

■ 잘된 점

- 국내 최대 겨울축제로 성장하여 3년 연속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의 기획과 도입 등으로 성공적 축제 개최와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었음
- 가족단위, 친구 및 연인, 단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 놀거리가 빈약한 상황의 우리나라 겨울시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와 함께 서민적인 아이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겨울 레저 스포츠 대중 문화로 정착하도록 하였음
- 시내에 선등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새롭게 연인들의 하트거리를 조성하는 등 축제 방문객의 시내 유도와 야간 체류를 늘리기 위한 야간 볼거리 조성을 보다 확대하였음
-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천에서 숙박하면 야간 산천어 낚시를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축제 발전을 위한 화천군의 고민과 노력을 볼 수 있었음
- CNN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겨울축제로 선정 효과 및 각종 외국 언론에 화천산천어축제 노출, 여행사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모집 등에 의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축제가 되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화천군은 축제의 지속가능발전과 갈수록 심각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더해지는 축제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얼음연구소에 대해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어 보임
- 축제 방문객이 150만명 이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비해 화천이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 및 먹거리 등의 관광객 수용 여건이 미흡하여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의 지역 체류 확대를 모색하고 부족한 숙박시설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겨울 캠핑장 운영, 민박의 확충 등 숙박 형태와 운영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함
- 산천어를 이용한 먹거리는 주로 산천어 회와 구이 등이며 다양한 산천어 먹거리와 메뉴 개발이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야 하며, 중장기 계획으로 시내 먹거리 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겨울축제가 늘어나 전국 각지에서 유사 축제가 난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산천어축제의 경쟁력과 차별화, 명품화를 위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는 양적 성장 발전과 더불어 질적 감성 축제로서의 발전을 거듭하여야 하며, 축제장 곳곳에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적 공간의 조성과 편의시설의 디테일을 위한 노력이 점차 요구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축제의 새로움과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음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야간채류 확대를 위하여 지역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에게 야간 산천어 낚시를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 운영함 ○ 젊은 연인들의 채류와 시내로의 유도를 확대하기 위해 연인들의 하트 선등 거리 조성하고 기존 선등거리를 업그레이드 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천어와 얼음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프로그램 구성을 더욱 강화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음 ○ 축제 테마와 관련 산천어 얼음낚시, 산천어 맨손잡기 등, 산천어 및 얼음 중심의 겨울 놀이문화 콘텐츠로 집중 구성하였음 ○ 축제 방문객의 지역분산 및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간동면, 상면, 사내면에서 동시에 연계 축제를 개최하였음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작가들을 연계하여 산천어 테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축제 기간 동안 산천어 작가 작품전을 개최하였음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부대의 협력을 잘 이끌어 내어 군장병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음 ○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푸드트럭 7대를 지역단체에서 맡아 운영하도록 하였음 ○ 축제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터에 안전 로프를 설치하였으며, 축제장 전 구간에 구명환 400개를 비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 ○ 연인들을 위한 하트거리에 개인 신청문구를 접수 받아 LED로 표현 해주는 이벤트를 해준다면 더 좋은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각 구간을 운영하는 서틀의 방식을 기존 버스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 택시로 운영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도입한 야간 낚시터 운영에 있어서 분위기 연출을 위한 음악이 필요하며, 운영 시간의 연장도 필요해 보임 ○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추천하는 시내 음식점의 선별과정과 서비스 교육, 그리고 특성을 담은 로드맵 책자 제작과 보급이 필요함 ○ 축제장 내에 있는 산천어 회 뜨는 곳 등 식당 운영에 있어서 청결 유지 및 위생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를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나라를 설립하여 화천군의 대표축제인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를 운영하고 있었음 ○ 화천산천어축제를 처음에 만들어 시작한 지자체 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축제에 대한 애착과 발전을 위한 의지는 변함이 없었음 ○ 지역민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축제를 통한 지역민들의 수혜 폭이 매우 크고 넓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민박 참여 및 자원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은 필요함 ○ 축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협찬 기업체를 늘리고 협찬 금액 및 협찬 정도를 높여나가고 있음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연속 100만명 이상 방문하는 축제로서 금년에도 150만명 이상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외지 관광객이 약9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관광객은 약 7만 4천명으로 지역인구의 3배가 방문한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숙박시설이 부족하며,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다양한 먹거리 및 기념품 수준이 아직은 미흡함

14

평창 효석문화제

(1) 개요

- 기간 : 2016. 9. 2 ~ 9. 11 / 10일간
- 장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주최 : (사)이효석문학선양회
- 주관 : (사)이효석문학선양회
- 주요행사
 - 체험프로그램 : 음악교실, 소설 속 인물체험, 한 줄로 쓰는 시 마당, 스탬프 랠리, 추억 여행 등
 - 문학마당 1 : 영화상영, 문학특강 등
 - 문학마당 2 : 관광사진전, 창작사진전, 퓨전 마당극 등
 - 자연/전통마당 1 : 메밀꽃 포토존, 독서쉼터 등
 - 자연/전통마당 2 : 빛 분수, 거리상황극, 버스킹 공연 등

(2) 총 평

- 잘된 점
 - 서정성 높은 문학작품을 통해 소금을 뿌려놓은 듯 흐드러지게 핀 하얀 메밀꽃은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내며 국내 최고의 감성축제로 자리 매김.
 - 2018년 겨울올림픽을 겨냥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겨울올림픽은 국가적인 행사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축제 등급 상향 조정은 정무적 판단을 요함
 - 격년으로 학계에 축제 평가보고서를 의뢰해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 넓은 숲을 이용해 메밀꽃 필 무렵의 주요 장면들을 재현한 ‘이효석 문학의 숲’은 관람객들의 명상 트래킹 장소로 최적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이효석 문학의 숲’ 이용을 위한 안내 시스템 부족으로 축제 방문객의 이용률 저조. 적극적인 방안 수립 필요
- 인적 드물고 울창한 숲이지만 코스 곳곳에 자연 친화적인 콘텐츠나 탐방객 편의 시설 등은 미흡한 상황
- ‘~ 산허리는 오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는 이효석 소설의 서정성 뛰어난 장면 중 하나. 이러한 풍광을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만족도 올라갈 듯
- 축제 개최의 적당한 시기는 추석 이후. 여행을 떠나거나 고향에서 차례만 지내고 귀경 길에 오르는 것이 요즈음 추세. 추석연휴 축제 개최를 통해 탐방객 유입과 추석연휴 귀경길 교통 체증 분산효과도 기대
- 남안교 아래 설치한 쉼다리는 폭이 좁아 보행 상 어려움 있고 메인 축제장 주변의 전반적인 동선 혼잡해 이에 대한 방안 필요
-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공간인 무이예술촌 활용 저조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자연, 인간이 어우러진 서정성 높은 감성 축제로 매밀꽃은 방문객 만족도 제고에 큰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 속 달밤 장면을 관람객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전후로의 과감한 개최시기 조정도 고려해 볼 만 ○ 문학의 감동과 자연의 향기, 그리고 전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 필요 ○ 타 축제와 달리 홍보 기법을 PC와 모바일로 이원화 시켜 방문객들의 편의성 강화 ○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화합형 축제로 자리매김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밀꽃 공간을 스토리 공간으로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토존에 이야기를 붙이고 입구부터 출구까지 스토리로 연출 해 방문객에게 흥미 유발 ○ 축제의 특성상 메밀밭이 중심. 향기 동원한 메밀밭 조성으로 오감만족 프로그램 개발도 좋을 듯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밀밭을 밝은 조명보다 은은한 조명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살리며 가족 단위 탐방객이 즐길 수 있는 소원 풍등날리기 등을 매일 밤 개최 ○ 아름다운 메밀꽃의 상징성 보여 주고 있지만 손에 잡히는 컨셉 부족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군 지원은 최소화하고 민간단체인 (사)효석문화선양회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극대화 ○ 주변 50여 개 펜션이 축제기간 중 50% 할인행사에 동참하는 등 지역 상권의 참여도 높음 ○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간의 단결력 강화에 일조 ○ 축제 매뉴얼뿐 아니라, 지난 2014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통해 지원 체계, 홍보마케팅 계획, 평가 및 성과분석 용역 등 축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리 운영체계 구축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의 열의와 참여가 매우 높으며,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축제 발전의지 강해 ○ 내년까지 100억 원 예산을 들여 소설 속 배경을 모티브로 한 효석문화예술촌을 생가마을 인근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 가능성 보임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년여성과 연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 증가 ○ 축제장 옆에 전통 상설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토산품 판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몫 ○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와 맞물린 적극적인 홍보로 방문객의 재방문 유도

15

춘천 국제마임축제

(1) 개요

- 기간 : 2016년 5월 26일(목) ~ 5월 29일(일) 4일간
- 장소 : KT&G상상마당 춘천, 중앙로, 수변공원
- 주최 : (사)춘천마임축제, 한국마임협의회, KBS춘천방송총국, 춘천MBC
- 주관 : 춘천마임축제 운영위원회
- 주요행사
 - 봄의도시 : 개막공연 - 아반티, 좋지아니한가!, Pulse;맥, 변신, 유희노리
 - 불의도시 : 도깨비난장 - 거리광대극<황금거지>, 제천공무, 숲 2016 등
 - 물의도시 : 아! 수라장 - 다미르쇼, 프로젝트 모아, 무 떼아뜨로 등
 - 기획프로그램 : 춘천마임축제 ‘깨비’, 몸짓그룹 몸꾼, 시민 몸짓그룹 깨꾼, 어서와, 후추들아! 후추들의 세계
 - 부대행사 : 아! 휘카페, 컬러링로드, 비치로드, 사일런트 무비, 마임페스티벌[폴리마켓]

(2) 총 평

■ 잘된 점

- 28회째 이어진 2016춘천마임축제는 ‘마임’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의 반열에 올려놓은 점과 대한민국의 축제의 다양성에 기여한 점은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축제기간 동안 봄의도시, 불의도시, 물의도시 등의 주제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그 주제에 따라 축제장소도 달리함으로 축제가 생동감 있게 변화·진행되었고, 다양한 참여객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축제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여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춘천마임축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축제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 야간을 중심으로 한 축제, 특정세대(청춘)를 위한 축제, 버려진 공간을 축제장으로 활용 등 안정적인 축제 운영이 아니라 타 축제와 차별화 되고, 새로운 시도 등을 통해 세계3대 마임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인정할 만하다.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순수민간단체 주도로 축제가 진행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산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외견상 축제가 축소된 느낌을 준다. 2015년의 경우 10개국의 13개 해외 단체와 국내 500여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였는데 2016년의 경우는 해외 7개국 10개 단체와 국내 5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였다. 축제 참여객도 2015년은 13만 6천여 명이었는데 2016년의 경우는 6만여 명으로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다. 민간주도로 축제가 원활히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 ‘청춘’의 축제를 표방하고 참여하는 이들을 젊은이들로 대거 함류시켜 젊은이들이 억압되고 결핍되었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일탈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운영진이나 자원봉사자들은 맡은 일들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자원봉사자들 끼리 어울리는 행위, 자리이탈, 불분명한 안내 등은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춘천마임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춘천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 장소에서만 마임공연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학가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곳에서 마임을 공연함으로 춘천 전 지역이 마임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민들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이나 도시 중심가에 대형화면을 설치하여 축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실시간 중계함으로 춘천지역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간 동안 봄의도시, 물의도시, 불의도시 각 테마를 선정하고 각 주제에 따라 축제참여 대상이나 연령 등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 축제 방문객들의 축제 참여를 용이하게 함과 더불어 방문객 특성에 맞는 날짜나 주제에 방문함으로 축제에 더욱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축제를 준비하는 운영요원, 참여하는 예술가, 자원봉사자, 그리고 방문객 모두를 ‘깨비’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모두가 축제의 주인으로 인식시킴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한 점은 훌륭하였다.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마임이라는 소재가 소리보다는 몸짓의 공연인 점을 고려하여 귀가 들리지 않는 농아학생들을 초대하여 축제에 참여하게 한 점은 우수한 사례로 타 축제에서 활용되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축제홍보 방안을 보면 대체로 타 축제들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SNS, 언론 및 방송, 지역 단체, 외국인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보 전략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청춘을 위한 축제라면 전국 대학생들 타깃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던지, 아니면 춘천과 가까운 수도권, 인접지인 경상권 등 지역을 타깃으로 홍보를 하던지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임은 전문성과 예술성을 가진 공연이면서도 공연구성이나 내용상 코믹을 가미하여 관람객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다소 어렵지만 주제가 있고 깊이가 있는 예술적 공연 등을 잘 편성하여 관람객들의 수준이나 특성에 맞는 관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물의도시 이수라장 행사에 물싸움만의 단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물싸움과 동시에 버블쇼나 저글링 등의 공연을 함께 진행함으로 행사의 재미를 더하였고, 비치로드, 컬러링로드 등 물싸움 이외의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 춘천마임축제의 경우는 야간축제로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 참여자들의 피로나 졸음을 해소하기 위해 텐트촌을 준비하여 축제참여와 휴식을 번갈아 가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단 텐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춘천마임축제에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판매되는 기념품이 야간에 조명이나 불빛을 나타내는 작은 랜턴이나 전등 같은 조명기구였다. 물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지만 축제의 기념품이라 하기에는 조잡한 장난감 같은 생각이 들었다. 춘천마임축제만의 기념품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활용이 돋보이는 축제이다. 먼저 지역에서 방치된 공간인 수변공원을 축제장으로 활용함으로 사람들이 찾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켰으며, 협소한 축제장 내에 내림무대, 평지무대, 콜로세움을 구성하여 특색 있게 축제장을 꾸임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공연되고 축제 방문객들은 기호에 맞는 공연을 찾아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요원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주차장의 경우 수변공원 맞은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도로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방문객의 통행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각 부스에 배치되어 있는 운영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재배치를 통하여 주차요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플리마켓의 경우 일반인들의 순수 창작품과 수제간식, 다양한 장식품 등을 판매하였는데 부스를 배치 받은 팀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했다. 부스를 비워두거나 아예 판매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시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판매되는 물품도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았다. ○ 수변공원 축제장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음식물 또는 음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테이블 위마다 음식물 흔적과 빈 맥주캔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데 어느 누가 정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전에 테이블 이용 규칙을 만들어 공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정리를 하든지 등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 축제장 방문인원에 비해 화장실이 부족했다. 특히 음주를 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인원을 고려한 편의시설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흡연구역 설치의 필수사항이다. 음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것이 흡연이다. 축제장을 이동하며 흡연하는 참여객들이 발견되었는데 비흡연자들이 축제참여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지역의 문화유산, 특산물 등의 소재를 가지고 축제가 진행되는 반면 춘천마임축제는 ‘마임’을 소재로 운영됨으로 전문적이고 예술적 특징을 가짐으로 수많은 다른 축제들과 확실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축제이다. ○ 많은 축제들에 운영과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이들이 장·노년층이 대다수인데 반해 춘천마임축제는 운영과 자원봉사자가 젊은 세대로 일찍부터 축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통하여 향후 이들이 축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 축제 발전과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마련되었다. ○ 춘천마임축제는 마임공연의 중심축제이기는 하지만 좀 더 춘천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춘천지역의 관광지와 연계방안이나 지역 특산물 활용 등 축제를 통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춘천지역민들이 모두 지원하고 격려하는 축제가 될 때 춘천의 대표 축제가 될 것이다.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몇몇의 전문가 중심으로 이들의 계획과 지시를 통한 축제운영이 아니라, 사전 축제참여자들 모두가 토론하고 협의하여 축제를 만들었다. 특히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험하고 설치하는 등의 축제장을 직접 만들어 가며 문화를 나누고 접하는 시도를 통하여 춘천을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하였다. ○ 춘천마임축제는 지역이 함께하는 축제로 성장하였다. 28회째 이어져 온 축제는 춘천지역의 유관단체들이 후원, 협찬, 지원, 협력 등의 명목으로 참여하였고 시민들은 후원숍의 일환으로 후원금 및 가게 내 포스터나 배너 설치, 전단 배포 등으로 축제에 기여하였다. ○ 춘천마임축제는 2015년 10개국의 13개 해외 단체와 국내 500여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한 것에 반해 2016년에는 해외 7개국 10개 단체와 국내 5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여 하는 등 세계3대 마임축제를 추구하지만 외견상 축소된 느낌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6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1) 개요

- 기간 : 2016. 9. 6(화) ~ 9. 11(일) / 6일간
- 장소 : 따뚜공연장, 젊음의 광장, 원일로, 중앙시장, 혁신도시 우산동, 태장동 일대
- 주최 : 원주시, 육군 제36사단
- 주관 : (재)원주문화재단
- 후원 : 강원도,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강원랜드
- 주요행사
 - 대표 프로그램
 - 댄싱카니발과 프린지 페스티벌로 구성
 - 댄싱카니발은 러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3개국 42개 팀과 원주시 읍·면·동 16개 팀, 전국 37개 팀, 육군 제36사단 등 23개 팀, 기타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청소년·학생 동아리 36개 팀 등 총140여개 팀(참가자 11,000명)의 300여회 댄스 경연으로 구성
 - 프린지 페스티벌은 댄싱카니발 경연에 참가한 해외 및 다수의 원주시 문화예술단체 팀의 사전 공연과 마임, 버스팅, 뮤지컬, 농악대축전, 그림자극, 재즈, 전자현악, 발리댄스 등 공연으로 구성
 - 부대 프로그램
 - 한국 전통의 날(관현악 및 한국무용 공연), 군인의 날(군악 및 퍼포먼스), 클래식의 날(강원 지역의 오케스트라 단위들의 클래식 공연), 어린이 안전뮤지컬(안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기타 체험 프로그램(군문화 체험, 몸치탈출 DDR 등) 등으로 구성

(2) 총 평

■ 잘된 점

- 대표 및 부대 프로그램이 모두 댄스 또는 음악 공연과 관련되어 축제의 주제와 소재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의도하였음. 특히, 전년 대비 행사장소의 확대, 프린지 공연의 특화, 해외 참가팀 확대 및 로고송 제작 등을 개선하였음.
- 주무대 및 보조무대가 공간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을 배려하였음. 첫째, 댄스 경연이 이루어지는 주무대 따뚜공연장은 원형경기장과 유사한 형태로 공연장 한가운데 특설무대를 설치함으로써 시야확보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자리다툼이 없이 언제라도 입출입이 자유로울 정도로 좌석에 여유가 있고 따라서 비교적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음. 둘째, 프린지 페스티벌이 공연되는 구도심의 태장동, 우산동, 중앙시장의 보조무대 또한 공간이 여유롭고 간단한 음료를 즐기면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셋째, 보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젊음의 광장을 비롯하여 프린지 페스티벌이 공연되는 구도심의 모든 공연장에 더위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대형 차양막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 세련된 축제운영으로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음. 첫째, 공연장 어디서나 대형 축제홍보 및 프로그램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둘째, 한손으로 펼쳐보기 쉽게 제작한 휴대용 가이드북은 참가팀과 공연 내용을 사진과 그림으로 자세하고 재미있게 구성하였음. 셋째, 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장, 축하차 방문한 전국 문화재단 관계자 등의 축사를 과감히 없애는 대신 이를 이벤트(패션쇼의 위킹)로 연출하여 반전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음. 넷째, 처음으로 제작된 축제송(festival song)은 축제장 어느 곳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었음.
- 기타, 군인, 주부, 학생(초·중·고교·대학), 동호인, 경로당 등 남녀노소의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에서 팀을 구성함으로써 축제 참여도 및 관객호응도가 높았음. 부스를 배치할 때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외부의 이권은 철저히 배제한 점,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과 질 좋은 농산물을 선별 판매하였다는 점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일부의 공연팀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즐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함. 그러나 댄싱카니발은 국내외 140여개 팀의 11,000명 경연자 모두 축제의 주체이자 관람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 우산동 주변에는 원주 이전 공공기관(건강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다수 있음. 특히, 혁신도시임을 고려하여 공연을 점심시간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축제 참여가 미흡하였음. 주변의 주민과 상인들의 관심도 비교적 낮았음. 이러한 문제는 축제의 주관기관인 원주문화재단과 원주시 및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못한다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축제가 성장하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참가팀의 수적 확대가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덴싱카니발 경연팀이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도 공연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음. 하지만 태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경연팀은 혁신도시, 태장동, 원일로 등의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공연함으로써 공연자들의 열의도 저하될 수 있고 세 곳 모두를 관람한 방문객들도 다소 식상할 수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목적에 따른 콘텐츠의 내용과 축제 운영의 방향이 일치하며, 축제 주관기관의 노력과 의지를 통하여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축제 개최의 목적으로 제시한 지역공동체 형성, 원도심 발전, 축제 참여국 간의 문화교류 등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내 남녀노소 및 직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팀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일자별 공연 장르를 달리하는 등 프로그램이 상당히 체계적임. 축제는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서도 개최됨으로써 구도심의 활성화를 의도하였고, 여러 외국인 팀이 참여함으로써 국가간 문화교류 혹은 문화전파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축제는 이벤트 분야에서 명성이 알려진 감독이 총괄하고 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부서장과 시의 산하기관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축제의 발전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p>○ 대표 프로그램(댄싱카니발과 프린지 페스티벌)의 높은 완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댄싱카니발 프로그램은 개막식부터 5일간의 경연을 통하여 폐막식의 결승전에 진출할 최종팀을 선발하는 형식으로 야간에 진행됨. 프린지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댄싱카니발에 참여하는 국내외 일부 참가팀이 원주 산구도심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형식으로 주간에 진행됨. 특히, 댄싱카니발 프로그램은 상당히 체계적이며, 평일임에도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따뚜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을 열광시킬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p>○ 축제 소재 및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매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프로그램이 오직 춤만을 소재로 기획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별성을 가지며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팀을 경연케 하였다는 점에서 매력을 가짐. 특히, 처음으로 제작된 로고송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 남녀노소, 군인과 학생, 지역내 다양한 장르의 댄스 동아리팀 등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경연이 식상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경연 팀의 일원으로 참가한 군인들을 메인무대 양쪽에 배치하여 응원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이 자체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축제 콘텐츠가 되었다는 점 등이 축제의 매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됨. - 기타, 군부대 참가팀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집객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도 축제의 매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만,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순수한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향후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p>○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참가팀을 대상으로 원주권 문화관광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축제행사장 내 지역의 대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아울러 홍보관을 설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도내의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려는 노력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이 부분은 축제 주관기관으로써 원주문화재단이 아니라 원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추천함.
3) 축제의 운영	<p>○ 축제 기획 전문성 및 행사장 운영 효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140여 개 댄싱팀의 섭외 및 경연, 관람객의 편의성과 몰입도를 고려한 무대설치, 축제 로고송 및 음악 등은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댄싱카니발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이벤트 감독 출신의 축제전문가가 직접 기획하고 총괄함으로써 매력성을 배가할 수 있었다고 사료됨. 특히, 축제 감독이 1천 여 명이 참여한 플레시몹과 댄싱 프레임드 등을 직접 지도하고 감독함으로써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운영의 효율성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관람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대형 프로그램 안내판을 설치하였다는 점,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손으로 팀별 공연내용을 펼쳐 볼 수 있도록 휴대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는 점, 자치단체장 및 주요 인사가 참가한 위킹쇼를 연출함으로써 인사말을 대신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둘째, 공연 축제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람객이 집중할 수 있는 무대배치와 음향장치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메인무대인 따뚜공연장을 비롯하여 프린지 페스티벌이 공연되는 젊음의 광장 등 보조무대 모두 관람객의 몰입도를 고려하여 무대와 양질의 음향장치를 설치하였음. 특히,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대형 차양막을 설치하였으며 테이블을 배치하여 음료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 등을 효율적인 축제운영의 일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행사장 환경, 편의시설 및 안전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축제장의 접근성과 환경, 편의시설 및 안전 시스템 등이 만족스러움. 댄싱카니발의 경우 야간에 개최되며 수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원활하였음. 댄싱 프레이드가 진행되는 도심지라 할지라도 공연 10분 전에 차량을 통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주민들 또한 교통통제에 순응할 정도로 협조가 잘 이루어졌음. 다만, 야간 화장실의 청결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주민 참여 및 협조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시의 각 읍면·동에서 16개 팀과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청소년·학생 동아리에서 36개 팀이 참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았으며, 가족과 친구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객들이 관람하였음. 그러나 혁신도시의 프린지 페스티벌의 경우 직장인들을 배려하여 점심시간에 공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가 낮았으며 아울러 주변 상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도 낮았음.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의 육성 의지와 재정자립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담당 부서장이 축제장을 순회하면서 공연 진행 상황과 관람객들의 반응을 체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음. 기타, 전년에 비하여 행사장소의 확대, 프린지 공연 특화(장소 및 참여팀 확대), 해외 참가팀 증가 및 로고송 제작 등이 개선되었음. 이러한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자치단체장의 관심은 축제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할 수 있음. 아울러 축제의 상업화를 지양하려는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기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p>○ 관광객 유발 효과 및 만족도</p> <p>- 문화재단 측은 평일임에도 개막식에 5만의 관람객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할 정도로 넓은 공연장을 가득 메울 정도의 방문객들이 참여하였음. 그 다음날의 공연에서도 개막식 못지않게 따뚜공연장의 좌석을 거의 채울 정도임. 이 가운데는 군부대 경연팀으로 참가한 장병들을 면회온 가족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관광객 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야외 공연에 유리한 기후 조건뿐만 아니라 참가팀의 춤과 음악의 완성도가 높아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다고 판단됨.</p>

17

괴산 고추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년 9월 1일 ~ 9월 4일(4일간)

■ 장 소 : 괴산군청 앞 광장

■ 주 최 : 괴산축제위원회

■ 주 관 : 괴산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고추별별마당 : 세계고추 전시회, 괴산고추품평회, 전국고추요리경연대회, 프리미엄 고추관, 고추속체험 등
- : 고추판매장터, 고추세척기 / 건조기 시연, 고추방아앗간, 농특산물판매장 등
- 고추놀이마당 : 전야제, 개막식, 황금고추를 찾아라, 퍼레이드 및 플래시몹, 폐막식, 고추감작 경매이벤트, 고추열전, 고추새참, 임꺽정 주막운영 등
- 물장구마당 : 괴산고추축제배, 전국물장구대항전, 고추달린 물고기를 잡아라, 고추물총대전, 워터슬라이드 등
- 고추잡자리마당 : 캠핑체험
- 괴산어울림마당 : 통증잡는 한방패치, 고추음료와 얼음발 쉼터, 천연밀랍초, 페이스페인팅, 대장간체험, 궁중한복, 추억의 교복체험 등
- 괴산문화마당 : 군민종합작품전시회, 느티울영상회, 사진전시회, 수석전시회 등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의 개최공간이 전년도에 비해 훨씬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주요 행사가 진행된 점은 긍정적 측면이 있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전국고추요리경연대회, 고추속체험 등 고추를 활용한 음식컨텐츠는 고추축제의 취지와 잘 부합하고 방문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됨
- 세계의 고추와 괴산고추 품평회, 고추요리경연대회 등의 볼거리, 고추장을 만들어보는 체험거리, 고추새참 등 고추를 활용한 매운 음식체험, 고추물총대전과 같은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거리로 구성되어 있어 고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지난해에 이어 캠핑족을 대상으로 한 캠핑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해 축제와 지역관광과 캠핑을 연계한 것을 매우 바람직해 보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수변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사장과 메인 축제장소 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관람객들이 축제 전역을 관람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방문객의 입장에서 동선관리를 통한 행사장 배치계획이 재고려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제장의 공간분포가 확대된 여건에 맞춰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좀 더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고추축제의 메인프로그램은 ‘황금고추를 찾아라’는 축제의 대표 콘텐츠로서의 적절성과 잠재력이 높아 보이지 않음. 축제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참여 자체만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킬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괴산의 주요한 자원인 임각정과 고추를 연계한 관광콘텐츠화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괴산의 고추를 활용한 차별화된 고추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괴산고추의 인지도 제고에 도움일 될 것임. 이를 위해 전국요리경연대회를 활용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선정할 수 있을 것임. 축제기념품 개발에 있어서는 이번 축제에서 판매된 가격이 높고 쉽게 구매하기 힘든 상품보다는 쉽게 사용하고 디자인이 흥미로운 대중적인 기념품 기획이 요구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프로그램은 ‘황금고추를 찾아라’는 운영상의 문제로 마른고추를 사용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이 축제의 킬러콘텐츠로서의 적절성과 잠재력은 의문임. 이 프로그램은 체험자체의 즐거움이나 감동이 아닌 보물찾기와 같은 물질적 보상을 토대로 하고 있어 이를 대표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축제의 본질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참여 자체만으로도 참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킬러콘텐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주요 마당인 고추 전시, 전국고추요리경연대회, 고추속체험 등 볼거리와 체험거리 위주의 고추별별마당에서 현장에서 직접 빵은 고춧가루를 구매할 수 있는 고추방아장터는 공간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나, 먹거리마당이나 물장구마당은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서 공간이 단절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더운 날씨에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껴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임꺽정이 괴산의 주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꺽정’과 관련된 소재는 축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음. 현재 운영하는 ‘임꺽정 납시오’ 퍼포먼스 운영을 좀더 확대할 필요도 있으며, 그동안 중단된 ‘임꺽정 선발대회’의 부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추라는 소재가 가진 한정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을 ‘임꺽정’을 활용하여 극복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임꺽정과 고추를 연계하는 캐릭터를 개발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을 것임 ○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전국고추요리경연대회, 고추속체험 등 고추를 활용한 음식컨텐츠는 고추축제의 취지와 잘 부합하고 방문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됨. 이러한 고추 관련 음식체험 프로그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축제기념품으로 손으로 고추그림을 그린 우산, 고추화분 등은 대중상품력이 부족함. 축제기념품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어야 함. 이전 축제에 무료로 배부했던 고추모형의 볼펜과 같은 쉽게 사용하고 디자인이 흥미로운 기념품 기획이 요구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열전 프로그램의 참가 희망자에 비해 실제 참가자 수가 너무 적으며, 프로그램 운영도 단순히 매운 고추 먹기대회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우선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빨리먹기 경쟁, 다양한 형태의 미션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재미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고추와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마련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관람객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로 ‘고추 구매 요령’을 고추 재배 농부가 직접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거나, 음식전문가들의 ‘고추 효능에 대한 강연’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전시 컨퍼런스 프로그램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고추축제 요구됨 ○ 괴산고추가 다른 지역보다 더 품질이 좋은 이유(기후조건, 지형 등)에 대한 설명이 사진이나 도표 등을 통해 전시될 필요도 있음. 이를 통해 괴산고추의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에서 고추와 연관된 다양한 이야기를 활용한 전시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흥미롭게 고추의 효능과 장점 등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예를 들어, 고추와 관련된 OX퀴즈를 내서 최종 우승자들에게는 고추속체험권을 증정한다거나 하는 등의)의 기획도 고려해볼 만 함.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추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리는 것도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이 설 수 있는 벤치 등에 고추 이미지의 CI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고추축제로서의 정체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 쉼터공간도 구조물로 깔끔하게 설치된 곳들이 있어 관람객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다만, 이를 축제장 전체적으로 보다 확대하여 동선이 긴 축제장에 관람객들이 중간에 설 수 있는 곳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축제방문객들의 주된 방문목적이 질 좋은 고추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가 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고추를 구매한 후 뺑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방문객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현재, 1대에 불과한 기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맡겨놓고 가면 정해진 시간에 찾아갈 수 있는 구매자 편의위주의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괴산지역의 축제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이 축제의 목적인 만큼 방문객들이 농산물의 맛이 좋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식행사를 늘릴 필요가 있음. 찐 옥수수나 찐 감자, 괴산배추로 담근 김치 등의 맛을 선보여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면 구매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 ○ 한복을 입은 지역대학의 공연 관련과 학생들의 참여로 인해 축제장의 전체적인 흥을 돋우고 방문객들의 참여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음. 또한, 퍼레이드와 플래시몹도 축제장 내 분산되어 있는 관람객들의 주의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분위기를 유쾌하게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고추 판매부스가 현재 단순한 고추판매 공간에 그치고 있는 데, 각 마을에서 고추를 어떻게 재배하여 왔는지를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전시한다면 구매자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임. 마을별 판매부스에 고추만이 아니라 마을의 자랑할 만한 거리(특산품, 볼거리, 토속 음식 등)를 같이 전시하거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음식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필수 식재료인 만큼 축제콘텐츠를 개선하고 차별성을 높인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도 매력 있는 이벤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 위해서는 괴산의 음식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여행상품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임. 또한, 괴산의 산막이 옛길 등과 같은 자연 관광자원과도 연계한 여행상품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기간에 괴산을 방문할 수 있을 것임 ○ 축제장 내에서 여러 가지 특산품을 따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패키지화 하여 여러 농작물을 적은 양으로 골고루 구매할 수 있는 세트상품을 만들어 구성해 판매하는 것도 핵가족, 1인 가족 증가로 식구수가 적어 많은 양의 특산물 구매가 부담스러운 방문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괴산의 고추를 활용한 차별화된 고추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함. 전국 고추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괴산 고추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중적인 요리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지역주민들이 괴산고추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먹는 음식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음. 괴산 주민들이 참여하는 ‘우리집 고추음식’을 소개하고, 이 중에서 지역색을 반영한 토속적인 음식을 선정하여 괴산의 차별화된 고추음식으로 상품화할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향토음식으로서 의미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임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축제를 통해 괴산지역의 주요 작물을 홍보하고, 방문객들이 괴산 농산물의 차별화된 맛을 경험하게 하여 질 좋은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괴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짐 ○ 또한, 지역농가에서 재배한 농산품 판매촉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어 지역의 농가 소득증진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음 ○ 괴산고추축제는 주민, 지자체, 지역대학의 민관학의 협력을 통한 축제 행사 운영으로 지역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주민들의 교류와 단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다고 여겨짐

18

강경 젓갈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 10. 12(수) ~ 10. 16(일)

■ 장 소 : 젓갈공원, 젓갈시장, 젓갈전시관, 옥녀봉 일원

■ 주 체 : 논산시

■ 주 관 :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문화행사(25)

- 전국 강경포구 마당극 경연대회, 강경포구 버스킹, 포구나이트 “강경포구 차차차”, 개막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전국여고동창가요제, 강경포구 트로트가요제, 판타스틱 강경, 논산전성시대, 강경포구 인형극장, 강경포구 팔씨름대회, 강경포구 국악한마당, 포구의 줄타기, 보부상 난전재현놀이, 다문화 맛깔김치담그기경연대회, 강경포구 콘서트, 젓갈 페레이드, 강나루 불꽃놀이 등

○ 체험행사(20)

- 가마솥 햅쌀밥과 젓갈시식, 강경탐방, 젓갈맞춤이벤트(육젓을 잡아라), 왕새우잡기, 젓갈 김치담그기, 외국인 젓갈김치 담그기, 어린이 물고기잡기체험, 소원성취 종이배 띄우기, 전통민속놀이, 양념젓갈 만들기, 젓갈 김밥주먹밥 만들기, 젓갈도시락, 강경포구 소원지 달기, 젓갈 페이스 페인팅 및 네일아트, 추억의 여고 교복포토존, 놀이 공예체험, 강경 발효체험, 강경 다식체험, 탐정호 갤러리 등

○ 특별행사(15)

- 주민자치 발표회, 논산프리마켓, 강경포구 전국어린이동요제, 전국학생 강경포구 사생대회, 황산벌국악경연대회 수상자 공연, 충남향토음식경연대회, 충남민속공연, 세계민속공연, 젓갈김장열차, 놀이 백일장, 재경 향후회의 날, 전국 국궁대회, 평창올림픽 홍보 이벤트 등

○ 상설행사(19)

- 조선3대시장 홍보관, 강경포구 포토이벤트, 슬로우푸드 전시관, 강경포구주막, 축제연계 전시관, 국화포토존, 젓갈캐릭터 포토존, 포토이벤트, 에스민 농특산물 홍보.판매전, 젓갈 마당쇠 퍼포먼스, 갈대숲 오솔길 걷기, 강경 옛모습 및 축제사진 전시, 향토음식점,

포구 푸드트럭, 놀피대장간, 기업우수제품 홍보판매전, 축산물 홍보 판매전, 강경포구 “夜” 한 거리, 축제기념품 판매 등

- 부대행사(3)
 -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각설이 공연, 건강체험관 등

(2) 총 평

■ 잘된 점

- 지역특산물과 연계된 축제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특히 지역주민 및 상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축제 본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축제였음.
- 강경포구의 역사성과 전통 있는 강경젓갈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축제가 강경젓갈의 브랜드 강화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음.
- 축제의 질적, 양적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중심의 축제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 함.
- 올해 축제는 축제 개최장소를 젓갈시장을 중심으로 개최함으로써 축제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축제의 장소성을 부각시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상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설득해내고 참여시킴으로써 축제의 효과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판단됨.
- 한편, 축제 장소의 변경은 방문객의 입장에서 강경근대문화유산 거리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됨으로써 근대문화역사도시 강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개최 장소를 금강변에서 젓갈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심거리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거나 개최장소 변경에 따른 운영 노하우 부족 등으로 인해 동선이나 프로그램 및 축제 부스 배치가 다소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보이고 있어 차년도 개최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문화행사, 체험행사, 특별행사, 상설행사 등이 하나의 공간에서 개최되어 방문객들에게 혼잡도를 유발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축제 프로그램별로 구획을 구분해서 개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축제 프로그램이 5개 분야에 82개 행사로 진행되어 양적인 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것

으로 보여지나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을 통해 양적인 발전과 더불어 질적인 부분에서도 전국적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특히 젓갈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김치담그기, 젓갈만들기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임.

- 행사장 세팅에 있어서 지나치게 부스가 많고 직거래 장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부스가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부분 규모나 수준에 있어서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임. 따라서 차년도 축제 계획에 있어서 지나친 부스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성과분석을 통해 축제콘텐츠와 관련성이 높은 부스를 중심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축제 행사와 프로그램은 많으나 대표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젓갈김치 만들기 정도가 대표프로그램인데, 창의성과 독창성, 체험성, 놀이성 등 여러 측면에서 대표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임. 향후 우수축제에서 최우수, 나아가 대표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양적인 면에 치중하기 보다는 대표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에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축제장의 환경구성과 세팅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소성이라는 측면에서 축제장의 변경은 긍정으로 보이나 도심거리로 확대로 인해 주변 환경이 매우 혼잡하고 정돈되지 않아 자칫 방문객들에게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접근성과 진입동선을 철저히 고려해서 축제프로그램과 부스 등 축제장 배치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임.
- 축제가 강경 시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와 환대성은 축제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음. 따라서 젓갈 상인들의 축제참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또한 근대문화유산거리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산물과 역사문화를 연계하여 전통있는 지역축제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 열의가 높고 관심이 높은 것은 향후 발전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축제기획은 전반적으로 구성에 맞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나 배경 프로그램간 연계성 등이 부족하고 행사를 나열한 느낌이 많아 올해 축제의 기획의도가 잘 드러나 있지 않았음.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구성과 배치의 논리적 흐름이 부족함. ○ 특히 올해는 축제개최 장소를 젓갈과 연관성이 높은 젓갈거리로 했다는 점은 향후 축제가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고 젓갈을 넘어 관광도시 강경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개최 장소 변경 후 처음 개최되는 축제로서 프로그램의 배치나 부스 설치 등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차년도 축제에 반영되어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경젓갈 축제는 그동안 양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강경젓갈축제하면 젓갈외에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족한 것은 고민해야 할 부분임.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5개 분야 82개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몇몇 체험행사를 제외하고 젓갈과 관련된 대표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개최되는 대표프로그램도 킬러콘텐츠를 가진 프로그램이기 보다는 여느 장소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축제콘텐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 젓갈과의 연관성이 떨어져 왜 이 축제에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음. 다시 말하면 다양성이라는 점에서는 일면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강경 젓갈 축제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축제방문객들을 근대문화유산거리 등 강경의 주요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해이는 점은 축제와 관광의 연계효과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젓갈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주민의 참여 열의도 높아 축제 성공개최를 위해 지역주민의 봉사열의도 높은 것으로 보임. ○ 도심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인해 동선 및 접근성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 차년도 개최시 이 분야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축제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이 다소 약해 보임. 현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열·개최되는 특성이 너무 강함. 따라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양적 축제 기획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강조한 콘텐츠형 축제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경젓갈 축제와 같이 도심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프로그램의 공간배치임. 현재 강경젓갈축제는 많은 프로그램과 부스가 도심 공간을 중심으로 혼란스럽게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의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만족도를 저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프로그램과 부스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구획별로 프로그램과 부스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경 젓갈축제는 축제의 소재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만큼 어느 축제보다도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열의가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축제를 통해 젓갈 매출 신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문화관광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개최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강경포구의 역사성과 200년 동안 발전해 온 강경젓갈을 축제콘텐츠로 승화시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형 축제라는 점에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성공적인 축제개최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하고 지역주민의 열망이 높다는 점은 지역의 참여가 축제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경우 축제개최 이후 부가가치 효과가 높지 않은데 비해 강경 젓갈 축제는 관광상품이외에 다양한 상품과 결합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젓갈을 중요한 식품의 소재로서 식품기업의 스폰서십을 끌어내기 유리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은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강경젓갈 축제는 최근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단순히 젓갈 판매 이상의 의미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기획의 한계에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강경 젓갈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축제중장기 발전 로드맵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개최된 강경 젓갈축제는 도심에서 개최되는 원년축제로서 축제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으며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축제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보여짐.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점도 드러나긴 했지만 충분히 개선가능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없어 보임. ○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우리나라의 몇 안되는 축제로서 이제 젓갈을 소재로 관광클러스터화하는데 기여하는 축제로 도약하는 중장기 로드맵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이제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다듬고 젓갈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세련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구상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되며, 이런 구상의 성공여부에 따라 강경젓갈축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9

부여 서동연꽃축제

(1) 개요

■ 기간 : 2016년 7월 8일 ~ 7월 17일 10일간

■ 장소 : 부여서동공원 일원(공남지)

■ 주최 : 부여군

■ 주관 : 부여서동연꽃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개·폐막식 (주제공연, 축하공연)
- 공연프로그램: 개막주제공연, 개막축하공연, 포리너, 공남지와 사랑에 빠지다, 폐막주제공연, 지역예술단체공연,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예술단체 초청공연
- 경연프로그램: 서동요 전국 창작동요 부르기대회, 서동공원 연꽃 사생대회
- 전시프로그램: 사진전, 시화전, 연 음식 전시·시식, 수채화 전시
- 특별이벤트: 서동선화 나이트 퍼레이드, 서동선화 임팩트쇼, 연희단거리패, Love Food Village 등
- 체험행사: 사랑의 소원 풍등날리기, 연꽃스탬프투어, 연지탐험, 상설체험행사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주제인 ‘서동+연꽃’에 맞추어 서동설화와 공남지의 생태환경을 이용한 공연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기획·구성하여 축제의 핵심주제를 전달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체험프로그램을 2015년 21개에서 30개(자체 8개, 공모 22개)로 확대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이고 방문객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함
- 축제의 메인프로그램인 서동선화 나이트 퍼레이드, 서동선화 임팩트쇼를 야간에 집중 배치하고, 야간 경관조명과 디자인을 활용한 경관 테마존을 운영하는 등 야간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혹서기에 개최되는 여름축제의 약점을 극복하고, 체류형 관광축제로서의 전환을 시도함

- 행사장을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궁원지라는 역사성과 50여종의 다양한 연꽃 및 수생식물이 가진 경관성을 동시에 갖춘 서동공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축제장 자체가 뛰어난 장소적 매력을 보유함
- 행사장 전체를 7개의 테마존(서동존, 사랑존, 학습존, 체험존, 설화존, 경관존, 생태존)으로 구획하고 각각의 테마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하여 축제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방문객들의 관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특히 경관과 야경 디자인에 따라 8개의 테마존(19금존, 로맨틱존, 리브테마존, 순결존, 이궁존, 설화존 등) 등 다채로운 콘셉트 별로 연출하여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에도 불구하고 축제방문객들의 대다수는 연꽃감상, 공연관람, 일부 체험프로그램 참여 등 한정된 축제참여에 그치고 있어 부여서동연꽃축제를 대표할만한 킬러콘텐츠 개발 및 강화가 필요함
- 야간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강화는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차별성 확보, 체류형 관광축제로의 전환 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야간 심야시간대에 차별화된 축제프로그램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야간방문객을 위한 연계교통편 확대 등 야간프로그램의 매력도를 높이라는 노력이 요구됨
- 축제안내소 및 안내판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축제장 규모가 크고 동선이 복잡하여 축제장 안내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증가하는 축제방문객들을 위한 주차공간 등 방문객 수용력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축제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식당시설, 연계관광시스템 등 지역 전체의 관광객 수용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부여서동연꽃축제의 경우 ‘서동’이라는 역사문화적 주제와 ‘연꽃’이라는 생태경관적 주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축제의 분명한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축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주제 사이의 위계 설정 등 축제주제의 명확한 설정이 요구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서동연꽃축제 기본계획’에 축제의 목적 및 기본방향, 축제프로그램, 축제행사장 조성, 축제홍보, 인력운영 등 세부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주제 관련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남지의 경관을 배경으로 한 공연프로그램 및 야간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완성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서동설화를 바탕으로 한 주제공연, 서동선화 나이트 퍼레이드·서동선화 임팩트쇼 등의 이벤트프로그램, 야간경관조명을 활용한 경관존 구성 및 연출 등 야간프로그램에 집중된 프로그램 구성이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타 축제와의 소재 및 프로그램 차별성과 매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동공원의 생태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확대 운영하여 가족 방문객들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는데 성공함 - 체험프로그램을 2015년의 21개에서 30개로 확대하여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연지탐험(궁남지 카누체험)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판단됨 - 서동·선화라는 축제캐릭터는 개발되어 있으나 축제캐릭터의 활용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마을·목장과 연계한 농촌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축제 주제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부여의 다양한 백제역사문화유적과 백제역사문화단지 등의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한 연계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축제방문객들의 지역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토·일요일에 한정된 부여시티투어를 축제기간 중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내 운용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인원 884명의 자원봉사자가 행사안내, 행사장 청소, 교통통제, 수상안전, 체험장도우미, 통역안내 등으로 행사운영을 지원하였으나, 자원봉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교통통제에 투입되어 축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원봉사인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축제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매체,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이용한 홍보를 실행하였으며, 인근 지자체의 유성온천문화축제, 보령머드축제와 연계하여 공동홍보를 실시한 것으로 평가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공간 배치 등 행사장 환경 및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구획을 포룡정을 중심으로 주무대와 4개의 소무대를 배치하고, 연꽃단지를 7개의 테마존으로 나누어 각 테마별로 차별화된 축제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년도에 5개소였던 주차장을 1개소 확충하여 6개 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100만명 이상의 축제방문객을 수용하기에는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대규모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셔틀버스로 축제장과 연결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축제장의 면적이 넓고 동선이 복잡한 것에 비해 축제안내도나 안내원이 부족하여 축제방문객들이 축제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축제장 안내도/안내표지판과 축제안내요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축제방문객들의 축제체험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선 기획 및 안내·해설체계 보완이 필요하며, 궁남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나 연꽃단지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별도의 축제장 내부 안내·해설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서동연꽃축제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단체,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유도한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방문객 안전관리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수난사고 발생위험지역에 안전통제선 설치, 통제요원 및 구조요원 배치 등 방문객의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 등 성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군은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개발하기 위해 2016년 ‘부여서동연꽃축제 육성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등 축제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축제 상설 조직체 구성 및 운영 여부, 축제 재정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서동연꽃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축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맡고 있으나 서동연꽃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사무국 설치 등 축제기획·실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 및 국내외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연속 축제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어 여름철 대표 축제로 자리잡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됨 - 축제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대부분 충남지역의 지역언론에 한정되어 있는 등 전국적 인지도는 아직 약한 것으로 판단됨 ○ 방문객 만족도 및 지역경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회 부여서동연꽃축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직접 경제효과가 393억 원으로 전년도 301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방문객 수 집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수 집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집계장소의 확대, 집계시간의 조정 및 연장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

한산 모시문화제

(1) 개요

- 기간 : 2016. 6. 03 ~ 06
- 장소 : 서천군 한산면 모시문화원 일원
- 주최 : 서천군
- 주관 : 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패션쇼
 - 저산팔읍 길쌈놀이
 - 모시경매
 - 한산 모시짜기 전국경연대회

(2) 총 평

■ 잘된 점

- 킬러 콘텐츠로 패션쇼를 진행시킨 것은 일반 방문객의 관심 모으는데 큰 성과.
- 행사장 면적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게 행사를 배치해 효율성을 높임.
- 길쌈 시연을 통한 모시 만드는 과정을 쉽게 체득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프로그램에는 있었지만 참가자가 없어 외국인 및 주민 패션쇼 진행 취소. 축제 개최 1개월 전에 기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최 측에서는 이미 외국인 패션쇼 참가자의 참가 여부를 예견할 수 있음. 외국인 패션쇼라 관람객들은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를 알았다면 미리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
- 메인 축제장과 보조 축제장으로 나뉘다 보니 행사공지 방송을 행사가 열리는 곳에서 알리는데, 축제장 전체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축제운영위에서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
- 한산 모시제는 우리의 전통 복식을 알리는 축제. 몇몇 프로그램 진행시 나오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대체하는 것이 축제 성격에 맞을 듯. 사물놀이와 바이올린 등의 콜라보를 들려주는 것도 좋을 듯.

- 연로한 지역 주민들이 시연하는 길쌈놀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자체장이 참가한다고 그 옆에서 걷기대회 행사를 진행한 것은 무리. 길쌈놀이 행사 중 바로 옆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걷기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길쌈놀이 패들은 피약별에서 기다리게 되고 양측 간에 트러블이 생김. 조금 기다렸다가 길쌈놀이가 끝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행사장을 관통하는 도로가 좁고 주차시설도 협소하다 보니 많은 차량이 들어오면서 차량정체가 심함.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양쪽 삼거리에 우회도로를 알려주는 유도 간판을 설치하면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좁은 주차시설로 갓길에 승용차 주차를 허용했는데, 주차요원을 배치해 차량을 촘촘히 주차하도록 유도한다면 더 많은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시킬 수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산 모시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한류 콘텐츠중 하나. ○ 목화가 전래되기 전부터 긴 세월 서민들의 의복으로 역할을 해 온 모시는 우리 복식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축제를 통해 일반 국민의 관심 유도.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킬러 콘텐츠로서의 패션쇼는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으나 완성도 떨어짐. ○ 국내 유일한 의복 축제로 자리매김. ○ 천연염색, 다례 체험 등의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여 관람객 호응도 끌어올릴 필요성 있음. ○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도 축제장 인근에 숙소가 부족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어려움. ○ 한산 모시관내 관람 편의를 위해 바닥에 화살표로 동선을 알려줄 필요 있음.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봉사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참여도 뛰어남. ○ 매끄럽게 운영되지 않은 축제 기획.(패션쇼의 경우 외국인, 지역 주민, 관광객, 전문으로 구분해 운영기로 했으나 결국은 전문 패션쇼만 진행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음식 코너의 먹거리 메뉴 거의 비슷하고 가성비 떨어짐. 특색있는 메뉴 개발 필요. ○ 한정된 홍보예산으로 신문이나 TV광고에는 한계. 자매결연한 사군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한산 모시축제 개최를 알리는 것도 한 방법. ○ 타 축제에 비해 좁은 행사장을 짜임새 있게 잘 활용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시는 서천군을 대표하는 특산품 중 하나. 축제 장소의 협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인근 임야 약 10,000m²를 구입해 내년도 행사 때 활용할 계획. ○ 총감독 체제로 운영되는 행사이다 보니 모시 관련단체의 보이지 않는 입김 작용한다고 함. 타 지역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축제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필요. ○ 축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에 실비로 참가비 걷는 방법 연구.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산모시제가 열리는 기간 중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거의 없고, 법정공휴일인 현충일이 끼어있기에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수단 발굴이 중요. ○ 방문객들의 전통 의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나, 연계관광에 대한 어려움으로 체류형 관광이 이어지지 않아 지역경제 효과는 아직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행사장이 도로를 중심으로 양 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두 곳에서 방문객을 집계하다 보니 중복 집계의 확률이 매우 높음. 진입로 양편 끝에서 들어가는 차량의 탑승인원을 계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

21

서산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1) 개요

- 기간 : 2016년 10월 7일(금) - 10월 9일(일) 3일간
- 장소 : 충남 서산시 해미읍성 일원
- 주최 : 서산시
- 주관 :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추진위원회, 서산문화원
- 주요행사
 - 공식 프로그램 : 고유제, 개막식, 폐막식 등
 - 기획 프로그램 :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 재현, 야간문화공연, MGBQ 갈라쇼 등
 - 체험 프로그램 : 보부상 체험, 패랭이 제작 체험, 보부상 인장 체험, 보부상 경매, 사발 통문 체험, 민속놀이 체험, 가마솥 주먹밥 체험, 솔뚜껑 새참 체험, 관아 집무체험, 옥사 체험, 호패 제작 체험 등
 - 공연 프로그램 : 서산벚가릿대농악, 지점놀이, 박첨지놀이, 심화영 승무, 전통문화공연, 전통국악 한마당, 어린이인형극, 관아마당극, 옥사상황극, 천주교마당극 등
 - 경연 프로그램 : 국무총리배 전국 농악명인 경연대회, 서산시 청소년 풍물경연대회 등
 - 상설체험 프로그램 : 엽전체험, 탈거리 체험(소달구지, 승마체험) 등

(2) 총 평

■ 잘된 점

- 서산문화원 주도로 행사가 기획·진행되어 축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축제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행사가 진행된 해미읍성은 축제를 개최하기에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미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숙박 등 방문객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축제를 지역사회와 연계하기에도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음
- 매년 주제를 새롭게 선정하고 그에 따라 해마다 전체 프로그램의 30%를 교체하여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 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태임
- 실제 대부분의 축제 프로그램이 해미읍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민속체험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어 해미읍성축제만의 차별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미읍성축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함
-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대표 콘텐츠의 발굴·육성과 함께 역사체험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타 지역과 비교하여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함
- 특히 ‘城’과 ‘군사시설’이라는 해미읍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killer contents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이번 축제의 주제는 ‘조선시대 판이 열린다’로 정하고 보부상문화체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실제 일부 공간에서 보부상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뿐 이러한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임
- 축제 주제에 맞게 축제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어야 하며 주제 선정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축제장 방문객들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20~30대 젊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전략 수립이 필요함
- 개막식 뿐 아니라 일부 개별 프로그램 시작 전 시장 등의 인사말이 반복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주제를 달리 선정하고 주제에 따라 신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함 ○ 서산문화원 주도 하에 축제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며 분야별 세부추진계획도 구체적으로 작성됨 ○ ‘조선시대 판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축제가 기획되었으나 실제 주제 관련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내용도 단순체험에 그침 ○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기획함에 따라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축제의 정체성 구축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GBQ(Miss Global Beauty Queen) 갈라쇼의 경우 축제의 주제와는 직접적으로 부합되지 않으나 각국 선정 글로벌 뷰티퀸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진행하여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와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패션쇼가 끝난 후 방문객들과의 포토타임도 가져 축제장 방문객에게 화려한 볼거리와 추억거리를 제공함 ○ 야간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야간공연과 불꽃놀이가 진행되었으며 관람객들의 참여와 호응도 높게 나타남 ○ 핵심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태종대왕 행렬의 경우 행진속도 차이에 따라 대열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행렬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아 왕의 행차에서 볼 수 있는 권위나 위엄을 전혀 느낄 수 없었음 → 행렬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교육과 훈련 그리고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질도 있는 행렬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축제프로그램 상 20~30대 젊은층을 유인할 매력요인이 매우 부족함 → 축제가 외연성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30대를 목표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서산시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해미읍성 축제가 서산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서산시 15개 읍면동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에서 주요 참석자를 일일이 소개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역대 현감 후손들을 중심으로 외부인사만 소개하여 의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 ○ 개막선언 시 관람객들을 무대로 불러 북과 징을 치게 하는 등 관람객을 개막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였으나 관람객들의 자발적 참여가 크지 않아 그 의미가 다소 반감됨 ○ 스피커나 악기 등 소리를 내는 프로그램들이 인접해서 진행되어 서로 간섭현상을 유발하고 프로그램 관람에 방해가 됨 → 행사장의 공간 재 배치 또는 시간대를 조정하여 간섭현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일정보다 지연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일정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축제가 시작되는 진남문 개문식 행사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주요 행사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축제공간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함 → 현재 분리되어 있는 음식판매와 상품판매부스를 한곳에 통합 배치하여 옛 장터의 느낌이 나도록 조성하고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들도 방문객의 이동 동선이나 혼잡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공연을 관람하는 어린이들이 힘들어 함 → 관람공간에 차양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늘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공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축제장내에 차량이 수시로 진입하여 관람객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음 → 행사진행차량이라도 방문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행사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함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축제 진행 자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 축제기간 중 비가 올 때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방문객들이 눈에 종종 띠었으나 외국인방문객을 위한 안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최소한 주요 행사일정이나 내용 등은 외국어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추진주체인 문화원, 축제추진위원회 그리고 서산시 관계자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비해 추진주체로서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서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서산문화원과 축제추진위원회 주도로 축제가 기획되고 운영됨에 따라 축제의 발전은 결국 서산문화원의 역량에 달려 있음 → 문화원이 역사를 관광의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축제가 지속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도 자생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나며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파트너십 구축, 스폰서 확보 등이 필요함 ○ 해미읍성축제가 진정한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축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개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좀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축제기간 이후로 축제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산품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2

김제 지평선축제

(1) 개요

■ 기간 : 2016년 9월 29일 ~ 10월 3일(5일간)

■ 장소 : 전북 김제시 일원(벽골제 중심)

■ 주최 : 김제시

■ 주관 : 김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 주요행사

- 김제 벽골제 야행
- 가족대항 초가집 만들기
- 풍년 기원 입석 줄다리기
- 쌍룡놀이
- 아궁이 쌀밥 짓기 체험

(2) 총 평

■ 잘된 점

- 농경문화 주제로 하여 먹거리, 체험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축제로서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에게는 좋은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 전통혼례체험, 탈곡체험, 가마니짜기 등 어린 아이에게는 재미있는 체험이 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 폭넓은 연령대를 수용할 수 있는 축제라는 것이 큰 장점
- 기존 축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유지, 보완하고,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의 변화 노력이 돋보이며, 축제장 접근성을 높이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 개선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60개에 달하는 축제 프로그램이 다소 산만하다 인상을 주고 있으며, 축제의 본질적 테마와 맞지 않은 프로그램이 적지 않음. 축제의 테마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농경문화, 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화 요구됨. 프로그램 외에 시설물이나 소품들의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일관된 톤을 유지하고 세련된 연출이 필요. 행사장에 배치한 조악한 마네킹 연출이나 자질구레한 소품연출 등 구색 갖추기에 급급하기보다 다소 여백을 그대로 두더라도 전체적인 색감 통일, 설치물들의 정교화가 필요함
- 지역농산물을 알리고, 방문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장터의 공간 통로가 비좁아 사람들의 통행이 불편함. 쌀가공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이 공간을 좀 더 확대하고 동선을 조정하여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개선이 요구됨
- 먹거리의 음식 수준 향상이 요구됨
- 먹거리 장터에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카드 리더기를 지급했으나 전혀 활용이 안 됨
- 쌀을 주제로 한 농경문화 축제이기에 지역별 막걸리를 소개하고 있으나 몇 종류의 막걸리를 진열해 놓는 것으로 끝남.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서브 콘텐츠로 지역별 막걸리 시음장 개설도 고려할만 함
-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막걸리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쌀의 87%는 수입쌀임. 우리 쌀로 만든 막걸리 축제를 같이 진행한다면 전국적인 이목을 끌 수 있는 데다 쌀 소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일석이조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롱이터널, 인형극, 가마니 짜기, 탈곡체험 등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마련되어 있어 자녀동반 가족 방문객에게는 좋은 교육의 장을 제공 ○ 벽골제 전통설화에 기반한 쌍용 조형물은 상징성을 가지며 축제장 안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는 주요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있음 ○ 삼시세끼 아궁이 쌀밥 짓기는 아궁이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현대인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고 있어 인기가 높음. 다만, 무료로 제공되는 반찬을 유료화 하여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반찬을 판매하는 것도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의 한 방법일 듯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여 김제 출신 인물이 과거 개발한 하늘을 나는 수레인 일명‘비거’에 착안한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의 역사성을 알리고 체험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 ○ 쌍용 씨치쇼, 조명쇼 등 야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오후 늦게 입장하는 방문객도 적지 않아 방문객 분산 효과도 있으며,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음 ○ 농악기획공연은 축제기간 중 하루에만 이뤄져 다소 아쉬웠으나 축제의 테마와 일치하는 공연으로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음. 방문객들이 농악을 평소에 경험할 기회가 적은만큼 농악공연을 이 축제의 주요 공연 프로그램으로 향후에도 확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장점과, 산만하다는 단점이 공존함.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타겟으로 했기에,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축제 주제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걸러내고, 축제의 취지에 어울리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함 ○ 지역적 토속문화를 알리는 농경문화 축제이므로 전체적인 톤에 적합하지 않은 장식이나 연출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음. 시설물이나 소품 등은 일관된 톤을 유지하고 세련된 연출이 요구됨. ○ 농사꾼 캐릭터나 새참을 나르는 아낙네 캐릭터를 개발해서 떡이나 음식을 나눠주거나 팔거나 하는 퍼포먼스를 확대하면 방문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전통마당의 공연과 길거리 퍼포먼스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하여 방문객들의 흥미를 돋우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참여 경력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아 대체로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세심하고 전문적인 안내를 하는 등 좋은 서비스가 이뤄져 방문객들이 보다 기분 좋고 편리한 축제를 즐기는데 도움이 됨. 축제전문해설사와 안내 등 중요한 역할을 함 ○ 쉼터, 휠체어 대여, 자전거 주차장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축제장 전반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다만 흡연시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옥의 티. ○ 지역 면단위 주민협의회에서 참여하는 지역먹거리마당의 음식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여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마당은 어린 자녀 동반 방문객에게 적절한 메뉴를 제공하여 호응이 좋았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대책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 소화기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를 대체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축제 기간 중 일시적으로 몰리는 인원을 감안해 안전요원의 증가가 필요함. 야간 프로그램이 많아 야 간에도 축제장을 규칙적으로 순찰할 필요성 대두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 거리가 풍부한 차별화된 축제로서 그 입지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높은 교육성을 확보하고 있어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축제인 만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꾀한다면 향후에도 많은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임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와 지역의 농촌마을을 연계한 부대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축제 방문객들이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인하여 지역에 1박2일 이상 체류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며, 향후 더욱 확대시킬 필요 있음 ○ 축제를 통한 ‘지평선’ 브랜드 형성으로 이 지역에서 재배된 쌀과, 쌀을 가공한 다양한 상품들에 ‘지평선’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연계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음

23

무주 반딧불축제

(1) 개요

- 기간 : 2016년 8월 27일(토) ~ 9월 4일(일)
- 장소 : 무주군 일원 (남대천, 반디랜드,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 무주군
- 주관 :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요행사
 - 반딧불체험 등 환경 곤충체험행사, 문화 예술 놀이 행사, 민속체험, 연계 부대 행사 등

(2) 총 평

■ 잘된 점

- 20년이라는 축제의 역사만큼 기획안과 콘텐츠가 탄탄하고, 운영도 내실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 반딧불이를 소재로 개최되고 있는 환경축제로서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반딧불이 외에도 무주 지역의 특산물 전시, 전통공예체험과 전시관, 놀이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축제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음
-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반딧불의 주제를 축제의 주제와 프로그램에 잘 녹이고 있었으며, 20년 동안의 역사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인 비전도 어느 정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킬러콘텐츠인 반딧불 신비탐사와 함께, 안성 낙화놀이 등 가족단위 관람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많았으며, 주민참여 행사 등을 통해 축제의 효과가 무주군 및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 노력도 돋보임. 지자체장의 의지와 군내 민간과 행정기관,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으로 무주군 전체가 참여하는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반디랜드와의 연계를 통한 상설 랜드마크

(축제장 공원화) 및 시즌별 콘텐츠 개발 등에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이와 함께 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20년이라는 축제의 경험과 함께 국제적인 수준의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과제를 강구하는 등 추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반딧불의 생태 등을 고려한 시기의 특수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일주일이라는 축제기간 동안 집중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축제기간의 조정 등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
- 전년도 지적사항에 따라 ‘무와 주의 사랑이야기’ 등 생태적 컨셉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의 정비 및 삭제를 통해 개선을 꾀한 점은 인정됨. 다만, 반딧불축제와 함께 무주의 2대 자랑거리로 인정되는 태권도원과 태권관련 프로그램 등을 생태적 ‘스토리’와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하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연계관광 상품 등을 보다 많이 개발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 내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획의 기본방향과 지향점이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태적인 특성을 최대한 담으려고 한 점이 인정되며, 반딧불이라는 주제가 무주와 축제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음 ○ 축제기획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과 고민이 잘 담겨져 있으며, 공간배치와 환경조성, 세부프로그램 추진계획, 행정 운영지원계획, 자원봉사자의 참여 등 구체적 내용이 잘 담겨져 있음 (예. 안성 낙화놀이, 마을로 가는 가을축제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 다만, 축제의 장소가 무주군 일원에 다소 흩어져 있고, 메인행사장의 경우에도 주제별 프로그램이 각 공간영역(zone)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가보다는 체험, 주차장, 장터 등이 다소 얹혀있는 구조로 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주제의 명확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방문객의 동선 등도 고려하여 구역별(zone) 주제를 자연-생명-미래 등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축제기획에 있어, 외부 관광객 뿐 아니라, 축제의 효과와 참여의식의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전체 군의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두드러짐. ○ 축제의 주제가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으로 제시한 것에 비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각 주제별 자연/생명/미래에 대해 일정별, 구역별, 특성프로그램별 대표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등의 구체성이 더해지면 더욱 좋을 것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킬러콘텐츠라 할 수 있는 ‘반딧불이 신비탐사’의 경우 홍보도 많이 되고, 가족단위 참가자가 대거 참가하는 등 매우 성공적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콘텐츠의 기획, 안전성 확보, 지역의 유기적인 협력 등이 매우 돋보임 ○ 야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며, 거리의 제한이 있고, 날씨에 따른 변동성 등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축제 관계자와 군 행정기관이 행사를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노력하고 있었으며, 해설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인상적임. ○ 다만, 탐사 기간동안 조명을 꺼야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날씨 등 환경 변수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행사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음 ○ 안성 낙화놀이, 소망풍선 날리기 등 지역의 역사를 통한 전통적 축제콘텐츠의 차별성도 눈에 띄며, 환경파괴법과의 물총싸움 등도 독특하고 어린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재미있는 콘텐츠로 판단됨. 또한, 신비탐사를 경험하지 못한 관람객을 위한 반딧불이 전시관의 활용방식 등도 우수함 (반디판타지관, 반딧불이 생태학습관, 곤충생태 전시,체험관 등) ○ ‘마을로 가는 축제’는 마을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사과수확체험을 비롯해 식용곤충으로 음식만들기, 칩옥수수떡 체험, 고추장만들기 등의 프로그램 등이 돋보임 (무주군 14마을 참여 / 체험휴양마을 일원) ○ 반디판타지관에서 3D안경 착용 및 반짝반짝 반딧불과 LED로 장식된 환상의 숲 체험 등도 인기가 있었으며, 기타 행사장 입구의 천장 전광판 설치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임 ○ 다만, 전년도 평가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무와 주의 사랑이야기’ 프로그램은 자체 평가에 의해 올해 없어졌으나, 스토리와 체험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농특산물 전시.판매 등은 일반적이었으며, 무주지역주민이 참여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었음. ○ 무주리조트와 구천동, 와인터널, 뗏목체험, 태권도원 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가 원활하고 챌린지투어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 등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지로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점도 우수함 (타 지역에 비해 숙박조건 등도 양적, 질적으로 매우 우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전체적인 축제주제와의 부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년도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있기는 하지만, 맨손 송어잡기, 태권도와의 유기적인 주제의 연결성, 공연프로그램의 완성도 높이기 등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임 ○ 또한, 주행사장과 다소 떨어져 있는 반디랜드와의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며, 축제이후 상시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상설 랜드마크 (축제장 공원화) 및 시즌별 콘텐츠 개발 등도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예. 무주반디별 천문과학관 연계 야간 프로그램 확충 등) ○ 20년이라는 역사에 비해 팸투어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성장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생태축제로서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및 자매결연도시와 유기적인 협력,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인프라(안내판, 인터넷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외국어의 공격적인 홍보 등) 확충을 통한 글로벌 축제로서의 비전과 전략계획/과제/프로그램들도 보다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군과 주관기관인 제전위원회 간에 협조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로 축제의 운영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 ○ 20년이라는 축제의 역사만큼, 노하우와 축제운영에 대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임. 특히, 타 축제와 비교하여 축제장 환경이 매우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있어, 최우수축제로서의 브랜드에 걸맞은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 쉼터, 포토존, 편의시설, 이동화장실, 홍보판, 종합안내,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수유실, 주차장 확보와 관리 등 전반적 환경조성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엿보임 ○ 행사장 초입의 관광안내소부터 방문객 응대를 위한 교육, 종합상황실을 통한 전체 진행과정에 대한 조정통제, 안전관리 계획 등도 우수함. 신비탐사 및 낙화놀이 등 안전성이 중요한 축제의 주요행사에 대한 대비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 ○ 축제운영을 위한 무주군과 제전위원회, 무주교육청, 학교, 관련 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기관의 협조와 거버넌스 관계도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됨 (예. 무주관내 택시에 축제 랩핑광고 부착, 군민화합의 날 행사 등) ○ 사족으로 축제홍보 팸플렛 등에 후원기관 표시가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문화부 등 주요 후원기관에 대해서는 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의 육성 의지와 지역의 관계자들의 축제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20년이라는 역사만큼 지원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자원봉사로 자생적인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은 축제 시작 전부터 축제장 인근 청소와 전문 자원봉사를 도맡아 했으며 읍면 농·특산물 전시장과 마을 식당을 운영한 것을 비롯해 행사장 곳곳에서 교통정리와 주차를 돕고, 다양한 행사(사진과 시화, 그림 등 각종 전시회와 전통놀이 시연 등)를 통해 적극성을 나타냄 ○ 다만, 축제조직은 ‘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군청 차원에서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주도되는 경향이 있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자율적인 지역 주도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 및 자율성,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요구되는 사항임. ○ 상설 축제공간 마련 및 비즈니스모델 등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모색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제기되고 있음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킬러콘텐츠 ‘반딧불이 신비탐사’의 경우 인터넷 예약시 과잉접속으로 인한 서버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실제 가족단위 참가자가 대부분 참가하는 등 축제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과도한 참가자로 인해 버스 연계 및 제한된 관리 인원 등 실제적인 운영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전년도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신비탐사는 좀 더 제한적으로 참가인원을 사전 통제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반딧불 축제의 경우 그 성과를 인정받아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 의해 우수 축제로 선정되고 있음. 2009년에는 한국지방자치브랜드대상 축제부문 대상에 수상되기도 하였으며, 2013-16년에는 연속으로 문화관광축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성과를 내고 있음. ○ 특히, 2016년에는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그 성과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며, 미국의 뉴스 전문채널 CNN에서 한국에서 가봐야할 아름다운 곳 50선 중 하나로 무주가 선정되는 등 국제적인 홍보성과도 나타남 ○ 주관기관인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에 20여만 명이 방문하고 10억 8천여만원의 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어 성과가 우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한밤중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찾아 떠났던 신비탐사에 6,400명을 비롯해 낮에도 반딧불이와 다양한 곤충들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었던 반딧불이관 8,964명, 캠핑과 반딧불축제 주요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즐길 수 있었던 엄마 아빠와 1박 2일 생태탐험에 144가족이 참여해 인기를 끌었는데, 14개 마을이 함께 했던 마을로 가는 축제에도 5,759명이 참여 (1억 2천여만원)한 것으로 자평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외 제9회 반딧불동요제 대상출신 김효진 씨(25세, 한양대 성악과)가 출연했던 개막식 반디 갈라 콘서트를 비롯해 국악 작곡가 김대성과 크로스 오버 테너 임태경이 만나 무주를 교향곡으로 표현했던 “무주아리랑 음악제”도 이목을 끌 - 기타, 군민들이 참가했던 무주산골 음악대장(음악동아리 공연)과 전통놀이 시연을 비롯해 농·특산물 특화거리와 향토음식·간식거리(농·특산물+향토음식·간식 8억 3천여만 원) 등의 성과도 인정됨 ○ 다만, 식용 곤충 음식전시관과 일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미래 식량 대체 자원으로서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역 특산물과 연계되는 관련 상품의 개발 및 스토리텔링 기반 캐릭터상품 및 보다 많은 연계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농가 소득보전 등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성과창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사과, 머루 등) - 곤충빵 등 정서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상품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곤충캐릭터 및 완구개발, 애완용 곤충 판매 등이 실제 지역의 농가와 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시관 등에서 더 활발하게 제시되면 좋을 것임

24

순창 장류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년 10월 13일(목) ~ 10월 16일(일)

■ 장 소 :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 주 최 : 순창군

■ 주 관 :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문화공연 프로그램: 순창 5대명창 추모공연, 전라북도 예술단체 공연, 민속줄타기 공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공연, 순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등
- 체험 프로그램: 순창전통장류 상설체험장 운영, 메주먹은 장어잡기, 순창고추장 임금님 수라상 체험, 어린이와 함께하는 발효과학 체험, 장류체험관 상설체험, 순창 옹기체험, 장류고을 추억의 거리, 발효소스 토굴체험 등
- 참여 프로그램: 국가대표 매운맛 대회,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2016인분 순창고추장 떡볶이 만들기, 2016인분 순창고추장 비빔밥 만들기, 고추장 레드데이 프로젝트, 장류주먹밥 모자이크, 콩알콩알 나그네, 삼부자 소원항아리, 장류마을 좀비야 놀자, 한옥 EDM 불빛쇼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의 주제에 부합한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쓴 준비, 축제 공간과 주제와의 연관성 등이 우수한 축제라고 평가됨
- 관광객들의 방문도 많지만 지역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축제라고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킬러콘텐츠로 제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축제 공간의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축제의 핵심 주제를 더욱 부가시키며 축제 공간 전체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축제의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2016년 축제의 중점 추진 사항 등을 도출하고 이를 축제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축제의 핵심 주제(장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데, 킬러 콘텐츠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 검토 및 내용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장류는 우리나라 음식의 기본이 되는 소재이므로 앞으로도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재라고 판단됨. 다만 시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컨셉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주제(장류)와 관련한 고추장 비빔밥 만들기, 장류 주먹밥 모자이크, 임금님 진상행렬, 떡볶이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킬러 콘텐츠로 제시하고 있음 ○ 이들 프로그램 중 장류 주먹밥 만들기, 임금님 진상행렬 등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람객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임금님 진상행렬의 경우 퍼레이드 참가자들의 복장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잘 준비하여 행사의 진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가됨 ○ 또한 가족 떡볶이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도 방문객들이 꾸준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 ○ 야간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장류마을 좀비야 놀자, 한옥 EDM 불빛쇼 등)도 방문객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높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일부 킬러 콘텐츠(장류 캐릭터 메주 만들기 등)에는 참여자들이 적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참여가 적었던 프로그램의 경우 관람객들의 관심도 등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낮은 프로그램으로 판단되면 과감하게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들의 참여가 적은 신규 프로그램들을 계속 기획하기 보다는 축제에서 관람객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축제의 캐릭터가 있으나 활용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축제 캐릭터를 대형 인형 등으로 만들어 홍보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사장 내 정원에 설치했던 실제 고추를 활용한 고추잡자리 모형 등은 축제의 주제와도 부합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평가됨. 비록 크기는 작더라도 축제 주제와의 연관성이 높고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적 성격의 캐릭터 등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어린이 장류 그림그리기 대회’는 축제장 안내판에는 민속마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순창 장류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등 정보가 불확실한 부분도 있었음 ○ 축제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순창군의 다른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의 규모, 관람객 수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축제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들도 축제의 운영자이자 관람객으로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각 마을별로 배정된 부스도 활발하게 운영되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순창 5대 명창 추모공연, 순창 농요 금과 들소리 공연 등)에는 관람객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관람객들의 위한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음. 특히 다른 축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동화장실 가림막, 흡연자를 위한 흡연 공간 등은 모범 사례로 판단됨 ○ 축제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됨 ○ 순창장류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공간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공간에서 개인 사업자가 계속하여 품바공연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무대에서 진행되는 축제 행사의 집중도가 떨어짐 - 또한 주무대 근처에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어 고추장 민속마을 내부로 관람객들이 확산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축제 공간을 이원화 하는 방안을 제안함. 축제장 방문객을 크게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 구분해 보면 지역주민들은 상호 교류 및 단합 등이 축제 방문의 주요 목적임. 한편 관광객은 우수한 품질의 순창 장류를 체험하고 구매하는 것이 주요 방문 목적임 - 이러한 방문객 특성을 고려하여 2016년 축제장의 주무대 주변은 지역주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간(읍면별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지역 기관 및 단체들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함 -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모두 고추장 민속마을 내부에 조성함으로써 축제의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관광객들의 체험, 제품 구매 등의 활성화를 유도함 - 2016년 축제의 경우 일부 킬러 콘텐츠들은 주무대 옆에 조성하였으나 관람객들의 참여가 많지 않았음 - 한편 고추장 민속마을 내에는 축제의 주제와 관련성이 다소 낮은 프로그램(추억의 거리, 지구촌 문화체험, 전래놀이 등) 공간들이 위치해 있어 축제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관람객들의 이동을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고추장 민속마을 내 차량을 통제하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축제 주제(장류)와 관련된 킬러 콘텐츠는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진행하고 기타 프로그램은 민속마을 외부에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높은 소재라고 판단됨 ○ 다만 시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장류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공간으로 축제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순창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순창장류축제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강력하고, 축제 관계자들도 축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순창군의 육성 의지에 다양한 장류 콘텐츠를 보완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일간 진행되는 축제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야간 프로그램 등 체류 연장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들도 일정정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 순창군 외부 방문객들이 장류, 반찬류 등을 구매하여 지역에도 직접적인 기여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축제장의 성격상 방문객을 집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나, 일부 지점에서는 집계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집계활동을 하지 않는 모습도 확인되어 보완이 필요함

25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1) 개요

■ 기간 : 2016년 9월 23일(금) ~ 9월 25(일), 3일간

■ 장소 :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 주최 : 완주군

■ 주관 : 와일드푸드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연프로그램 : 개막식 및 축하공연, 폐막공연, 상상마칭밴드 퍼레이드, 와일드 쿠키쇼, 태권도시범, 자매도시회안시공연, 가족노래자랑, 전국청소년춤경연, 코스프레경연대회, 뽕짝밴드 등
- 로컬푸드나라 : 특색있는 마을음식 맛 체험, 농특산물판매장터, 와푸기념품숍, 무궁화전시관, 반짝반짝 신바람매점, 로컬푸드 쿠키클래스, 가족사랑 으뜸 요일 대회 등
- 와일드나라 :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미꾸라지&메뚜기잡기, 우렁잡기, 족대체험, 와일드물놀이터, 화덕체험, 화덕꼬치구이, 감자삼국, 화덕만들기, 와일드 별별음식체험, 지렁이축각체험 등
- 향수나라 : 8미 음식점, 화전부치기, 팔죽 끓이기, 전래놀이나라, 밥풀과자와 뽕순이, 7080 추억의 먹거리, 리틀와푸족체험, 전통주시연, 전통목공체험 등
- 문화체험나라 : 다문화음식체험, 도자기만들기, 천연염색하기, 다식만들기, 제과·제빵체험, 아생압화만들기, 한지만들기체험, 나무목공체험, 가족팔찌,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에어브러쉬 등
- 와일드놀이터 : 모래놀이터, 통나무놀이터, 벗집미끄럼틀, 로빈훗놀이, 정글짚체험, 동물농장, 캐리커처 등
- 향수나라 : 옛날인형극장, 차체험장, 만경강수변생태과학전시관, 와푸미술관, 힐링음악회, 무궁화 숲 해설사 등

(2) 총 평

■ 잘된 점

-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축제 이름에 걸맞게 야생성을 강조하는 콘텐츠들을 개발하였고 특히 야외에서 만들어 먹었던 지역의 음식들을 소개함으로 완주군의 로컬푸드를 축제에 소재로 활용되었고 이는 판매로 이어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와일드라는 단어로 인해 거침, 자연 그대로를 연상하게 되는데 축제장을 아기자기하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LED 아치형의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간판, 완주군의 대표 농산물인 감을 형상화한 전등, 색깔을 다르게 배치한 천막 등이 휴양림의 나무들과 어우러져 축제장의 아름다움이 더해 짐
-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13개 읍면과 마을단위로 축제에 직접 참여하였는데 이는 축제를 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마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가지고 축제에 활용한 것과 몇 개월 전에 오랜 회의를 거쳐 마을마다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축제에 참여하는 등은 지역주민이 축제에 대한 애정과 성공기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장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변지역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주차장부터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과 승용차 주차장, 대형버스 주차장 등을 구분하여 주차시킴으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여 혼잡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도로가 좁아 발생하는 혼잡으로 인해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음. 좁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축제 대표 프로그램이 천렵체험과 화덕체험인데 이는 맨손으로 송어를 잡아 직접 화덕을 이용해 요리해서 먹는 체험으로 이러한 체험들은 많은 타 축제들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 완주와일드푸드축제만의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차라리 감자삼국과 같은 독특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하여 이를 대표프로그램으로 육성한다면 확실한 차별화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천렵 및 화덕체험, 감자삼굿과 같은 원시적 조리방법 재현 등의 와일드체험, 완주의 청정자연 환경과 한국적 방법의 로컬푸드를 소개하는 와일드푸드, 7080 교실의 향수체험 등을 통하여 ‘야생버라이어티축제’로 관광객의 재미와 높은 몰입도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음 ○ 로컬푸드 음식나라는 각 읍면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으로 13개 읍면의 음식을 달리하기 위해 오랜 기간 회의를 거쳐 선정하였고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그 결정을 지키는 등 기획 단계부터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진행된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농특산물나라, 로컬푸드나라, 와일드나라, 향수나라, 문화체험나라, 식물나라를 구분지어 휴양림의 자연환경과 적절하게 배치함으로 돌아가며 체험하는 재미를 더했으며 장소 활용도 잘 기획된 축제임.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야생버라이어티축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로컬푸드와 야생에서의 체험을 잘 조화시켜 와일드푸드로 형상화하여 축제의 특성을 한껏 잘 살린 축제임 ○ 축제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연령층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타 축제는 어린이들의 체험프로그램들이 다수라면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노·장년층들로 다양한 체험거리 준비하여 즐거움과 과거 회상의 기회를 부여함 ○ 축제의 발전을 위해 계란밥구이체험, 물고기통구이, 수상줄다리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강화방안을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피드백화 하는 것은 프로그램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축제의 특성이나 콘텐츠를 확실히 알릴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을 다시 논의하였으면 함. 현재 천렵체험과 화덕체험이 대표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타축제에서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듦. 차라리 감자삼굿의 규모를 키우고 이를 대표프로그램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면 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의 농특산물 판매부스, 로컬푸드 음식나라 부스, 음식체험부스 등에 각 읍면별, 각 마을별로 참여하여 운영하였고 서로 상호의논하여 다툼 없이 운영하는 것은 다른 축제에서도 배워야할 훌륭한 모델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내 차량 혼잡을 대비하기 위해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여 주차를 유도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축제장에 들어오도록 하는 등 안내시스템은 잘 되어 있었으나 축제장 진입도로 자체가 좁아 어쩔 수 없는 차량 혼잡이 진행되었고 또한 편도 1차선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어 혼잡이 가중됨으로 차후에는 경찰의 도움 받아 도로변 주차를 최대한 방지한다면 조금이나마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인터체인지부터 축제장 안내 표지판이 준비되어 있었고 축제장을 향하는 도로 중간마다 남은 거리와 방향을 알려줌으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배려가 뛰어남 ○ 지난해 축제프로그램 중 오리와 닭을 혼제하기 위해 피워놓은 불의 열기와 연기로 나무 일부가 죽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번 축제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여 방문객이 우려스런 이야기들이 있었음. 이러한 부분들은 혼제장소를 재빨리 이동시키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음 ○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 동반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았는데 아쉬운 부분은 흡연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몇몇 흡연자들이 이동하며 흡연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부모님과 아이들은 담배연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 있었음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 와일드푸드축제는 짧은 역사에 비해 유망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치단체장이 축제기간 매일 축제장을 방문하여 축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것과 군 공무원들의 업무분담을 통해 차질 없이 축제를 진행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참여와 자원봉사 등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함 ○ 최근 먹는 방송(먹방)과 힐링에 세간의 관심이 최고조로 음식(푸드)이라는 소재는 향후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 받을 것이며 게다가 와일드푸드라는 차별화된 컨셉이 자리 잡으며 음식관련 축제의 대표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까지 축제 발전의 견인차 중의 하나가 관주도의 축제였다면 앞으로는 민간주도의 축제로 서서히 변모해 가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의 가장 큰 성과는 3일 동안 1억2천516만원 상당의 농특산품 판매로 전년대비 63.3%의 증가율을 보임으로 농가에 실제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음. 그 동안 읍면별 부스운영 방식을 탈피해 농가별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직접 공무원들이 현지 실사 후 최상급의 농특산품을 판매하도록 한 노력의 결실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 와일드푸드축제는 매년 새로운 시도로 방문객의 만족을 높여 왔음. 이번 축제에서는 계란껍질밥체험, 와일드 수상줄다리기, 물고기 통구이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재미와 즐거움을 주었고 특히,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구성되는 와일드놀이터는 전년도 통나무놀이터 컨셉에서 정글짐과 짚라인 컨셉으로 구성·운영하여 어린이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 ○ 이번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의 증가는 크지 않았는데 빈자리가 드러난 폐막식, 천렵체험 중에 노출된 불만 등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여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6

고창 모양성제

(1) 개요

■ 기 간 : 2016. 10.5(수) ~ 10.9(일)

■ 장 소 : 모양성(고창읍성) 및 시가지 일원

■ 주 최 : (사)모양성보존회

■ 주 관 : 고창군 각급 사회단체

■ 주요행사

- 공식행사 - 개막 출정 퍼레이드, 답성놀이 재현, 강강술래 시연, 개막식, 고을기 올림행사, 개막 퍼포먼스, 주제공연(모양성의 북소리), 불꽃놀이
- 전통양식 재현행사 - 수문장 교대식, 교열의식, 순라군 활동재연, 경점시보 의식, 원님 부임행사, 성황제, 전통혼례, 관광객과 함께하는 야간 강강술래 시연, 강강술래 경연대회
- 문화공연 - 전통타악 퍼포먼스, 아마추어 소리꾼 경연대회, 국악 비보이 공연, 거리공연, 군악대 공연, 태권도 시범단 공연, 7080 밴드 열전, 모양성 전국 노래자랑, 야간 강강술래 / 마당극
- 체험행사 - 병영체험 테마파크(전통현대병영 체험), 무예시범, 옥사체험, 민속놀이 체험(팽이, 활, 투호, 윷놀이), 전통문화체험(복식체험, 서예체험, 짚신, 미투리 엮기)
- 전시 / 경연 / 먹거리 - 전국 모양성 사진대회(사진작가 부문, 아마추어부문), 전투식량 체험

(2) 총 평

■ 잘된 점

- 고창군에서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축제 공간을 마련한 것이 인상적이었음. 축제를 연출하기 위한 장소성이 탁월함.
-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시설이 잘 확보되어 주차로 인한 문제가 없음.
- 주변 지역에 관광객들이 전통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지역의 온천

을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좋음.

- 흔히 축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폭리를 취하는 곳이 없음.
- 축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거리 유지(청소를 담당하는 분들이 조를 나누어 축제 주변지역을 수시로 청소 및 쓰레기 수거)
- 관광객들이 함께 축제에 동참하기가 수월한 전통 놀이 체험이 다양함.
-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역사 유물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호국 정신을 심어주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다양함.
- 경품 추첨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푸짐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매력을 상승시키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고창읍성 내에는 모양성의 유래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는데, 정작 축제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
- 다양한 국가들의 전통을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들과 접촉할 필요성이 제기됨. 우리나라 전통 문화로만 진행되다 보니, 볼거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다양한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도약할 필요성이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과 신명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강강술래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고,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을 참여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음 ○ 역사적으로 선인들의 호국정신을 배울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역사 유물인 모양성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시키면서 관광객들이 호국정신과 전통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높이 평가 됨 ○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축제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공간을 조성하였고,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성이 매우 탁월함 ○ 축제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도 매우 좋으며, 현대식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전통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주변에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지역만의 정체성과 특이성을 살릴 수 있는 소재 그에 따른 주제를 잘 활용하면서 외부 지역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효과를 보고 있으며, 아울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현대인들이 쉽게 체험할 수 없는 ‘답성놀이’와 대규모 ‘강강술래’는 관광객들을 유인하기에 매우 좋은 프로그램임 ○ 축제가 진행되는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단체건물들(문화예술회관 등)이 모여 있어서 축제 관련성이 매우 좋음 ○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체험 불가능한 다양한 전통 놀이 체험(무예시범, 옥사체험, 짚신, 미투리 엮기, 전통공예 체험, 다도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이채로움 ○ 외부 관광객들이 직접 고창의 특산품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주제에 맞게 모든 축제 프로그램이 전통, 역사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관광객들에게 선사하고 있음 ○ 고창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을 효과적으로 살리면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즐길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가 많음 ○ 가족단위 및 연인들 중심의 관광객 참여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참여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확장시킴 ○ 공연행사의 출연진도 고창 출신의 가수들과 타 지역 가수들을 적절히 배합시켜서 지역에 대한 향토 사랑과 타 지역에 대한 수용을 동시에 제시해주는 재미를 선사하면서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음 ○ 축제가 진행되는 주변에 관광객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는 부스를 마련하여 사은품을 줌으로써 끊임없이 축제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였음 ○ 대규모 강강술래는 지역 주민이 아닌 관광객들도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면서 지역주민과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만큼 호응이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었음 ○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겨냥하여 전통 지역 특산품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전통 먹거리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면에서 효과적인 지역 특산품 홍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주변 지역에 있는 온천 체험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행사로 진행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 공연 행사뿐만 아니라 직접 관광객들이 모양성을 체험하고 알아주는 체험 행사를 통해서 모양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유물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음 ○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연령층별, 성별 만족도를 상승시킴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축제 구역마다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주변 지역을 청소하심으로써 휴지 조각 하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함과 청결 상태를 확보하고 있었음 ○ 축제 공간과 다양한 예술 관련 건물과 전통 체험 부스가 많아서 관광객들의 구미에 맞는 체험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음 ○ 지역 주민들이 모양성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여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축제 주변에 필요한 화장실이 이동 화장실을 비롯하여 주변 건물 곳곳에 설치되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었음, 단 여성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화장실에 비상벨 시스템은 제공되지 않았음 ○ 축제 공간 주변에 관련 건물들이 위치함으로써 우천 시에도 축제 프로그램을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축제 공간이 집약되어 축제의 집중도가 매우 좋아서 관광객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제시됨으로써 탁월한 장소성을 자랑하고 있음 ○ 먹거리 공간이 다른 축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타 지역 축제 공간의 먹거리와 구분되는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었음 ○ 먹거리 공간에서 품바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먹거리와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였고,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일조를 함 ○ 고창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 행사를 다양하게 확보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축제를 승화시키는 것이 돋보임 ○ 푸짐한 경품을 내놓음으로써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축제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키고, 축제를 흥미롭게 이끌어가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며, 먹거리, 놀거리가 다양하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축제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아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고창군 주민들이 축제 프로그램에 대규모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모양성 축제가 호국정신과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을 주제로 하는 만큼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축제에 대한 평가를 받는 부스를 배치하고, 선물을 줌으로써 관광객들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향후 발전의 토대를 삼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발전적임 ○ 축제 주변 곳곳에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수시로 축제의 문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음 ○ 축제의 주제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개발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향후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 단조롭고 색다른 전통이나 가치 체험의 측면에서 한계성을 지닐 수 있음 ○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인 만큼 지역 전통 문화 유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통 문화를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를 추진하여 향후 국제적인 규모로 발전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이번 축제부터 일본의 전통 축제 팀과 교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음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명한 가을에 관광객들이 단순한 관광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아니라 함께 즐기고 먹고, 공유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창출해냄으로써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관광객들에게도 축제의 즐거움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쾌한 놀이문화를 제공함 ○ 고창 지역의 관광 문화자원인 모양성을 핵심 주제로 하면서 주변의 관광지를 연결시키면서 관광객들의 호응도를 높이고 있음 ○ 고창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인 만큼 수도권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고, 도시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음 ○ 모양성 축제가 고창지역의 농산물과 활용 가능한 관광자원의 상품화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 봉화지역 주민 전체의 단합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봉화 은어축제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축제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적인 의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통놀이로 체험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추어 놓음으로써 재미와 함께 전통 문화의 가치와 선조들의 놀이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적 가치가 매우 높음

27

강진 청자축제

(1) 개요

■ 기간 : 2016년 7월 30일(토) ~ 8월 7일(일)

■ 장소 : 강진군 청자촌

■ 주최 : 강진군

■ 주관 :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기획행사(13) : 청자야 반갑다, 한·중 도자기 교류전, 명품청자 전시·판매전 전국 대학생 물레성형, 경진대회 및 작품 전시, 전국 화목가마 장작패기 대회, 화목가마 요출 및 즉석경매, 화목가마 불지피기, 토크쇼! 청자 장인과의 만남 등
- 전시행사(6) :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 역대 청자포스터 전시, 대형 청자조형물 전시, 강진산 고려청자 국보(보물) 재현품 전시, 조선민화 특별전, 전국 대학생 도예작품전, 고려청자 특별전 등
- 체험·놀이행사(10) : 고려청자 머그컵 낚시 체험, 열기구 탑승 체험, 물레 성형하기, 청자 조각하기 체험, 청자 코일링 체험, 청자 소망그림 채색체험, 청자축제 캐릭터 만들기, 청자 트릭아트 체험 등
- 공연행사(16) : 출향인 재능기부 축하 공연, 호남문화 연예단 공연, 무등에버그린 악단 공연, 관광객과 함께하는 청자운반행렬, 즐기자! 버스킹!(길거리공연), 청자와 시가 만나는 아름다운 강진의 별밤 등
- 부대행사(18) : 명품청자판매 이벤트존 운영, 다문화가정 전통 혼례식, 동물농장 운영, 잉어 등 물고기 먹기주기 체험, 다문화가정 한마당 큰잔치, 향토음식관 운영, 강진 향토물산 특별전, 타임머신 청자 우체통 운영 등
- 어린이 복합놀이 공간(14) : 어린이 재롱잔치 경연대회, 어린이와 함께하는 신기한 마술쇼, 어린이 치어리딩 초청 공연, 고려청자 사적지 유물 발굴 체험, 행운을 찾아라 이벤트, 놀이공간 고령토 밟기 체험, 고려청자 도공 전기물레 돌리기 체험, 고려청자 접시 깨기 체험 등
- 연계행사(5) : 국내 도예작가 작품 초대전(아트홀), 김억추 장군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양무정), 다산 특별전(다산기념관), 쏘잡기 체험, 청자배 광주·전남 남녀 궁도대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낭만콘서트 등

(2) 총 평

■ 잘된 점

-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주제
 - 우리나라의 대표적 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는 청자를 주제로 기획된 축제로 대표성 및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광객 휴게·편의시설 확충
 - 2015년 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이었던 관광객 휴게시설,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등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함
 - 예를 들어, 상설무대~한옥청자판매장, 조경공원~동문 물놀이 시설 등에 차광막 설치, 오색 우산그늘, 썬넷(그늘막) 설치 등 여름철 무더위 및 직사광선 해결을 위한 해가림시설 확대 설치함
 - 또한, 하우스 스프링쿨러 인공비 시설, 하우스 개조 냉방 휴게시설(실개천 휴게 테이블 및 벤치, 파고라형 그늘막, 흡연실 등), 그늘에 가족단위 쉼터 평상 20개 설치 등 관광객을 휴게·편의시설을 확충함
-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 확충
 - 2,500평에 해바라기·상사화·메리골드·사피니아 등 꽃 식재, 대형화분(300개) 및 꽃탑(1개소) 설치, 해바라기·코스모스 꽃길 조성 등 축제장에 다양한 꽃을 식재함으로써 경관을 개선시킴. 아울러, 포토존도 함께 조성함
 - 대형청자 동산 야간 조명, 도예문화원 앞 분수대 조명, 닝쿨터널 야간용 LED 조명 등 야간 체류객 유치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함
- 안내체계 개선 및 확충
 - 방문객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4개소 설치하고 방문객 이동 동선에 다양한 안내시설을 확충함. 아울러,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표기를 2015년에 비해 강화함
- 지역민 참여 확대
 - 2015년에 비해 개막식 등 행사에서 격려사, 축하, 인사말 등을 간소화하고 주요 참석자 소개는 영상화면 자막으로 대체함
 - 또한, 대중연예인 참여 공연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주민의식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공연을 추진함(강진음악인, 문화예술인, 읍면 주민자치센

터, 노인대학, 청소년 동아리, 어린이, 지역 전통민속놀이 등)

- 향토음식관 개선 및 음식 만족도 제고 노력
 - 2015년 평가위원의 지적사항이었던 향토음식관 개선을 위하여 입점업체 수를 축소하고 기존 간식동을 향토음식관으로 통합하고 시설 청결도, 음식만족 제고, 에어컨시설 확대 등을 추진함
-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변화 노력
 - 2015년 축제 후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객 참여가 저조했던 프로그램 23개를 폐지하고 2016년 7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에 반영함
-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어린이 놀이터 키즈 존, 어린이 체험부스물놀이 체험장(에어바운스 2개소, 수영장, 열기구 체험장) 등 어린이 복합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청자골 어린이 재롱잔치 경연대회, 어린이들과 함께한 '워터 매직쇼', '워터 버블쇼' 등 신기한 마술쇼, 전남 치어리딩 협회 소속 어린이 치어리딩 팀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청자라는 훌륭한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함. 2016년 축제의 주제를 '흙불 그리고 사람'으로 설정했으나 주로 홍보하는 슬로건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청자 축제'였음. 어린이를 부각시키면서 어린이 재롱잔치 등 주제와 관련성 낮은 프로그램들이 다수 운영되었으며, 축제의 주제(흙불 그리고 사람)를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 주제관련 프로그램 충실성 제고
 - 청자라는 주제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화목가마 본별 요출', '관광객과 함께하는 청자운반행렬' 등이 있으나 프로그램 완성도가 낮다고 판단됨. '화목가마 본별 요출'은 축제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 판단되나 일반 관람객 참여는 거의 없으며 기관장 및 축제 주요 관계자 홍보 사진 촬영 성격이 강함. '청자운반행렬'도 역사적 고증 없이 기획된 것으로 판단됨(각설이 진행, 주최측 참가자들의 복장-운동화 착용 등, 청자 운반에 대한 내용 설명 부족 등)
- 지역 및 청자와 관련된 이야기 활용 필요
 - 강진이라는 지역이야기, 청자이야기 등 다양한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에 이를 표현하지 못하다는 느낌임. 축제 전반적으로 스토리 구상안이 필

요할 것이며 스토리 구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및 시설 배치가 실현되어야 관광객들이 축제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가 높아질 것임

- 축제 홍보마케팅 강화 필요
 - 강진군 곳곳에 축제 관련 현수막 등이 게시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게시되지 않아 오히려 지저분한 느낌을 주고 있음.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곳에 체계적으로 홍보물을 게시할 필요가 있음
- 축제의 지역 확산 방안 마련
 - 축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축제 기간 중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축제 참여자들이 강진군 지역으로 분산되어 지역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 스폰서십을 통한 재원 마련 필요
 -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고 스폰서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재원 마련 및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화천 산천어축제의 경우 쌍용 등 다양한 기업에 스폰서십을 강화하여 축제를 추진하고 있음
- 축제 시기에 대한 검토 필요
 - 축제가 매년 7-8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무더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 청자 체험이 시기에 제한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5월 여행주간이나 날씨가 좋은 가을에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가 필요할 듯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에 부합하는 기획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소재(청자) 및 주제(흙·불, 그리고 사람)와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충실하게 계획하고, 관련성은 낮지만 방문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어린이 관련 프로그램 등)도 축제의 소재 및 주제와 연관된 기획이 필요함 ○ 축제 자유이용권 발행·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이용권 10만매를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함. 청자구입 전용쿠폰은 축제 전 한옥판매장 이용, 축제기간 전 매장 청자구입 등이 가능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복합놀이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함 ○ 축제 시기에 대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가 매년 7-8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무더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 청자 체험이 시기에 제한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5월 여행주간이나 날씨가 좋은 가을에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가 필요할 듯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주제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대표적 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는 청자를 주제로 기획된 축제에 대표성 및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됨 ○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 식재, 대형화분 및 꽃탑 설치, 꽃길 조성 등 축제장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야간용 LED 조명 등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함 ○ 지역 및 청자와 관련된 이야기 활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이라는 지역이야기, 청자이야기 등 다양한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강진도자기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 공간을 구상할 수 있는 스토리 구상이 필요함 - 이 스토리 구상/디자인을 통해 전체 축제의 시설, 프로그램, 관광객 동선 등이 상호 연결될 수 있을 것임 ○ 청자 등 사전 판매계획 공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자 물레 체험, 청자 판매 등은 방문객 호응도 높고 축제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소재라고 판단됨. 다만 청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전에 방문객들이 가격을 알고 구매를 계획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목가마 본별 요출, 청자 운반 행렬 등은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키울 수 있는 소재라 판단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대폭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휴게·편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광막 설치, 오색 우산그늘, 쉼넷(그늘막) 설치 등 해가림시설 확대 및 냉방 휴게시설, 쉼터 평상 등 휴게·편의시설을 확충함 ○ 안내체계 개선 및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방문객 이동 동선에 다양한 안내시설을 확충. 아울러,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표기를 2015년에 비해 강화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발전을 위한 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 청자 축제 발전을 위하여 외부 민간 전문가를 축제 담당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함 ○ 방문객 숙박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들의 숙박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토캠핑장(야영사이트 43개소, 캐라반 14개소, 취사 및 샤워시설, 운동시설 등)을 조성함 ○ 축제장의 방대한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공간 대비 방문객 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 행사 운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편의시설의 디자인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햇빛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시각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색상, 디자인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변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축제 후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객 참여가 저조했던 프로그램 23개를 폐지하고 2016년 7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에 반영함 ○ 민간 전문 인력 보강과 함께 정부의 기획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자라는 매우 좋은 소재를 갖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등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민간 전문 인력을 보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 기획 등을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관기관 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 서울시(서울관광마케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임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지역 확산 및 지속적인 지역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축제 기간 중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축제 참여자들이 강진군 전역으로 분산되어 전체 지역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28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년 4월 7일(목) - 4월 10일(일) 4일간

■ 장 소 :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 주 최 : 진도군

■ 주 관 :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 주요행사

- 주요 행사 : 신비의 바닷길 체험, 새벽 바닷길 횃불 퍼레이드, 뽕할머니 소망띠 잇기, 영등상 놀이 (뽕할머니 전설재현 3종), 뽕할머니 가족 대행진, 2017년 만남기원 풍등 날리기
- 공연 행사 : 개막퍼포먼스, 진도무형문화재 공연(8종), 문화교류공연, 진도 문화예술단체 공연, 진돗개 무대공연, 바라지 공연 “진도의 꿈” 글로벌 투게더, 글로벌 음악여행, 해상공연, 진도읍 야간공연
- 부대 행사 : 열려라 무지개 길! (Holi hai), 해상선박 퍼레이드, 뽕할머니 전설 어린이 인형극, 수상오토바이 퍼레이드, 진도 전통 민속 주막, 섬마을 라이브 카페, 진도아리랑 부르기 콘테스트, 뽕할머니 갖고 거리 퍼포먼스, 국제학술 심포지엄, 진도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울돌목 트로트 페스티벌, 시골마을로 가는 축제(1박2일 체험), 진도 관광버스 체험
- 체험 행사 : 진도 무형문화재 체험, 진돗개 체험, 명인에게 배우는 서화 체험, 나만의 인형만들기 체험, 신비의 도자기 만들기 체험, 소원.소망띠 달기, 짬뽕공예 및 한국전통문화 체험, 뽕할머니 신호연 만들기, 외국인 전통문화 체험, 니모의 꿈(물고기 방류), 그림과 소원문으로 바닷길을 열자, 신비의 해수 족욕 체험
- 전시 행사 : 난.야생화 전시회, 관광진도 사진 전시회
- 연계 행사 : 금요상설공연, 울돌목 주말장터, 토요일그림경매, 진돗개경주

(2) 총 평

■ 잘된 점

- 제 38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란 주제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지향하며, 지역민의 자긍심과 화합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함
-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와 지자체,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협력체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발효과가 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라 사료됨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전통의 보존과 함께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도, 평가와 분석이라는 반복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 운영, 안내, 외국인 수용태세, 쇼핑, 먹거리, 숙박 및 연계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항목 검토 등 축제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축제라 사료됨
- 홍보 및 모객부터 각종 레이아웃이나 프로그램의 콘텐츠까지 외국인 방문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치로 미루어 볼 때, 글로벌 축제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라 사료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자연 자원과 더불어 축제의 방향성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잘 발달되었으나 운영적인 디테일이 아쉬운 축제로, 축제의 컨셉과 운영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 축제 주제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외에 축제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전체 축제장이 스토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제장 공간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주요 방문객은 외국인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연령층 확보를 위한 연령대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장 주변 인프라(숙박, 교통)를 보완하여 글로벌화에 이은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됨
- 축제의 메인 콘텐츠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생태적 속성을 가진 축제로 장기적으로 축제의 장래성을 위협하는 요인인 갯벌의 유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적 지속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회를 이어오는 동안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제의 전반적인 세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계획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됨 ○ 더 많은 외국인 참가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편의시설 확충 및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함 ○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를 주제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고, 축제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임무,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 계획, 분야별 추진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평가됨 ○ 뽕할머니 전설을 스토리텔링 한 어린이 인형극, 남도의 소리 등 주제와 부합된 다양한 공연기획이 우수함 ○ 신비의 바닷길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진도 특산품 판매장의 실명제 등의 기획력이 돋보임 ○ 축제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내도와 날짜별 알기 쉽게 구성한 프로그램 타임테이블, 뽕할머니 전설을 삽입한 축제 팸플릿의 기획력이 우수함 ○ 외국인 유치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내 젊은 층을 축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방향에 대한 기획이 필요함 ○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라 판단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진 바닷길이 열리고 그곳을 내국인과 외국인이 햇불을 들고 걷는 프로그램은 국제적이며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바다를 활용한 한국적 콘텐츠의 성공사례로 사료됨 ○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배를 동원하여 선상공연을 하며 축제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의 예술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진도의 명물인 진돗개 공연과 진돗개를 만져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방문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 ○ 소망띠 잇기 프로그램은 뽕할머니의 헤어진 가족에 대한 만남의 염원을 대신하여 축제방문객의 염원을 담아 회동과 모도에서 각각 출발하여 만나는 지점에서 떠를 이으면서 소원을 기원하는 체험행사로 대표 프로그램인 바닷길 햇불 퍼레이드의 완성도를 높여준 프로그램이라 사료됨 ○ 국내 여자 씨름선수와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한판 대결인 ‘글로벌 씨름대회’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으나 경기 전에 씨름의 의미와 간단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치를 더할 것으로 기대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군 내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켜 운영인력을 확충하였으며, 학생들은 축제 참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자발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인 해상풍물 뱃놀이와 해상선박 퍼레이드는 도사에서 온 관광객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상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또한, 육지에서 떨어진 바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깃발 크기를 키우고 글로벌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요 국가의 국기를 계양하는 등 프로그램을 위한 연출이 필요함 ○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비의 바닷길 햇불 퍼레이드는 보다 장엄하고 신비롭고 신명나게 연출하여 시각, 청각, 감각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단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행사 참여가 돋보이는 축제로 국제적인 축제에 걸맞게 외국을 배려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된 팸플릿과 각국의 언어가 능통한 통역원들을 종합안내소 마다 배치하여 외국인들의 편의제공 및 축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 축제 행사장 내외의 다양한 옥외 홍보물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방송 및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최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주목받는 SNS를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방문객 유치에 노력함 ○ 축제장 양쪽 끝 외부로 먹거리 장터를 이동시켜 축제장 내 혼잡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차장 또한 취지는 같았으나 관리부족으로 축제장 안으로 많은 차량이 진입하여 불편을 초래함 ○ 체험프로그램 중 뽕할머니 신호연 만들기는 주제와 연결된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연을 만드는 공간과 만든 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뽕할머니 열차는 몸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열차의 이용대상과 이동범위를 확장하여 주차장에서 축제장, 축제장과 축제장을 운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통악기 체험과 진도 아리랑 배우기 부스는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체험과 실질적인 강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래와 춤사위를 보여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조성함 ○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장 인근의 유명 관광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윤림산방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미술품 경매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주제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외에 축제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전체 축제장이 스토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제장 공간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연장 및 주차장의 시설투자로 대부분의 축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되었으며 다수의 주차 안내 인원을 배치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한 축제운영이 돋보임 ○ 글로벌 존 중앙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시간대 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무대 뒤 배경은 변화 없이 처음 공연을 안내하고 있는 등 디테일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함. 하나의 현수막에 스티커로 붙였다 떼어내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각 공연에 맞는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대 구성이 필요하다 판단됨 ○ 깔끔한 천막으로 통일된 진도군이 관리하는 행사장 내의 상업 시설과 비교하여, 사유지의 잡상인들이 만들어 내는 소음과 혼잡함은 축제의 질을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바닷길 햇불 퍼레이드 진행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 주민의 협조를 받은 어선 및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급하게 물이 들어오는 바다에서 안전요원의 구분되지 않아 관광객들을 복귀시키는 데 어려움을 초래함. 이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됨 ○ 몽골텐트의 색이 통일되어서 비교적 차분한 시각적 효과를 주었지만, 통일성 없는 글씨체를 보완하기 위해 진도체와 같은 서체를 개발하여 일관성 있게 축제장 전체에 사용한다면 안정감 있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글로벌 존의 경우 많은 외국인들이 술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으므로 병으로 된 주류는 금지하고 야간 프로그램과 새벽 바닷길 체험에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함 ○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열리는 자연 생태적 축제로 자연현상을 직접 보면서 바닷길을 건너는 경험은 매우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지속성을 위해 일부 참가자들이 바닷길을 호미 등으로 파헤치는 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함 ○ 회동공연장에서 글로벌 존까지 각 축제장을 연결하는 해안도로에 다양한 체험부스나, 간단한 먹거리, 또는 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대표 프로그램인 새벽 바닷길 햇불 퍼레이드는 가장 인기있는 메인 프로그램으로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간단한 사전 프로그램 운영이나 혹은 퍼레이드가 끝나고 흐지부지 떠나기 보다는 일출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메인 프로그램을 확장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길 체험을 위해 관람객의 대부분이 장화를 구입하여 착용하였고 체험이 끝난 후 재활용이나 수거 용기가 따로 준비되지 않아 여기저기 버려지는 등 자연자원을 매체로 한 축제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운영으로 가급적이면 장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회수된 장화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서 38년의 노하우를 발판으로 진도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유도형 축제로의 전환 목표설정이 요구됨 ○ 축제 개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진행에 있어 체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축제 관계자들의 역할이 잘 구분되어 진행이 원활하고 협조적이며, 특히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공무원들의 협력이 돋보임 ○ 더욱이 대표 프로그램이 특수한 자연적 현상을 바탕으로 한 특정시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방문객이 특정시간에 집중되어 행사진행 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운 운영을 보여준 진도군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돋보임 ○ 현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 숙박의 양적, 질적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캐리반, 캠핑장과 같은 시설의 보급과 농촌민박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됨 ○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높은 만큼 외국인 수용태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타 축제에 비해 팸플릿이나 통역 부분에서 우수한 수용태세를 보이고 있으나 각종 홍보물과 부스의 안내문, 특산물 판매점과 음식점들의 가격 및 내용 또한 외국어로 기재하여 바가지 가격을 예방하고 특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이후의 축제의 방향성과 발전 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을 통해 국제화 및 축제 브랜드화를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부터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라 사료됨 ○ 향후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의 궁극적인 주체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축제 아카데미와 전문가를 결합하여 교육하고 논의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메인 콘텐츠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생태적 속성을 가진 축제로 장기적으로 축제의 장래성을 위협하는 요인인 갯벌의 유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적 지속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프로그램 연출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감독이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설정하고 책임 있는 총괄 연출을 지시하는 축제 전문인력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함 ○ 콘텐츠는 우수하나 축제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먹거리 개발과 축제 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 할 필요성을 제시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사후 평가에서 59만명이 방문하였고, 외국인 관광객 8만 5천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메인 프로그램인 바닷길 횡불 퍼레이드에는 2천 여명이 참석한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제시함 ○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및 다양한 홍보 전략과 여행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노력으로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방문객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도 성장가능성 있는 축제라 사료됨 ○ 수도권과 거리적으로 멀다는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기대보다 많은 내 외국인들의 방문은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독특성이 반영된다면 접근성과는 무관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 축제로 지속적으로 대표 프로그램을 서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여행사들이 자체 축제여행상품을 기획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을 모집하여 1박 2일 상품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등 본 축제의 인지도와 매력성이 여행상품 판매로 나타나는 성과를 보임 ○ 방문객 집계는 기획서에 명시한 대로 축제장 내로 진입하는 두 개의 출입구를 기준 범위로 각 부스별 두 명의 측정 요원이 배치되어 핸드계수기를 이용한 집계가 이루어짐

29

담양 대나무축제

(1) 개요

- 기간 : 2016. 5. 3(화) ~ 5. 8(일) / 6일간
- 장소 : 죽녹원(죽녹원 한옥체험장), 관방제림 일원
- 주제 : 『천년의 대숲 미래로, 세계로!』
- 주최 : 담양군
- 주관 :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군 산하기관 및 단체
- 주요행사
 - 운수대통이란 테마로 축제공간을 기획하여 주요 프로그램 배치
 - 운(運)의 공간
 - 70~80년대 죽물시장을 재현한 과거의 공간이자 땃고을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기획
 - 죽물시장 가는 길(퍼레이드), 가마솥 대통밥 체험, 죽신제, 운수대통 소망술 담그기, 대나무 물총만들기 체험, 죽취아리랑 공연, 대금연주단 어울림 공연 등
 - 수(數)의 공간
 - 대나무의 현재 모습을 표현한 공간이자 땃고을 산책과 힐링의 공간으로 기획
 - 건강 竹竹걷기 대회, 대나무 스토리 미션(7단계: 고사성어 퍼즐맞추기, 죽마고우, 만파식적: 대숲의 프로포즈, 파죽지세, 맹종지효, 우후죽순, 공명수죽백), 명품숲길 휴(休) 체험, 담양 별빛여행(명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산책), 죽취아리랑 플래시몹 등
 - 대(大)의 공간
 - 역시 대나무의 현재 모습을 표현한 공간이자 땃고을 신비체험의 공간으로 기획
 - 대소くり 물고기잡기, 대나무 활쏘기, 운수대통 소원패 달기, 대나무 뗏목타기, 대나무 카누 체험, 죽제품 제작체험, 대숲속의 외국인 원정대(k-pop공연) 등
 - 통(通)의 공간
 - 미래의 공간이자 땃고을 미래체험의 공간으로 기획

- 전국 대나무 공예대전 작품 전시, 국내외 유명 대나무작가 작품 전시 등

(2) 총 평

■ 잘된 점

- 대표 및 주요 프로그램을 모두 타축제와 차별적인 대나무를 소재로 구성하여 담양만의 고유한 생태환경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브랜드를 구축해 보려는 의도가 나타남. 예컨대, 대표 프로그램인 죽물시장 가는 길을 통하여 전통 생활양식의 재현과 장소성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보여주었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축제 소재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의도하였음.
- 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산하기관장 및 축제조직위 관계자의 축제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이러한 의지는 축제의 공간과 부스 배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방문객들의 편의성과 배려 등 축제기획 및 사소한 운영에도 투영되고 있어 향후 축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한편으로 원활한 주차 및 교통관리,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화장실 환경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으로 기억됨.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에서 축적된 것이며, 하천형 축제임을 고려할 때 주관부서의 지도와 방문객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음. 더욱이 하천형 축제는 야간 안전이 매우 중요함을 고려하여 산하단체(소방서, 의용소방대, 주부협의회 등)의 협조아래 안전시스템을 잘 구축하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표 프로그램인 죽물시장 가는 길의 완성도가 다소 낮아 보임. 가령 죽제품을 시장에 팔러가는 행렬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농약이 부각된 점, 죽물 행렬의 재현 보다 마을 홍보에 치중한 느낌(대전면 소두마을의 경우), 마을간 동일한 행렬이 다소 단조롭게 반복될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단절되어 방문객들의 몰입도를 저하시킨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주제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진정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자들의 복장, 연기, 죽제품 다양화 등에 대한 고증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축제조직위원회는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주제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관내 다문화 가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순조로운 정착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 출신국의 대나무 관련 축제를 발굴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함. 이와 더불어 담

양 별빛여행(명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산책)과 같은 교육적이고 감성적인 야간 프로그램도 더욱 확충하여 가족 단위 체류형 방문객들을 유치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축제 운영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안내방송과 대형 안내판이 미흡하여 팜플렛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축제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는 점을 아쉬운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의 소극적인 행동은 이들이 주로 공무원 신분인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나무라는 차별된 축제 소재를 통하여 담양만의 고유한 생태환경축제를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담양이라는 지역브랜드를 구축해 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축제의 목적과 소재에 부합하는 축제 콘텐츠를 기획한 노력이 역력하며, 축제를 발전시키려는 행위자(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축제운영위원회 등)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즉, 운수대통이란 테마로 축제공간을 과거·현재·미래로 구획하여 그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배치한 점, 축제의 소재를 중심으로 부스를 배치한 점, 수익성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축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한 점, 그리고 축제의 성장을 통하여 향후 대나무의 가치(문화예술적·환경적·교육적·관광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제별 대나무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하여 축제의 발전가능성을 판단하였음.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프로그램(죽물시장 가는 길)의 완성도 - 이 프로그램은 70~80년대 대나무로 만든 생활용품을 내다 팔러 시장으로 가는 행렬을 재현한 것임. 중장년 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다양한 축제품을 직접 볼 수 있고, 농악을 앞세워 마을별 특색있는 퍼레이드를 다채롭게 연출함으로써 축제 방문객들의 흥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 대표 프로그램 죽물시장 가는 길은 사라진 전통 생활양식의 재현과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악이 부각된 퍼레이드가 다소 단조롭고 산만한 인상을 주고 있음. 향후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과 방문객들의 몰입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축제품 다양화, 퍼레이드 소품이나 복장 및 연출 지도를 통한 진정성 제고, 행렬의 지속성 도모 등)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p>○ 축제 소재 및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매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프로그램이 대나무를 소재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특이성을 가짐. 예컨대, 대나무 악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인 죽취 아리랑 공연, 대나무 향기를 맡으며 죽녹원을 한바퀴 도는 竹竹 걷기대회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높은 만족을 주었음. 특히, 대소쿠리 물고기 잡기, 대나무를 활용한 뗏목과 카누 타기 등은 체험 프로그램으로써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보여주었음. 향후 방문객들의 높은 만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 프로그램의 질적 고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p>○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은 보조무대인 죽녹원 및 관방제림 일대 그리고 인접하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담양의 관광명소와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축제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담양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공간 설정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음. - 많지 않은 야간 체험프로그램 가운데 담양 별빛여행(명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산책)은 소규모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음. 특히, 이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써 남송창고(과거 정부미 보관창고를 개조한 문화공간)에서 공연된 대금 및 파이프 오르간 연주와 고전 무용의 앙상블은 모든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음.
3) 축제의 운영	<p>○ 축제 기획 전문성 및 행사장 운영 효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는 한 단계 도약하고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획 아래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예컨대,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제별 공간 구획 및 프로그램 배치, 방문객의 편의와 주제를 고려한 부스 배치, 집객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죽취아리랑 플래시몹)하되 대나무 악기로 구성한 점, 기타 화장실 가림막 등 부대시설 조차도 대나무 소재로 세심하게 기획하였음. - 그 간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가 축제운영에 잘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다만 행사장내 프로그램 안내판 및 안내방송이 미흡하여 팜플렛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친절하고 상냥하였으나 간혹 행동에 적극성 부족이 목격되기도 하였음. 예컨대, 대표 프로그램의 행렬 결으로 자전거가 지나가거나 주무대 보행통로에 주차(자전거 및 자동차, 행사진행 차량)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안내지도에도 소극적이었음. 아마도 자원봉사자의 상당수가 공무원이라 적극적인 제지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자원봉사자를 일반 주민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부서별로 추진하더라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p>○ 행사장 환경, 편의시설 및 안전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인상적이고 만족스러운 부분은 원활한 주차 및 교통관리로 평가할 수 있음. 하천형 축제라 공간적 여유가 있고 축제가 6일간 분산 개최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주관부서의 체계적인 지도와 방문객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수 있음. 또한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화장실 등이 매우 청결하여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안전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안전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음. 무엇보다 하천형 축제의 특성상 야간 안전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산하기관 및 시민단체(소방서, 의용소방대, 주부협 의회 등)의 지원으로 구축된 야간 순찰팀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였음. <p>○ 주민 참여 및 협조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높은 참여도를 보였음. 특히, 죽녹원 앞에서 진행된 죽취아리랑 플래시몹에서는 흥겨운 대금 연주에 맞춰 주민, 학생, 방문객들이 모두 한 몸으로 화합함으로써 문화관광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음. 향후 관내 다문화가정의 높은 비율을 고려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순조로운 정착을 통한 주민화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대안으로써 다문화 가정 출신국의 대나무 관련 축제 소재를 발굴해 볼 것을 제안함.
4) 축제 발전성	<p>○ 자치단체의 육성 의지와 재정자립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산하기관장 및 축제조직위 관계자 등이 축제장을 순회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하였으며, 재구성한 프로그램(죽취아리랑 플래시몹)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반응을 체크할 정도로 열성과 도약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음. 이와 같은 육성 의지는 쾌적한 환경과 함께 가장 인상적인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축제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유료 체험프로그램(대나무 뗏목타기, 대나무 카누체험, 대나무 물총만들기, 대소쿠리 물고기 잡기 등) 외에도 관내의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후원금 모집사업(공식후원자, 휘장 및 캐릭터 사용권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의 스폰서십을 배제하여 축제의 상업화를 지양하려는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유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간 중 보조무대와 마주한 죽녹원의 1일 유료방문객이 1만 5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전년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여 축제의 관광객 유발효과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처럼 담양에는 야외활동이 활발한 계절에 죽녹원 외에도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다수 분포되어 축제를 통한 방문객의 집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향후 더욱 매력적이고 차별적인 대나무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촉진하고 축제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객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에 대한 방문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타 축제와 차별적인 대나무를 소재를 한 주요 프로그램이 전통의 재현 및 교육적 의미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재미와 흥이 조화되었기 때문. 주변 관광지를 중심으로 야외활동에 유리한 축제 개최시기도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부수적 조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30

장흥 정남진장흥물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 7. 29(금) ~ 8. 4(목) / 7일간

■ 장 소 :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주 최 : 장흥군

■ 주 관 : 정정남진 장흥 물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주제 프로그램(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맨손 물고기 잡기, 수중 줄다리기), 특별 프로그램(야간 EDM 파티 & 별밤 수다(水多)쟁이, 익스트림 출발 드림팀), 놀이/체험 프로그램(우든보트, 수상자전거, 대형물놀이장 등), 경연대회 프로그램, 전시/체험행사, 군민/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외국인 공연 프로그램 및 연관행사

(2) 총 평

■ 잘된 점

- 탐진강 일원을 활용한 축제인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프로그램 진행 장소 및 행사장 주변에 안전요원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 별밤 수다쟁이, EDM 풀 파티 등의 야간 프로그램의 신규 운영을 통해 체류 방문객을 유도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됨. 이로 인하여 20~30대의 방문객 비중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축제 수익금을 유니세프를 통해 세계 물 기금 국가 식수개선 사업기금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회 환원 활동을 추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단순히 물을 이용한 놀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함께 고민하는 축제라는 이미지를 형성했던 것으로 판단됨
- 축제장이 도심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당수의 지역축제와 달리 장흥군 도심에서 개최됨에 따라 방문객의 축제장 접근성이 타 지역축제에 비해 양호

하며, 도심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 업소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지출과 지역상인이 느끼는 체감효과도 크며 방문객의 체류에 필요한 숙소 등의 기반시설 등도 축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의 야간 프로그램 참여 여건 개선 및 체류 시간 증대에도 긍정적임

- 타 축제에 비해 10~30대 방문객의 비율이 높아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 적극성과 공연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개막공연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신나고 즐거운 공연분위기를 조성함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방문객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체험의 질과 만족도 제고에도 긍정적이었으며 지상 최대의 물싸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핸드폰 방수팩을 무료로 나눠주어 미처 물싸움 준비가 안 된 방문객의 물싸움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함
- 살수대첩 퍼레이드가 진행된 거리의 상인들이 자신의 상점 앞에 비치된 물통에 물을 채우고 물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물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호응도가 높았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지자체들에서 물과 관련된 축제를 개최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장흥 물축제만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표 프로그램인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의 경우 거리 전체를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로 물싸움의 테마를 달리 가져가는 방안과 함께 퍼레이드의 마지막은 퍼레이드 참가자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운 날씨와 물을 이용한 방문객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의 확대 및 휴식 공간 등의 확충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를 위해 거리 곳곳에 물통을 설치하고 물을 공급하였으나 대부분의 물통에 물공급이 추가적이지 않아 많은 거리 퍼레이드 참여자들이 물통에 물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분담을 통해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프로그램은 그 명칭과 달리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프로그램으로 그물을 이용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물고기를 몰아준 방향에 있던 특징인이 과도하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너무 많은 체험객을 동시에 체험장에 입장시켜 체험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의 체험장을 소규모로 나누어 그물을 사용하지 않

고 맨손으로만 물고기를 잡도록 하며 각 체험장별로 입장인원을 제한하여 좀 더 쾌적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2시부터 시작하는 물고기잡기 체험을 위해 1시부터 피약별에서 줄을 서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매표 시 체험시간과 구역을 미리 배정하여 해당 시간에 오면 입장할 수 있도록 체험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장 더운 시기에 축제가 개최됨에 축제장에 절대적으로 햇볕을 피할 휴식공간이 부족함 따라서 축제장 곳곳에 태양 가림막과 함께 미세 물분사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남진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장흥군,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후원, 지역시민단체 및 지역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축제 기획과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됨 ○ “물과 숲 : 休”을 주제로 탐진강 일원에서 다양한 물놀이 체험 및 관련 행사가 진행됨으로써 장흥군의 지역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축제였던 것으로 판단됨 ○ 여름에 개최하는 축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축제라 할 수 있음 ○ 축제를 통해 물의 소중함과 축제 수익금의 국제기구 기부는 축제 개최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기획으로 판단되어 축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장흥 주변 강진군, 영암군등과 축제방문객 교류를 위한 공동홍보 마케팅과 상품화등은 좋은 기획으로 판단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을 소재로 하는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장흥 물축제만의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간이 더위에는 물을 이용한 놀이퍼레이드인 살수대첩을 운영하였고 기온이 내려가는 야간에는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EDM 풀파티를 운영함으로서 주·야간 방문객 유치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됨 ○ 대표 프로그램인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의 경우,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물싸움의 테마를 달리 설정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명칭과는 별개로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며, 관련해서 대기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임(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긴다는 점이 문제가 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관련 프로그램 및 젊은 층을 목표시장으로 하는 야간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음 ○ 하천을 이용한 축제인 만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망이나 펜스 등이 없는 곳이 몇몇 곳에서 노출되기도 함 ○ 물과 함께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화장실 및 편의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탐진강 변에서 열리는 축제이고 가장 더운 여름에 개최되는 축제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축제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야 할 것임 ○ 축제기간 음식점 운영시 메뉴의 다양성을 꾀하여야 하며 선택과 종사원 서비스친절응대를 위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축제장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하여 축제의 파급효과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로써의 선점 이미지의 지속성 확보 및 야간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지 통하여 축제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가 높아지는 점은 축제의 발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한 점은 성과임 ○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대, 야간 방문객 증가, 20~30대의 젊은 층 참여 빈도가 높아지는 등의 가시적 성과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니세프 기부행위 등을 통하여 장흥군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31

보성 다향대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년 5월 4일(수) - 5월 8일(일) 5일간
- 장 소 : 보성차생산자조합/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 주 최 : 보성차생산자조합
- 주 관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관광공사, 한
관광협회중앙회, 한국지역진흥재단

■ 주요행사

- 차문화 행사 : 다신제, 전국학생차예절경연, 티아트페스티벌, 한국명차선정대회, 이순신 호국다례제, 무아차회 등
- 체험 행사 : 차만들기, 찻잎따기, 녹차시음, 녹차음식만들기 등
- 전시판매 행사 : 녹차전시판매, 녹차음식 판매, 농특산물판매전 등
- 경연·공연행사 : 개막축하공연, 전국학생차예절경연대회, 다문화음식경연대회, 보성차발콘서트 등
- 부대행사 : 보성녹차마라톤대회, 일림산철쭉제, 전국녹차사진촬영대회 등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행사장의 쾌적한 환경과 주변경관은 보성다향대축제의 가장 큰 장점이며 특히 기존 몽골텐트 대신 2015년에 설치한 편백나무 부스는 녹차라는 주제 및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매우 쾌적한 공간 경관을 제공함
- 대형주차장에서 주행사장까지 올라가는 도로에 190m의 녹차 트릭아트 및 포토존을 설치하여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이동구간에 방문객에게 이색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세세한 부분에서 매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녹차’를 주제로 진행된 보성 다향대축제는 다신제, 전국학생차예절경연, 티아트페스티벌, 한국명차선정대회, 세계차맛콘테스트, 이순신호국다례제 등의 차문화 행사와 더불어 차만들기, 차잎따기, 다도예절체험 등 차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의 특산품이며 축제의 소재인 녹차를 프로그램에 일관되게 반영함
- 주무대장에 설치된 120여개의 편백나무 부스는 버려지는 편백나무 수피를 재활용하여 부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공원 입구에는 지난해 말빛 축제에 사용했던 사슴 등의 야간경관용 조형물 20여점을 이전 전시하는 등 축제비용을 절감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함
- 축제 개막행진에는 보성군 12개 읍면이 모두 참가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서의 의미를 높였으며 보성군수를 위시한 보성군 공무원과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축제기간 내내 축제장에 머물며 방문객을 맞이하는 등 보성군민 전체의 열정과 노력이 피부로 느껴지는 축제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다향대축제는 차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축제를 대표하는 Killer contents는 부재하여 경쟁력있는 축제로의 포지셔닝은 미흡한 상황임 → 다향대축제가 잠재적인 방문객에게 어떤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다향대축제 하면 연상될 수 있는 몰입도 높은 killer contents의 발굴·육성이 필요함
- 이번 다향대축제의 부제는 ‘녹차와 다(茶) 함께 놀자’인데 실질적으로 ‘놀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미라는 요소는 다향대축제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다향대축제가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재미 요소를 만들어내고 이를 어떻게 축제에 반영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함
- 재정자립도가 6%에 불과한 보성군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할 때 축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도 지속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발굴 하고 다원이나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녹차’를 주제로 6개 분야 70여개의 주제성이 강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하여 차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함 ○ 축제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며 분야별 세부추진계획도 구체적으로 작성됨 ○ 축제 첫날을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로 기획하여 12개의 읍면이 모두 참여하여 화합하는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고조시켜 지역전체의 축제로 승화시키려 노력함 ○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된 틀 안에서 모든 행사들이 진행되어 방문객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축제를 통해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축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취약한 숙박시설의 경우 대규모의 시설 확충보다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차별화된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여 축제 이외의 기간에도 해당 시설 자체의 매력성만으로 지속적인 방문객의 이용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읍면 개막퍼레이드는 읍면의 단합을 도모하고 읍면별로 차별화된 퍼포먼스와 특산물 홍보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득량면 주민들의 강남스타일 공연은 관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함 ○ 보성녹차골든벨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여 기존 다향대축제가 가지고 있던 성인위주의 행사라는 한계를 벗어나 지역 청소년들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왕과 왕비 의상을 한 스태프가 축제장을 돌며 방문객과 사진을 함께 찍는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 및 재밌거리를 선사함 ○ 축제프로그램 상 20~30대 젊은층을 유인할 매력요인이 매우 부족함 → 다향대축제가 외연성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30대를 목표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야간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명지대 국악관현악단 공연, 서울시무용단 공연, 차밭열린음악회, 인문학콘서트 등의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빛 경관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으나 수준 높은 공연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은 소수에 그쳐 야간프로그램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함→메인프로그램을 야간에 배치하거나 녹차밭의 야간경관 등을 활용한 화제성있는 야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간에도 축제장에 머물거나 방문해야 할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항제의 주제인 녹차의 활용용도 확대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차를 먹고 마시는 용도로만 이용함에 따라 녹차를 활용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녹차의 활용용도를 기존의 식음 용도에서 벗어나 놀고 즐기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들이 선보인 전통의상 패션쇼는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지만 대부분 모델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재미는 반감됨→ 패션쇼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거나 또는 좀 더 과감하고 재미있는 패션쇼가 될 수 있도록 토너먼트 방식으로 패션쇼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롭게 설치된 리마인드 웨딩 포토존은 50대 이상의 부부를 타겟으로 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젊은 연인층을 대상으로 연약의 이벤트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축제가 진행된 한국차문화공원 내에 위치한 차밭의 경우 인근 다원의 차밭과 비교하여 경관적인 측면에서 많이 뒤처지므로 경관성 개선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에서 주요 참석자를 일일이 소개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참석자를 자막으로 소개하고 주요 내빈의 환영사나 축사를 축하메시지로 대신하여 축제 개막식이 정치적인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개막식 시간을 단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판단됨 ○ 음식부스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맛과 위생상태가 우수했으며 특히 보성군 공무원 가족모임인 비둘기회에서 직접 메뉴를 개발한 녹차국수의 경우 맛과 가격이 우수하여 인기가 높았음 ○ 다양한 녹차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녹차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전반적으로 일정표 상의 운영시간을 잘 엄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주행사장 MC들의 진행도 우수하였음 ○ 축제기간 중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예정된 사생대회를 빗재전 시관으로 옮겨 원활하게 진행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가 잘 이루어짐 ○ TV 방송 및 대도시 전광판 옥외광고 이외에도 전라남도,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협회, 코레일, 경기도 여주시 등과의 공동홍보 등 축제홍보의 다각화로 홍보효과를 제고함 ○ 축제 개막행진에 참여한 읍면 참가자 대열이 주무대 통과 후 바로 흐트러져 무질서한 모습을 보임 → 주 무대 통과 후 무대뒤편으로 이동때까지 대열을 유지한 후 대열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차박물관 앞 분수대에서 온수를 이용한 족욕체험을 진행하였으나 온수기의 고장으로 찬물로 족욕체험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관내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에 배치하였으나 그 역할이 미미하였음 →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세계다문화음식대회의 경우 채점이 끝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람객이 시식을 하는 등의 무질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방문객들이 눈에 종종 띄었으나 외국인방문객을 위한 안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최소한 주요 행사일정이나 내용 등은 외국어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자가용을 통해 축제장에 접근할 때, IC에서부터 차량 안내 팻말이나 배너 등이 눈에 잘 띄게 배치되어야 하나 보성의 경우는 그러한 안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뽕대’라고 하는 상징적인 핵심공간을 축제와 연계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군수를 위시한 보성군 공무원과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축제기간 내내 축제장에 머물며 방문객을 맞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축제추진위원회의 열정과 노력이 피부로 느껴지는 축제였음 ○ 세계다문화음식경연대회, 세계 차맛 콘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은 다향대축제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노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다향대축제가 지속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생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나 이에 대한 계획이 부재함 →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파트너십 구축, 스폰서 확보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다향대축제가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프로그램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필요함 → 보성과 녹차 등이 핵심 주제가 되더라도, 확장성을 통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고객 대상들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함(예. 아동 대상 녹차 주제 프로그램 및 놀이마당의 마련) ○ 거버넌스 구조로 보았을 때, 지자체 위주로 준비·운영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축제추진위원회가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방문객 수는 31만 6천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음 ○ 남중권 대표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등 지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개최의 파급효과가 시간적으로는 축제 개최기간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축제장에 집중되어 있어 축제의 파급효과를 시공간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축제 참가자의 활동범위를 보성군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 개최 이후에도 특산품 등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색있는 상품의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함 - 보성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류형 축제로서의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축제기간 숙박의 어려움과 연계교통의 개선이 필요함

32

목포 항구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 7. 29(금)~8. 2(화)

■ 장 소 : 목포항, 삼학도일원

■ 주 최 : 목포시

■ 주 관 :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프로그램(풍어 길놀이 “목포는 항구다”, 축제의 서막 “목포항 블루스”, 신명나는파시한판 3개의 시대별파시 “전통·근대·현대”) 및 차별화프로그램(파시개장식 “큰파시가 열린다”, 삼학선녀·유달장수 혼인잔치금혼식, 목포항 막걸리·5페스티벌, 추억의 목포항 파시거리, 낭만의 북포항 “선상프린지 공연”, 찜년의 만남! 사랑의 다리, 항구의 빛! 수원물고기등·상징등 페스티벌, 어생(漁生)그랜드세일, 제 2회 목포시창의적해양수송선 경진대회, 목포항치맥페스티벌), 그리고 각종 체험프로그램(8개), 부대연계프로그램(5개) 등 주요프로그램(50여개) 등.

(2) 총 평

■ 잘된 점

- 해양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우선적으로 “파시”라는 전통적인 항구도시문화의 특성을 대변하는 구체적인 테마를 갖고 통일성과 전통성을 조화시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됨
- 메인축제장과 부축제장들과 동선이 잘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방문객의 집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제장의 공간을 충분히 넓히고 출입구의 통로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많은 인파에도 혼잡도를 줄이고 있음.
- 개막공연이 ‘목포는 항구다’라는 주제로 3막을 연출하고 지역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공연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차별적인 행사로 주목됨. 개막공식행사도 전반적으로 의뢰적인 의전을 탈피하고 전통과 현대를 가미한 간결하고도 집

중적인 문화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관객들에게 큰 호응과 감동을 주고 있음. 이에 목포항구문화를 재현하고 예향의 도시 목포를 부각시킴으로써 지역문화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개막행사로 평가 됨.

- 목포의 “파시문화”를 전통, 근대, 현대로 분류하여 각 시대별 가치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축제의 정확한 방향성과 발전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항구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임. 특히 다년간 축적된 파시관련 역사문화콘텐츠들이 각 프로그램별로 제시되고 있어 전통문화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잘 정비되고 작동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50여개의 프로그램들이 차별화, 공연, 체험, 부대로 잘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음. 대표프로그램들도 주제별로 차별적,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역민 위주의 자원봉사들도 적극적으로 행사에 몰입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축제의 수익이 지역에 환원시킨다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 자연스럽게 지역민들을 참여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음. 특히 대다수 공무원들이 축제의 각 프로그램 운영에 실제적으로 동참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축제에 대한 단체장의 발전의지가 엿보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목포항구도시라는 주제를 강하게 표출함으로서 “파시문화”와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축제의 모든 행사콘텐츠를 파시와 연계시키는 통합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함.
- 이와 연계하여 산재해 있는 목포항구문화를 목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전달 할 수 있는 통일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으로 봄. 또한 목포의 파시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연중홍보 전략으로서 SNS를 통한 경진대회나 목포항구축제를 수월히 알릴 수 있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수단을 통한 재미(FUN)를 가미한 온라인 홍보 전략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본 축제는 충분히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시문화에 대한 가치성과 발전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봄. 우선적으로 목포항구축제보다는 ‘목포파시문화축제’로 구체적인 방향지표설정이 필요함. 오히려 수많은 항구도시 가운데에 목포는 항구다! 보다는 “목포는 파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목포의 파시문화를 통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금처럼 잔잔한 물결과 감동을 주는 대표프로그램 제시도 필요하나 파시를 주제로 관광객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폭발적인 킬러콘텐츠의 집중화가 필요함.

즉, 프랑스의 보르도축제에는 최고급의 포도주를 축제기간동안 원가로 판매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이를 되팔아 여행비용을 충당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목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유, 무형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함. 동시에 경북의 “영양산나물축제” 처럼 축제기간동안 산나물판매를 통한 지역민 수익증대와 직결시키는 사례와 같이, 축제를 통한 구도심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전략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해양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주제 선정에서 탈피하여 ‘2016목포 항구축제’와 ‘파시’로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축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되고 있음. 향후 정확한 방향성정립을 통한 발전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축제의 기획방향을 “신명나는 파시한판”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로 일관성 있게 끌고 감으로써 축제의 통일성이 정착 될 것으로 봄. ○ 예년과 달리 먹거리를 지방전통주인 막걸리와 홍어삼합을 통일시킴으로써 특화전략을 구시하고 있고, 독자적인 재산제를 도입하여 이익금을 지역민에게 환원시켜줌으로써 지역민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고 있음. ○ 축제시기가 ‘세월호인양’으로 순연되어 지역선상참여 부족 등 각종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 주목되는 사항임. ○ 50여개의 주요프로그램들이 차별화, 공연·경연, 체험, 부대·연계프로그램으로 4개의 영역으로 장소와 내용에 따라 비교적 잘 분류, 실행되고 있음. ○ 개막공식행사에서 목포항구도시의 문화공연과 국제화를 위한 연출 등이 돋보임. 특히 가수위주의 개막식에서 항구문화와 접목한 진행방식은 주제의 선정과 맞물려 많은 참여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획이 참신하고 수준이 향상 된 것으로 평가됨. 또한 금년에는 기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위해 전문기획가를 초청운영하고 있어 보다 발전적인 활동으로 평가됨. ○ 단, 파시문화에 대한 킬리콘텐츠의 강화가 필요하고 -목포는 파시다! “2017목포파시항구축제”(안)- 와 같은 파시를 주테마로 바꿀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목포항구축제는 ‘파시’로 이미지통합(CI: cooperated identity)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단편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국제항구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항구도시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즉, 과거의 각 국제항구도시들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파시문화를 목포의 파시문화와 접목시킴으로써 목포중심의 축제세계화를 시도하여 목포를 세계에 노출시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구체적으로 “항구파시문화정체성확보”라는 아젠더를 갖고 그들과 함께 목포에서 국제학술포럼개최 및 단계적으로 축제를 통하여 자매결연 도시를 확대하여 목포를 국제적인 파시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파시도시로 승화시키는 거시적인 발전전략이 필요 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축제는 대표프로그램으로 3종을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2016목포항구축제의 정확한 문화축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단, 지적인 바와 같이 목포항구도시와 ‘파시’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축제전체를 파시문화로 끌고 가는 통합전략구사가 더욱 필요함. ○ 그동안 축제를 진행하여 오면서 ‘항구도시목포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역사문화자료의 축적이 상당한 진행되어 왔고, 특히 파시문화에 대한 문화콘텐츠작업들도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것을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번축제에 가장 주목되는 부문은 “전통파시”와 “근대파시” 및 “현대파시”를 역사적으로 분류하고 관광객들에게 항구역사문화자료전시 및 체험공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이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목포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며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현대파시”도 비교적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으나 ‘전통파시’와 ‘근대파시’의 프로그램들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미래파시를 향하는 교두보로서의 가치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즉, 성공하고 있는 타 지역 축제들의 킬러프로그램을 보면, 불과 몇 시간동안 관광객, 지역주민, 행사담당자 등 전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는 축제한마당을 연출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함. ○ 따라서 목포항구축제에 참여한 전 구성원들이 동시에 모여서 그들이 목포 축제의 가치공유를 느낄 수 있는 폭발적인 프로그램개발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함.. 실례로서 ‘현대파시시장’을 열어 단 몇 시간만에 그들이 최고의 해산물을 최적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와 원가시장을 개방하여, 그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가미한 킬러콘텐츠로 제공 될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는 항구다”에서 풍어길놀이에 3만여명이 참여하여 축제의 진정한 의미와 목포항구도시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훌륭한 행사로 평가됨. 이에 겹들여 ‘삼학선녀 유달장수혼인잔치(금혼식)’에 1000명의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도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음. 단,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행사를 “목포파시문화”와 연계시키는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목포의 면화도시재생, 비틀즈초청, 전통어구체험, 전통조선배재현 등을 파시목포문화와 목포항구문화와 연계하여 재생작업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통한 파시문화의 문화콘텐츠의 보완 및 구조적인 체질개선이 필요 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에 비해 전체주제에 따른 분류준거가 잘되어 있고, 각 분류에 따른 유사한 항목들이 잘 배치운영하고 있음. 매우 더운 날씨를 극복하기 위해 체험프로그램인 ‘어선탐승체험’, ‘목포항 요트탐승’, ‘전통웅기배승선체험’, ‘삼학수로체험행사’ 등의 해양을 활용한 운영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관객들의 호응도 매우 좋음. ○ 전통시장건어물 경매행사는 매우 흥미 있는 행사로 평가됨. 단, 규모가 적고 시간대가 맞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이 프로그램은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파시”와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객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관객들과 가치공유와 이익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음. ○ ‘푸드트럭 스넥코드’는 색다른 시도로서 주목할 프로그램으로 평가 됨. 차제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형 국제푸드트럭스넥들을 본축제에 초빙할 필요가 있음. 즉, 목포전통음식의 세계화전략과 연동하여 음식문화의 새로운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정비할 경우, 목포경제활성화에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음식부스의 경우도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분하고 있고 각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잘 진행하고 있음. 특히 자원봉사자의 경우 예년에 지적인 사항을 비교적 잘 수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단 전체적인 자원봉사자의 많은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겸비할 필요가 있음.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는 다수의 행사를 유로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자생적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KTX 열차 및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행하고 있음, 단, 축제사후 4계절 전방위 홍보 및 광고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AP 총회 등 국제행사를 통해 필리핀, 중국, 유럽 등 해외 항구도시와의 네트워크를 추구하고 있어 목포항구축제의 국제화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단, “파시문화”라는 핵심요소를 가지고 목포항구도시와 연계한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자부심과 구도심으로 축제를 이전한 후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시차원에서의 축제발전을 위한 의지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전의지와 축제담당행정기관의 책임감과 발전노력이 매우 돋보임. ○ 현재 민간전문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축제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운영 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들에게 보다 어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민의 수익과 직결되는 수익구조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5)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사건, 무더운 날씨 등 여러 가지의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많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목포항구도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삼학도 복원정비사업을 통한 인프라개선을 축제장과 연계하여 충분히 활용하고 카누타기, 선상프린지 등 해상체험활동을 가미하여 폭발적인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있음. 단, 안전을 고려한 야간해상활동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항구도시축제의 축제 상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점을 인식하여 안전시스템정비와 안전 매뉴얼 등이 작년에 비해 비교적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됨. 안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그마한 사고도 축제이미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함. ○ 축제에 행사전반에 걸쳐 지역주민 및 문화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여 전통적인 공연을 시연하는 점 둘이 주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있음. 이 부분이 본 축제의 잠재적인 성공을 예견하는 성과로 평가 됨. ○ 본 2016목포항구축제가 범위를 구체화시키고 “파시문화”를 주테마로 삼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미래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항구도시마스트플랜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봄. 즉, 세계의 문화항구도시들이 어떤 형태이던 과거에 목포항구와 유사한 “파시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그들과 일차적으로 국제학술대회개최,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목포항구축제로 유인하도록 함. 그리고 점진적으로 국제항구도시들과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목포를 세계적인 전통파시문화메카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33

영암 왕인문화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 04. 07(목) ~ 04. 10(일) / 4일간

■ 장 소 :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역사공원, 도기박물관 등

■ 주 최 : 영암군

■ 주 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 위원회

■ 주요행사

- 기획행사 : 개막행사, 폐막행사, 퍼레이드, 왕인문화축제 발전방안 강연회, 왕인박사 춘향대제 등
- 공연행사 : 개막식전공연, 폐막식전공연, 게릴라버스킹공연, 개막축하방송, 히든싱어, 킬투쇼, 얼썬's 난장한마당, 버블버블 매직쇼, 남도의 춤과 흥 북놀이, KBS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영암민속놀이, 구림의 밤, 영암 전통문화공연, 낭주골 어울마당, 왕인 어린이재롱잔치 등
- 경연행사 : 영암 한자능력검정시험, 전국 천자문, 경전 성독대회, 왕인학생 예술대회, 영암화전놀이, 왕인 청소년 페스티벌, 구림 벚꽃길 걷기대회 등
- 체험행사 : 왕인 트리아트 역사여행, 왕인 공예체험, 스마트 포토체험, 캘리수목화체험, 다포에 실은 왕인 매화송 체험, 꿈나무 체험 Zone, 왕인 벽화체험, 전통놀이마당, 천자문 놀이마당, 아시아 전통의상·민속놀이체험, 기찬 문화체험, 기찬 힐링체험 등
- 연계행사 : 관광영암 버스투어, 월출산 氣찬빛길 트레킹, 구림마을 벚꽃열차투어, 구림마을 한옥스테이, 도갑사 템플스테이, 왕인문해학교 홍보관, 국립공원월출산 홍보관 등
- 부대행사 : Hello 왕인! 외국인 미션레이스, 왕인체험 스탬프챌리, 타임머신왕인우체통, 나의 운세 살피기, 왕인학당 천자문교실, 천자문 250 계단 오르기, 학업성취 기원문 쓰기, 디카폰카 사진 콘테스트, 캐릭터 퍼포먼스, 영암도기박물관 특별전, 하정웅미술관 기획전, 영암 푸드랜드, 영암 쇼핑랜드 등

(2) 총 평

■ 잘된 점

- 2016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축제장 주변의 월출산, 도갑사와 함께 화창한 날씨, 만개한 벚꽃 등이 잘 어우러져 방문관광객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이와함께 많은 각국 외국사절단의 참여로 영암왕인문화축제의 국제적 축제로의 잠재적 성공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됨.
- 또한,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몇몇 프로그램(한자능력검정시험 등)은 내용이 다소 무겁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으며, 향후 축제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기간에는 전년도에 이어 축제장 입구에 마련된 영암목재 문화체험장과 구림마을 일원에서 “한옥건축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시너지 효과가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이 행사는 축제의 정체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축제장 인근의 많은 문화자원과 분위기에 축제컨셉과 크게 배치되지 않아 붐업조성과 왕인문화축제 관람객의 유입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왕인문화축제는 전형적인 인물축제로 교육적 내용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하지만 축제의 기본적 기능인 몰입, 재미, 탈일상적 활동성 등이 강화되어야 관광흡입력을 높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축제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왕인문화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의 지역별 분포(참고:2016 자체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영암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인근지역주민들이 88%를 상회하고 있어 축제홍보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인근지역 주민들의 축제참여율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축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축제가 지역사회에 사회, 문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함. 따라서 축제홍보 강화를 통해 원거리 관광객의 축제참여 비율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여건 확대와 참여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번 왕인문화축제에서는 지역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갈곡들소리, 도포제줄다리기, 삼호강강술래)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여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축제 방문객들을 즉석에서 참여시켜 축제홍보는 물론 축제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축제 프로그램 참여율이 88%를 상회하여 타 축제보다 월등히 높은 편임.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외부관광객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축제의 대외 홍보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번 축제에서는 외국인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이들을 위한 “Hello 왕인! 외국인 미션레이스”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 홍보 및 유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는 물론 지역의 문화 및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홍보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영암왕인문화축제 사전홍보는 지금까지 서울 인사동거리 퍼레이드가 대표적이었으나 올해는 광주 충장로에서 지역특산품 홍보와 함께 “왕인박사 일본가요!”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호평을 받았음. 또한, 이 행사는 특히 젊은 층들에게 영암왕인문화축제를 홍보하고 축제참여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일반적으로 축제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곳은 주무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주무대 시설과 관람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심 있게 신경써야 할 부분임. 그러나 이번 영암왕인문화축제장 주무대에 설치되었던 백드롭 일부와 조명 설치를 위한 트리스를 감싸고 있었던 햇빛차광막은 관람객들에게 월출산 조망권을 완전히 차단시켰음. 따라서, 주무대 배치 방향을 변경하여 월출산의 훌륭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축제장 공간편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여건 확대와 참여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번 왕인문화축제에서는 지역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갈곡들소리, 도포제줄다리기, 삼호강강술래)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여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축제 방문객들을 즉석에서 참여시켜 축제홍보는 물론 축제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축제 프로그램 참여율이 88%를 상회하여 타 축제보다 월등히 높은 편임.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외부관광객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축제의 대외 홍보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축제에서는 외국인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이들을 위한 “Hello 왕인! 외국인 미션레이스”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 홍보 및 유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는 물론 지역의 문화 및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홍보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영암왕인문화축제 사전홍보는 지금까지 서울 인사동거리 퍼레이드가 대표적이었으나 올해는 광주 충장로에서 지역특산물 홍보와 함께 “왕인박사 일본가오!”퍼레이드를 개최하여 호평을 받았음. 또한, 이 행사는 특히 젊은 층들에게 영암왕인문화축제를 홍보하고 축제참여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일반적으로 축제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곳은 주무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주무대 시설과 관람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심 있게 신경써야 할 부분임. 그러나 이번 영암왕인문화축제장 주무대에 설치되었던 백드롭 일부와 조명 설치를 위한 트러스를 감싸고 있었던 햇빛차광막은 관람객들에게 월출산 조망권을 완전히 차단시켰음. 따라서, 주무대 배치 방향을 변경하여 월출산의 훌륭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축제장 공간편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영암 왕인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었던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는 관광객들의 참여율이 높았고 축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봉선대의 출발전 행사에는 무더운 햇볕이 내리 쬌는데도 모든 관람객들이 주의 깊게 관람을 하는 등 관광객 참여율이 매우 높았음. 그러나 축제장에서 상대포까지 가는 동안 퍼레이드 차량의 진행속도가 빨라 여성 공연단과 연로자들이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에는 총 6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중 신규 프로그램 26종은 대부분 문화공연과 개·폐막식, 부대행사에 편중되었음. 이들 신규 프로그램 개발은 축제의 역동성과 변화를 의미하지만 지나치게 오락위주로 운영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다른 축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보다는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영암왕인문화축제는 매년 단전호흡, 명상, 기체조, 기수련 시범 등 기(氣)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의 참여율이 높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운영시간대 확대,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미지 강화, 동적(動的)인 체험 방법의 강화 등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까지 너무 정적이고 관광객들의 참여율이 높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전국 천자문경전 성독대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국악명창 소공연 등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에 외면받았던 프로그램도 충분히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축제장인 왕인박사 유적지내와 축제장 주변은 벚꽃이 만개하고 경관이 아름다워 버스킹 형태의 작은 음악회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축제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메인무대와는 별도로 소공연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에 비해 2016 영암 왕인문화축제에서 장 크게 변화된 부분 중 하나는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수 만들어 운영한 점으로 평가됨. 특히, “왕인 트리아트 역사여행”은 관광객들이 왕인박사의 일대기를 담은 트리아트 작품을 제작하여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주동선인 왕인으로 설치·운영하여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음. ○ 최근 문화체육관광축제의 가장 두드러진 축제운영의 특징은 의견을 간소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축제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임. 그러나 이번 왕인문화축제에서는 사회자를 대신하여 단체장이 장시간 직접 많은 내·외빈을 소개하여 다소 관광객들의 불만을 야기하였음. ○ “전통놀이마당”체험장은 축제기간 내내 수많은 체험방문객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회자이외에는 운영요원들이 배치되지 않았음. , 체험장은 어린이 및 유아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대부분이므로 축제운영 요원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작년에 축제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올해는 이를 대폭 개선하여 축제장을 비롯하여 주변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비교적 철저했던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음식부스 뒤편의 대형발전기를 방치하여 안전사고에 노출되었던 점을 개선하여 안전보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사고예방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 ○ 매년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축제장과 구림마을, 상대포 등 주변지역까지 주차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벚꽃길을 일방통행화 하여 통행을 다소나마 용이하게 하였고, 방문객들의 임시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안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아천 사거리에서 축제장 방향을 통제하여 축제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비교적 원활하게 유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협조는 장기적으로 축제발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함. 따라서, 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동시에 흥미나 재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새롭게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즉, 영암한자능력검정시험과 같은 프로그램은 오락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왕인의 활동시대였던 백제시대의 전통무술이나 놀이문화 등을 발굴하여 프로그램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왕인문화축제장을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 역사공원 전체로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잘 구축된 인프라와 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상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축제장 및 역사공원 일대의 역사성과 명소성을 높여 이곳의 연중 활용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법은 축제의 장기적인 마케팅전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왕인문화축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매년 축제기간에 개최되고 있는 “왕인문화축제 발전방향 강연회”를 전문가 토론회 형태로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축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영암왕인문화축제 방문객수 집계 결과, 외국인 방문객을 포함하여 총 210,550명(영암군 자료)으로 집계되었음. ○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거주지별 조사·분석 결과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의 비율은 각각 11.6% : 88.4%로 나타났음. ○ 그리고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에서 지역주민 1인당 총 지출비용은 27,520원, 외부 방문객의 1인당 총 지출비용은 38,100원으로 조사되었음.(영암군 자료) ○ 그러나 축제의 이러한 경제적, 양적 성과 보다는 축제가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관광브랜드 파워 등 축제의 질적 파급효과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축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필요함.

34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 4. 30 ~ 5. 8(총 9일간)

■ 장 소 :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 주 최 : 문경시

■ 주 관 :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문경전통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 개막식, 시상식
- 특별행사 : 사기장일 들려주는 찻사발이야기, 문경전통발물레경진대회, 아름다움 찻자리한마당, 가루차투다경연대회, 한중일다례시연, 찻사발깜짝경매, 상설해학극, 소원등달기 등
- 체험행사 : 문경사기장의하루체험, 찻사발빚기, 찻사발그림그리기, 망대이가마불지피기, 지놀이터, 다례체험, 발물레빨리돌리기, 현상수배문샷갓을찾아라, 조선시대복장체험, 용상체험 등
- 알찬행사 : 시민의날, 대형말차나눔행사, 입장권경품추첨 등
- 야간행사 : 별이빛나는신북천에, 점촌야밤에한사발, 슈필라움과 함께하는 전통찻사발축제 등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 개막식 및 폐막식 등의 행사에서 연예인 초청 등의 프로그램을 과감히 제거하고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축제 본연의 의미를 잘 구현했다는 점에서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어짐
- 전년도 평가위원 의견 및 보고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야간행사 확대 운영, 지역농특산물 판매장터의 확대 운영, 찻 사발 및 도자 판매 방식의 변화 등 의견 반영과 프로그램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개선의지가 돋보였음
- 지역주민의 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자원봉사운영프로그램, 문경시내 일원에서

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라는 의미를 잘 살렸으며, 문경새재 세트장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 사기장이 들려주는 찻 사발 이야기, 가루차 투다 경연대회 등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적절하게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한중일 3국의 찻 사발 문화교류 및 한국적 차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으며, 찻 사발을 활용한 설치미술 등의 프로그램 개발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전국의 모든 축제가 고민할 것 중 하나인 먹거리 부문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오픈세트장의 주막거리를 활용한 먹거리 장터와 산채비빔밥 등의 노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지만 문경만의 음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 문경시내 다양한 곳에서의 야간행사를 개발하고 운영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어짐. 다만 문경새재 세트장 일원에서의 야간행사가 진행되어진다면 방문객의 체재시간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짐
-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적절했음.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주간과 연계한 문경관광주간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관광자원의 연계성을 높인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개막공연 등은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적절했음. 다만 보다 퍼포먼스를 가미한 볼거리 개발을 위한 노력이 가미된다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목적(문경전통찻사발의 홍보 및 지역문화 발전 계승, 차문화 계승 발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축제 콘텐츠 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축제 자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문경시와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어짐 ○ 축제 방문객 수 집계 방식, 낭비성 행사 최소화, 지역문화의 발굴과 계승 등 문화관광축제의 방향과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 전통찾사발축제는 “사기장이 들려주는 찻사발이야기”라는 주제로 문경사기장, 찻사발, 차(茶) 등을 활용한 한국 전통도자문화와 중국, 일본과의 교류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문경 찻사발만의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승화하였음 ○ 문경사기장의 하루체험 등의 대표프로그램은 기획은 적절하게 운영됨. 다만 문경사기장의 하루체험 대상의 확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보다 많은 방문객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 영역의 확대가 필요함 ○ 문경의 도자문화, 도자산업, 특산물, 관광자원(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도심지(문경시내)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문화·산업형 축제로의 모범적인 형태를 구축함 ○ 문경시 주최, 축제 추진위 주관하에 문경도자기협동조합, 문경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적절히 이루어짐으로써 축제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주민화합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한국의 전통문화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축제임이 분명함. 한국의 전통차문화를 복원하고 이를 기반으로하는 한중일의 차, 찻사발 등의 교류를 통하여 3국의 문화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 축제 콘텐츠의 구성은 찻사발, 사기장,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짐. ○ 찻사발을 기반으로 찻사발만들기체험, 물레체험 등의 콘텐츠를 적절하게 개발하고 운영했으며, 찻사발을 이용한 설치미술품 등의 콘텐츠 개발은 적절한 응용 콘텐츠이며 여타의 도자축제와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소재였던 것으로 판단됨 ○ 사기장 및 망대이가마를 활용한 콘텐츠에서 사기장이 들려주는 찻사발이야기, 문경사기장의 하루체험, 한중일 찻사발기획전시 등은 문화교류 및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짐 ○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에서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을 활용함으로써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적·시각적 요소가 뛰어났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조선시대의복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짐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운영 프로그램은 문경시의 주요 국제행사 등을 무난하게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민단체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적절하였으며, 자원봉사교육 등 사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만전의 준비가 적절히 이루어짐 ○ 축제의 효율성의 참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예인 등의 초청프로그램을 없앤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는 적절한 축제 운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홍보에서 지역출신 출향민 등을 활용한 홍보, 전국단위 홍보 전략 등 다양한 홍보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축제장 내의 다양한 홍보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어졌음. 또한 우천 시 취소 또는 축소되는 프로그램 등에 신속한 대응안내 체계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어짐 ○ 문경새재오픈세트장 및 새재 일원을 활용한 공간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다만 체험 프로그램의 공간 배치에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세트장 및 새재일원의 공간이 넓은 관계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개막식에서 선조사기장추모헌다레, 아름다운찾자리한마당,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개막공연 등을 바탕으로 문경전통찾사발축제의 기원 등을 잘 반영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지역관광자원(희양산봉암사 순례탐방)의 활용, 지역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알찬행사, 야간행사 프로그램 등의 운영은 기존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기획 등 개선 노력이 돋보이는 형태였음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을 통하여 문경시 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주관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정립되면서 향후 축제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유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의 운영 등 협업체계가 적절함 ○ 축제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축제 유료화(입장권), 엽전(상품권 형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이는 향후 축제의 자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짐 ○ 축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의 부분에서도 과거 프로그램의 답습이 아닌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노력과 지역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축제의 파급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 등을 볼 때 축제 콘텐츠의 발전 가능성이 존재함 ○ 무엇보다 최고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문경새재 및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전통+찾사발+지역문화발전이라는 성과를 야기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한중일 3국의 찻사발, 차(茶)문화, 관광교류 등의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화·관광교류는 문경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접계시스템을 적용하여 방문객 수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예상방문객 수에 대응하는 일자별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는 여지를 가져옴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시의 관광자원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연계관광상품개발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야간행사 등을 개발(문경새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산악자원인 점을 고려할 때 야간행사의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함으로써 외지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효과와 지역주민의 축제참여기회를 높이는 등의 효과가 증진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축제 평가보고서를 참조할 경우)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의 방문객 중 약 80%의 방문객이 외지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구·경북이 약 40%, 서울·수도권이 약 37%로 지역관광객 유입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찻사발의 의미 재해석과 활용, 한중일 3국 차(茶)문화의 교류·복원 및 발전, 문경새재오픈세트장을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 등의 전통문화와 지역산업, 지역관광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축제를 통한 지역산업·관광·문화 발전을 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짐

35

고령 대가야 체험 축제

(1) 개요

■ 기 간 : 2016. 4. 7 ~ 4. 10(총 4일간)

■ 장 소 :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읍 일원

■ 주 최 : 고령군

■ 주 관 : 사)대가야체험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퍼레이드 : 퍼레이드 ‘대가야의 진군’
- 공연프로그램 : 역사 재현극
- 주제반영프로그램 : 대가야활만들기체험, 대가야칼만들기체험, 대가야잡옷 및 투구만들기 체험, 대가야성인용사선발대회, 대가야어린이무예체험, 대가야대장간체험, 대가야마상무예 등
- 대가야유물체험 : 대가야금동관제작체험, 대가야장신구제작체험, 대가야유물발굴체험 등
- 대가야생활체험 : 대가야음식제작체험, 대가야생활체험(바비큐)존, 대가야복식체험, 대가야저울추무게달기체험, 대가야순장체험 등
- 대가야예술체험 : 대가야목공예체험, 대가야가면만들기체험, 대가야토기체험, 대가야미니가야금제작체험, 대가야문양체험 등
- 농촌및전통문화체험 : 딸기수확체험, 녹색농촌마을체험, 녹색테마생태관광체험 등
- 주민참여 프로그램, 연계행사 등

(2) 총 평

■ 잘된 점

- 역사테마관광지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야간 공연 프로그램 및 수상 공연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되어짐. 특히 수상공연 등의 안전문제에 많은 신경을 쓴 것이 엿보이는 기획이었음.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을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하고 방문을 유도하려는 의지가 돋보였음
- 전년도 평가위원 의견 및 보고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야간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수

상 공연의 안전성 강화 등의 노력이 돋보였음

- 올해처음 도입된 대가야 진군 퍼레이드 도입은 군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대가야 복식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축제의정체성을 바운객이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판단됨
- 뮤지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본 자매결연 지역의 인사를 초청하는 등의 국제적 문화 교류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으며, 향후 이를 잘 발전시켜나갈 경우에 가야시대의 문화교류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콘텐츠 개발과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 전년대비 대가야 축제장의 공간이 새로이 완공된 대가야 문화누리공간으로 확대되고 그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등의 프로그램 진행은 은 향후 축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 및 단체와의 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축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축제 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킬러콘텐츠에 대한 발굴과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고령대가야체험축제라는 축제 타이틀을 대변할 수 있는 체험형 킬러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이를 통하여 가야문화체험이라는 요소를 돋보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축제장 외곽지에 신규로 도입한 돼지생태 체험관 프로그램의 경우 대가야체험축제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바 축제와의 연관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 지역내 관광안내체계 및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축제홈페이지 및 안내소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숙박 장소 및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어짐.
- 뮤지컬의 경우에는 스토리, 대표성, 메시지 등의 요소가 다소 빈약한 형태를 내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따라서 뮤지컬의 완성도 및 관람 방식 등의 변화를 통하여 대표 프로그램으로써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셔틀버스 운영시간의 확장 등의 개선이 요구되어짐. 야간 프로그램 관람객을 위한 편의 차원에서 운영시간이 적절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방문객들의 쉼터공간 운영, 축제장 셔틀버스 운행시간연장등 축제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야 역사라는 주제 아래 역사테마관광지라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축제의 콘텐츠, 인프라가 잘 조화됨 ○ 2016 대가야체험축제는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야간 공연 프로그램 및 수상공연에 대한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고,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과 참가를 유도하려는 기획의도 드러남 ○ 가야문화체험이라는 주제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체험축제로서의 가능성이 높음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축제답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있으나 작년 지적과 유사하게, 대표 할만한 대표 프로그램의 파급력은 여전히 미약한 편인 것으로 판단되어짐. ○ 대표축제로 성장하기 위해 킬러콘텐츠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고령대가야해점축제만의 킬러콘텐츠의 발굴이 있어야하만 축제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짐. 타 문화체험축제와 구별될 수 있는 본 축제만의 대표 프로그램 개발과 보강이 필요함 ○ 대표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고 있는 뮤지컬의 경우에도 스토리, 대표성, 메시지 등으로 볼 때 대표 프로그램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뮤지컬의 경우, 일본 자매결연 지역 인사 초청 등 노력이 엿보였으나, 관람방식 및 태도 등에 있어 문제를 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뮤지컬이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관람환경의 개선과 관람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임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시스템의 운영과 진행 방식에서는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어짐. 특히 곳곳에 진행요원 및 대학, 주민들의 자원봉사 및 협력으로 운영이 우수하였으며, 고속도로 진입 IC 등에서부터 이정표 등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음 ○ 단, 도로를 막아 행사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인근대학 주차장을 활용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약간 불편하였으며, 셔틀버스의 운영시간이 09:00~18:00로 제한되어 있어, 야간 축제관람 등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서울 및 대구로부터의 이동시 열차연계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며, 인근 가야대학교 등 자가운영자 중심의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버스터미널로부터의 외부 관광객 이동 등은 불편하였으며, 이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 등도 오류가 발견되어지기도 함. 따라서 지역관광자원에 대한 정보 시스템의 명확성 확보 및 종합 안내소에서의 다양 안내 시스템 강화를 통한 고령의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숙박의 경우 테마관광지내 숙박의 경우 축제기간 중에는 운영을 하지 않아, 외지인의 경우 숙박을 하려면 적어도 30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도 충분치 않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의 열의와 참여가 매우 높으며, 자생적인 축제 발전의지가 강한 것을 느낄 수 있었음. 자체 기획단 중심 자생노력이 많이 경주되고 있었으며, 평가의 경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계명대, 경북대 등)를 활용하여 발전을 기대함 ○ 체험스쿨데이(목, 금)라는 주제아래 체험 중심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주제의식 등에 대한 교육과 메시지 전달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과 체험학습효과에 대한 부분은 피드백을 분명히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작년과 유사하게, 주제에 대한 인식도와 메시지는 다소 낮고, 일반 체험(딸기, 바비큐 등) 및 여흥 위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축제의 방향성이나, 발전성에 있어 한계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야체험축제 유료입장의 경우, 주행사장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여 금액 일부를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어 축제장 및 고령군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내 경제유발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 홍보의 성과로 서울지역 대학 외국인 학생 문화체험 등이 눈에 띈.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확대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미스 경북 선발대회 유치 및 2017 문화관광도시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와 노력이 연계되어지면 축제와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길 것으로 판단됨

36

봉화 은어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6. 7.30(토) ~ 8.6(토)

■ 장 소 : 봉화읍 체육공원 / 내성천

■ 주 최 : 봉화군

■ 주 관 : 봉화군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주제체험행사(은어반두잡이, 은어맨손잡이, 은어구이체험, 물장난, 페스티 벌, 은어낚시체험)
- 주민참여체험행사(은어종이배 경주)
- 가족참여행사(수박서리 및 삼꽃구이 체험, 은어캐릭터 천연 돌가루 체험, 추억사진관)
- 공식·공연행사(개막식 및 폐막식 공연, 은어가요제, 지역문화어울림, 전통시장음악회)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 현장 곳곳에 관광객들을 배려한 설치물들이 있음(하이힐 신은 여성을 위해서 구멍이 촘촘한 철제 다리 한쪽에 나무판자 설치, 축제 전 공간에 무더위를 식혀줄 그늘막 설치)
- 가족 관광객들이 수박서리 체험이나 삼꽃구이(계란, 감자, 옥수수) 체험을 통해서 추억을 회상하고 향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체험 제공함
- 축제 전 구간을 통과하는 은어열차를 운행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축제의 재미를 선사하고 동선이 작은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인기가 높음
- 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쉴 수 있는 넓은 쉼터 공간 제공 및 야영 텐트장 제공
-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위급 상황시 버튼을 누르면 밖에 불이 켜지고 경찰이

출동)

- 워터파크 바닥에 미끄럼방지 설치
-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함
- 경품 추첨을 통한 쿠폰을 통해서 축제 이후 관광객들의 연락처를 확보 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주차난을 겪음
- 축제 주변 물가가 터무니없이 비쌈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단위 체험행사뿐만 아니라 연인들의 체험행사를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축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실질적 체험위주로 이루어지면서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음 ○ 역사적으로 오지에 속해있던 봉화 지역을 각 지역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와 힐링의 장소로 변신을 꾀하였음 ○ 오지와 청정의 이미지를 융합하여,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은어를 주제로 여름축제 및 자연보전의 메시지를 부각시킴 ○ 봉화지역의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 ○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은어 축제를 통한 청정이미지는 봉화지역의 농산물 먹거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줌 ○ 여름축제기간동안에 관광객들이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즐거움을 선사함으로써 봉화 주변지역의 관광지의 홍보효과도 획득 ○ 군청소재지가 있는 봉화읍 한복판에서 행사가 진행되면서 봉화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주제에 맞게 모든 축제 공간이 은어와 연관된 테마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다양한 즐거움 선사하고 있음 ○ 봉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은어 캐릭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산해내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즐길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가 많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단위 및 연인들 중심의 관광객 참여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참여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확장시킴 ○ 공연행사의 출연진 설정도 정적인 측면과 동적인 측면이 적절히 배합되어 조화를 이루면서 관람객들의 흥미를 고조시킴 ○ 봉화 지역의 은어를 설명하는 전시관은 큰 글씨체와 질서 있는 배열로 관광객들 관람이 용이함 ○ 물장난 페스티벌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형성 ○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겨냥하여 수박서리 체험이나 삼굿구이 체험 같은 먹거리 체험은 단순히 은어 체험을 넘어서 봉화지역 농산물의 홍보로 확장 ○ 수박서리 체험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행사로 진행됨 ○ 축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어잡이 관련 행사뿐만 아니라 은어열차, 어린이 수상놀이, 반딧불 생태체험관 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프로그램 주제에 맞게 주 테마는 모두 은어와 관련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 ○ 넓게 분포된 축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각 연령층별, 성별 만족도를 상승시킴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축제 구역마다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축제의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공간적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 ○ 축제 공간과 전통시장이 연결된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을 연결해주는 연결점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양쪽 공간의 소통은 원활하지 못함 ○ 넓은 축제 공간 전체에 그늘막을 제공함으로써 무더위를 식히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 ○ 여성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화장실에 비상벨 시스템을 설치하여 호응을 얻고 있음 ○ 양쪽으로 분산된 축제공간을 잇는 철제 다리는 빈 틈이 많아서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쪽 편에 나무 판넬을 덮어주는 배려가 돋보임 ○ 넓은 축제 공간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은어열차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호응이 매우 높음 ○ 먹거리 공간은 은어관련 음식을 제외하고 타지역의 축제 먹거리와 큰 차이는 없었음 ○ 먹거리 공간에서 품바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먹거리와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였고,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일조를 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어잡이 축제의 막간에도 지속적으로 공연이 진행됨으로써 관광객들의 시선을 모으는데 성공하고 있음 ○ 축제가 이루어진 공간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안전망을 설치하여 안전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었음 ○ 봉화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 행사를 다양하게 확보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축제를 승화시키는 것이 돋보임 ○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놓는 파격적인 운영은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축제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키고, 동시에 쿠폰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연락처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의 발판을 마련하고, 축제를 흥미롭게 이끌어가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며, 먹거리, 놀거리가 다양하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축제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아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봉화군 공무원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축제의 모든 현장에서 관광객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도하였다는 점이 높이 살만함 ○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 있음 ○ 향후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 주차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임 ○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수시로 물의 수위를 조절하고, 여자 화장실의 비상벨 시스템, 그리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등의 세심한 안전조치들은 축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예측하게 함 ○ 미아가 발견되었을 때도, 곳곳에 배치된 공무원들이나 배치 요원들이 본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임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더운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단순한 피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먹고, 공유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창출해냄으로써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관광객들에게도 피서의 즐거움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쾌한 놀이문화를 제공함 ○ 봉화 지역의 관광자원인 은어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출해냄으로써 봉화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청정지역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 효과를 봄 ○ 은어를 주제로 한 축제로 시작하였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축제가 봉화지역의 농산물과 활용 가능한 관광자원의 상품화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 봉화지역 주민 전체의 단합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봉화 은어축제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37

포항 국제불빛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6. 7. 28(목) ~ 2016. 7. 31(일)

■ 장 소 : 영일대해수욕장, 형산강체육공원 일대

■ 주 최 : 포항시

■ 주 관 : 포항시축제위원회, POSCO

■ 주요행사

- 불꽃행사 : 개막 불빛쇼, Daily 뮤직불꽃쇼, 국제불꽃쇼
- 주제행사 : 포항프린지한마당, 불빛버스킹페스티벌, 불빛프레이드, DJ Rave Party, 폐막행사(황금빛불고기를 잡아라)
- 공연행사 : 불빛시네마, 뮤지컬 오브 라이트, 해외자매도시 공연, 팡! 팡! 영일만 물총대전
- 체험행사 : 영일대 불빛테마존, 불빛 러브레터, 연오랑 세오녀 커플 팔치 만들기, 모래로 그리는 무지개 빛그림, 산업의 불빛찾기, 과학불빛 만들기, 창조 불빛 공방, 희망의 불빛 바람개비 만들기, 불빛 우드버닝 메시지 쓰기, 샌드 썰매장, 바다 놀이기구 체험 키즈놀이터, 캐리커처, 거리화가 등
- 연계행사: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 한중리얼 문화교류, 포항의 맛 &락, 전국 농특산물 판매행사, 불빛축제기념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 전국수상오토바이대회, 불빛미술대전, 포항해변 전국가요제

(2) 총 평

■ 잘된 점

- 2016년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불빛 무지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불과 빛의 도시 포항’이라는 포항시의 지역이미지를 담아내는 축제로서, 지자체와 국가 대표기업인 포스코가 함께 협력하여 축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서로 상생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축제진행은 작년에 유사하게 진행됨. 우선 작년에 개최된 축제와 달

라진 점은 메인불꽃쇼 참가팀이 2개팀에서 3개팀(한국, 이탈리아, 대만)으로 늘어나 메인행사인 국제불빛쇼의 규모가 커졌음. 다음으로 불빛축제에 맞게 영일대 해상누각을 불빛테마존으로 특화시켜 관광명소화를 시도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함. 마지막으로 축제의 위상강화 및 글로벌 축제도시로의 도약으로 위해 부스 유료화와 유료프로그램을 확대했음.

-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구체적으로 축제 세부실행 계획, 상황별 추진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이 담긴 축제운영매뉴얼 작성과 배부를 통하여 축제 관계자들 간의 정보공유,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축제의 안정성을 기하였음
- 국제불빛쇼라는 주제에 맞게 메인행사인 국제불꽃쇼는 예년에 참가국 규모가 많아졌고, 세계적인 수준의 팀이 참가해 행사의 질을 높였으며 참가자들과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은 가장 큰 성과로 사료됨.
- 또한, 음악과 함께 연출하는 Daily 뮤직불꽃쇼와 함께 빔 조명과 레이저를 이용한 파노라마 라이트쇼를 연출함으로 효과를 높였으며 관람객의 호응도를 증대시킬 수 있었음 .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올해 개최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메인프로그램인 불꽃행사를 비롯해 주제행사, 공연행사, 체험행사, 연계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다양성이라는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으나 국제불빛쇼를 기대하고 방문한 외지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일원과 남구 형산강체육공원에서 장소가 이원화되어 진행되어 장소혼선과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야기했음.
- 한편, 동북아 CEO 포럼 등 축제주제와 상관이 없는 국제교류 행사가 다수 진행되어 많은 인력이 동원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동북아 CEO 포럼은 행사의 취지나 의도는 좋으나 축제연계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차년도에는 별도의 행사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축제콘텐츠와 프로그램 측면에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빛 관련 킬리콘텐츠 개발과 이를 축제프로그램으로 녹여내는 내실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많은 볼거리 중심의 축제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
- 마지막으로 보는 축제에서 참가자들과 지역주민이 불꽃이라는 주제로 함께 어우

러질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획은 불빛무지개라는 주제 하에 Daily 뮤직불꽃쇼를 중심으로 개막 불꽃쇼, 하이라이트인 국제불꽃쇼가 구성되어 있고, 불빛버스킹페스티벌 등 주제행사와 뮤지컬 오브 라이트 등 공연행사, 그리고 체험행사, 연계행사 등 불과 빛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주제에 맞게 구성되어 있음. 특히 메인 불꽃행사인 국제불빛쇼는 작년에 비해 참가국수가 3개국으로 늘어나 아직 확대의 여지는 있지만 어느 정도 국제불빛쇼의 구색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보여주는 행사로 프로그램이 대부분 구성되어 체험이나 참여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특히 축제의주제에 부합되게 불과 빛의 융합을 활용한 축제콘텐츠의 진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여러 지자체에서 불빛쇼를 개최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여주는 불빛쇼만으로 전국인 우수축제로 성장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포항시의 지향정체성인 불과 빛의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는 참신한 축제기획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임.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빛축제는 자체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가는 축제라고 생각됨. 시각적인 면에서 판타스틱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콘텐츠의 특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참가팀과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있음. ○ 포항국제불빛쇼도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가 이번 축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함. 물론 뮤직 불꽃쇼 등을 통한 콘텐츠 보강이 매년 이루어져 프로그램의 완결성을 더욱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레이저 불빛이라는 점에서 보여주는 축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보임. ○ 국제불꽃쇼의 경우 장엄함을 보여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은 했지만 각 팀별로 스토리와 주제를 가지고 불꽃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장치가 없어 각 팀별로 보여주는 시각적 요소외에 어떻게 다른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음. ○ 따라서 불과 빛의 프로그램화에 있어서 그것에 담긴 스토리와 주제를 참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적 요소가 불꽃쇼 프로그램에서 포함시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주제행사와 공연행사, 체험행사 등의 수가 너무 많으므로 평가를 통한 과감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축제주제와 관계없는 연계행사가 과다함. 다음 축제기획시 연계행사로 기획하는 것 보다는 필요하다면 축제행사에 개최되는 부대행사로 추진했으며 함. 특히 동북아 CEO 경제협력포럼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축제와의 연계성은 찾기가 어려웠음. ○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전시형, 공연형 프로그램 외에 외부에서 온 참가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험형 놀이프로그램이 강화되었으면 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영일대해수욕장과 형산강체육공원 일대에서 개최하다보니 다소 산만한 느낌이 듦. 향후 프로그램 수를 조정하여 축제운영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여름성수기 해수욕장 방문객과 축제참가들이 몰려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주차장, 화장실 등의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향후 축제장 진출입로 관리를 통한 이용동선관리 등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임 ○ 많은 지역의 단체들이 축제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함.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미아 등의 발생이 우려됨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 인원의 보강이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대한민국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대구경북권 및 부산경남권 대상 홍보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특히 백화점, 야구장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를 강화한 점은 높아 평가됨. ○ 축제가 해변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축제안전관리계획서가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도 잘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불꽃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항시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특히 이 축제를 통해 포항시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도약 하고자하는 비전이 명확하여 향후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짐. 또한 포스코라는 지역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축제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나 서울, 부산 등 여러 대도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유사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실한 차별화포인트가 약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양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질과 프로그램, 콘텐츠에 더욱 집중하여 내실 있는 불꽃축제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불과 빛의 도시라는 정체성에 맞게 축제기간 외에도 관련 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갖추어 축제와 함께하는 도시발전 모델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 방문객들이 해수욕과 축제를 함께 즐기고 있었으며, 지역에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었음. ○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거듭되는 개최에 따른 인지도와 더불어장소적 특성 등에 힘입어 젊은 층 및 외국인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38

영덕 대게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6년 3월 31일(목) ~ 4월 3일(일)
- 장 소 : 경북 영덕군 강구항 일원
- 주 최 :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
- 주 관 : 영덕군
- 주요행사
 - 주제공연 : 영덕대게 마당극, 어린이 뮤지컬
 - 5대 체험 : 영덕대게 달리기, 황금영덕대게 낚시, 영덕대게 올리기, 영덕대게 경매, 영덕대게 셔프음식
 - 야간행사 : 영덕대세 나이트쇼, 대게잡이어선 감성음악회
 - 기 타 : 영덕대게 포차, 거리공연, 취타대 행진, 영덕군 9개 읍면 노래자랑, 영덕대게 체험부스 운영, 영덕대게 어선 퍼레이드,

(2) 총 평

■ 잘된 점

- 총감독제를 활용한 전문성 강화
 - 영덕군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축제 전문가를 총감독으로 활용해 축제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이 개선되었음
 - 무엇보다도 총감독과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협력이 인상적이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 자원봉사단을 비롯해 지역 상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의 일손을 돕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음
 - 무엇보다도 대상지가 현재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인 강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이 찾아보기 어려웠음

-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장소 활용
 - 지역주민 생활터전인 강구항, 대게어시장 등을 활용한 축제장소 활용은 지역적인 특성을 지닌 효과적인 구상임
-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추진팀의 노력
 - 영덕군과 축제추진위원회는 총감독과 함께 작년 축제의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위원들의 의견사항을 반영하는 등 축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시설 배치의 어려움
 - 강구항이라는 특색 있는 축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완성도 높게 구현하기에는 축제장 규모가 다소 작았음. 현재 대상지를 주변 마을로 확대하여 강구항 및 인근 마을 전체가 축제장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함
- 날씨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 야외에서 진행되다보니 우천시 프로그램 진행이 다소 어려웠음. 관광객들이 비 맞거나 우산 쓴 채 공연 관람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음. 우천이나 바람 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유관기관 협력 필요
 - 영덕군, 축제조직위원회, 총감독 등이 축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다소 부족함.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효과적인 축제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 영덕군의 재정이 부족하다보니 축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나타냄. 유관기관 협조 및 스폰서 등을 활용하여 축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근성 및 홍보 미흡
 - 영덕군이라는 광역적 접근성이 어려움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영덕군 초입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으면 함. 특히, 주변도시 및 접근 지방도로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축제의 지역 확산 및 지속적인 지역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
 - 축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축제 기간 중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축제 참여자들이 영덕군 지역으로 분산되어 영덕군 전체의 지역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전문가 섭외를 통한 총감독제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덕군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축제 전문가를 총감독으로 활용해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함 - 특히, 총감독과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축제 발전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유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명확한 목적, 컨셉,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축제발전계획 하에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 다만, 축제와 연계하여 강구항 도시재생사업 및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축제를 통한 도시재생’이 가능하고 축제 측면에서도 활성화하는데 바람직할 것임 ○ 별도의 축제 총괄 조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총감독은 축제 준비 및 축제 진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대게축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진기구 설립이 필요함. 규모는 클 필요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축제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조직이 필요함 - 이 조직을 통해 총감독과 함께 축제의 기획, 관리운영, 결산까지 총괄하도록 함으로서 전문성 높은 축제 기획이 가능해 질 수 있음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장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생활터전인 강구항, 대게어시장 등을 활용한 축제장소 활용은 지역적인 특성을 지닌 효과적인 구상임 ○ 축제 소재의 특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수산물인 ‘대게’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주제를 선정함. 아울러, 인지도 측면에서 전국적이어서 축제 주제로는 매우 바람직함 ○ 대표 프로그램의 집중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5대 체험의 완성도를 강화할 방안이 필요함 ※ 5대 체험 : 영덕대게 달리기, 황금영덕대게 낚시, 영덕대게 올리기, 영덕대게 경매, 영덕대게 서프음식 -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대표 프로그램인 운영될 경우, 축제장 방송 등을 활용해 집객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분위기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분위기를 영덕군 초입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으면 함. 특히, 주변 도시 및 접근 지방도로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덕 대계를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 발굴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영덕대계 축제 기획의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음. 스토리와 축제의 시설/프로그램이 상호 일맥상통해야 함 ○ 영덕대계에 대한 인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계라는 생물을 가지고 잡는 체험만 할 것이 아니라 영덕 대계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영덕대계의 일생, 이동경로, 부화과정 등의 교육을 통해 축제의 목적이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생물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일깨우는 축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단을 비롯해 지역 상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의 일손을 돕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음 ○ 축제와 지역 숙박 연계하는 체류형 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구항의 야간관광꺼리 및 새벽 경매 등의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체류관광객 유치 방안 필요 ○ 유관기관 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덕군, 축제조직위원회, 총감독 등이 축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다소 부족함.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효과적인 축제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 축제 안전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영덕군에서 마련하여 축제 기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안전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 다만 아쉬운 점은 매년 축제안전관리계획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마을주민, 관광종사원의 사전 안전교육지침서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접근성 향상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역에서부터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음 - 축제 기간 중 포항을 비롯해 인근지역에서의 대중교통 연계 방안이 요구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시설 배치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구항이라는 특색 있는 축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완성도 높게 구현하기에는 축제장 규모가 다소 작았음 - 현재 대상지를 주변 마을로 확대하여 강구항 및 인근 마을 전체가 축제장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행사장 환경 및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쉬운 점은 일시에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남. 특히 화장실 확대방안이 요구됨 - 주차시설의 경우 축제기간 중 많은 대수의 주차가 가능하나, 주차 관련 방송이나 주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이 부족했음. 향후 어플리케이션 또는 실시간 검색 등을 통해 축제 기간 중 주차 정보 및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해야 할 것임 ○ 날씨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에서 진행되다보니 우천시 프로그램 진행이 다소 어려웠음. 관광객들이 비 맞거나 우산 쓴 채 공연 관람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음. 우천이나 바람 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거리적으로 멀다는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기대보다 많은 내국인들의 방문은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독특성이 반영된다면 접근성과는 무관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 축제로 지속적으로 대표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혹서기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관광객들의 참여는 꾸준히 있었으며, 축제를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봄 ○ 축제의 주제와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또한 많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음 ○ 방문객 집계는 계획서에 명시한 대로 각 부스별 두 명의 측정 요원이 배치되어 핸드계수기를 이용한 집계가 이루어짐

39

산청 한방약초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6년 9월 30일(금) ~ 10월 10일(월)

■ 장 소 : 동의보감촌, 정광들 일원

■ 주 최 : 산청군

■ 주 관 :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동의보감관: 4D 영상관, 주제 영상관, 동의보감 도서, 곤충 홍보관, 아이스 맨, 테라피 연출, 한의약힐링파트(세계대체의약, 왕가의 토탈케어, 약선음식, 한의약 재발견), 산청혜민서 무료진료
- 한의학 박물관: 동의보감 전시, 3D 영상관, 삶 속의 한의학, 약재 알아보기, 반신욕 및 족욕(전망데크)
- 산청약초관: 약초생태 전시(동의보감 가든)
- 한방힐링존: 한방기체험장(동의전), 구절초와 허준 순례길, 한방약초테마공원, 약초향기터널, 맨발로 걷는 황토 미로공원
- 한방향노화체험관: 힐링 뷰티관, 어린이 한방체험
- 동의본가: 동의보감 지혜 체험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등이 축제의 핵심 주제와 연관성이 높아 충실하게 기획 및 실행된 축제라고 판단됨
- 그동안의 축제 개최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축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향후 장기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축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축제 주제의 확대, 이미지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연간 1회가 아니라 2회 이상(예: 봄, 가을 등) 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에 더욱 많은 도움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핵심 주제(한방약초)에 맞게 축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으로 평가됨 ○ 이전 축제 개최시 제기된 개선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산청한방약초축제가 더욱 발전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관람객 계층 확대를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약초’가 갖는 고연령층 대상 축제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으로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힐링’, ‘웰니스’ 등 포괄적인 주제의 축제로 발전시키고 계층별 특화 프로그램(예: 아동-아토피, 수험생-집중력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한방약초라는 축제 주제에 부합하여 대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의미 전달력, 방문객 호응 등도 양호하다고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기획서에 대표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산청한방약초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1-2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한방약초라는 주제는 다른 축제가 갖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의료관광(양의학+한의학), 웰니스관광 관점의 축제들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축제 주제 및 컨셉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간단한 진료 및 치료 프로그램들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주체간 협력도 원활한 것으로 판단됨 ○ 축제의 캐릭터(약깨비, 병깨비 vs 준이, 금이)가 있는데 수가 많아 축제 이미지 형성 및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대표 캐릭터를 선정하여 집중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에 위치한 숙박시설에 투숙하는 관람객 등을 위한 야간 조명 등도 양호하다고 평가됨 ○ 축제장에 산청군을 소재로 한 여러 곡의 노래를 연속적으로 재생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군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의 학생, 지역주민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행사장 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 과거 축제에서 제기된 개선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보다 많은 지역에서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수도권 여행사 등과 협력하여 국내관광 패키지 상품의 코스에 축제를 포함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됨 ○ 축제가 개최되는 동의보감촌은 건축물 등 시설, 조정 등이 양호하며, 축제의 주제를 구현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됨 ○ 화장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주차 공간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또한 약초 판매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직접적인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하여 안전사고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군은 본 축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강력하며, 축제의 기획 및 운영, 동의보감촌 관리 등을 위한 인력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축제 준비 조직도 구축되어 있어 안정적인 축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의 참여 계층을 다양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축제의 개최 횟수를 증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축제 기간에는 비가 오는 일수가 많았는데 이는 축제 방문객 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산청군의 입지적 특성상 주요 시장인 수도권으로부터의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여행상품 구성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방문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진료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들이 직접 재배 및 채취한 한약재를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방문객 집계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문 집계지점의 경우 셔틀버스 승차장보다 앞선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보로 입장하는 방문객은 측정이 가능하나 셔틀버스로 입장하는 방문객은 다소 부정확한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셔틀버스 이용객들을 적절하게 집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0

통영 한산대첩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6년 8월 11일(목) - 8월 15일(월) 5일간

■ 장 소 : 병선마당 및 통제영, 이순신공원 등 통영시 일원

■ 주 최 : 통영시

■ 주 관 : (재) 한산대첩기념사업회

■ 주요행사

- 대표행사 : 고유제, 이순신장군 행렬 재현, 군점, 한산해전 출정식, 한산대첩 재현, 거북선 출정식
- 주 행사 : 개막식, 축하 불꽃놀이, 개막공연 뚱뚱/승전고, 이순신장군 전통무예시연, 이충무공 한산대첩기 제17회 전국남여궁도대회, 승전고를 울려라!, 한산섬 수루에 앉아(정가발표), 청소년 뮤지컬 '학의 날개', 제9회 거북선 노젓기 대회, 시민대동제
- 특별 행사 : 통제영 수책 건너기(소망다리)
- 기획 공연 : 힐링통영시민음악회, 젊음을 펼쳐라!(락 페스티벌), 재즈 나이트공연, 통제영 전통음악(정가발표, 시조장 발표, 통영전통음악)
- 전시마당 : 사진으로 보는 축제 반세기, 통제영 12공방 전시, 2016 통영 나전칠기 전시회, 통영 관광자료전
- 체험마당 : 이순신학교, 조선수군훈련, 통제영학당, 시민단체 홍보 및 체험활동, 해군 통영함 함정공개 및 체험, 해양경찰 1005호 함정공개
- 참여마당 : 축제 참가 인증샷 온라인 이벤트, 축제 행사기록사진 온라인 공모, 이순신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 탐방, 어린이 군점, 이순신장군과 한산대첩 관련 책놀이, 어린이 인형극, 자유거리공연, 통영 먹거리 무료시식 및 풍물장터, 이순신 투어

(2) 총 평

■ 잘된 점

- 제 55회 통영한산대첩축제는 ‘한산섬 달 밝은 밤에’란 주제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지향하며, 지역민의 자긍심과 화합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함
-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와 지자체,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협력체계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발효과가 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라 사료됨
- 대표프로그램이 차별적이고 독창적일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가 커 많은 방문객이 참여하여 진지하게 관람하였고, 외국인 방문객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현지하였으며 이들의 면담을 통해 구전이 방문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순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통영중앙시장 등 일반관광객의 이동이 많은 곳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행사장의 메인 공연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홍보 및 방문객 유입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축제 기간 동안 통영함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관람할 수 있게 한 것은 의미가 있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자연 자원과 더불어 축제의 방향성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잘 발달되었으나 운영적인 디테일이 아쉬운 축제로, 축제의 컨셉과 운영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며 기본적인 안내체계가 전체적으로 부족해 보임
- 시대 재현을 위해 의상을 갖춰 입은 배우 및 스태프들이 프로그램 시간에만 활용되는 부분이 아쉬웠으므로 공연시간 이외에도 행사장을 순회하며 방문객과 사진을 찍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축제 주제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외에 축제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전체 축제장이 스토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제장 공간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매년 혹서기에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마당의 주 무대 관람객을 위한 배려(차양막 설치)가 없음. 물론 부채를 나눠주는 배려는 좋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현재 국내 축제장에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외국인 대상 축제 홍보가 부족함. 따라서 축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과 실행계

획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축제운영시간동안 일부 부스는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었고 행사장내에서 자원봉사자와 행사진행자가등 축제관계자와 방문객이 구분이 되질 않아 방문객들의 안내등 편의도모에 차질이 보여 짐. 추후 부스운영자의 시간준수와 축제진행자들의 통일된 유니폼 착용으로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축제시 창원시 관광홍보관과 축제 관광안내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안내소의 협소등의 문제가 있는바 내년에는 관광안내소 관광홍보관을 공동운영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고 관광안내기능을 확충하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축제장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사장내 추천 이동동선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축제 추진시 지역의 문화적인 속성을 반영한 축제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이 필요하며 문화적 속성의 활용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회를 이어오는 동안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제의 전반적인 세부 프로그램 개발 우수한 점으로 평가됨 ○ ‘한산섬 달 밝은 밤에’를 주제로 주제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고, 축제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임무,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 계획, 분야별 추진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평가됨 ○ 축제장의 공간 계획이 주 무대, 체험무대, 먹거리 장터 등으로 구분이 되어 축제장의 혼잡도를 분산시켰으며,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 축제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내도와 날짜별 알기 쉽게 구성한 프로그램 휴대하기 간편한 미니 팸플릿의 기획력이 돋보임 ○ 축제장 주 무대 옆의 도로가 전통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협소하여 차량 통제 및 주차장 확보가 매우 어려워 관광객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한산대첩축제의 경우 혹서기 에 개최되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에는 전면 차량 통제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주간공연의 경우 주 무대의 관람석에는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이동식 차양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임. 한 낮에는 너무 더워 좋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즐기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없어 텅 빈 느낌을 주기 때문에 축제의 효과도 높이고 휴식공간으로도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의 경우 기관장들의 인사가 너무 길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사전에 제작하여 짧지만 재미있고 강하게 의미 전달을 하는 기획력이 필요해보임 ○ 축하 불꽃놀이의 경우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기다리는 프로그램인데, 개막식 이후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후 개막공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 무대를 이탈하여 좋은 공연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향후 축하 불꽃놀이의 경우 시간대의 조정이 필요함 ○ 한산대첩축제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강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축제장 전체로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함. 예를 들어 MC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복장의 착용이라던가, 이순신 장군을 선발하여 축제기간동안 각종 행사에 축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대표하는 것이 중요함. 모든 프로그램에 이순신 장군 내용은 빠짐없이 나오지만 정작 이순신 장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음 ○ 문화마당 주 무대 뒷면에 설치되어 있는 그림간판의 경우 프로그램을 잘 표현하도록 주제에 따라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만으로 운영되어 공연되는 프로그램에 강한 인상을 남겨주지 못하고 있음. 사소하다고 할 수 있으나 축제의 주제성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산해전 출정식은 당포만호(당포항)에서 거행되었던 한산대첩 출정식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주 무대인 문화마당에서 ‘거북선 출정식’의 형식으로 축제기간 매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 프로그램인 ‘한산대첩’에 앞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함 ○ 한산해전 출정식 재현에 앞서 한산대첩기념사업회장, 통영 시장, 통영시의 회의장의 기념축사를 간략히 진행하였음 ○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주로 노인층)이 동원되었으며 가족단 위 방문객이 다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자녀들의 교육목적으로 방문한 가족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출정식 프로그램 가운데 가운데 격구(노젓기)에서 관광객 참여가 이루어졌고, 혹서기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모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음 ○ 프로그램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되새길 수 있도록 진지 하면서도 간혹 익살스럽게 재현하였으며, 혹서기 관광객들 에게 냉수를 일일이 제공하였음 ○ 그러나 기관장들의 축사가 너무 구태의연하여 관광객의 불 평을 자아내고 일부는 잡담하고 야유를 보낼 정도이므로 차 후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18시 시작하여 간단한 식전행사 후 국내외 인사가 거의 30분동안 진행되었으며 또 한 늦게 참석한 인사들까지 중간 중간 소개하여 시간뿐만 아니라 축제의 흐름이 흐트러짐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산대첩기념사업회장의 인사만 간단히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한산대첩 재현의 경우 이순신장군이 학익진을 펼쳐 왜선을 격파하는 역사적 현장을 재현하였음. 실물제작 거북선 2척을 비롯하여 100여척의 선박(어민)이 동원됨으로써 당시 한산도 앞바다의 역사적 전투장면을 장엄하고 웅장하게 재현하였음 ○ 먼 바다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잘 설명해주는 해설사 도우미가 있어 적극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재현으로 이해하기 쉬웠으며, 또한 이순신공원 내 주 무대에서 배우들이 열연하여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하였음 ○ 관광객들은 행사 1시간 30분 전부터 방문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가족단위 및 친구들이었으며, 특히 친구단위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많았음(약 40명 정도) ○ 한산대첩 재현을 하기 전에 참여한 거북선, 해경선, 어선 등을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배우들의 대사연습과 무예연습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기다리는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워 이 자체가 관광상품으로도 손색이 없었음 ○ 이순신 공원의 경우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많아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통해 주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이순신공원에서 펼쳐지는 주 무대가 낮아 관람석에 서는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 관람석의 위치 및 공간배치에 문제가 다소 있음. 주 행사장 관람석은 한산도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익진의 오른쪽 부분 이 수목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아 관광객들의 이동이 있어 분위기를 어수선허게 만들어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 관람석 뒷부분에서 한산대첩 재현의 전 장면 및 사전프로그램 전부를 볼 수 있도록 대형스크린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현재 이순신동상 앞에 설치된 TV를 주 행사장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산대첩 재현 이후 후속 행사로 불꽃놀이와 농악 공연으로 한산대첩의 감동과 의미가 끝까지 전달되지 못함. 이 공연이 주 행사장이 아닌 곳에서 진행됨으로써 관람객은 재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리 이동하여 한산대첩의 감동이 끝까지 전달되지 않음. 향후 불꽃놀이는 거북선 위에서 진행함으로써 주행사장의 모든 관람객들이 자리이동 없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재현 후 유일한 참여프로그램이자 뒷풀이 마당이 농악인데 주차차량 관리 부재로 불편을 초래하였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마당에서 이순신공원으로 가기 까지 안내판 및 가는 길 등의 안내체계가 매우 미흡함. 주차장도 협소하였으며, 개별방문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안내 해주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음. 이순신공원으로 가는 동안 길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서틀이 있어 편리하였음 ○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다수이나, 주간에는 날씨의 영향으로 참여가 매우 저조함으로 야간 행사를 더욱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휴가시즌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동피랑 벽화마을, 섬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을 축제장으로 유인할 전략이 필요한데, 주변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하려는 기획이 없어 아쉬웠음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도시 및 품앗이 공연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이 아주 유익했음 ○ 국가지정무형문화재 공연, 통제영 12공방, 정가공연, 시조창공연 등 통제영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획력이 돋보임 ○ 서포터즈 영역을 확대하여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음 ○ 다양한 언론 및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음 ○ 몽골텐트의 색을 각 장소별로 통일하여 비교적 차분한 시각적 효과를 주었으며, 어둠을 밝히는 청사초롱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켜주었음 ○ 체험마당, 행정지원 마당 등에 설치된 부스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는 계속 열려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스는 운영을 하지 않았고, 메인 행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빨리 마감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참가업체의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일괄적 운영 및 철수 시간을 엄수하게 하는 것이 중요 ○ 자원봉사자 운영은 잘 되고 있으나, 축제 기간 내내 주 무대의 주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은 부족함. 여름이라 조금만 방치하더라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쓰레기를 줍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 축제장이 통영시의 구도심에서 열리기 때문에 신도시의 경우 축제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각종 배너 설치 및 입간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축제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잘 실행되지 않았으며, 배너의 경우도 눈에 잘 띄지 않아 축제의 분위기를 잘 살리지 못하였음. 향후에는 깃발모양, 색감의 강렬한 색채를 이용하여 통영시만의 배너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함 ○ 주 무대인 문화마당에 전체 행사를 알리는 대형 프로그램 안내판 및 행사 배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는 축제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향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필요함. 한여름에 개최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20시 전후의 공연프로그램 혹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봄 ○ 팸플릿, 통역 도우미 등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후 개선이 필요해보임 ○ 축제 주제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외에 축제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전체 축제장이 스토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제장 공간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임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축제로서 55년의 노하우를 발판으로 통영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류형·관광유도형 축제로의 전환 목표설정이 요구됨 ○ 축제 개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진행에 있어 체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축제 관계자들의 역할이 잘 구분되어 진행이 원활하고 협조적이며, 특히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공무원들의 협력이 돋보임 ○ 그러나 축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산대첩축제의 주관은 기념사업회가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축제를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최우수축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축제조직위원회의 설립이 시급해보임 ○ 향후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의 궁극적인 주체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축제 아카데미와 전문가를 결합하여 교육하고 논의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축제의 메인 콘텐츠가 이순신장군, 한산대첩 재현이기 때문에 배우들 외에 극적인 장치들(배경 및 전투장면)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함 ○ 분야별 프로그램 연출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감독이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설정하고 책임 있는 총괄 연출을 지시하는 축제 전문인력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함 ○ 축제 CI, 로고송, 캐릭터 등을 통해 체계적인 홍보체계가 필요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거리적으로 멀다는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기대보다 많은 내국인들의 방문은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독특성이 반영된다면 접근성과는 무관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 축제로 지속적으로 대표 프로그램을 서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혹서기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관광객들의 참여는 꾸준히 있었으며, 축제를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축제 성과	○ 축제의 주제와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또한 많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음

41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6. 10.28 ~ 11. 07 (총 11일간)

■ 장 소 : 마산항 제1부두 일원

■ 주 최 : 창원시

■ 주 관 : 마산가고파국화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주 제 : 희망의 꽃, 도약의 꽃
- 슬로건 : 국화가 전하는 가을편지
- 구 성 : 개막행사, 국향대전, 특별행사, 문화·예술행사, 체험행사
 - 공식행사 : 개막행사, 폐막행사, 합포만 멀티미디어 불꽃쇼
 - 국향대전 : 국화작품 8개 분야 / 7,600점, 꽃 생산 / 92,400본
 - 전시행사 : 국화분재, 분재, 수석, 야생화 등
 - 문화행사 : 국향콘서트, 고성오광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등
 - 경연행사 : 국화가요제, 국화 꽃그림 그리기 대회 등
 - 체험행사 : 국화주 시음, 국화떡 만들기, 국화비누 만들기 등 국화관련 체험
 - 참여/판매행사 : 국화상품, 국화음식, 국화공예, 국화시음행사 등
 - 특별행사 : 국화산업 홍보관, 지역특산물 홍보관, 해양레포츠 체험

(2) 총 평

■ 잘된 점

- 시내 중심에서 열리는 축제로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고 국화 시배지로써의 지역특성과 문화, 예술과 관광 창원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국화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10개의 테마를 기반으로 한 국향대전 등을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였고 지역주민중심의 축제 기획이 눈에 띈다.

-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을 확보하기 위한 국화테마 전시 콘텐츠 (키즈존, 러브존등) 개발하여 방문을 유도하려는 의지가 돋보였음
- 전년도 평가위원의 의견인 콘텐츠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니 전체적인 테마를 부여하여 그 테마에 맞게 조형물과 테마원을 꾸미고 스토리를 부여하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행사장 조성하였음
- 국화는 창원시의 주요산업으로서 국내 국화 생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국화산업 홍보관을 구성하여 국화를 활용한 다양한 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통하여 창국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해외 바이어 등과의 수출 협약체결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 전년도(2015년) 평가 지적 사항 중 하나인 지역연계 관광상품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올해 새롭게 선보인 ‘가을 & 국화나들이’ 프로그램은 지역관광자원의 연계 상품으로 구성되어 축제장과 창원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시티투어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관광 홍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축제기획매뉴얼, 안전매뉴얼을 수준 높게 기획, 제작하여 각 부서 간 공유함으로써 안전관리 측면에서 사전에 응급처치 교육 실시, 사전 재해대처계획 수립, 안전점검반 구성 운영, 119 안전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의 축제 운영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특히 야간 불꽃쇼 당시 많은 관광객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위험을 인지하고 가설 전망대를 통제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음.
- 지역특산물 및 향토 음식존 운영과 아울러 세계음식 거리존을 구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 거리의 제공 및 지역향토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지역주민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우리동네 국화동산 조성, 소마등 거리, 자원봉사 활동 등 축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지난해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축제명의 변경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바람대로 축제명에 가고파를 사용할 경우 가고파 시와 가곡등의 요소를 축제에 반영하여 방문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국화축제의 킬러콘텐츠는 국화꽃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화 전시품의 전시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짐. 다만 국화 전시품의 경우에는 사진의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는 전시물

의 구성과 포토존 등이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축제 방문객이 만들어가는 전시품 코너가 하나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정 공간을 비워두고서 당해 연도의 슬로건을 기반으로 하는 밑그림만을 제시한 상태에서 방문객들이 국화송이 하나씩을 직접 메꾸어 나가는 방식으로 완성해 나가는 전시품이 존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전시되는 국화나 꽃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몇몇의 꽃 전시물에서 꽃이 시들거나 제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는 등의 아쉬움이 나타나기도 했음
- 축제장 내의 편의시설의 좀 더 보강될 수 있다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또한 주차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주차민원이나 불만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 도로나 주차장 안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타 축제와 달리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지역의 음식이라기보다는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 축제의 즐거움중 하나인 지역음식체험 부분이 부족하였음. 또한 축제장 구역 밖 이진 하나 음식점 및 판매점의 환경이 열악하여 추후에는 개선을 하여야 할 것임
- 현재 국내 축제장에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외국인 대상 축제 홍보가 부족함. 따라서 축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축제운영시간동안 일부 부스는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었고 행사장내에서 자원봉사자와 행사진행자가등 축제관계자와 방문객이 구분이 되질 않아 방문객들의 안내등 편의도모에 차질이 보여 짐. 추후 부스운영자의 시간준수와 축제진행자들의 통일된 유니폼 착용으로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축제시 창원시 관광홍보관과 축제 관광안내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안내소의 협소등의 문제가 있는바 내년에는 관광안내소 관광홍보관을 공동운영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고 관광안내기능을 확충하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축제장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사장내 추천 이동동선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축제 추진시 지역의 문화적인 속성을 반영한 축제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이 필요하며 문화적 속성의 활용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화 시배지로써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일품종 국내 최대 꽃 축제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전시품과 국화산업홍보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기획됨 ○ 마산가고파축제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완·참조하여 체험프로그램의 확대, 테마가 있는 조형물의 전시,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먹거리 등의 확충을 기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과 참가를 유도하려는 기획의도 드러남 ○ 국화산업 도시로서의 지역 자부심과 지역문화,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연계로 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써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룬대작 등의 10개 테마를 바탕으로 총 110,000점 정도를 기획 전시함으로써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던 점에서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으로 기억되는 콘텐츠일 것임. 하지만 전시 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것으로 판단됨. 전시 공간이 연중 활용될 수 있다면 지속인 홍보 효과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표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시 작품에서의 다양성 확보 및 명확한 스토리텔링 등의 요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야생을 기반으로 타 지역의 꽃 축제에 비하여 인공미를 기반으로 하는 본 축제의 경우에 꽃의 생생함과 다양성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다양한 컬러를 기반으로 하는 전시품의 제작도 중요하지만 꽃의 싱싱하게 유지하고 최상의 시기를 선택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임 ○ 창원단감축제, 창원음식문화축제, 마산수산물시장경연만마당 등의 지역 행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도 적절한 형태였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가을 & 국화나들이’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원지역의 관광자원과의 연계상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였음 ○ 먹거리 분야는 국화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지역음식 및 세계음식 존 등을 별도 구성하여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한 점 등에서는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시스템, 주최측과 주관기관의 원활한 업무 협조와 공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교통 안내, 주차관리 등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행사장 내의 전시작품 안내요원, 사진촬영 도우미, 작품 설명자 등의 배치를 통하여 국화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뿐만 아니라 작품 전시의 내용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음 ○ 축제 홍보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방문객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하려는 등의 노력이 돋보였음 ○ 축제 행사장의 경우에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축제장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느낌을 살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적절했으며, 페스트푸드 트럭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음식점 등을 입점시키는 등의 노력이 돋보였음 ○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국화동산 조성사업, 소마등 거리 등을 조성하는 등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됨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시 축제 육성 및 지정조례안이 입안 중에 있는 등 축제를 육성하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짐 ○ 국화축제 상설조직체가 운영되지 않는 점에서는 다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또한 국화축제의 특성상 행사장 구성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간주도형 축제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축제 자립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축제 유료화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고파국화축제는 국화산업홍보관 등을 통하여 해외 바이어와의 협약식 체결 및 수출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 방문객뿐만 아니라 국외 방문객 유입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지역 관광자원의 홍보 및 국화 시배지로써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국화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 특산품의 생산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42

함양산삼축제

(1) 개요

- 기간 : 2016. 7. 29~8. 2
- 장소 :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 일원
- 주최 : 함양군
- 주관 : 함양산삼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황금 산삼을 찾아라
 - 함양 산삼 캐기 체험
 - 심마니 역사문화 체험장
 - 함양 산삼 경매 이벤트

(2) 총 평

■ 잘된 점

- 킬러 콘텐츠로 산삼 캐기 체험행사는 일반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아 큰 성과.
- 1천년이 넘는 상림을 활용한 넓은 행사장에 짜임새 있게 행사 배치.
- 행사장 인근 논에 연꽃 군락지를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 수익사업을 위해 외국 바이어를 초청한 세미나와 B2B 교역 상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상림공원 건너편에 중국인 관광객 숙소를 위한 1천억 원 투자 유치. ○ 4개국에서 산양삼과 농산물 200억 원어치 구입 의사.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산삼의 재배 및 개화시기 등을 고려해 설정된 축제기간은 어느 정도 타당. 행사장으로 부터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올 여름 폭염으로 방문객 이동에 불편을 줌.
- 시외버스와 연계 버스 등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며, 행사장을 거치는 군내 버스 정류

장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크게 불편함. 행사기간 동안이라도 버스 노선을 조정 하거나 행사장 가까이 임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인 함양 휴게소의 경우 이곳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또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많지 않아, 보완이 요구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여 년간 추진해온 산양삼 산업의 발전과, 2020 함양세계산삼 향노화엑스포의 발판 마련을 위해 일관된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음. 공원녹지형(상림공원)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축제 콘텐츠와 인프라가 잘 조화되었음. ○ 산삼의 고장 함양의 역사성과 청정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군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유망신규축제로서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완,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한 것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 높임. - 주차장 추가 확보 등.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공간을 세 가지로 구분했으나 프로그램간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메시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0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강장식품으로서의 산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한류와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획력이 필요함. ○ 유망축제에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삼과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토대로 한 킬러콘텐츠 및 스토리 발굴과 육성이 필요. ○ 산삼캐기 체험장에 산삼의 효능과 정보 제공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및 진행업무를 주민들의 자원봉사 및 협력으로 잘 운영되었고, 안내판 및 이정표 등도 정리가 잘 되어 있음. ○ 산양삼 재배 농가에서는 축제를 위해 25,000뿌리의 산양삼을 행사용으로 기부. (500 농가, 50뿌리씩) ○ 향토음식 코너의 먹거리가 부스마다 각각 다른 메뉴로 차별화되어 있어 이용객이 선택하기가 좋음. ○ 주차장에서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동선에 거대한 연꽃군락지를 조성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관리의 경우 관리 효율성을 위해 외부 용역업체를 활용하는데, 축제 자생력 확보 및 시민참여 기회 등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 전환을 고려해 보아도 좋을 듯.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의 열의와 참여가 매우 높으며, 2020 산삼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자생적인 축제 발전의지가 강한 것을 느낄 수 있었음.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산삼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주제에 대한 인식도와 메시지가 다소 낮음. ○ 산삼 맥주는 킬러콘텐츠로서의 상품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향이 짙은 외국 맥주를 활용함으로써 산삼의 풍미를 느끼기 어려운 것이 흠. 시음 및 일정하지 않은 판매시간과 제한은 아쉬움. ○ 연꽃, 여주, 당귀 등 지역 농특산물과 연관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판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 관광상품의 판매로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 올린 것으로 판단됨. ○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로 국내·외 바이어 방문 (중국, 베트남, 미국 등)이 눈에 띈.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해외 VIP고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관광/패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으로 보임. ○ 1천억 원의 관광시설 해외투자 유치 및 4개국에서 산양삼과 농산물 200억 원 어치 구입 의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2020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43

제주 들불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6. 3. 3(목) ~ 3. 6(일) / 4일간
- 장 소 : 제주시 일원(주행사장 :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
- 주 최 : 제주시
- 주 관 :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 주요행사
 - 들불 희망이 샘솟는 날
 - 봄업! 희망충전 문화예술한마당, 샘! 샘! 샘! 콘서트 등
 - 들불 희망이 영그는 날
 - 들불 희망기원제, 집줄놓기 경연, 희망 “달집” 만들기 경연대회, 개막주제공연, 희망 “달집” 태우기 등
 - 들불 희망이 번지는 날
 - 축제 발전포럼, 마상마예 공연, 너동배기 경연대회, 세계문화 교류 특별공연, 오름 정상 화산불꽃쇼 등
 - 들불 희망을 나누는 날
 - 제주 푸드 페스티벌, 희망 나눔 핫불대행진, 희망 달집 태우기 등
 - 부대행사
 - 축제사진 전국 콘테스트, 새별오름 향초 만들기, 외국인전용카페운영, 제주의 소릿길 체험 등

(2) 총 평

- 잘된 점
 -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변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 평가위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의 변화를 가져 옴

- 축제 추진시스템 구축 및 추진팀의 노하우
 - 굳은 날씨에도 체계적으로 축제 운영 및 수시로 진행요원들의 의사소통을 통해 축제를 진행함
- 전반적으로 축제의 기획, 운영이 우수
 - 시설과 프로그램 기획 면에 있어서, 2015년에 비해 시설과 프로그램이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음. 특히, 시설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관광객 동선 편의에 맞춰 축제 공간 배치를 새롭게 하였으며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함
-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실종아동보호 코드아담 모의훈련 실시, 사전 재해대처계획 수립, 안전점검반 구성 운영, 119 안전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날씨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 메인 무대가 우천, 햇빛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많음. 행사 대부분이 야외에서 진행되다보니 우천시 프로그램 진행이 다소 어려웠음. 관광객들이 비 맞거나 우산 쓴 채 공연 관람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음
- 행사 차질에 대한 안내 미흡
 - 들불 올리는 시간 변경 결정은 기상청과 협의하는 등 체계적이었으나 방문객 및 제주도내 방문예정객들에게 통보가 늦어짐. 들불올리는 행사는 메인 행사이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 후 이 시간에 맞춰 오려는 관광객들이 차질을 빚음
- 유관기관 활용 미흡
 - 축제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홍보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제주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을 활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축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축제 의미 부여 및 어린이 프로그램 미흡
 - 태국의 송끄란 축제 등과 같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들불축제 이상의 의미 부여가 부족했으며 대부분 성인들을 위한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축제의 기획, 운영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과 프로그램 기획 면에 있어서, 2015년에 비해 시설과 프로그램이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음. 특히, 시설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관광객 동선 편의에 맞춰 축제 공간 배치를 새롭게 하였으며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함 ○ 평가위원 및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해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평가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의 기획을 다변화하였으며, 특히 평가위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지역 전문가가 체계화한 것이 인상적임. 향후에도 지역 및 축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제에 부합하는 기획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불의 희망, 세계로 번지다”를 축제의 주제로 선정하였으나 실제 축제 프로그램이 이러한 주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임. 2015년에도 동일한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였으나 여전히 축제가 주제를 제대로 반영하여 기획되지 못하였으며 매년 동일한 축제주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매년 축제의 주제를 달리 하고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년 축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간프로그램 및 일요일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프로그램에 비해 주간프로그램의 차별성과 상품성이 부족해 주간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히 즐길만한 프로그램도 없었음. 또한 축제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축제의 메인프로그램인 오름불농기를 일요일 야간에서 토요일 야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축제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축제장을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낮 시간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낮 시간대에도 방문객을 축제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금요일과 토요일 프로그램의 반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요일 프로그램의 개편을 통해 일요일에도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아야 할 이유를 부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어 토요일에 태운 재를 활용하여 소원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용기에 담아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상품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만의 자원인 오름을 활용하고 이를 들불과 연계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모방하기 어려운 콘텐츠임.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축제장소(오름)를 활용한 것은 장소의 차별성을 부각시킴 ○ 축제 소재의 특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만의 자연자원인 ‘오름’을 활용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주제를 선정함. 아울러, 인지도 측면에서 전국적이어서 축제 주제로는 매우 바람직함 ○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33개 마을(읍면동) 주민의 풍물대행진은 제주시 전체 마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그 참여인원도 500명에 달해 규모 면에서도 방문객에게 웅장하고 신명나는 볼거리를 제공함 ○ 해외 공연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에서는 자비로 공연단을 보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축제 참여자에 의한 자발적인 축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 축제 의미 부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의 송끄란 축제 등과 같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들불 축제 이상의 의미 부여가 부족함 ○ 관람형이 아닌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물대행진은 농악이라는 특성상 방문객과 하나가 되어 신명나게 놀 수 있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연에 그쳐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음. 풍물대행진을 마친 후 방문객과 하나가 되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는 것이 필요함 ○ 개별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진의 길이에 따른 풍물대행진의 장단이 통일되지 못해 500명이라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장단에서 나오는 소리의 웅장함이 아닌 오히려 혼란스러운 느낌마저 들게 함. 무대중앙에서 장단을 조율하는 인도자의 박자에 맞추어 통일된 소리를 낸다면 방문객에게 훨씬 더 커다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방문객 참여형 메인프로그램 발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스를 중심으로 한 상설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단순체험형 프로그램에 그침.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설프로그램에서 메인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체험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방문객의 참여공간을 메인행사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 젊은 층 참여프로그램 개발 필요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빈약하여 축제장을 찾는 젊은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적음. 들불축제와 관련한 제주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어린이 프로그램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성인들을 위한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함 ○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불축제와 관련해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 발굴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축제 기획의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음. 스토리와 축제의 시설/프로그램이 상호 일맥상통해야 함 ○ 축제의 추억 매개체 설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를 추억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발굴이 필요함.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포토존 설치, 지인들에게 기념 편지를 쓸 수 있는 우체통 설치(우정국 협조, 기념카드 판매 가능) 등이 있음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축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상의 운영시간을 잘 엄수하여 진행하였으며 운영상의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음 ○ 축제 추진시스템 구축 및 추진팀의 노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은 날씨에도 체계적으로 축제 운영 및 수시로 진행요원들의 의사소통을 통해 축제를 진행함 ○ 기상청과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에서 들불을 이용하는 축제인 만큼 날씨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기상청을 운영의 한 축으로 해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올해 들불 올리는 시간을 기상청에서 결정하여 추진함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단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의 일손을 돕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음 ○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실종아동보호 코드아담 모의훈련 실시, 사전 재해 대처계획 수립, 안전점검반 구성 운영, 119 안전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 대응 매뉴얼 구비·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변화가 심한 한라산 중산간지역에서 축제가 진행됨에 따라 기상상황 악화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매뉴얼에 따라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함 ○ 방문객 공지 미흡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악화에 따른 프로그램 일정 변경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일정변경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부스 운영의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부스의 경우 오후 3시에 철수하거나 또는 점심시간에 체험프로그램 진행자가 자리를 비워 체험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우선 부스의 운영시간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점심시간에는 교대로 식사를 하여 방문객이 언제든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유관기관 활용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홍보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제주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을 활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축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날씨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 무대가 우천, 햇빛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많음. 행사 대부분이 야외에서 진행되다보니 우천시 프로그램 진행이 다소 어려웠음 ○ 행사장 환경 및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쉬운 점은 일시에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남. 특히 화장실 확대방안이 요구됨 - 주차시설의 경우 축제기간 중 많은 대수의 주차가 가능하나, 주차 관련 방송이나 주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이 부족했음. 향후 어플리케이션 또는 실시간 검색 등을 통해 축제 기간 중 주차 정보 및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해야 할 것임
4) 축제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추진팀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축제의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위원들의 의견사항을 반영하는 등 축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일부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및 민간기관 주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기획과 운영이 제주시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축제의 자생력과 발전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들불축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시 주도의 축제 기획 및 운영에서 탈피하여 주민이나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오름불놓기는 제주시가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하되 나머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단계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 필요함
5) 축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지역 확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축제 기간 중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축제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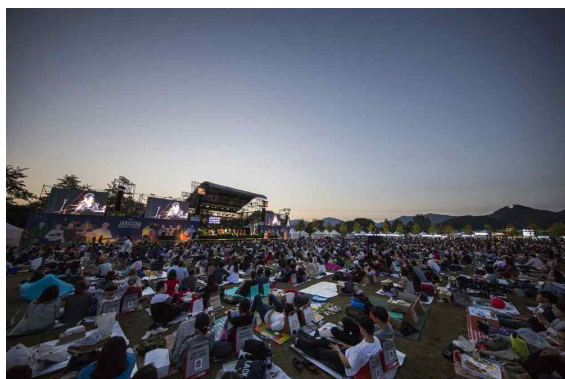
VI



1

2016 대표 축제

〈 자라섬재즈페스티벌 〉



재즈 아일랜드



재즈 큐브

〈 화천산천어축제 〉



산천어 맨손잡기



세계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

〈 김제지평선축제 〉



풍년기원 입석줄다리기



우마차 여행

2

2016 최우수축제

〈 추억의7080충장축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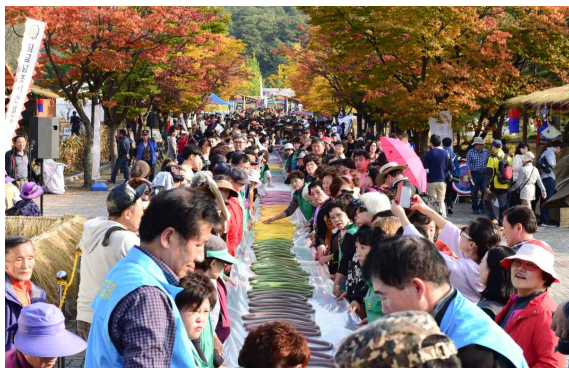


추억의 테마거리



추억의 별밤캠핑

〈 이천쌀문화축제 〉



무지개 가래떡 뽑기



용 줄다리기

〈 무주반딧불축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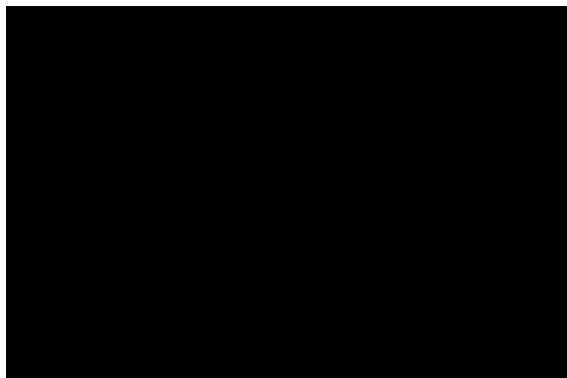


반디의 성



곤충 생태 전시·체험관

〈 강진청자축제 〉



물레성형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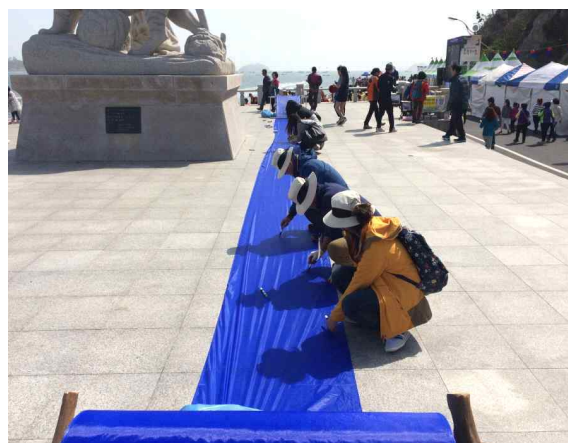


전통가마 불지피기

〈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



신비의 바닷길 재현



뽕할머니 소망띠 잇기

〈 문경찾사발축제 〉



찾사발 빚기



다레 체험

〈 산청한방약초축제 〉



허준순례길 걷기대회



한약재 썰기 체험

3

2016 우수축제

〈 평창효석문화제 〉



소망등 날리기



나귀체험

〈 강경젓갈축제 〉



젓갈김치담그기



보부상 난전재현놀이

〈 부여서동연꽃축제 〉



연지탐험



서동선화 나이트 퍼레이드

〈 순창장류축제 〉



2016인분 비빔밥 만들기



주먹밥 모자이크

〈 담양대나무축제 〉



대소쿠리 물고기잡기 체험



죽녹원

〈 정남진장흥물축제 〉



지상 최대의 물싸움



EDM 풀 파티

〈 고령대가야체험축제 〉



퍼레이드 “대가야의 진군”



대가야 복식 체험

〈 봉화은어축제 〉



은어 반두잡이



물난장 페스티벌

〈 통영한산대첩축제 〉



한산대첩 재현



벚짚 베기 시연

〈 제주들불축제 〉



오름 불 놓기



희망 달집 태우기

4

2016 유망축제

〈 한성백제문화제 〉



역사 문화 거리 행렬



한성 백제 체험 마을

〈 부산동래읍성역사축제 〉



동래성전투 실경 뮤지컬



동래 세가닥줄다리기

〈 광안리어방축제 〉



어기영차 그물끌자



맨손으로 활어잡기

〈 대구약령시한방축제 〉



청년허준 선발대회



한방 족욕체험

〈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



국내·외의 유명 라이브 뮤지션 라이브 공연



펜타포트 그레이트루키

〈 대전효문화뿌리축제 〉



문중 입장 퍼레이드



전국 효문화 청소년 페스티벌

〈 울산옹기축제 〉



옹기체험



옹기 난장촌

〈 여주오곡나루축제 〉



대형 가마솥, 여주쌀 오곡비빔밥 체험



민속마당

〈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



함안 화천농악



전통혼례 재현

〈 춘천국제마임축제 〉



아!수라장



봄의 도시

〈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



따뚜공연장 무대 퍼레이드



한국 전통의 날

〈 괴산고추축제 〉



황금고추를 찾아라



전국 고추요리 경연대회

〈 한산모시문화제 〉



저산팔음 길쌈놀이



모시 패션쇼

〈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태종 대왕 행렬 및 강무



민속놀이마당

〈 완주와일드푸드축제 〉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화덕체험

〈 고창모양성제 〉



모양성제 거리퍼레이드



답성놀이 체험

〈 보성다향대축제 〉



차 만들기 체험



녹차 족욕 체험

〈 목포항구축제 〉



풍어 길놀이 '목포는 항구다'



소원물고기 등 페스티벌

〈 영암왕인문화축제 〉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삼호 강강술래

〈 포항불빛축제 〉



국제불꽃쇼



불빛 버스킹 페스티벌

〈 영덕대게축제 〉



영덕대게잡이 어선 퍼레이드



앗싸! 영덕대게나이트쇼

〈 마산가고파국화축제 〉



국화동산



국화분재

〈 함양산삼축제 〉



황금산삼을 찾아라



버블버블 DJ SHOW

201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 기획	김 태 훈 (관광정책관) 박 형 동 (관광콘텐츠 과장) 이 명 진 (관광콘텐츠 사무관) 최 가 람 (관광콘텐츠 주무관)
◆ 문화관광축제 총평	지 진 호 (건양대 교수) 오 훈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설문조사결과 종합	오 훈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강 선 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2016년 전문가 현장평가위원	강 준 수 (안양대 교수) 김 병 철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세 준 ((주)그린비전 대표) 김 재 호 (인하공업전문대 교수) 김 주 연 (신한대 교수) 김 창 수 (경기대 교수) 민 양 기 (충청대 교수) 변 우 희 (경주대 교수) 심 원 섭 (목포대 교수) 이 병 민 (건국대 교수) 이 상 호 (부산대 교수) 이 석 호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 우 상 (한국국제대 교수) 지 진 호 (건양대 교수) 최 동 희 (광주대 교수) 최 승 목 (청운대 교수) 최 영 기 (전주대 교수)

발 행 : 2017. 2월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http://www.mcst.go.kr>

관광콘텐츠과 (TEL : 044)203-2854)

ISBN